

국가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 정 호
공동연구자 | 신 일 용
조 지 윤
조 윤 동
이 용 백
전 효 선
장 호 성
박 찬 호
최 원
연 근 필

국가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E 2010-13

발행일 | 2010년 12월 29일

발행인 | 김 성 열

발행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 서울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전 화 | (02)3704-3704

팩 스 | (02)730-7487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ISBN | 978-89-6313-664-6 93370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머리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1998년 1월 1일자로 개원한 뒤, 지금까지 다양한 부문의 연구와 자료 개발 및 중요한 국책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들 국책 사업 가운데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각종 국가고사를 들 수 있다. 국가고사 중에는 수능을 비롯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에 따라 위탁한 것도 있고, 교사임용고사와 같이 시·도 교육청이 요청한 경우도 있다. 경로는 다를지라도 모두 정부가 정책에 근거하여 평가 전문기관인 KICE에 위탁한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고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배경이다. 따라서 그 시행 하나 하나가 바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면서 고 부담 시험인 각종 국가 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서 교육적으로, 사회적 등으로 많은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국가 고사 출제 및 관리체제의 특성과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KICE에서 수행하는 국가고사의 성공적인 출제 및 관리 체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국가고사의 특성과 가치를 탐색하여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판단의 준거체제를 마련하고, 외국의 대학입학시험 체제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 고사 출제 및 관리 체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기존 국가 고사의 출제 체제나 관리 체제에 대한 지속적 점

검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체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여 국가고사의 성공적인 수행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벽한 국가 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해 주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0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성열



연구요약

본 연구는 국가고사의 ‘기본 시스템, 운영 체제, 진행 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KICE가 수행하는 국가고사의 특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외국의 대학입학시험 체제 중 참조할 요소는 무엇인가?’, ‘국가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의 사례로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은행, 인쇄 체제를 들어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를 문제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KICE가 시행하는 국가고사의 특성으로는 세 가지를 설명하였는데, 첫째 KICE가 연구에 기반한 국가고사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국가고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국가고사는 수험생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연구에 기반한 국가고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하여 지켜야 될 중요 가치로 국가고사를 시행·관리하는 조직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성공적인 해결을 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곧 핵심적인 가치체계로서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의의를 검증하고,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치를 합법성, 공정성, 효율성의 세 가지로 상정하였다. 첫째 가치는 합법성이다. 공공의 성격을 띤 국가고사이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과 결과처리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가치는 공정성이다. KICE의 모든 국가고사는 성적에 따른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공정성이다. 셋째 가치는 효율성이다.

사업을 수행할 때는 먼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데, 이는 비용효과와 일의 체계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외국의 평가 사례를 조사하였다. 일본과 중국 및 프랑스·미국의 출제 체제를 조사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험 시행일자에 대한 시사점이다. 우리의 수능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서 오는 수험생의 부담이 있다. 시험 당일의 시험운과 상황에 수험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현행의 수능 시험 시행 방식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재 하루에 모든 과목을 치루는 시험 기간을 다소 늘리거나 과목을 축소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출제문항의 구성 체제에 대한 시사점이다. 우리의 수능은 5지선다형 문항인데 비해, 중국, 프랑스, 미국의 경우 필기시험은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형 출제 방식은 사고력을 제한하고 암기 중심의 교육을 유발하므로,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 중심의 서답형 출제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째, 출제방식에 대한 시사점이다. 중국은 합숙 출제이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문제은행식과 출퇴근하면서 문항을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능이 자격고사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은행식 출제도 고려할 수 있으며, 시험의 횟수도 늘려나갈 수 있다.

제 3장에서는 국가고사 출제체제 개선 방안의 사례로 학업성취도, 문제은행, 인쇄 방법을 들었다.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 도달도 확인, 학생들의 보정 교육, 서열 화 방지, 다양한 정보 도출, 시험 문제 풀이식 학습 방지, 문항의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은행체제는 시험의 복수 운영과 장기합숙 출제 체제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유용한 출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항 보안과 동등화 등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 첨예한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은행 체제를 도입할 때 배경요인과 현실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미리 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쇄체제는 단기간에 정확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개선의 초점이 있다. 그런데 인쇄는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기와 인쇄과정 및 보안 등을 다각

도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내어야 한다. 현재 KICE가 하는 여러 가지 국가고사의 인
쇄를 안전하게 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은 복수인쇄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인쇄업체를 최소한 세 곳 이상 육성하여 보안하에 복수로
운영하면 현재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갖춘 인쇄업
체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정책 지원도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고사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자 향후 연구와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KICE가 시행·
관리하는 국가고사는 장기간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
구는 매년 계속해야 한다. 둘째,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할 때는 관련 조건에 대
한 심층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셋째, KICE는 미션에 있는 대로 국가고
사를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 연구 과정과 운영 체제를 융합형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 백



차례

I. 국가고사 관리체제의 논점과 가치	1
1. 국가고사 관리체제의 논점	3
2. 국가고사 관리 체제의 가치	8
II. 외국의 고사 관리 체제	15
1. 일본	17
2. 중국	34
3. 프랑스	44
4. 미국	64
5. 종합 시사점	83
III. KICE 국가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	85
1. 학업성취도평가 개선방안	87
2. 문제은행제의 의의와 도입 조건	92
3. 인쇄 체제 개선 방안	112

IV. 요약 및 제언	125
1. 요약	127
2. 제언	129
 * 참고 문헌	 133
* ABSTRACT	139
* 부록: 외국의 고사 출제 체제 상세 자료	141

표 차례

<표 I -1> KICE가 관리하는 국가고사	7
<표 II-1-1> 대학입시센터 상근 인원 구성	22
<표 II-1-2> 센터시험의 구성	23
<표 II-1-3>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변화 추이	24
<표 II-1-4> 센터시험 지원자 및 응시자 수의 변화	25
<표 II-1-5> 2009년도 센터시험 시행 과정	26
<표 II-2-1> 韓中 兩國 大學入學試驗 概要	35
<표 II-2-2> 2010학년도 韓中 兩國 大學入學試驗 시행 현황	35
<표 II-2-3> 高考의 構成	37
<표 II-2-4> 高考의 圈域別 試驗科目	40
<표 II-3-1>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와 입시 제도	46
<표 II-3-2> 바칼로레아의 종류	47
<표 II-3-3> 일반 바칼로레아 문과계열(L) 시험과목	51
<표 II-3-4> 일반 바칼로레아 경제사회계열(ES) 시험 과목	52
<표 II-3-5> 일반 바칼로레아 과학계열(S) 시험 과목	53
<표 II-3-6> 2010년도 바칼로레아 일정표	58
<표 II-4-1> SAT 검사 시기	67
<표 II-4-2> SATRT 개요	67

<표 II-4-3> SAT Subject Test 개요	68
<표 II-4-4> ACT 개요	76
<표 II-4-5> 무선집단 동등화 설계를 이용한 동등화 연계 계획의 예	79
<표 III-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요	87
<표 III-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의 단계별 특징	88



그림 차례

[그림 I -1] KICE 국가고사 구성 체제 모형도	11
[그림 II-1-1] 대학입시센터 조직도	19
[그림 II-1-2] 고교 등 신규 졸업자 수에 대한 응시자 수의 변화 추이	26
[그림 II-1-3] 대학입시센터 운영 방식	28
[그림 II-4-1] SAT의 동등화를 위한 행렬 표집의 예	72

여 백

I . 국가고사 관리체제의 논점과 가치

1. 국가고사 관리체제의 논점
2. 국가고사 관리 체제의 가치

여 백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고사 관리 체제와 시행 과정에서 효과와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화시킬 수 있다.

첫째는 국가고사의 기본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이나 정책을 통해 구축해 놓은 국가고사 기본 체제가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또는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변형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주제로 하는 이 질문은 시행 관리 과정을 가지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예를 들면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은 현재와 같이 언·수·외 및 탐구 등의 선택형으로 하여 1회 시험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바로 기본 시스템이다. 그리고 교사 임용고사를 1차 선다형, 2차 논술형, 3차 수업발표형의 3단계로 진행하는 것도 기본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다. 이것은 정책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도 정책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는 국가고사 운영 과정의 조직 체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시스템이 확정된 뒤,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기술적인 상황이 있다. 이것은 기본 시스템이 개편되면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 시스템과 관계없이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문항을 출제할 때 장기 합숙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은행식으로 할 것인지는 운영 과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쇄나 채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이 부문은 기본 시스템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한 운영 기관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셋째는 국가고사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것이다. 고사 시행은 모든 과정이 매뉴얼로 규정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밀성의 흠결이 있다면 구성원도 업무상 과실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매뉴얼이 정교하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시스템이나 조직 체제와 달리 자체 점검과 인력 재배치나 재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가고사 체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과제인 국가고사 운영 과정의 조직 체제에 초점을 둔다. 첫째인 기본 시스템은 법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시적인 과제이고, 세 번째는 내부 일하는 방식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미시적인 일이다. 우리는 둘째 주제에 집중하면서도 나머지 두 가지도 필요한 경우에 같이 보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고사 중 특별히 대학입학시험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¹⁾

<논점 1> KICE가 수행하는 국가고사의 특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이 주제는 체제 개선 방향을 모색할 때 판단의 준거체제가 될 것이다.

<논점 2> 외국의 대학입학시험 체제 중 참조할 요소는 무엇인가? 이 주제는 외국 사례를 도입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논점 3> 문제은행 성립 조건은 무엇이고, 인쇄 개선 방안은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모두 KICE 국가고사 체제의 여러 가지 현안 중의 한 요소이며, 실무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상정하여 체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KICE가 10여년 이상 계속 국가고사를 시행 관리를 해 오면서 혹 성공함정(success's trap)

1) 대입체제가 모든 국가고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고사에 내포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인식도 없지는 않다. 성공함정이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큰 사고없이 잘 하고 나면 언제까지나 잘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가운데서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위기가 오기 쉽다는 역설을 말한다.

한편 런던비즈니스스쿨의 도널드 설(Donald Norman Sull) 교수가 말하는 활동적 타성(active inertia)도 성공함정과 같은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 자신들이 성공해 온 발자취나 방식을 그대로, 그것도 열심히 답습하려는 성향이 활동적 타성이라고 한다. KICE가 사회적 쟁점이 많이 있는 국가고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매일경제, 2010. 12. 18-19 Cover Story '再起의 비법' 알려주마)

성공함정이나 활동적 타성은 모두 국가고사 운영 과정에도 적용하여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참조해야 될 개념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법제화된 국가고사를 주어진 기본 시스템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시행할 때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보다는 안전위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시행기관은 지금하고 있는 국가고사의 체제가 완벽하며 구성원의 역할수행이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가상의 신뢰 구간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적인 주관적 신뢰는 외부 환경과 만나는 순간 바로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시 비판적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사 운영 체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먼저 KICE의 국가고사 현황과 개념체계를 보기로 한다.

KICE는 1998년 1월 1일자로 개원한 뒤, 지금까지 다양한 부문의 연구와 자료 개발 및 국가고사와 교과서 검정같이 중요한 국책 사업을 해 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문이다.

(http://www.kice.re.kr/ko/board/view.do?menu_id=10119)

- o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시행
- o 학교 교육 지원 사업
- o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및 검·인정 업무
- o 각종 국가 고사 출제 관리

이 중에서 KICE가 수행하는 국가고사는 다음 <표 I-1>과 같다.

국가고사 중에는 수능을 비롯하여 학업성취도평가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에 따라 위탁한 것도 있고, 교사임용고사와 같이 시·도 교육청이 요청한 경우도 있다. 경로는 다를지라도 모두 정부가 정책에 근거하여 평가 전문기관인 KICE에 위탁한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고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배경이다. 따라서 그 시행 하나 하나가 바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KICE가 하는 과제 중에서 교육과정 연구 개발이나 교수·학습 모형 개발은 학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연구 활동이며 사회적 지지도 받기 좋은 것이다. 그러나 평가를 하는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 수많은 수험생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각종 평가(국가고사)는 언제 시·비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업이다. 대표적 국가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 및 초·중등 교사임용시험은 참여자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KICE는 전문적 연구를 통해 완벽한 시행 관리를 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능의 정답 시·비나 임용시험의 공정성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안전 관리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대응 미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표 1-1> KICE가 관리하는 국가고사

고사명	위탁기관	위탁근거	실시횟수	주요업무			
				출제·인쇄	시행	채점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임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 초등공동관리위원회 초공위 81823-32('99.10.5)	· 12회 (‘99~)	●		●	
중등교사임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 중등공동관리위원회 공위-10('08.7.1)	· 10회 (‘01~)	●		●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	의·치의학교육입 문검사협의회	· 교육인적자원부 대령 81000-759('03.6.25) 및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와 계약 체결 (‘03.9.3)	· 7회 (‘04~)	●			
약학대학입문 자격시험 예비검사*	한국 약학교육협의회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교협 제10-15호 (‘10.4.21)	· 1회 (‘10)	●		●	
약학대학입문* 자격시험 본 검사			· 1회 (‘10)	●		●	
법학적성시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와의 계약 체결('08.6)	· 3회 (‘08~)	●		●	
한국어능력시험* (년4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국협 81600-249 (‘99.2.26) · 교과부-평가원 업무위탁협약('08.8.6)	· 20회 (‘99~)	●	●	●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전,후기)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44조 제4항	· 26회 (‘98~)	●	●	●	
고입·고졸검정고시 (년2회)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 교육부학총 81742-986 (‘98.11.23)	· 24회 (‘99~)	●			
고등학교신입생 선발시험	9개 시·도 교육청	· 경기 중등 81211-1124 (‘98.7.12)	· 12회 (‘98~)	●			
수능/모의평가2회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시행령		●		●	
학업성취도평가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교육법9조 및 시행령		●			

* 2011년도에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될 과제임.

이제는 국가고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조건이 변해가고 있다. 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사소한 부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관리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나면 정리되지만, 그 과정에서 KICE나 정부 및 사회가 치루어야 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²⁾

그러면 앞으로 국가고사에 대한 외부 수요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부의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까? 먼저 국가고사의 구성체제를 통해, 특성이 무엇인지부터 보기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구성체제는 국가고사의 기본 시스템 보다는 운영 과정상의 조직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어느 정도 통제나 변경해 볼 수 있는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고사를 시행하기로 정부가 결정하여 KICE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임하여야 한다. 국가고사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시행 과정에서 완벽하게 관리하라는 조건으로 정부가 위탁한다. 그러면 KICE가 시행하는 국가고사의 특성은 무엇일까?

가장 큰 특징은 KICE가 연구에 기반한 국가고사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KICE는 앞에서 보았던 네 가지 부문의 연구 사업 과제를 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각종 평가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행한다고 설립목적에서 밝혔다. 즉 국가고사를 단순히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연구를 통해 고사의

2) 예를 들면 2011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46번 문제(채권가격)의 문항 구성 및 정답에 대한 논란은 수험생과 학계 및 언론을 통해 이어졌다. 유관 학회 세 곳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공적인 결정을 하여 정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의 10여일 동안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계량할 수 없는 정도였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능은 더 안전성을 높이도록 진보해 가겠지만, 그 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

합목적성을 실현하며 발전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육과정에 근거한 연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KICE만이 할 수 있는 평가의 특성이다.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교과서 검정을 하며,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기획하는 과정은 모두 교육 평가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연계 고리가 약해진다면 KICE가 시행하는 각종 국가고사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국가고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KICE 국가고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고사들은 한 단계 한 단계가 사전에 정해진 대로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추진 일정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 조금이라도 일정상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출제는 시험일자가 미리 고지된 뒤 시작하는 데, 인쇄와 배포 일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매일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출제 일정이 늦추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모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내 일 처리가 국가고사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과제이다. 그만큼 국가고사도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진행 과정도 하나하나 정교하게 짜여져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수능시험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원이 동원되는 경우, KICE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과 같이 차질 없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출제를 완벽하게 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다. 어떠한 사유도 일정상의 계획을 어기면서 차질을 빚는 것이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진행 과정상 보안 유지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도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참여하는 사람과 진행되는 일의 내용에 대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국가고사의 기본조건이다.

국가고사는 수험생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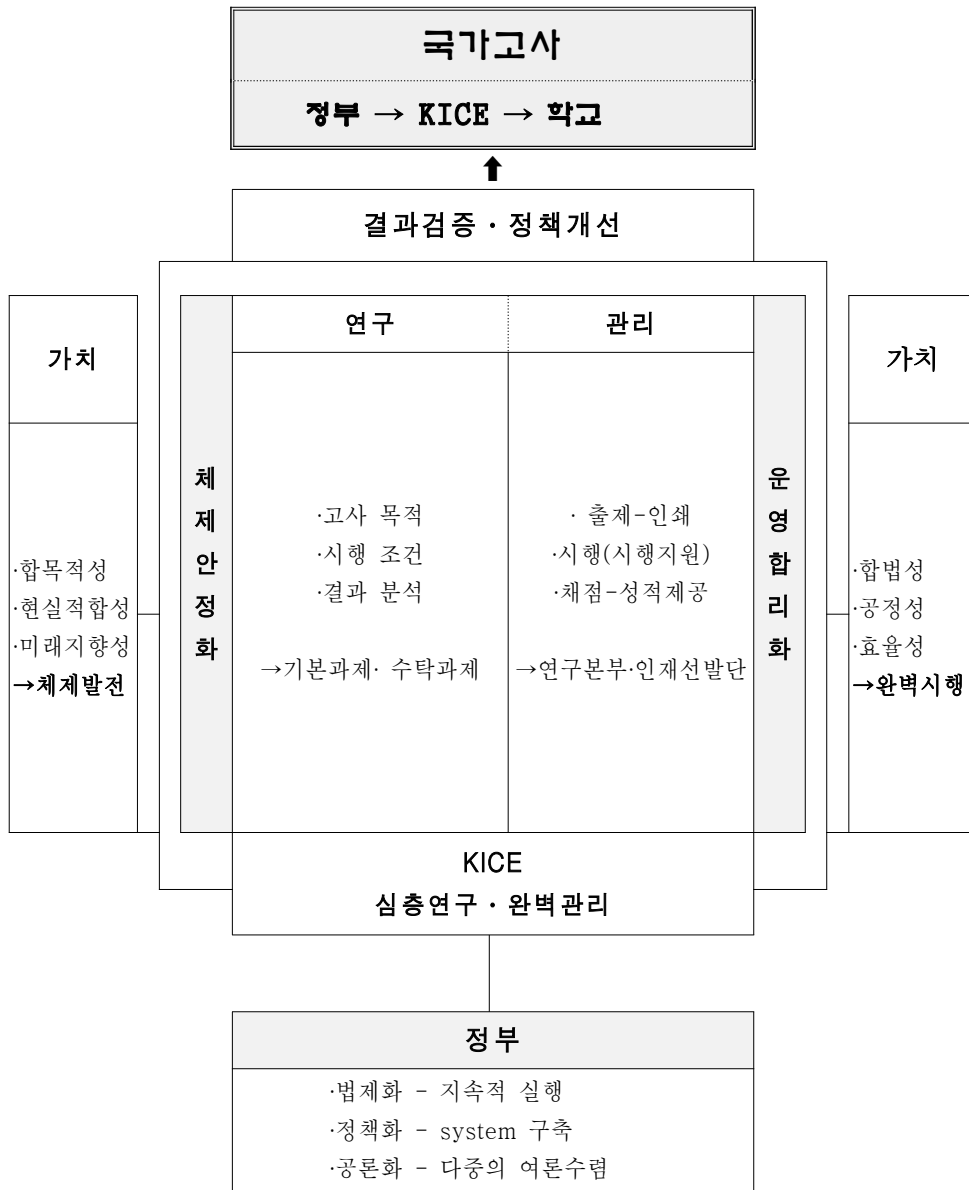
KICE가 국가고사를 통해 행사하는 권한은 당연히 수요자인 수험생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혜를 베풀어 시험 볼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

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고사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제공해야 되는 많은 행정 서비스 중에 국가고사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고사는 모든 과정이 시행자인 정부나 KICE의 편의성보다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질적 강화라는 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시험 방향을 안내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 수험생의 민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모두 행정 서비스 개념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KICE가 이러한 국가고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고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획에서 채점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해 낸다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그림 I-1]과 같은 체계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KICE가 수행하는 국가고사는 모두 ‘정부 → KICE → 학교’라는 세 부분의 주체가 참여하는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KICE는 주로 정부가 결정한 평가 정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나 수험생에게 돌려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자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실하게 구현하면서 동시에 참여자인 학교나 수험생의 여론도 반영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림 1-1] KICE 국가고사 구성 체제 모형도

정부가 결정하여 KICE에 위탁한 대부분의 국가고사는 ‘공론화 → 정책화 → 법제화’의 단계를 거쳐 공적 권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단계라도 확보되지 못하면 정책의 권위나 추동력이 약화된다. 이 중에서 공론화 과정은 국가고사의 토대가 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그 수혜자 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간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론화 단계를 거치면서 변형되기도 하고, 원래 취지대로 정착되기도 한다. 평가를 하는 국가고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꼭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과열경쟁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그 다음 정책화 단계로 넘어가도 정부가 여론대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고, 정책철학과 지향가치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은 국가고사를 어떤 구조로 시행할지, 즉 기본 시스템을 정하는 것이다. 그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 국가고사는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수능이나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업성취도평가 등이 그러하다.

이렇게 기초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국가고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하여 지켜야 될 중요 가치가 여러 가지 있다. 물론 기준이 되는 가치는 타당성 그 자체가 가치판단의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고사를 시행관리하는 조직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성공적인 해결을 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곧 핵심적인 가치체계로서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의의를 검증하고,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는 그 가치를 합법성, 공정성, 효율성의 세 가지로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는 합법성이다.

공공의 성격을 띤 국가고사이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과 결과처리는 법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정부가 성문법으로 제정한 법규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천명한 정책이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원칙과 지침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국가고사가 합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자체 규정을 제대로 정해 놓아야 된다. 물론 그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타당하며 올바른 가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문화 과정을 거쳐 정리된 이상 가치 논쟁이 있더라도 국가고사 시행기관에서는 그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KICE는 국가고사 시행하면서 관련되는 연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사의 관련 법규와 자체 규정의 정합성과 시행과정의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 점검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어떤 고사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합법성의 강도를 완벽한 단계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치는 공정성이다.

어느 시험이든지 성적의 차이에 따라 수험생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운전면허시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성적과는 무관하게 일정 기준만 도달하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대립이 없다. 이런 국가고사라면 누가 출제를 하거나 어떻게 시행을 하더라도 큰 시비는 없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원할 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회만 같게 준다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KICE의 모든 국가고사는 성적에 따른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진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서열화가 되는 것이 이 국가고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국가고사의 성격이다. 그 기본은 출제 문제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임용고사를 볼 때 대학이나 성 또는 지역에 따른 결과적인 차별이 없다면 누구도 시비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정성은 국가고사의 핵심가치이다. 이 공정성은 곧 투명한 관리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

국가고사를 시행관리하는 과정에는 수험생말고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외

부 인력이나 민간 기업이 많이 있다.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합숙장소를 선택할 때, 진행과정을 정해진 법규에 따라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일 처리가 투명하지 않는 경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가치는 효율성이다.

사실 어떤 국가고사이든 출제→인쇄→시행→채점 및 통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사업을 수행할 때는 먼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부터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비용효과와 일의 체계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먼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하여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는 화폐비용만이 아니라, 인력과 시간이 포함된다. 사실 인력과 시간 자체가 화폐단위로 한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따로 나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잉인력이나 무제한 시간투자 등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국가고사를 시행하면서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이 적정한지, 합숙기간은 꼭 그렇게 필요한지, 인쇄과정의 기간은 줄일 수 없는지, 채점에 참여하는 인력은 조정할 수 없는지 등이 모두 효율성 판단의 소재가 된다.

효율성은 또 일하는 체계면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로 일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가고사 출제체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 진단은 이런 관점에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³⁾

3) 물론 효율성도 운영의 안전성이라는 전제하에서 추구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국가고사는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II. 외국의 고사 관리 체제4)

1. 일본
2. 중국
3. 프랑스
4. 미국
5. 종합 시사점

4) 이 부문에서는 외국의 대학입학시험과 관련된 사례만 제시한다. 수능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고사에 외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일이 많은 데, 나라마다 역사적 전개 과정과 기층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배경과 시험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비시켜 판단해 보아야 도입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여 백

가. 일본의 대학 입시 체제

일본의 대학 입학시험은 대학입시센터시험과 개별학력시험(우리의 본고사)으로 구분된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독립행정법인인 대학입시센터⁶⁾에서 1월 중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는 일본의 대학 공통 입학시험이다.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은 ‘대학입학자선발 대학입시센터시험’이지만, 줄여서 ‘센터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이다. 이 시험은 OMR 카드에 체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에 따라서 출제된다.

일본 대학 입시의 공통시험 구상은 1960년대 이후에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입시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과 너무 생소한 문항의 출제로 야기된 소위 ‘입시 지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및 여당에 의해 국립대학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시험이 도입되었다.

센터시험의 전신인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되었다. 이 시험은 국립대학 입학 지원자의 기초 학력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시험이었다.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의 5개 교과 7개 과목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된 대학입시센터가 주관하였다. 그러나 공통시험 도입 후 사교육의 개입으로 대학·학부·학과의 서열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5년에 국립대학협회가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의 개혁안을 결정했고, 문부성은 ‘쇼오와(昭和) 62년도의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의 출제

5) 이양락 외 29명 (2009). 일본 대학입시센터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46.의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6) 대학입시센터는 1977년 국립학교설치법 개정에 의해 국립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9년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법이 제정되면서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교과와 관련되는 해답 방법 등에 대하여'라는 1987년도에 시행될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임시교육심의회의 제1차 답변에서 '새로운 공통시험(가칭 신테스트)' 구상이 제안되었다. 같은 해 문부성은 대학입시개혁협의회를 설치하여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의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학입시개혁협의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추진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시험을 1989년 신입생 선발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의 연구와 시범시행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시험은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명칭이 결정되었고, 예정보다 한해 연기된 1990년에 제1회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시행되었다.

대학입시센터는 센터시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대학입시센터요람, 2009).

첫째, 어렵고 기이한 문항 대신 양질의 문제를 확보한다. 1978년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도와 범위를 벗어난 어렵고 기이한 문항의 출제가 꽤 많았지만 공통 제1차 학력시험과 센터시험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항을 배제한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게 되어 고등학교 관계자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각 대학이 실시하는 시험과 적절한 조합으로 대학입시의 개성과 다양성을 살린다. 센터시험을 이용함으로써 소논문 면접 등을 실시하는 대학과, 추천입학, 귀국자녀,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센터시험은 대학입시의 개성화와 다양화에 공헌하고 있다. 특기자 선발이나 추천 입학에 센터시험을 이용하는 예도 있다.

셋째,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입시개혁을 유도한다. 사립대학 참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험을 이용한 사립대학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넷째, 아라카르트(à la carte)⁷⁾ 방식으로 각 대학에 적합하게 이용한다. 센터시험에서는 이용 교과 과목을 각 대학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아라카르트 방식으로 각 대학이 그 대학 학부에 필요한 교과 과목을 지정할 수가 있다.

대학입시센터는 이사장(소장)을 비롯하여 독립행정법인을 구성하는 상설 부서와 대학이나 고등학교, 교육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로 구성된다.⁸⁾ 대학입시센터의 조직 구성은 [그림 II-1-1]과 같다.

7) '식단에 따라서'라는 의미의 프랑스 말로,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성에 따라 한 가지씩 마음대로 주문하는 요리를 이르는 말이다.

대학입시센터의 조직도에 나타난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운영 심의회

이사장의 자문에 따라 대학입시센터의 사업 계획,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공립대학 관계자, 경험 있는 전문가 및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험 기획 위원회

센터시험의 실시 계획, 출제 교과 과목, 출제 범위 등의 기본 방침 및 시험문제의 문장 표현, 구성, 출제 방법, 해답 방법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센터시험 문항 제작 요령의 책정 등에 대해서 연구 심의한다.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원 및 경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실시 방법 위원회

센터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원 및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시험 특별 조치 검토 위원회

센터시험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입학 지원자에 대한 시험 특별 조치에 대해서 연구 검토 및 구체적인 심사 등을 한다. 국·공·사립대학의 교원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교과 과목 제1위원회

센터시험의 시험문제를 작성하는 위원회로 매년 6교과 28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만들고 있다. 400명이 넘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원 등으로 조직되어 국어, 수학(I, II),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지리역사(세계사, 일본사, 지리), 공민(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이과(이과종합A, 이과종합B,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공업수리기초, 부기·회계, 정보관계기초의 출제과목의 문항제작부와 점자문항제작부 등 모두 24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 교과 과목 제2위원회

교과 과목 제1위원회가 작성한 센터시험의 시험문제에 대해서 구성, 내용, 해답 및 표현 등을 점검한다. 100명이 넘는 교과 과목 제1위원회 경험자인 국·공·사립 대학의 교원 및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출제교과 과목 수에 따라 21개의 점검 부서를 두고 있다.

○ 교과 과목 제3위원회

교과 과목 제1위원회가 작성한 센터시험의 시험문제에 대해서 형식, 표현 및 각 과목 간의 정합성,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국·공·사립대학의 교원 및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 점검 협력자

센터시험의 시험문제 난이도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점검한다.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조직된다.

○ 시험문제 평가 위원회

센터시험의 시험문제를 평가한다. 국·공·사립대학의 교원 및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국어 출전 데이터 작성 위원회

각 국·공·사립대학의 입학시험문제의 국어 출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입력 데이터를 심사하며,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 득점 조정¹⁰⁾ 판정 위원회

각 년도마다 센터시험의 결과에 관해서 센터시험의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문제의 난이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점수 조정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국·공·사립대학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 득점 조정 판정 전문위원회

전문적인 입장에서 센터시험의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점수 조정의 필요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준비한다. 대학입시센터의 교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10) 본 보고서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에 사용된 ‘득점 조정’은 고유명사의 의미를 살려 그대로 제시하였으나 본문 내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득점 조정’ 대신 ‘점수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전국대학입학자선발 연구 연락 협의회 기획위원회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입학자 선발 방법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나 학술대회 등을 기획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이상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 이외에 대학입시센터에 상근하는 인원은 100여명 정도로 그 구체적인 구성은 <표 II-1-1>과 같다.

<표 II-1-1> 대학입시센터 상근 인원 구성

이사장 (소장)	이사 (부소장)	시험·연구 총괄관 (부소장)	감사	시험·연구 부총괄관	총무기획 부·사업부	연구개발부			합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1	1	1	1 (1)*	2	81	3	6	3	99 (1)*

* () 안은 비정규직 인원임.

2009. 4. 1 현재

대학입시센터는 공통학력시험을 주관하는 업무 이외에 1988년부터 ‘대학 정보 제공 업무’가 소관 업무로 추가되어 진로 선택에 유용한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전국 모든 대학의 학부·학과의 특색에 관한 정보는 물론, 교육 연구에 관한 정보, 입학자 선발 방법, 대학 소재지나 전문 분야, 입학 등록금,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자격, 졸업 후의 진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센터는 16,275m²의 부지에 연건평 12,581m²의 본관 건물과 678m²의 부속 건물을 보유하여 시험 문항 제작 및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은 2009년의 경우 11,019,000,000원(백십억 천구백만 원)이었다.

나. 센터시험 개관

(1) 시험 구성 및 시행

(가) 센터시험의 구성

센터시험의 출제 과목은 2009년 현재 6개 교과 28개 과목이며, 시험의 구성은 <표 II-1-2>과 같다.

<표 II-1-2> 센터시험의 구성

시험일	교과	출제 과목	배점	시험시간	과목선택 방법
제1일	공민	현대사회, 정치·경제, 윤리	100점	9:30~10:30(60분)	3과목 중 택 1
	지리 역사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200점	11:15~12:15(60분)	6과목 중 택 1
	국어	국어*	200점	13:30~14:50(80분)	
	외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필기 : 200점 듣기평가**(영어): 50점	15:35~16:55(80분) 17:35~18:35(30분)	5과목 중 택 1
제2일	이과①	이과종합B, 생물 I	100점	9:30~10:30(60분)	2과목 중 택 1
	수학①	수학 I, 수학 I · 수학A	100점	11:15~12:15(60분)	2과목 중 택 1
	수학②	수학Ⅱ, 수학Ⅱ · 수학B, 공업수리기초, 부기·회계, 정보관계기초***	100점	13:30~14:30(60분)	5과목 중 택 1
	이과②	이과종합A, 화학 I	100점	15:15~16:15(60분)	2과목 중 택 1
	이과③	물리 I, 지학 I	100점	17:00~18:00(60분)	2과목 중 택 1

* 국어의 출제 범위에 한문이 포함되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한문을 분리하여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분석함.

** 듣기 평가에서는 'IC player'라고 불리는 음향재생기기가 개인별로 지급됨.

*** 본 보고서에서 부기·회계, 정보관계기초 과목은 직업탐구 영역에서 분석하였음.

출제과목은 모두 28개이고, 수험생들은 이들 과목 중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응시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표 II-1-3>에서 볼 수 있듯이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는 9과목이다. 수험생은 각자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부 또는 학과가 지정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로는 외국어에서 '영어(필기)'를 보는 경우, 지원하는 대학의 학부와 학과가 '영어(듣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수험생은 반드시 듣기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 과목은 수능과 달리 수험생이 미리 선택할 필요가 없고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선택할 과목을 표기하여 시험 당시에 바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주로 7~8개 과목을 선택하고, 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3~4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5년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변화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선택 과 목 수	9과목	19,719	3.8	21,485	4.2	21,435	4.2	20,234	4.0	18,945	3.7
	8과목	124,607	23.8	106,086	20.9	102,593	20.1	95,083	18.9	90,526	17.8
	7과목	151,672	28.9	163,214	32.2	166,686	32.6	171,935	34.1	178,922	35.2
	6과목	21,969	4.2	20,018	4.0	19,436	3.8	18,676	3.7	18,753	3.7
	5과목	30,027	5.7	26,596	5.3	25,600	5.0	24,418	4.8	24,886	4.9
	4과목	46,841	8.9	53,129	10.5	52,637	10.3	48,935	9.7	48,563	9.6
	3과목	109,436	20.9	98,071	19.4	104,172	20.4	107,119	21.2	109,329	21.5
	2과목	16,973	3.2	15,048	3.0	15,558	3.0	15,076	3.0	14,835	2.9
	1과목	3,359	0.6	2,812	0.6	3,115	0.6	2,911	0.6	2,862	0.6
응시자 합계		524,603		506,459		511,272		504,387		507,621	
평균선택 과목 수		5.85		5.88		5.83		5.81		5.79	

(나) 센터시험의 시행

① 센터시험의 대상 및 실시 규모

대학입시센터에서는 센터시험의 응시자격을 각 대학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밝히고 있다.

-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기관¹¹⁾을 졸업한 자 또는 해당 학년도 졸업 예정자
- 통상의 과정으로 12년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해당 학년도 3월 졸업 예정자
-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예정자

이상의 응시자격을 만족하는 희망자는 대학입시센터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시험

11)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총칭한다.

응시를 신청하며, 신청할 때 개인별 성적 통지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청서도 함께 접수시켜야 한다. 응시에 필요한 검정 수수료는 2009년 현재, 3교과 이상에 대해 응시할 경우 18,000엔, 2과목 이하에 응시할 경우 12,000엔을 낸다. 개인별 성적 통지에 대한 수수료는 800엔을 받고 있다.

센터시험은 1년에 1회, 1월 중순의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된다. 2009년의 경우, 1월 17일(토), 18일(일)에 실시되었다. 2009년 이후부터는 시험일을 1월 13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과 일요일로 확정하여 문부과학성에서 각 국·공립대학장에게 통보하였다.

센터시험이 실시되는 1월 중순¹²⁾은 매우 추운 동절기이기 때문에 눈이 내려 공공교통 운행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시험의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별실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임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일본 대학입시의 전형 방법은 대학에 따라 다양하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학 희망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센터시험을 입시에 활용하는 사립대학과 단기대학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시험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센터시험의 지원 및 응시자 수는 <표 II-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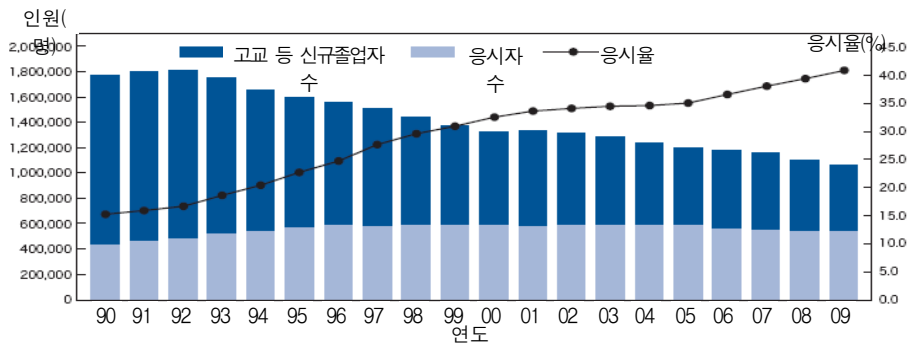
<표 II-1-4> 센터시험 지원자 및 응시자 수의 변화

연도	지원자 수(명)	응시자 수(명)						응시율 (%)
		본시험	추가 시험	재시험	본시험 + 추가시험	본시험 + 재시험	전체	
2005	569,950	524,393	101	-	59	50	524,603	92.04
2006	551,382	506,241	125	-	78	15	506,459	91.85
2007	553,352	511,105	77	-	73	17	511,272	92.40
2008	543,385	504,136	65	-	82	104	504,387	92.82
2009	543,981	507,105	125	-	84	67	507,621	93.32

* 표에서 '추가시험', '재시험'은 본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사유에 따라 추가시험이나 재시험에 응시한 경우이고, '본시험+추가시험', '본시험+재시험'은 본시험 응시 도중에 해당 사유로 인해 치르지 못한 과목만 추가시험이나 재시험으로 응시한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12) 일본은 신학기가 4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가 수능보다 더 늦다.

상세한 실시 규모는 2009년 시험을 예로 들면, 먼저 지원자 수는 543,981명으로 전 연도에 비해 596명 늘었다고 한다. 센터시험 시행 초기부터 응시자 수의 변화 추이는 [그림 1-2]과 같다. 90년대 초에 고교나 중등교육기관에서 한해 졸업하는 학생 수는 약 180만 명을 넘다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 졸업자 중에서 센터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다소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 전체적으로 응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1-2] 고교 등 신규 졸업자 수에 대한 응시자 수의 변화 추이

② 센터시험의 시행 절차

센터시험의 시행 절차는 2009년의 경우 <표 11-1-5>과 같은 순서로 시행되었다.

<표 11-1-5> 2009년도 센터시험 시행 과정

시기		시행 과정
2008년	7. 31	국·공·사립대학의 선발요강 발표
	9. 1	선발·시험 안내서 배부
	10. 1 ~ 10. 14	응시원서 접수
	12월 중순	수험표 교부
2009년	1. 17 ~ 1. 18	시험 실시
	1. 21	시험 자료 중간발표
	1. 23	접수 조정
	1. 24 ~ 1. 25	추가시험 및 재시험 실시
	2. 3 ~	성적 제공
	2. 5	시험 자료 최종발표
	4. 6 ~	성적 열람

시험 실시 후 이루어지는 시험 자료 중간발표에서는 시험의 난이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선택과목 간의 평균 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점수 조정을 실시한다.

시험 실시 후 이의 신청 제도는 따로 두지는 않지만 시험 종료 후 약 3일 안에 사설 학원이나 교사가 입시 센터에 문의를 할 경우,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추가시험¹³⁾은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센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국 두 곳에서 실시되었다. 수험생이 추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준에 의해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심사하고 응시를 허가해야 한다.

폭설·지진 등에 의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센터시험이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지 못했거나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은 추가시험이 실시되는 날에 같이 실시하고 이날에도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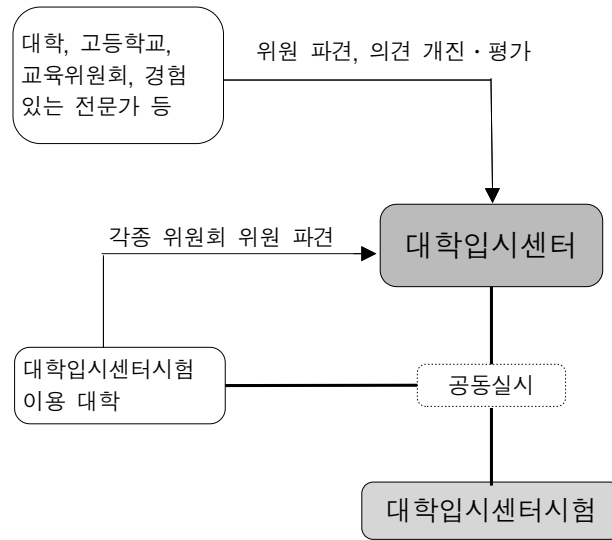
수험생이 시험 장소에 지각하는 경우에 시험장 입실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신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배려가 주어진다.

- 점자 출제·해답, 확대문자 출제, 시험 시간의 연장, OMR카드 마크 방식에 따르지 않는 문자 또는 표기 방법으로 답지 작성, 대필에 의한 답지 작성, 수화통역자 배치, 특별 시험실 배정
- 중증 난청자 등 듣기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듣기 시험 면제

(2) 출제 체제

대학입시센터의 운영 방식은 [그림 II-1-3]와 같다. 문항 제작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고등학교, 교육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 시험은 이 시험을 이용하는 국·공·사립의 각 대학이 대학입시센터와 협력하여 같은 날에 동일한 시험문제로 공동 실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13) 구체적인 설명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II-1-3] 대학입시센터 운영 방식

센터시험을 공동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시험문제의 작성, 인쇄, 운송
- 시험 안내, 실시 매뉴얼 등의 작성
- 원서 접수, 시험장 지정, 수험표 교부
- 답안 채점, 집계
- 시험 성적 각 대학에 제공
- 시험 성적 본인 제공

한편 센터시험을 입시에 이용하는 대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센터시험의 이용 교과 과목 및 입학 사정 방법 예고
- 시험장의 설정, 시험 감독자 등의 선출
- 지원자의 수험 안내 배부
- 시험 실시, 시험지와 OMR카드 정리·반송, 시험 성적의 청구
- 시험 문항 제작자 파견

센터시험 문항 제작은 3개의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교과마다 센터시험의 문항을 작성하는 교과 과목 제1위원회, 작성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로 제1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자로 구성되는 교과 과목 제2위원회, 각 과목 간 내용의 적합성과 중복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교과 과목 제3위원회로 되어 있다. 교과 과목 제1위원회는 과목마다 20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재임 중의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들은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업무 연계를 위하여 1년마다 50% 정도만 교체된다.

각 교과별 선택과목 사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축적된 문항 제작이나 난이도의 조정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시험의 문항 수와 배점을 정한다. 고려해야 할 적절한 항목을 정하여 최근 평균 점수 변화 등을 참고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한다. 또한 센터시험의 난이도에 관해서는 매년 각 과목의 평균이 만점의 60%가 되도록 목표를 정한다. 과목마다 문항 수와 배점, 문항 구성에 관해서는 각 부서 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특정 과목에서 문항의 개수나 배점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질문 형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센터시험 문항은 본시험용 1세트, 추가시험용 1세트로 1년에 총 2세트의 문항이 제작된다. 본시험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시행되는 시험이고, 추가시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시험을 치루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시험 일주일 후에 전국 두 개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시험이다. 본시험과 추가시험의 난이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추가시험이 본시험보다도 어렵다는 평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들 시험 간의 난이도 차이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시험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으로 인해 본시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시행되는 시험을 재시험이라 한다. 재시험은 본시험에서 실시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행되며, 추가시험과 같은 날 같은 문항으로 치러진다.

문항 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한 달에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정도 대학입시센터에 마련된 보안시설에 모여 문항 제작 작업을 하는 출퇴근 방식을 취한다. 보안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치며, 출제에 필요한 자료나 도구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올 때는 아무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3) 점수 체제

(가) 센터시험의 이용 방법

대학에 따라 합격자의 최종 판정에서 센터시험 득점의 이용 방법은 다양하다. 센터시험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센터시험 단독형

센터시험 결과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형태로 일부 사립대학에서 대학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정규 입학시험과 별개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입학 정원은 정규시험보다 적고, 센터시험의 득점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득점이 요구된다.

○ 센터시험 + α형

센터시험의 결과와 2차 시험(대학에 따라서는 소논문과 면접시험 등도 포함한다)의 결과를 합산해서 종합성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형태이다. 현재 거의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입학자 선발 시험의 형태가 이 형태에 해당한다.

○ 센터시험 1차 선발형

센터시험 결과를 제1차 선발¹⁴⁾에만 이용하고 최종적인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과거 우리나라의 본고사에 해당하는 제2차 시험(개별학력시험)의 결과만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나) 센터시험의 점수 산출 절차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센터시험에서도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 문제는 존재한다. 센터시험의 ‘이과’ 과목은 많은 수험생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의 과목 중에서 1개 또는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지만 대학은 과목에 관계없이 결과로

14) 소위 ‘아시끼리(あしきり)’라고 불리는 단계로서 국·공립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나쁜 사람을 우선 탈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얻어진 점수를 ‘이과 과목 점수’로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러한 것은 지리역사와 공민 과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선택과목 시험의 경우에 그 난이도와 표준편차의 차이가 크다면 선발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출제 과정에서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 차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센터시험에서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점수를 조정한 경우는 1998년 ‘지리역사’의 지리B와 일본사B의 과목 간에 현저한 평균점 차이로 인한 점수 조정이 현재까지 유일한 경우였고, 센터시험의 전신인 공통 제1차 학력시험에서는 ‘이과’ 과목 간에 현저한 점수 차가 발생하여 1989년에 점수 조정을 한 경우가 있다.

현재는 센터시험에서 선택과목 간의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이유가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점수를 조정한다. 점수 조정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수학과 외국어 과목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 지리역사의 ‘세계사B’, ‘일본사B’, ‘지리B’
- 공민의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 이과의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학 I’

점수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1997년 센터시험에서도 ‘수학’ 과목에 있어 학습지도 요령의 구과정과 신과정 대응 과목 사이에 큰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 해에 대학입시센터는 그간 발생한 센터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①고등학교 관계자에 의한 난이도 등의 점검 체제 정비, ②점수 조정 실시 방법에 대한 검토, ③시험 결과의 중간발표, ④신과정 대응 및 구과정 대응의 2개 과목의 별도 출제, ⑤고등학교 관계자를 출제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 대학입시센터에 ‘득점 조정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점수 조정 방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해 11월에 센터시험의 점수 조정 실시 방법이 발표되었다. 이 방법은 1998년도 ‘지리역사’ 과목에서 발생한 점수 차에 대한 점수 조정에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방법은 ‘분위점차축소법(reduced percentile method)’이

라 불리게 되었다. 분위점차축소법에 의한 점수 조정은 일반적으로 평균 차이가 20 점 이상일 경우에 검토되며, 조정을 하는 경우라도 원점수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동백분위 방법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일본 시험풍 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원점수 절대주의’ 사고방식에서 고안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측정학적 방법은 아니며, 현행 센터시험의 시험제도와 수험생의 시험에 관한 심리상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된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길석 외, 2007). 1996년도까지는 ‘회기득점의 분부에 근거한 동백분위 방법’이라는 공통시험을 이용한 방법으로 점수 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시험과목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이용할 공통시험으로서 적합한 시험과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다) 센터시험의 점수 제공 방법

센터시험에서 점수란 과목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 점을 부여하여 매긴 점수이다. 각 시험의 만점은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200점 만점이며 각각의 하위 문항에 적절히 배점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영어의 듣기 시험은 50점이 만점이다.

대학입시센터는 센터시험의 시험문제, 정답 및 하위 문항의 배점을 시험 실시 후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의 응시자 수, 평균 점수, 최고 점수, 최하위 점수, 표준편차 등에 대해서 중간발표를 1월 하순에, 최종발표를 2월 초순에 한다.

각 대학은 해당 대학의 입학지원자가 제출한 센터시험 성적청구표를 근거로 지원자의 성적을 대학입시센터에 청구한다. 대학입시센터는 각 대학의 청구에 따라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과목의 시험 결과를 제공한다. 대학입시센터가 각 대학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개인별 과목별 점수 및 합계 점수

국어는 대학이 특정 분야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목별 점수에 분야별 점수가 제공된다. 영어는 필기·듣기 별 점수가 제공된다.

○ 과목별 평균점, 표준편차 등

영어에 대해서는 필기·듣기별 평균점, 표준편차 등이 제공된다.

각 대학이 대학입시센터로부터 입학지원자의 시험 성적을 제공 받는데 있어 한사람 당 1회에 한해 570엔의 성적 제공 수수료를 대학입시센터에 납부한다.

수험생에게는 성적 발급을 희망한 경우에만 센터시험 성적표가 발급된다. 성적 제공 수수료는 800엔이며 통상적으로 모든 대학 입시가 완료된 시점인 그 해 4월 이후에 신청한 수험생에게 각 과목의 성적이 인쇄된 용지가 우송된다. 수험생은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센터시험 점수를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센터시험의 문제를 풀 때 문제 용지에 답을 메모해 두었다가 신문 등의 매체에서 발표되는 정답 및 배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을 추정한다. 이와 같이 추정한 자기 채점의 결과를 대형 학원에 보냄으로써 지원한 대학의 지망자 중에서 자기 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대강 알 수 있게 된다. 센터시험 수험생의 대부분은 복수의 학원에 자기 채점 결과를 보내기 때문에 학원 별로 수험생의 순위나 합격 판정의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일은 별로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해 센터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센터시험 점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은 대형 학원 등이 제공하는 센터시험 결과의 자기 채점을 기초로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로서는 학생의 자기 채점 결과와 최종적인 시험 결과의 자기 신고 자료를 보관·축적해서 고등학교마다 독자의 진학 자료를 작성해서 학생의 진로지도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센터시험의 성적은 2002년부터 그 전년도 센터시험 성적까지 대학입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왔으나, 2010년부터는 과거 3년간의 센터시험을 대학입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이 2008년에 발표되었다.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식 절차는 없으나 학원을 통해서 민원을 출제위원에게 보낸다. 기간은 시험 자료 중간발표와 최종발표 사이의 3일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가. 중국의 대학 입시 체제

중국 대학입학시험의 정식 명칭은 ‘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인데 일반적으로 ‘高考(까오카오)’ 또는 ‘統考’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다. 까오카오의 주요 목적은 대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 성적 제공과 동시에 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질 교육’과 ‘공민문화소질’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¹⁶⁾ 까오카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거의 모든 과목에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지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까오카오는 教育部考試中心에서 시험 문제를 통일적으로 출제하다가 2004년부터 경제·사회가 발달한 순서대로 각 省(區, 市)에서 자체출제를 하게 되었는데, 점차 늘어나 2009년에는 16개 省(區, 市)에서 자체출제를 하고 있다. 教育部考試中心에서 출제한 문항은 자체 출제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매년 초 教育部考試中心에서 국가교육과정에 의거해 ‘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大綱’을 발표하면, 지역별로 자체 출제를 하는 16개 有關 省級 考試機構에서는 이 大綱에 의거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내용을 추가한 大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시험은 매년 고정된 날짜인 6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출제 과목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은 6월 9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험 문제 출제, 인쇄, 채점 그리고 관리 등의 업무를 教育部考試中心 또는 有關 省級 招生委員會에서 모두 주관하고 있는데, 教育部考試中心은 또한 16개 省(區, 市)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의 質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시험지 제작 단계에서는 16개 省(區, 市)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¹⁷⁾

15) 이 부분은 파견교사 변은주 선생과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이다.

16)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2009a) 참조.

17) 장호성(2010) 참조.

까오카오의 개요를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II-2-1>과 같다.

<表 II-2-1> 韓中 兩國 大學入學試驗 概要

	大學修學能力試驗	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
시행일	매년 11월 2째 주 목요일	매년 6. 7 ~ 6. 8(또는 6. 9)
출제, 문제지 인쇄·배부, 채점, 성적 통지	韓國教育課程評價院	教育部 考試中心 또는 省級 招生委員會
응시원서 교부·접수, 문답지 운송·보관,	市·道 教育廳	
시험 실시		
출제 범위	教育課程	課程標準

2010학년도에 시행된 兩國 시험의 시험일, 시험 영역/교과, 응시 자격, 시행 절차 등 제반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II-2-2>와 같다.

<表 II-2-2> 2010학년도 韓中 兩國 大學入學試驗 시행 현황

	大學修學能力試驗	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
시험일	2009. 11. 12	2009. 6. 7 ~ 6. 8(또는 6. 9)
시험 영역 / 교과	7개 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 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省, 區, 市 單位別로 相異함. 11개 교과 : 어문, 수학,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역사, 지리, 정치, 화학, 생물, 물리
응시 자격	• 2009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준수 • 고급중등교육학교 졸업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신체가 건강한 자
시행 절차	세부 시행 계획 발표(2009. 3. 30) → 1차 모의평가 실시(2009. 6. 4) → 시험 시행 공고(2009. 7. 27) → 응시 원서 접수(2009. 8. 26~9. 10) → 2차 모의평가 실시(2009. 9. 3) → 수험표 교부(2009. 11. 11) → 시험 실시(2009. 11. 12) →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2009. 11. 12 ~11. 16) → 이의제기 심사(2009. 11. 17~11. 24) → 정답 확정 발표(2009. 11. 25) → 성적통지표 교부(2009. 12. 9)	신입생 모집 통지(2009. 3. 3) → 시험 업무 규정 고시(2009. 3. 8) → 시험 실시(2009. 6. 7~6. 9) * 有事時 副題 사용 → 합격 업무(2009. 7. 上旬부터~8. 20前)

양국 시험 중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모의평가’와 ‘이의 신청’, 중국의 ‘有事時 副題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양국의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학시험에 대한 사회의 예민한 반응에서 ‘모의평가’와 ‘이의 신청’이 탄생하였고, 중국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有事時 副題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有事時 副題 사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 및 기타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성(시, 지역) 혹은 현에서 시험을 제 때 시행하지 못할 경우, 성 단위 시험 기관은 교육부 시험 안전 관련 돌발사건 응급처리조에 제때 보고하여 교육부의 비준을 거친 후 副題(별도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도록 한다.
- (2) 시험지, 수험생 답안지의 분실, 유실 혹은 기타 원인으로 시험문제 유출, 비밀 누설 및 시험 답안 훼손이 된 경우, 성 단위 시험 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이에 대한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육부 시험 안전 관련 돌발사건 응급처리조와 省(區, 市) 보안국에 즉시 보고한다. 비밀 누설, 유출, 훼손 범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시험을 즉각 중지시키며, 시험을 치른 후 교육부가 확정된 범위 내에서 이번 시험이 무효임을 선포한다.
- (3) 副題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 관리, 시험 답안을 채점하는 등의 모든 일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시험시간은 교육부가 정하고, 교육부 고시중심 혹은 유관 省 단위 시험 기관이 副題 제공 및 이에 상응하는 답안 및 점수를 참고하여 책임지고 일을 추진한다.¹⁸⁾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처럼 ‘有事時 副題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모의평가’에 관한 제도는 없으나 ‘이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있다. 이의신청은 우리나라처럼 채점을 하기 전에 문제나 정답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이 끝난 후 자기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택형뿐만 아니라 서답형 문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 성적에 관한 이의 제기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통

18)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2009a) 참조.

해 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 수험생 → 교사 → 학교장 → 교육청’의 과정을 거쳐 중재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天津市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청 방식이 전화가 아니라 응시 단위에 가서 書面으로 해야 되는데, 시험장의 처리 기구에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결과를 書面으로 통지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성적이 바뀌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서답형 문항의 경우 참고 답안 및 채점 기준을 공개하는데다 채점시스템에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답형 문항은 문항당 최소 2인이 채점하여 그 평균점을 부여하되, 2인이 준 점수의 차가 2점 이상(논술은 5점 이상) 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촉하게 되어 있다.¹⁹⁾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까오카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시험 개관

(1) 시험 구성 및 시행

중국 ‘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以下 ‘高考’라고 略稱)의 출제 과목, 시험 시간, 과목별 배점, 문항 수, 문항 구성 등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2-3>와 같다.

<表 II-2-3> 高考의 構成

시험일	과목	시험 시간	배점	문항수	문항 구성	
					第 I 卷(선택형)	第 II 卷(서술형)
제 1 일	어문	09:00~11:30 (150분)	150	21	10문항(30점) - 4지선다형	10문항(60점) - 단답형, 서술형 1문항(60점) - 논술형
	수학 (문과/이과)	15:00~17:00 (120분)	150	22	12문항(60점) - 4지선다형	4문항(20점) - 빈칸 채워 넣기 6문항(70점) - 서술형
제 2 일	문과 종합 (역사, 지리, 정치 통합)	09:00~11:30 (150분)	300	39	35문항(140점) - 4지선다형	4문항(160점) - 서술형

19) 장호성(2010) 참조.

시험일	과목		시험 시간	배점	문항수	문항 구성	
						第Ⅰ卷(선택형)	第Ⅱ卷(서술형)
	이과 종합 (화학, 생물, 물리 통합)			300	34	총 21문항(126점) 13문항 - 4지선다형 8문항 - 4지선다형	13문항(174점) - 서술형
	외 국 어 (6 개 중 택 1)	영 어	15:00~17:00 (120분)	150	86	· 청해: 20문항(30점) - 3지선다형 · 문법, 어휘: 35문항(45점) - 4지선다형, 문장 완성 · 독해: 20문항(40점) - 4지선다형	· 10문항(10점) - 단답형 · 1문항(25점) - 논술형
		러 시 아 어		150	71	· 청해: 20문항(30점) - 3지선다형 · 문법, 어휘: 40문항(60점) - 괄호 넣기, 문장 완성 · 독해: 10문항(30점) - 4지선다형	· 1문항(30점) - 논술형
		일 본 어		150	81	· 청해: 15문항(30점) - 3지선다형 · 문법, 어휘: 40문항(40점) - 4지선다형, 문장 완성 · 독해: 25문항(50점) - 4지선다형	· 1문항(30점) - 논술형
		프 랑 스 어		150	86	· 청해: 20문항(30점) - 3지선다형 · 문법, 어휘: 35문항(45점) - 4지선다형, 문장 완성 · 독해: 20문항(40점) - 4지선다형	· 10문항(10점) - 단답형 · 1문항(25점) - 논술형
		독 일 어		150	76	· 청해: 20문항(30점) - 3지선다형 · 문법, 어휘: 35문항(45점) - 4지선다형, 문장 완성 · 독해: 20문항(40점) - 4지선다형	· 1문항(35점) - 논술형
		스 페 인 어		150	91	· 청해: 20문항(30점) - 3지선다형 · 문법, 어휘: 40문항(40점) - 4지선다형, 문장 완성 · 독해: 20문항(40점) - 4지선다형, 단답형	· 10문항(20점) - 단답형 · 1문항(20점) - 논술형
제 3 일	역사			150	37	30문항(60점) - 4지선다형	7문항(90점) - 서술형
	지리			150	48	25문항(50점) - 4지선다형	23문항(100점) - 서술형

시험일	과목	시험 시간	배점	문항수	문항 구성	
					第Ⅰ卷(선택형)	第Ⅱ卷(서술형)
	정치		150	38	15문항(30점) - 4지선다형 8문항(24점) - 4지선다형	8문항(8점) - 빈칸 채우기 4문항(38점) - 단답형 2문항(30점) - 서술형 1문항(20점) - 논술형
	화학		150	31	17문항(46점) - 4지선다형 5문항(20점) - 4지선다형	9문항(84점) - 서술형
	생물		150	41	32문항(60점) - 4지선다형	9문항(90점) - 서술형
	물리		150		9문항(40점) - 4지선다형	5문항(20점) - 빈칸 채우기 5문항(30점) - 서술형 5문항(60점) - 계산형

2009년 현재 출제 과목은 16개 과목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택형 이외에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논술형 문항도 출제되고 있다. 선택형 문항 역시 우리나라와는 달리 4지선다형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외국어 과목의 경우 3지선다형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호적이 있는 省(區, 市)의 招生委員會에서 규정하는 시간과 지정하는 장소에 지원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던 된다. 수험생의 과목 선택 방법은 대학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필수 3과목에 몇 개의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수 3과목은 ‘어문, 수학, 외국어’인데, 외국어의 경우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문과종합은 역사, 지리, 정치의 내용으로, 이과종합은 물리, 화학, 생물의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시험 과목 조합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 3 + X

‘3’은 필수 시험 과목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이며, ‘X’는 선택 시험 과목으로 문과종합, 이과종합, 역사, 지리, 정치, 화학, 물리, 생물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 3 + 2

‘3’은 필수 시험 과목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이며, ‘2’는 문과의 경우 정치와 역사, 이과의 경우 물리와 화학을 택한다.

○ 3 + 종합 + 1

‘3’은 필수 시험 과목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이며, ‘종합’은 문과종합 또는 이과종합에서 한 과목을 택하고, ‘1’은 문과의 경우 역사, 지리, 정치 중에서, 이과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한다.

高考의 시험 과목은 省(區, 市)別로 相異하여 지역별로 과목 수가 많은 곳은 6월 9일까지 시행하기도 하는데, 2009년 圈域別 시험 과목은 다음 <표 II-2-4>와 같다.

<表 II-2-4> 高考의 圈域別 試驗科目

	구분	주관	실시 지역	시험 과목
1	全國卷 1	教育部	河北, 河南, 山西, 廣西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2	全國卷 2	教育部	貴州, 黑龍江, 吉林, 雲南, 甘肅, 新疆, 內蒙古, 青海, 西藏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3	北京卷	北京市	北京市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영어 이외는 全國卷1), 문과 종합, 이과 종합
4	上海卷	上海市	上海市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5	重慶卷	重慶市	重慶市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6	天津卷	天津市	天津市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7	安徽卷	安徽省	安徽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8	福建卷	福建省	福建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9	廣東卷	廣東省	廣東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문과 기초, 이과 기초
10	海南卷	海南省	海南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11	湖北卷	湖北省	湖北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자체 개발) 문과 종합, 이과 종합(全國卷1)
12	湖南卷	湖南省	湖南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자체 개발)

	구분	주관	실시 지역	시험 과목
				문과 종합, 이과 종합(全國卷1)
13	江蘇卷	江蘇省	江蘇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역사, 정치, 지리, 물리, 화학, 생물
14	江西卷	江西省	江西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자체 개발) 문과 종합, 이과 종합(全國卷1)
15	遼寧卷	遼寧省	遼寧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16	山東卷	山東省	山東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기본 능력
17	陝西卷	陝西省	陝西省	어문, 문과 종합, 이과 종합(全國卷1) 수학(문/이), 외국어(자체 개발)
18	四川卷	四川省	四川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19	浙江卷	浙江省	浙江省	어문, 수학(문/이), 외국어, 문과 종합, 이과 종합 자기 선택 모듈
20	寧夏卷	寧夏區	寧夏區	어문, 수학(문/이), 문과 종합, 이과 종합(자체 개발) 외국어(全國卷1)

교육부고시중심에서는 2종의 全國卷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소수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소수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려면 해당 지역에 문제지를 먼저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문항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全國卷1’과 ‘全國卷2’는 문제를 달리 출제할 수밖에 없다.

2009년의 경우 全國卷1은 4개 지역(河北, 河南, 山西, 廣西)에서, 全國卷2는 9개 지역(貴州, 黑龍江, 吉林, 雲南, 甘肅, 新疆, 內蒙古, 青海, 西藏)에서 시행하였다. 그 외의 省(區, 市)에서는 자체 개발한 문항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 北京, 湖北, 湖南, 江西, 陝西 등의 지역에서는 일부 과목에 한해 ‘全國卷1’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全國卷1’이나 ‘全國卷2’를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省(區, 市)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 출제 체제

우리나라 수능시험의 출제 방식은 출제위원들이 32일 동안 특정 장소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출제하는 폐쇄형 합숙 출제 방식인데,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출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1곳이 아니라 教育部考試中心 또는 有關 省級 招生委員會로 나뉘기 때문에 기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중국에서 출제본부 구성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1단계는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3달간의 준비 단계이고, 2단계는 5월 초부터 시험 시행일인 6월 7, 9일까지 1달 정도의 출제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출제 관련 회의를 2~3회 정도 개최하여 필요한 문제의 수량을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高考에 관한 업무는 국가기밀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밀 누설 시 3~6년의 형벌을 받는다. 출제위원은 경험 있는 교수를 위촉하는데 특수 상황에서는 교사도 가능하다. 단 고등학교 3학년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불가하며, 출제위원의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촌까지도 고3 수험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경시의 경우는 과목당 10명 정도의 교수로 출제진을 구성하는데 반해 천진시의 경우에는 과목당 6~9명 정도로 구성하고 교수와 교사의 비율을 7 : 3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출제위원 인력풀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위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개인적 품성, 보안 유지 책임감, 전공, 건강, 심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인력풀은 학교 등에서 추천한 인물로 이루어지지 自願하는 경우는 없다.

2단계는 봉쇄된 장소에서 출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출제 기간 10여 일, 인쇄 기간 20여 일로 이루어진다. 출제 방식은 영어의 경우 문제은행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과목은 직접 출제를 하고 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 문제는 2벌을 제작하고 있다. 출제본부의 구성은 우리나라처럼 전체 위원장 1인 밑에 출제 부문과 관리 부문이 있으며, 출제 부문은 또 어문, 수학, 외국어를 담당하는 1조 그리고 문과 종합, 이과 종합 등을 담당하는 2조로 나누어져 있다. 출제위원이 입소한 지 일주일 뒤에 검토위원이 입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 검토위원은 문항 검토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문항 수정은 할 수 없다. 검토위원은 북경시의 경우 대학 교수나 유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으며, 천진시의 경우에는 교사와

교수를 위촉하고 있는데 교사의 비율이 교수보다 높도록 안배한다고 한다. 검토위원들은 먼저 문항을 각자 개별 검토를 하는데 상호 토론은 금지하고 있다.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는 서로 모여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3) 점수 체제

시험 답안 채점은 성급 시험 기구가 총책임을 진다.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을 구성하여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을 임용하는데,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은 대학교 교수를 위주로 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연구원이 참여한다. 작문 등 서답형 문항의 답안 채점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담당하게 한다. 시험 답안 채점 중 발견되는 이상한 상황에 대하여 성급 시험 기구에 보고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처리 결과를 즉시 ‘교육부고시중심’에 보고한다. 선택형 문항의 채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채점하는 반면, 서답형 문항은 사람이 직접 채점한다. 최소 2인 이상이 채점하는데, 2인이 제출한 점수는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에서 설정한 점수 오차 범위에서 2인이 준 점수의 평균점을 가지고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한다. 당일 시험 답안 채점수의 20% 이상에 대해 재검을 하며 만약 재검자의 의견이 원래 시험 답안 채점자와 다를 경우 ‘과목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 팀장이 채점 결과를 결정한다.

중국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배분하는 지역할당제 형식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차 모집,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차는 행정이나 군사 등의 특수대학에 대한 모집이며, 1차는 국가중점대학에 대한 모집으로 전국권 모집이다. 2차는 지방대학에 대한 모집으로 해당 지방 모집과 전국권 모집이 병행되며, 3차는 전문대학에 대한 모집이다. 예를 들어, 상해지역에 북경대 지역 할당이 20명이라면, 북경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상해 학생은 1차 모집에 지원하여 북경대를 지원한 상해지역 학생 중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해마다 까오카오가 끝나면 난이도에 따라 교육부에서 각 지역별로 까오카오의 최저 학력 기준을 발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중 입시 사정 점수²⁰⁾의 상위 순으로 선발한다. 대학별로 지역의 수준과 인구,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해마다 지역

20) 까오카오 점수와 학생 개인별 학생부(当案), 사상정치품덕 고찰 등을 참조하여 점수를 합산한다.

별 모집 학생 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자체 출제한 문항지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현상은 없으나, 해당 대학 내에서 지역별 학생의 수준 차이가 크다. 특히 최저 학력 기준과 문항의 난이도, 지역별 배분 등이 해마다 문제시되고 있다. 작년의 입시 결과에 따라 매년 지역에 할당되는 대학별 모집 인원은 변동된다.²¹⁾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대학 입시 체제

프랑스의 입시 체제는 고등 교육 기관 유형에 따라 입학 및 선발 방식에 차이가 있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고등 교육 기관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지는 우리 나라와 달리, 대학, 그랑제꼴, 에꼴(전문학교) 등 여러 가지 이름과 기능을 가진 다양한 고등 교육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별로 입학 시험과 조건, 선발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하든지 고등 교육 진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문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일명 “박” BAC)이다.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려면 원칙적으로 바칼로레아에 합격할 필요가 있다. 바칼로레아는 자격고사의 성격으로서 고등 교육 기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조직하는 중등학교 졸업 시험이기도 하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08년 나폴레옹(1808년 3월 17일 「프랑스 헌법 부속 칙령」)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오늘날까지 프랑스 사회에서 두터운 신임과 공신력을 갖고 2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바칼로레아에 부여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건 또는 직업계에 진출하건 어떤 진로로 나가던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 즉 바칼로레아는 중

21) 신일용 외(2010) 참조.

등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중등학교 졸업시험이자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수능시험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바칼로레아 수준’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프랑스 사회의 건실함과 공교육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있어 바칼로레아에 합격한다는 것은 자격과 교양을 갖춘 건강한 프랑스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일단 합격하면 언제라도 원하는 때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에게 공신력이 있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칼로레아는 출제와 시행면에서 우리 나라의 수능과 차이가 많다. 바칼로레아는 매년 6월 일주일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다. 6월에 실시되는 것은 우리와 달리 학년도가 9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능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 비해, 바칼로레아는 일주일에 걸쳐 필수, 선택과목별로 하루 1~2 과목씩 본다. 공통 필수 과목은 철학과 국어(프랑스어),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다양한 세계 여러나라의 언어) 등이며, 철학과 국어(프랑스어)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과 인류 보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프랑스의 전통과 관계가 깊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수능은 한 가지 종류이며 수험생에 따라 영역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비해, 바칼로레아는 계열별로 크게 세가지(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로 나뉘며 다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여러 갈래의 계열로 세분화된다. 우리의 수능은 5지선다형인데 비해 바칼로레아의 필기 시험은 논술형과 서술형으로만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문항수가 우리의 경우 언어 영역 50문항, 외국어(영어) 영역 50문항 등 상당히 많은데 비해, 바칼로레아는 논술형인 만큼 과목당 2~4 문항으로 매우 적으며 시험 시간도 과목당 2시간~4시간이다. 문제 제시 방식은 과목당 2~4 문제가 주어지면, 수험생이 그 중 1~2 문제를 선택하여 논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술 주제는 ‘교육은 억압인가 자질 개발인가’, ‘모든 권력은 폭력을 동반하는가?’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볼만한 중요 문제들과 관계되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며 이 주제를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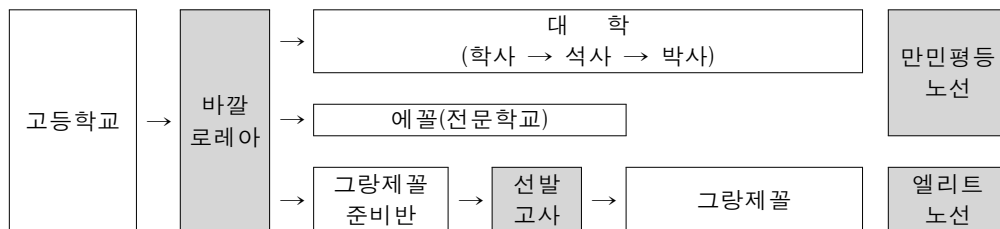
곳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험의 종류도 우리의 수능은 필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바칼로레아는 필기 시험과 구두 시험, 실기 시험(기술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재시험, 질병이나 사고 등 정당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보충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수능과 달리,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시험이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철학 시험이라는 점, 체육 시험 성적(내신)이 포함되는 것 등이 특징이다

일단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종류의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에 따라 추가로 선발고사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이 고등학교-수능-대학이라는 전 국민 공통의 단선형 학제와 입시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고등 교육 기관은 평등 노선과 엘리트 노선으로 나누어지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 전형 방식도 다음 그림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

<표 II-3-1>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와 입시 제도



평등의 노선으로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을 바탕으로 바칼로레아 소지자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교양 습득과 학문 연구를 지향하는 개방적 성격의 국립 대학(universités)과 바칼로레아를 가지고 또는 없이도 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 직업인을 양성하는 각종 전문학교(écoles)가 있다.

엘리트 노선으로는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갈 각 분야의 전문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있다. 이들 그랑제꼴은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후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된 그랑제꼴 준비반(CPGE)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열한 경쟁의 그랑제꼴별 선발고사(concours)를 통해 입학할 수 있다. 그랑제꼴 준비반 2년 과정은 공식적인 수학 연한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랑제꼴 선발고사에 불합격하였더라도 그랑제꼴 준비반에서의 2년 이수 기간을 인정하여 일반 대학 3학년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채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대학은 학자 양성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 학자나 연구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랑제꼴 학생이라도 석박사 과정 이수를 위해 일반 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한다. 그랑제꼴은 학자 양성이 아닌 전문 직업인의 양성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유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대학과 그랑제꼴이 구분되는 것이라, 프랑스의 고등 교육 기관들을 순위로 서열화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고등 교육 기관의 기본 관문이자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바칼로레아 시험 개관

(1) 시험 구성 및 시행

(가) 바칼로레아 시험의 종류

바칼로레아 시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우선 크게 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의 3종이 있으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계열로 세분화된다.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www.education.gouv.fr).

<표 II-3-2> 바칼로레아의 종류

종 별	계 열
일반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 Général, 3계열)	문과(L) 경제사회(ES) 과학(S)
기술 바칼로레아	산업과학기술(STI)

종 별	계 열
(Baccalauréat Technologique, 8계열)	실험과학기술(STL) 의학-사회과학(SMS) 농업 및 환경과학기술(STAE) 식품생산과학기술(STPA) 3차산업과학기술(STT) 음악무용(TMD) 호텔경영(Hôtellerie)
직업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 Professionnel)	48개 전공 분야 시험 BEP(50종), CAP(200종) 자격증을 소지한 직업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직업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함

바칼로레아는 일종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번 합격하면 평생 유효하다. 따라서 당 해연도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평생 언제든지 다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바칼로레아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대학과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학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자연과학 대학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를 비롯하여 스트라스부르그, 리옹 등 대도시에서는 다른 지방 도시보다 경쟁률이 높으며 신입생 정원이 바칼로레아 취득자보다 적기 때문에 계열을 바꾸어 진학하기가 어려우며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발 방법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선발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칼로레아 성적이다. 일반적으로 바칼로레아 성적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바칼로레아 성적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 바칼로레아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이나 그랑제꼴 준비반도 있다.

바칼로레아에 응시하려면 예비 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학구별로 최종시험의 접수는 최종학년도(우리나라 고3) 10월과 11월 사이 1달간 진행되며, 사전시험의 접수는 1월과 2월에 실시된다. 학교에서는 수험생이 따라야할 절차를 알려주며, 예비접수는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미니텔(Minitel 3614 SIEC)로,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미니텔에 접속하여 실시된다.

이때 수험생은 선택과목과 외국어를 선정해야한다. 필기시험 접수 확인서가 수험

생에게 발송되며, 수험생은 이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반송해야 한다. 만일 착오 사항이 있으면 보내기 전에 수정하고 싸인해서 반송해야 한다. 반송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바깰로레아 시험 당일에는 시험 출두증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파리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학생희망 자동조사”(RAVEL, Recensement automatisé des vœux des élèves)라는 예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파리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예비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예비 등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당해년도에 파리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외국에서 바깰로레아 시험을 치렀거나 기타 바깰로레아와 동일한 자격을 획득한 학생이 파리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가 학군제에 따라 학생들을 배치하므로 대학도 간접적으로 학군제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예비등록을 접수하기 전에 계열별 신입생 정원을 발표한다.

학생들은 미니텔(Minitel 3614 SIEC)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계열을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선택하여 등록한다. RAVEL 체제는 파리 지역 내 각 대학의 입학 정원, 학생 희망 대학과 계열, 성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치하는 체제이다. 학생들의 희망과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대학은 차이를 조정하여 학생들에게 입학 가능한 계열을 추천하는 것이다.

바깰로레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첫째, D.A.E.U(Diplôme d'Accès aux Etudes Universitaires)라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통과한 경우이다.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학교 공부를 중단했던 것이 증명되어야 볼 수 있으며, 연령이 최소 20세 이상이고 2년 이상의 직업경험이 있어야 하며, 직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계열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대학에서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를 열고 있다.

둘째, 각종 공사립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받은 교육, 직업 경력을 가지고도 대학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원서 교부와 심사는 해당 단과대학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학교 공부를 중단했던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바칼로레아 시험 과목

바칼로레아는 수험생이 3종의 바칼로레아(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내부 계열을 선택하여 실시된다. 시험 과목으로는 계열 공통 필수 시험, 전공 선택 필수 시험, 선택 시험이 있다. 일반 바칼로레아 계열공통 필수 시험으로는 프랑스어(필기 및 구두시험: 사전 시험), 철학, 외국어 및 외국어 보충, 역사 및 지리, 체육, 체육 보충, TPE(범교과 개별학습) 시험이 있다. 일반 바칼로레아의 3가지 계열별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www.education.gouv.fr).

<표 II-3-3> 일반 바깥로레아 문과계열(L) 시험과목

일반 바깥로레아 문과계열(L) 시험과목			
■ 필수 시험	계수	시험 성격	시 간
▷ 조기 시험(2년차 말)			
프랑스어*	3	필기	4시간
프랑스어*	2	구두	20분
과학교육	2	필기	1시간 30분
수학-정보학	2	필기	1시간 30분
▷ 최종 시험(3년차 말: 최종학년말)			
문학	4	필기	2시간
역사 및 지리	4	필기	4시간
외국어 1	4	필기	3시간
철학	7	필기	4시간
외국어 2, 지역어 또는 라틴어	4	필기	3시간
체육	2	CCF(내신성적)	
① ■ 전공 시험(선택 필수: 1과목)			
라틴어	4	필기	3시간
또는 고대 그리스어	4	필기	3시간
또는 조형 예술	3+3	필기+실기	2시간/5시간
또는 영화-시청각	3+3	필기+구두	3시간 30분/30분
또는 예술사	3+3	필기+구두	3시간 30분/30분
또는 음악	3+3	필기+실기	3시간 15분/30분
또는 연극-드라마 표현	3+3	필기+실기	3시간 30분/30분
또는 무용	3+3	필기+실기	3시간 30분/30분
또는 외국어 2	4	필기	3시간
또는 외국어 3	4	구두	20분
또는 지역어	4	구두	20분
또는 외국어 보충(외국어 1, 2 또는 지역어)	4	구두	20분
■ 새로 도입된 시험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2	CCF(내신성적)	
개별지도학습(TPE)***	-	구두	
■ 선택 시험(최대 2과목 선택)			
외국어		언어에 따라 구두 또는 필기	20분/2시간
지역어		구두	20분
라틴어		구두	15분
고대 그리스어		구두	15분
수학		필기	3시간
체육(EPS)		CCF(내신성적)	
예술: 조형미술, 영화-시청각, 예술사, 연극-드라마 표현 또는 무용		구두	30분
또는 음악		필기 및 구두	30분+30분

* 2003학년도부터는 프랑스어가 『프랑스어 및 문학』으로 개칭.

**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필수 시험.

*** 바깥로레아 TPE 평가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시험으로서 중간 이상의 점수만이 평점에 포함.

<표 II-3-4>일반 바칼로레아 경제사회계열(ES) 시험 과목

일반 바칼로레아 경제사회계열(ES) 시험 과목			
■ 필수 시험	계 수	시험 성격	시 간
▷ 조기 시험(2년차 말)			
프랑스어	2	필기	4시간
프랑스어	2	구두	20분
과학교육	2	필기	1시간 30분
▷ 최종 시험(3년차 말: 최종학년말)			
역사 및 지리	5	필기	4시간
수학	5 또는 7*	필기	3시간
경제사회학	7 또는 7+2*	필기	4시간 또는 4시간+1시간
외국어 1	3	필기	3시간
외국어 2 또는 지역어	3 또는 3+2*	구두	20 또는 30분*
철학	4	필기	4시간
체육	2	CCF(내신성적)	
② ■ 전공 시험(선택 필수: 1과목)			
경제사회학**			
또는 수학**			
또는 외국어 2 보충**			
또는 지역어 보충**			
또는 외국어 1 보충**	2	구두	20분
■ 새로 도입된 시험			
체육 보충(EPS)***	2	CCF(내신성적)	
개별지도학습(TPE)****	-	구두	
■ 선택 시험(최대 2과목 선택)			
외국어		언어에 따라 구두 또는 필기	20분/2시간
지역어		구두	20분
라틴어		구두	15분
고대 그리스어		구두	15분
체육(EPS)		CCF(내신성적)	
예술: 조형미술, 영화-시청각, 예술사, 연극-드라마 표현 또는 무용		구두	30분
또는 음악		필기 및 구두	30분+30분

* 수험자가 이 과목을 전공 교육으로 선택했을 때

** 수험자가 전공에서 동일 교과를 선택할 때 필수 시험과 함께 치루는 시험

***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필수 시험

**** 바칼로레아 TPE 평가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시험으로서 중간 이상의 점수만이 평점에 포함.

<표 II-3-5>일반 바깥로레아 과학계열(S) 시험 과목

일반 바깥로레아 과학계열(S) 시험 과목			
필수 시험	계 수	시험 성격	시 간
▷ 조기 시험(2년차 말)			
프랑스어	2	필기	4시간
프랑스어	2	구두	20분
▷ 최종 시험(3년차 말: 최종학년말)			
수학	7 또는 9	필기	4시간
물리-화학	6 또는 8*	필기	3시간 30분
생명과학 및 지구과학	6 또는 8*	필기	3시간 30분
또는 생물-생태학***	5+2	필기 및 실기	3시간 30분+1시간 30분
또는 공학	6+3	필기 및 실기	4시간+4시간
역사 및 지리	3	필기	4시간
외국어 1	3	필기	3시간
외국어 2 또는 지역어	2	필기	2시간
철학	3	필기	4시간
체육	2	CCF(내신성적)	
③ ■ 전공 시험(선택 필수: 1과목, 최종시험에서 공학을 선택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자유 선택)			
수학**			
또는 물리-화학**			
또는생명과학 및 지구과학**			
또는 농학-지역학-시민정신***	2	구두	30분
■ 새로 도입된 시험			
체육 보충(EPS)****	2	CCF(내신성적)	
개별지도학습(TPE)*****	-	구두	
■ 선택 시험(최대 2과목 선택)			
외국어		언어에 따라 구두 또는 필기	20분/2시간
지역어		구두	20분
라틴어		구두	15분
고대 그리스어		구두	15분
체육(EPS)		CCF(내신성적)	
예술: 조형미술, 영화-시청각, 예술사, 연극-드라마 표현 또는 무용		구두	30분
또는 음악		필기 및 구두	30분+30분
마학 및 승마***			
사회 및 문화실습***			

* 수험자가 이 과목을 전공 교육으로 선택했을 때

** 수험자가 전공에서 동일 교과를 선택했을 때 필수 시험과 함께 치루는 시험

*** 농업부 유관교육기관에서 부과하는 교육에 상응하는 시험들

****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필수 시험

***** 바깥로레아 TPE 평가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시험으로서 중간 이상의 점수만이 평점에 포함됨.

(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출제 유형

바칼로레아 시험은 필기 시험(과목당 2시간-4시간), 구두 시험(15-20분),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계열 및 과목의 성격에 따라 필기, 구두, 실기 시험이 부과되는데, 프랑스어와 외국어는 필기와 구두 시험, 철학, 수학, 역사 및 지리 등은 필기 시험, 과학 및 공학, 산업기술, 예체능 일부 과목은 실기 시험이 부과된다.

① 필기 시험 : 필기 시험은 우리 나라와 달리 서답형(주로 서술형과 논술형)으로만 이루어져있다. 문항 출제 방식은 과목당 2-4개의 주제가 주어지면 수험자들이 그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개 이 하나의 주제 속에는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구성된 일련의 소문제들이 주어진다.

철학의 경우는 주제 속에 딸린 일련의 소문제들 없이 세 개의 주제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논술형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프랑스어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필기 시험의 경우 1) 논쟁이 될만한 내용의 한 텍스트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요구하는 문제, 2) 텍스트에 대한 분석, 3) 논술의 3가지 커다란 주제를 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일련의 소문제에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3가지 주제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논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역사 및 지리의 경우는 시사적인 주제를 제시하면서 논술을 하도록 하는 문항과 도표나 자료를 제시해주고 분석과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섞여 있다. 동일 과목이라도 계열별로 시험 문제가 다르고 또한 문제마다 배점이 다르다. 시험 과목당 계수(가중치)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계열과 연관이 깊은 과목의 계수는 높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서답형 특히 논술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칼로레아 논술의 필수 조건(P. Désalmand & P. Tort, 1994)으로서 먼저 개인의 개성적 느낌과 반응을 표현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이다. 프랑스 교육부의 프랑스어 과목 바칼로레아 지침에 따르면 《논술은 수험자의 자율적인 사고에 큰 비중을 둔다. 논술자 자신의 진정한 반응에 주목한다. 수험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수험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답안이 구체적

인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감정의 분출보다는 수학적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논리적인 엄격성과 이에 따른 분명한 의사표시가 요구된다. 수험자는 논술 작업을 집짓기처럼 미리 설계하여 정돈하여 표현해야 한다는 점 등이 바칼로레아 논술에서 요구되는 핵심 사항이다.

논술 주제: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의 논술 주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중요 문제들”과 관련된다(P. Désalmand & P. Tort, 1994). 따라서 출제 분야는 철학, 윤리, 정치, 노동 등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 고유한 여러 가지 <변화>들(가내 공업이나 수공업 등 지난날 세계의 소멸과 퇴화, 기술의 발전과 행복, 삶의 질, 인류의 장래에 대한 문제들, 이 세계의 어떤 면에 대한 토론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노동>의 문제(현대 노동의 소외적 성격, 이민 노동자 문제, 작업 조건의 악화와 삶, 직업의 노예 등), <여가>의 문제(스포츠와 사회, 스포츠와 휴머니즘, 억압적인 노동의 보상으로서의 여가, 복잡한 도시 생활 보상으로서의 여가 등), <매스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역할(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매스 미디어, 교육과 문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문화의 탄생 등), 인간 집단들과 관련된 문제들(노인, 여성, 외국인 이민 노동자, 청소년 등),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교육은 억압인가, 자질개발인가, 학교와 인생과의 관계, 교육과 정치의 관계, 당신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결산해 보라, 문화의 세계화 등), <환경>의 문제(인간과 자연의 관계, 어떤 구체적인 오염 문제에 대해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공해와 오염 등), 폭력(사형제도, 인질, 연극·영화·만화에 있어서의 폭력 등), <비교>의 주제들(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책과 텔레비전, 학교 생활과 직업 생활, 도시에서의 고독과 시골에서의 고독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 문제 예시이다.

<2010년도 일반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 문제>

① 프랑스 일반 바칼로레아 문과(L) 계열 2010년 철학 시험 문제(4시간)

계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3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문제1] 역사의 객관성은 역사가의 공정함을 전제로 하는가?

문제2] 언어는 생각을 나타내는가?

문제3] 다음의 텍스트를 논하시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텍스트
한 단락>

② 구두 시험 : 구두시험은 시험관과 수험생간의 대화로 진행되는데, 구두 시험 과목은 계열당 2-3과목인데 주로 프랑스어, 외국어, 경제사회학, 고어, 지역어 등이다. 구두 시험의 문제 선정 방식은 먼저 시험 신청시 수험자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작가 및 저작(예를 들어 까뮈의 이방인) 목록을 정해진 숫자 이상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관이 수험자가 제시한 목록에서 작가와 저작을 임의로 선택하여 질문한다. 시험관은 작가 및 저작별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질문하는 것이다. 구두 시험의 시간은 과목별로 대개 15분에서 30분 정도이다.

(라) 바칼로레아 시험의 시행

① 사전 시험과 최종 시험

바칼로레아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시행하는 시험 과목이 다르다. 고등학교 2학년말의 사전 시험(épreuves anticipées)과 3학년말의 최종 시험(épreuves terminales)이 있다.

사전 시험은 3학년 말에 실시되는 대부분의 교과 시험들로 구성된 최종 시험보다 1년 앞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사전 시험 과목으로는 프랑스어, 과학교육, 수학-정보학 교과인데 계열별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계열 : 프랑스어, 범교과 개별학습(TPE)

사회경제계열 : 과학 교육

문과 계열 : 과학 교육, 수학-정보학

사전 시험의 성적은 다음 해 실시되는 최종시험에서의 다른 과목들의 점수에 합산된다. 사전 시험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졸업 전 실시되는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이때 2차 시험 성적이 1차 시험 성적보다 못해도 전년도 1차 시험 성적을 대신한다.

② 보충 시험과 재시험

정당한 사유(질병, 가족의 사망, 사고 등)로 6월 시험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응시 못한 수험생에게는 9월에 보충 시험(session de remplacement)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수행평가를 보는 체육을 제외한 전 과목을 볼 수 있다.

또한 8점 이상 10점 미만을 취득한 수험생에게는 7월 중 구두 재시험(épreuves orales du second groupe) 또는 만회 시험(rattrapage)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재시험은 사전 시험이나 최종 시험에서 치른 필기 시험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대개 10점 미만의 잘못된 본 과목을 선택)하여 구두 시험으로 치뤄진다. 사전 시험의 경우와 달리, 최종 시험에서는 본시험과 재시험에서 받는 점수 중 높은 점수가 채택된다. 재시험을 통해 전과목 평균 1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www.education.gouv.fr).

③ 바칼로레아의 시험 기간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년도가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며 바칼로레아는 학년도가 끝나는 6월에 매년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 비해, 바칼로레아는 일주일에 걸쳐 필수, 선택과목별로 하루 1~2과목씩 본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도 본토와 마찬가지로 바칼로레아가 실시되는데, 문항 유형과 문항 수 등 출제 방식은 같지만, 시험 문제 및 시험 일정이 본토와 다르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계 바칼로레아 시험 일정이다.

④ 바깥로레아 시험 일정과 시험 시간(2010년도 예시)

<표 II-3-6> 2010년도 바깥로레아 일정표(www.ac-aix-marseille.fr)

일 시	문과계열	사회경제계열	과학계열
6월 17일 (목)	철학 8시-12시	철학 8시-12시	철학 8시-12시
	문학 14시-16시		
6월 18일 (금)	역사지리 8시-12시	역사지리 8시-12시	역사지리 8시-12시
	수학-정보학 사전시험 14시-15시 30분		
6월 21일 (월)	프랑스어-문학 8시-10시	프랑스어 8시-12시	프랑스어 8시-12시
	외국어 1 14시-17시	외국어 1 14시-17시	외국어 1 14시-17시
6월 22일 (화)	라틴어 8시-11시	경제학 및 사회학 8시-12시 (또는 13시 전공)	수학 8시-12시
	외국어 2 14시-17시 또는 지역어 14시-17시		외국어 2 14시-16시 또는 지역어 14시-16시
6월 23일 (수)	과학 교육 사전시험 8시-9시 30분	과학 교육 사전시험 8시-9시 30분	물리 화학 8시-11시 30분
	예술(필기) 14시-17시 30분 (모든 선택과목)	수학 14시-17시	생명지구과학 생체 환경학 14시-17시 30분
	고대 그리스어 14시-17시		엔지니어 공학 14시-18시
	수학 14시-17시		

(2) 출제 체제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의 출제 방식은 출제위원들이 한 달간 감금되어 출제하는 폐쇄형 합숙 출제 방식인데 비해, 프랑스의 바깥로레아의 출제 방식은 개방형 출제 방식으로 시험일까지 1년 이상의 출제 과정을 거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험 시행 1년전 5월경에 교육부장관은 각 학구에 다음 학년도 바깥로레아 문항의 제작 책임을 부여한다. 6월에 각 학구별 시험원 또는 시험 주관 부서가 출제위원회(교수, 교사, 장학관)를 구성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문항 제작을 하며 12월부터 1월

까지 문항 검토에 들어가며, 해당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모의시험을 치루게 된다. 1~2월에 문항의 수정·보완을 하며, 3월에 학구 총장은 시험 문제의 최종 결정을 하며 교육부 장학관실에서 시험 문제의 질 관리를 위한 심사를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시험 문제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또 한 세트의 시험 문제를 준비한다. 4~5월에 국가 인쇄소에서 시험 문제 인쇄를 하며, 6월에 시험 실시 몇 일 전 각 시험장에 시험지를 배포하고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1년간의 과정을 거친다(www.education.gouv.fr).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5월: 교육부장관은 각 학구에 다음 학년도 바칼로레아 문항 제작 책임 부여.

6월: 각 학구별 시험원은 출제위원회 구성(교수, 교사, 장학관)

9-12월: 문항 제작

12-1월: 문항 검토

1-2월: 문항 수정·보완

3월: 학구 총장은 문제 최종 결정 ⇒ 장학관실

4-5월: 문제 인쇄(국가 인쇄소)

6월: 시험 실시 몇 일 전 각 시험장에 배포 ⇒ 시험 실시²²⁾

바칼로레아 운영의 책임은 교육부의 중앙 행정과 장학관실(Inspection générale) 뿐만 아니라, 탈중앙집권적인 정책에 따라 각 학구에 분산되어있다. 중앙 행정에서는 바칼로레아의 전반적 사항(시간, 계수, 성격 등)을 정의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며, 각 년도별 바칼로레아 시험의 국가 일정표를 정한다. 또한 학구간 시험 문제의 개발 책임과 시험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을 정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 장학관실(Inspection Générale de l'Éducation)에서는 바칼로레아 시험에 대한 총 감독과 시험 문제의 질 관리를 수행한다.

각 학구는 대체로 인접한 몇 개의 학구와 공동으로 바칼로레아를 조직하며, 학구별 출제 위원회를 조직한다. 해외 지역 등 일부지역의 학구는 별도로 바칼로레아를

22) www.education.gouv.fr

조직하기도 한다. 각 학구별로 시험원(la Maison des Examens) 또는 시험주관부서(Division des Examens et Concours)를 두고 시험원 또는 부서 상호간에 매년도 시험 문제를 복사, 저장,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험원 또는 부서는 바칼로레아 시험 뿐만 아니라 B.E.P.나 C.A.P, B.T.S. 등의 각종 직업기술 자격시험, 교원자격시험과 기타 교직원채용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의 관리를 담당한다. 출제와 채점은 별도의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구는 수험생의 바칼로레아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학구 내 구두 및 실기 시험의 일정을 결정하며, 채점을 위한 심사 위원회를 조직한다. 이외에도 교원과 수험생의 시험 출두 명령, 바칼로레아 증서의 발급, 시험지 보관 등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www.education.gouv.fr).

■ 중앙 행정

- 바칼로레아의 전반적 사항(시간, 계수, 성격 등)을 정의하는 법률과 규정 제정
- 각 년도별 시험 국가 일정표를 정함.
- 학구간 시험문제 개발 책임 분배
- 시험에 소용되는 인력과 재원을 정하고 분배

■ 장학관실

-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 질 관리

■ 학구(인접한 여러개의 학구가 공동으로 바칼로레아 조직)

- 주제(문제) 출제 위원회 조직
- 각 학구별 시험원 운영 및 시험원 상호간 매년도 시험 문제 전체의 복사, 저장, 분배.
- 수험자 바칼로레아 등록 운영
- 학구내 구두 및 실기시험 일정 결정
- 채점을 위한 심사 위원회 조직
- 교원과 수험자의 출두 명령 책임
- 바칼로레아 증서 발급
- 시험지 보관

(3) 바칼로레아의 점수 체제

(가) 점수 체제

모든 과목은 20점 만점이며, 바칼로레아는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전과목 평균 1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평균이 8점 미만인 학생들은 불합격 처리되며, 8점 이상 10점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제2군 구술 재시험(만회 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12점 이상 점수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평점(mention)이 부여된다:

평점 “우수한 편”(assez bien): 평균 12점 이상 14점 미만

평점 “우수”(bien): 14점 이상 16점 미만

평점 “매우 우수”(très bien): 16점 이상

이러한 평점은 엔지니어 학교(Ecoles d'Ingénieurs), 고등교육기관 성격의 그랑제쵸르 준비반(CPGE)²³⁾ 등 높은 수준의 학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이다. 2007년의 경우, 일반 바칼로레아 응시자의 48,4%, 기술계 응시자의 28,5%, 직업계 응시자의 45,4%가 이러한 특별 평점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에서 “매우 우수”(très bien) 취득자는 계열별로 각각 6%, 0,6%, 0,7%였다. 프랑스 교육부가 집계한 2008년도 바칼로레아 응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3 응시자 615,625명(이 중 개인 응시자는 28,122명으로서 전체의 4,56%)
- 고2 사전 시험 응시자 482,939명
- 고사장 3,816개 학교(이 중 71개 외국 참여)
- 심사 및 채점위원 149,423명
- 채점 답안지 수 : 4백만 건

고3년 응시자 615,625명의 계열별 응시 현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일반계 응시자 324,810명 (53%) - 전년에 비해 0,85% 감소

23) 그랑제쵸르 준비반은 그랑제쵸르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탁월한 내신 성적과 바칼로레아에서 우수한 평점을 취득한 학생들만 서류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중등교육기관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2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랑제쵸르 선발고사에 실패하더라도 2년간의 교육과정 기간은 인정받게 되어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 기술계 응시자 168,588명 (27%) - 전년에 비해 1,36% 감소
- 실업계 응시자 122,227명 (20%) - 전년에 비해 0,66% 감소

2008년도 전 지역에 걸쳐 출제된 시험 주제 수는 총 4,874개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각 아카데미 및 해외령 교사장에 따라 시험문제를 달리 출제되기 때문이다. 2008년도 바칼로레아 교사 감독 및 채점 교사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 필기 채점 : 기본급 외 교과에 따라서 답안지당 시험 1,06 유로 또는 1,32 유로
- 구두시험 채점 : 4시간에 37,82 유로

학생 1인당 바칼로레아 시험의 경비(2006년)는 일반계 57,43유로, 기술계: 62,21유로, 직업계: 55,48유로가 소요된다. 외국어 시험 응시 현황은 의무 및 필수선택 외국어 22개, 자유선택 외국어 24개, 지역어 11개이다. 바칼로레아 결과를 보면, 응시자의 83,3%가 바칼로레아의 취득에 성공했다.

(나) 채점 조직 및 채점 방식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과목별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채점을 맡는다. 2001년의 경우, 12만명의 채점자와 시험 시행자가 동원되어 총 4백만 장의 답안지를 채점하였으며, 심사위원회내의 1개 심사반(여러 개 팀으로 구성)당 1,000장을 채점한다(www.education.gouv.fr).

채점에 있어 전국적으로 공통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차출된 교사의 수업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사 감독은 가능한 비교원 또는 임시 대리교원으로 한다. 관찰 결과에 의하면 차출된 교사들은 거의 일주일에 해당하는 수업시수를 바쳐 시험 감독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들의 답안지 채점에 대한 특별수당은 정규 업무의 연장 활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답안지 당 기존의 1,06유로 또는 1,32유로에서 5유로로, 거의 3배로 상향되었다. 일반 2정 교사로서 박 채점 교사로 차출된 경우, 시간당 약 7명 수험생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수당을 수령하게 되었다.

- 고사장으로 차출된 학교장과 사무원 및 그 협력자들에게는 일반 연장업무 수당의 100%가 지급된다.
- 고사장 차출은 가능한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에서 선 발하도록 하였는데, 각 학구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었다. 그리하여 학구들은 공립과 사립의 균등한 차출, 인근 학교에서의 정상 수업 실시, 학교 외 기관의 고사장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동일 답안지가 채점자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최저 5점에서 최고 15점을 받은 경우는 학교내신성적(livret scolaire)을 참조하여 시험에서 얻은 점수와 학교 성적의 차이가 클 때 채점 내용을 재검토하고 점수 조정을 한다. 단, 하향조정은 불가능하다. 구두시험으로 치러지는 재시험의 경우, 시험관이 내신 성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1997년부터는 시험관에게 미리 내신 성적이 고지되지 않고 오직 시험관과 학생의 대화 내용만으로 성적으로 주도록 되었다. 답안지에 대한 확인은 점수 발표 후 7일 동안 허가된다. 수험생은 원한다면 이 기간 동안 채점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채점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논술형 평가와 채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대단히 높다.

이 사실은 실제 연구자가 파리 지역 시험원을 방문하여 바깥로레아 담당국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금까지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바깥로레아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험원을 방문하여 채점된 시험지를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채점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존중하며 인정하고, 채점 담당 과목별 심사관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여 공정성을 기한다. 여러 채점자간 채점 결과를 놓고 비교 조정하고, 학생의 내신 성적을 참조하여 등 최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채점 방식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미리 인지시키기 위해 사전 모범 답안 및 채점 방식,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시행 후에도 문항 공개와 시험 결과를 공개(개별 성적은 비공개)하고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의 바깥로레아

합격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차후 바깥로레아 지도를 위해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4

미국

가. 미국의 대학입시체제

미국은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가진다. 연방정부는 대학입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 정부도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할 뿐이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각 대학은 대학별로 입학기준(admission standards)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대학 입학 전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고등학교 학업 성적(grade point average: GPA) 혹은 순위, ACT, SAT Reasoning Test(SATRT), SAT Subject Test(SATST)와 같은 입학시험 점수, 추천서, 면접 점수, 수필(자기소개, 주요 경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작문 등), 건강진술서, 거주하는 주, 포트폴리오나 오디오션, 이수과목, 희망전공, 재정적 지원요구 여부, 과외활동(동아리, 운동, 지역서비스, 직업 등) 및 학생의 특기, 인종 등이 그 예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입학을 위한 SAT나 ACT의 최소점수를 정하지 않는다. SAT나 ACT점수는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고려했을 때 대학에서의 성공적 교육 이수에 대한 예언력이 크므로, 이들 점수는 학생들에 대한 다른 정보와 함께 입학사정 시 고려된다. 학생 선발 시 차별시정계획(affirmative action)에 따라 인종 요인도 대학입시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모집을 위해 12월 15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입학지원서를 받고, 합격자들은 대개 가을학기에 등록을 하게 된다. 조기모집의 경우 보통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지원서를 받는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SAT와 ACT 검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나. SAT 시험 개관

(1) 시험 시행 및 구성

(가) 검사 목적과 배경

1901년 처음 실시된 SAT는 처음에는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였으나 1990년 Scholastic Assessment Test로 이름을 바꿨다가 1993년부터는 그냥 SAT라고만 불린다. 2005년부터 논리력 검사인 SATRT와 과목별 시험인 SATST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SATRT는 수험생들의 언어와 수리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수험생들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SATRT는 개발되었다. 그러나 SATRT는 미국 대학입학에 필요한 유일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대학입학 사정에 필요한 하나의 보충적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미국대학위원회는 권장하고 있다.

SAT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험생의 학교 성적 정보에 오류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많았다. 또한 당시에는 교과 지식과 밀접히 관련 있는 논술형 시험을 치렀는데 국가수준의 전국 공통 교육 과정이 없었으므로 출신 학교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어떤 특정 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특정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과 지식과 밀접히 관련된 논술형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가단위의 교육과정 이 없음으로 인해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매우 달라서 각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의 의미가 매우 다름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의 문제를 해소하며, 동시에 기초적인 수학능력이 부족한 수험생을 변별하려는 목적으로 어디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모든 수험생을 공통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를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의 산출물이 바로 SAT이다. 따라서 SATRT는 특정 주나 학교구의 교육과정 및 특정 교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초적 이면서도 학교생활 안팎에서 개발된 언어와 수리에 대한 적성을 측정한다. 언어와

수리 영역 내 실제 문항들은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학교 교육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발하였다.

SATST는 SATRT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관한 지식의 수준과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기본 성격은 내신 성적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출제 범위가 특정 교과서, 특정 교수법, 그리고 어느 학교의 교육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표준화된 검사라는 점이다. 검사가 개발된 주요 목적은 대학입학사정에 활용할 뿐 아니라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 시, 수강 과목을 배치하는 데에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입학경쟁이 높은 대학교에서는 SATRT 외에도 SATST를 요구하고 있다.

(나) 검사 유형

원시적 형태의 SAT는 1901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선다형 문항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춘 SAT는 192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입학사정에 활용되어 왔다. SAT를 치르는 수험생의 수는 1926년에 8,040명에서 최근에는 3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Lawrence, Rigol, van Essen, & Jackson, 2003; The college board, 2003). SAT는 언어추론과 수리추론능력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SAT는 문항유형, 검사시간, 시행절차 등에 있어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SATRT는 초기의 퍼즐해결식 문항유형과 많이 달라졌으며 지금은 수험생들이 일상 학교에서 접하는 문제유형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쓰기(writing)영역 시험의 추가이다. 쓰기영역은 창의적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쓰기 기술을 측정하려는 것이며, 에세이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이 25분 주어진다. 둘째는 언어추론검사의 이름이 'verbal reasoning'에서 'critical reasoning'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언어추론검사에서 측정하려는 것 또한 달라지는데 기존의 어휘 중심의 단순한 문제에서 과학, 역사, 인문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에서의 독해력을 측정하게 된다. 셋째

는 수리추론검사의 난이도 증가로, 절대치, 유리수, 방정식과 부등식, 무리수 방정식 등의 영역이 검사범위에 추가된다. SATST는 교과학력검사로 5개 영역 17개 과목에서 수험생의 교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의 보유 여부 및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2002년에는 과목에 따라 적게는 465명에서 많게는 217,179명이 치렀다 (Kobrin, Camara, & Milewski, 2002).

(다) 검사의 실시 시기와 구성

검사 횟수는 1년에 6-7회이며 매달 또는 두 달에 한번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즉, 복수로 실시되기 때문에 수험생은 대학입학을 위하여 최대 7번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성적이 누적되며 한번 응시할 때 SATRT와 SATST를 동시에 치를 수 없다. 즉, 두 검사 종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2-4회 정도 응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확한 SAT 검사 시기(2010-2011년도)와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또한 SAT의 검사 시기 및 SATRT와 SATST의 개괄적 검사 구성 등을 그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4-1 > SAT 검사 시기

검사 시기	검사 종류
2010. 10. 9.	SATRT & SATST
2010. 11. 6.	SATRT & SATST
2010. 12. 4.	SATRT & SATST
2011. 1. 22.	SATRT & SATST
2011. 3. 12	SATRT ONLY
2011. 5. 7.	SATRT & SATST
2011. 6. 4.	SATRT & SATST

<표 II-4-2 > SATRT 개요

시험유형 및 수준	영역	검사 구성	내용 및 유형
SAT Reasoning Test (SAT 추론능력검사):	쓰기	에세이 1문항(25분) 5지선다형 31문항(25분) 5지선다형 18문항 (10분)	에세이쓰기, 문장 오류찾기, 문항 발전시키기, 단락 발전시키기

시험유형 및 수준	영역	검사 구성	내용 및 유형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	수학	5지선다형 문항 20문항 (25분) 5지선다형 8문항 및 단답형 10문항(25분) 5지선다형 16문항(20분)	수와 연산, 대수와 함수, 기하, 통계, 확률, 자료분석
	비판적 읽기	5지선다형 24문항(25분) 5지선다형 24문항(25분) 5지선다형 19문항(20분)	문장완성하기, 지문 중심독해

<표 II-4-3 > SAT Subject Test 개요

시험유형 및 수준	영역	검사 과목	검사 구성
SAT Subject Test (SAT 교과학력검사): 교과목에 관한 지 식의 수준과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	언어	문학	5지 선다형 약 60 문항
	역사	미국사	5지 선다형 90-95 문항
		세계사	5지 선다형 95 문항
	수학	수학 1	5지 선다형 50 문항
		수학 2	5지 선다형 50 문항
	과학	생물	5지 선다형 80 문항 (일반 생물학 60문항 + 생태학 20문항 + 분자 생물학 20문항)
		화학	5지 선다형 85 문항
		물리	5지 선다형 75 문항
	외국 어	중국어 및 듣기	4지 선다형 85 문항
		프랑스어/ 프랑스어 및 듣기	프랑스어: 4지 선다형 85 문항 프랑스어 및 듣기: 4지 선다형 85-90 문항
		독일어/ 독일어 및 듣기	독일어: 4지 선다형 80-85 문항 독일어 및 듣기: 4지 선다형 85-90 문항
		현대 히브리어	4지 선다형 85 문항
		이탈리아어	4지 선다형 80-85 문항
		일본어 및 듣기	4지 선다형 80-85 문항
		한국어 및 듣기	4지 선다형 80-85 문항
		라틴어	4지 선다형 70-75 문항
		스페인어/ 스페인어 및 듣기	4지 선다형 85 문항

(2) 출제 체제

(가) 시행 기관

SAT 개발, 시행, 점수보고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미국대학위원회에서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위탁하였다. 즉, 미국대학위원회는 이들 검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개발 및 시행은 ETS에서 대행하고 있다. ETS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 측정 및 평가 전문기관이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SAT, GRE, TOEFL, TOEIC을 포함한 대규모 검사프로그램 14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47년 당시 폭증하는 각종 검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TS는 동년도에 미국대학위원회로부터 SAT를 넘겨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 ETS의 인력은 약 2,500명 정도이며, 이 중 전문가는 약 1,1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학, 심리학, 통계학, 그리고 심리측정학을 비롯하여 컴퓨터 과학, 사회학,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전공자들이다.

(나) 문항 개발 절차

ETS에서 SAT검사를 개발하여 실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검사 개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검사개발 지침에 따른 검사의 구성: 검사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두 가지 검사상세표(test specification)는 내용과 관련한 상세표(content specification)와 통계적 특성 관련 상세표(statistical specification)로 구분된다. 이 상세표에는 어떤 내용에서 문항이 출제되어야 하며 검사의 난이도, 변별도, 문항편과성 등과 관련해서 어떤 문항이 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세표에 따라 문항을 개발해야만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검사의 점수를 동등화 했을 때,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② 시안 형태의 문항 개발: 처음 출제자가 만들어 온 그대로의 시안 형태 문항 중 상당수는 기관 내부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다. 일부 문항은 외부인에게 의뢰되는데, '공모'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개는 실력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형태로 문항을 개발한다. 또한 지문 자체를 공모하는 경우도 있으며, 채택된 지문을 토대로 ETS 내부의 연구진에 의해 문항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 ③ 예비 검사 실시: 새롭게 개발된 문항은 실제 검사에 포함하기 이전에 정규 검사의 일부 섹션에 예비문항을 넣는다. 물론 이들 문항들은 수험생들의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얻은 각 문항에 대한 문항반응 정보는 문항의 양호도 분석에 활용된다.
- ④ 양호한 문항들의 문제은행 저장: 예비 검사 실시 결과 문항의 양호도가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은행에 저장된다. 또한 예비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문항은 추가적 수정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 ⑤ 검사의 구성: 문제은행에 있는 문항들을 검사 구성 원칙에 따라 골라서 새로운 검사를 만든다.
- ⑥ 검사의 실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검사는 정규 검사일에 실시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SAT는 문항 개발 절차와 검사 구성에 이르기 까지 문제은행 출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제방식에서도 ‘채택출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약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항을 출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3) 점수 체제

(가) 점수 척도

SATRT를 응시하는 피험자는 각 영역별로 200-800점의 척도점수를 받게 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점수는 10점 단위로 매겨지고 총점은 세 영역 점수의 합산으로 계산된다. 세 개의 주요 영역은 각각 세 부분으로 나뉘지며 여기에 연구나 ‘동등화’를 위해 25분의 시간이 배정된 검사가 포함되어 총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총 시험 시간은 3시간 45분이 소요된다.

SATST 수험생은 검사 시기마다 최대 3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점수는 원점

수로부터 척도점수를 산출하여 제공한다. 이외에 점수 범위, 자신보다 하위 득점한 학생 비율을 의미한 백분위가 기록된다. 점수 범위는 수험생이 취득한 점수의 상하 30-40점으로 표현된 점수 구간으로, 동일 응시자가 다시 시험을 치를 때 예상되는 점수 구간을 의미한다. 이 범위 점수는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점수는 0.5점을 기준으로 반올림한 뒤 200-800점의 척도점수로 변환되며, 척도 점수는 10점 단위로 계산된다.

(나) 검사 동등화 설계

SAT는 연간 7회 실시되는데 각 검사의 원점수 난이도 차이에 의한 수험생의 이익 혹은 불이익을 없애고자 검사동등화 과정을 거치며, 동등화된 점수는 척도점수로 전환된다. 그래서 각 수험생은 척도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척도점수는 수험생이 시험을 언제 치렀든 지에 상관없이 상호 직접 비교가 가능한 점수이다. 각 검사 일 마다 다른 검사지를 사용하는데, 이들 검사지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할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가능한 유사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모든 검사지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검사의 점수를 통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통계적 조정 과정을 검사동등화라 한다. SAT의 경우 문항반응이론에 입각하여 진점수 동등화를 사용하고 있다. 검사동등화 과정 중 검사 동등화 설계에 관련하여서 ETS는 공통 문항 비동등집단 설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새로운 검사형이 개발되면 이전에 시행된 문항 중 일부로 구성된 가교 검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피험자 집단에게 실시함으로써, 공통 문항에 대하여 이전의 피험자 집단에서 얻은 점수 분포와 새 피험자 집단의 점수 분포를 연계하여 검사 간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가교 검사는 외적 가교 검사 즉 피험자의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다. 피험자는 본래 SAT의 검사 영역인 3개 영역에 대한 검사 이외에 이들 영역 중 하나로 이루어진 가교 검사도 치르게 되는데, 이 때 실시되는 가교 검사는 피험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피험자는 어떤 것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가교 검사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SAT의 모든 문항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예비 검사를 거친다. SAT가 한 번 시행될

때마다 통상 몇 세트의 가교 검사가 포함되어 피험자 집단에게 무선 할당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여러 세트의 가교 검사 중 일부는 한 번도 피험자 집단에게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문항으로만 구성된 검사이고, 나머지는 예전에 한 번 이상 시행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의 점수 분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을 이용하여 척도화한 다음, 이전에 사용된 문항을 공통 문항으로 하여 현재 피험자 집단의 점수 분포와 과거 피험자 집단의 점수 분포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동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검사형은 과거에 실시된 두 개의 서로 다른 검사형을 통하여 각각 기준 검사형(base form)으로 동등화되며, 대체로 두 개의 동등화 관계를 평균하여 최종 동등화 관계를 결정한다.

SAT의 검사 동등화를 위한 문항 모수는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표본을 기초로 추정된다. 각각의 표본은 대략 3,000명 정도이며, 표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표본으로부터 관측된 자료를 의미한다. 즉 새로 개발된 검사형은 가교 검사 한 개 섹션과 동시에 피험자 집단(표본 1과 표본 2)에게 실시되며, 가교 검사 1은 과거에 이 검사를 치른 표본(과거 표본 1)으로부터 얻은 가교 검사 1에 대한 분포를 매개로 하여 과거에 개발된 검사형 1(과거 표본 1)에 연결된다. 같은 원리로, 가교 검사 2는 과거에 이 검사를 치른 표본(과거 표본 2)으로부터 얻은 가교 검사 2에 대한 분포를 매개로 하여 과거에 개발된 검사형 2(과거 표본 2)에 연결된다.

	새로 개발된 검사형	가교 검사 1	가교 검사 2	과거에 개발된 검사형 1	과거에 개발된 검사형 2
표본 1					
표본 2					
과거 표본 1					
과거 표본 2					

[그림 II-4-1] SAT의 동등화를 위한 행렬 표집의 예

SAT에는 피험자의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외적 가교 검사를 사용한 동등화가 적용되고 있는데, 외적 가교 검사를 통하여 과거에 개발된 검사형의 척도로 문항 모수를 조정하도록 설계하는 표집 방식이다.

(다) 검사 점수 보고

SAT검사 점수는 시험을 치른 후 약 3주 후에 알 수 있으며 우편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서면으로 점수가 통보되는 것은 6주 뒤이다. 물론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 그보다 더 일찍 결과를 알 수 있다(2주 후). 공식적인 성적통지표는 수험생, 수험생의 고등학교, 그리고 수험생이 요청한 대학이나 장학기관에 전달된다. 성적 통지표에는 수험생의 인적사항, 과거와 현재의 시험 점수, 백분위, 척도범위, 가장 최근에 학생이 작성한 학생용 질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 점수는 누적되어 기록되지만, 응시자가 선택한 점수만을 대학에 제출하는 Score Choice 프로그램이 최근 시작되었다.

(라) SAT 검사 점수의 활용

미국에 있는 약 3,600개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은 각기 다양한 학생 선발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대학입학사정 시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어떤 대학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을 뽑는데 초점을 두며, 또 어떤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입학은 쉽게 하되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학마다 SAT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각 대학에서 SAT 점수를 활용하는 유형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의 성적, 이수과목 이외에 수험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SAT 점수를 활용 한다. 둘째, 기본 자격을 검증할 목적으로 전형단계에서 SAT 점수를 하나의 기본자격 요소로 활용한다. 셋째, 해당 대학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과 유사한 SAT 점수를 가진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활용한다. 넷째, 성공적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SAT 점수를 활용한다. 미국대학위원회는 대학입학에 SAT 점수를 활용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하고 있다(The college board, 2004).

- ① SAT 검사 및 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서 검사의 적절한 활용법 및 제한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SAT 점수를 활용하는 사람은 평균, 중앙치, 최빈

치, 백분위, 측정의 오차, 차이점수에 대한 표준 오차, 신뢰도, 원점수, 척도점수, 동등화, 타당도, 상관계수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② 학생들의 입학여부를 결정하려 할 때는 SAT 점수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와 함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성적, 이수과목, 면접, 개인 소개서, 작문예시, 포트폴리오, 추천서 등과 SAT 점수를 함께 고려해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한다. 학생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서로 장·단점 및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자료도 그 하나가 완벽하게 학생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③ SAT 점수는 수험생의 능력에 대한 고정되고 정확한 측정치가 아니라 근사치일 뿐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검사점수는 일반적으로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차는 검사 제작이 잘못 되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검사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AT 점수의 측정오차는 30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다시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수험생중 3분의 2는 원래 점수보다 30점이 더 높거나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며, 수험생의 95%는 두 점수 간 차이가 60점 이내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수험생들의 점수가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의 오차 때문만이 아니라 수험생의 능력 자체가 변해서 점수가 변할 수도 있다.
- ④ 수험생의 SAT 점수나 다른 정보를 평가할 때 반드시 수험생의 개인 배경이나 경험, 수험생이 원하는 전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백인 남자가 받은 언어추론점수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수험생의 언어추론점수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백분위를 보더라도 각 수험생의 배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SAT 점수 간 조그마한 차이로 수험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수험생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SAT 점수가 60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 ⑥ SAT 점수만을 이용하여 최소 입학점수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입학전형 시 SAT 점수는 반드시 학생들에 대한 다른 정보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⑦ SAT 점수에 대한 타당도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⑧ 검사점수에 대한 보안 절차를 마련해서 지켜야 한다.
- ⑨ 입시정책을 바꿀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 ACT 시험 개관

(1) 시험 시행 및 구성

(가) 검사 목적과 배경

ACT 검사는 원래 미국대학시험(American College Testing)의 약자였으나 SAT와 마찬가지로 1996년부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독립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를 만드는 기관은 ACT, Inc.로서 시험이 처음 시행된 해인 1959년에 설립되었다. 1959년 이전에는 미국에서 대학입학시험으로 SAT만이 있었다. 당시에 SAT는 일부 유명대학에 입학할 학문적으로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초점을 두 있었다. 나머지 대학 신입생들은 개별 주나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의 점수를 토대로 입학허가를 받았다. 195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다. 학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대학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ACT 검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첫째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어떤 대학에 입학하고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둘째는 대학으로 하여금 입학전형과정 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 성공적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Lindquist(1901-1978)의 주도아래 ACT 검사가 개발되었다. ACT 검사의 기본 성격은 SATRT와 달랐다. SATRT가 학교 교육의 목표와는 관련이 적은 일반적인 학업 적성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ACT 검사는 애초부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초점을 두었다. 2002년 기준 약 12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ACT 검사에 응시했으며, 3,000 개 이상의 2년 및 4년

제 대학, 장학재단, 기술학교, 간호학교 등에서 ACT 검사를 수험생에게 요구 혹은 추천하고 있다. 현재는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미국의 모든 대학에 SAT 혹은 ACT를 제출할 수 있으며, ACT의 응시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 검사의 실시 시기와 구성

검사 횟수는 1년에 6차례 치러지며, 시기는 9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이고 항상 토요일에 치러진다. ACT 검사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영어(English), 수학(mathematics), 읽기(reading), 과학추론(science reasoning)의 4영역의 시험이었으나 2005년부터 SAT의 변화를 반영하여 쓰기 영역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자세한 검사 구성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4-4 > ACT 개요

영역	검사 구성	검사 시간	내용 및 유형
영어	4지선다형 75문항	45분	어법과 체계(구두법, 문법, 문장구조), 수사적 기법(전략, 구성, 문제)
수학	4지선다형 60문항	60분	기초 대수, 초급 대수, 중급 대수, 좌표 기하, 평면 기하, 초급 삼각법
읽기	4지선다형 40문항	35분	독해력(소설, 사회학, 인문학, 자연과학)
과학	4지선다형 40문항	35분	생물, 지구/우주 과학, 물리, 화학
쓰기*	서술형 1문항	30분	에세이

* 쓰기는 선택사항임.

(2) 출제 체제

(가) 출제 기관

ACT 기관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소재하는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ACT 검사의 개발, 시행, 채점, 점수보고 등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13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ACT 회장(CEO)은 이사회 의장이다. ACT 회장 아래 4개의 자문기관이 있다. 교육 관련 자문기관(education advisory board), 주 조직(state organization), 노동인력개발 자문기관

(workforce development board), 특별 자문위원회(ad-hoc advisory groups) 등이 그것이다. 주 조직은 ACT 사단법인의 회원 자격을 가진 주에서 ACT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ACT 회원은 ACT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ACT 기관은 현재 39개의 주 조직을 가지고 있다. ACT의 전체 예산 규모는 2003년 기준 약 1억 4천만 달러였고(ACT, 2003), 약 13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석.박사 소지자가 정규직원의 41%인 533명 정도이다.

(나) 문항 개발 절차

ACT 검사 문항의 출제 과정에서도 전문가 집단(consultant panels)이 제시한 내용 상세표와 통계적 특성 상세표(statistical specifications)를 이용하며 문항의 제작, 예비 시행,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고 채택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등 SAT의 문항 개발 절차와 많은 부분 유사하다. 따라서 ACT의 문항 개발 절차에서 독특한 점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CT 문항을 개발할 때 문항의 난이도는 정답률이 .20에서 .89 사이에 위치하고 평균적으로 .58이 되도록 하며, 이연상관계수(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로 측정되는 문항 변별도는 .20 이상이 되도록 맞추고 있다. 또한 고교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수준의 내용 전문가에게 출제를 의뢰함으로써 출제진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고 있다. 출제진으로 섭외되었다고 바로 문항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단 제공받은 지침(guideline)에 따라 제작한 샘플 문항을 문제 개발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최종적으로 출제진에 포함되게 된다. 문항 제작시에는 문제 개발팀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문항을 개발하며 보안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인당 출제하는 문항 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제작된 문항은 다시 ACT의 기준(standards)에 맞는지 다시 검토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항이 인종이나 성과 관련된 어떤 특정 집단에 편파적이지 않은지 확인하는 공정성 심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문항을 일군의 수험자

집단이 보게 함으로써 문항 시험실시(item tryout)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시험 실시된 문항의 각종 통계치를 확인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항을 걸러내고 양질의 문항들만 남게 된다. 이렇게 남은 양질의 문항들로 하나의 검사형(form)을 구성하는데 이 때 이 검사형은 검사에 알맞은 내용 상세와 통계적 상세를 모두 갖추도록 한다. 이렇게 품이 확정된 후 다시 한 번 각 문항의 내용적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하나의 검사형이 완성될 때까지 각 문항은 최소한 16번의 독립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점수 체제

(가) 점수 척도

ACT 검사점수는 원점수가 아닌 척도점수이며 정수로 표기한다. 하위영역 점수와 검사점수는 애초에 별개로 척도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들 간 수리적 관계는 없다. 예를 들어, 영어검사의 하위점수인 관용법과 수사기법을 합쳤을 경우 반드시 영어검사 점수와 같지는 않다. 현재의 ACT 점수 척도는 1988년 10월 수험생을 이용한 것이어서 이때 새로 개발된 척도는 이전의 척도와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ACT 척도의 속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영역별 척도점수의 평균은 18점이고, 범위는 1~36까지이다(표준편차는 고정하지 않았음). 둘째, 하위 영역 척도점수 평균은 9점이고, 범위는 1~18점이다. 셋째, 전체 검사 혹은 하위 검사 점수대의 측정오차가 동일하게 한다. 넷째, 전체 검사 혹은 하위 검사 점수대의 측정오차의 크기는 2로 고정한다. 다섯째, 종합점수의 측정오차는 1점이 되게 한다. 첫째와 두 번째 속성은 규준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함이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속성은 점수의 해석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ACT의 척도의 특이한 점은 척도를 개발할 때 척도점수의 표준편차를 미리 정하지 않고 측정오차를 미리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영역별 관찰점수에 ± 2 점을 하면, 개인의 진점수를 포함할 확률은 68%가 된다.

(나) 검사 동등화 설계

1년 기준으로 6회 시행되는 ACT는 이 중 몇 회분에서는 전체 문항을 공개하고 나머지 시험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비공개로 실시되는 시험일에는 과거에 개발되어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검사형 중 적어도 한 개와, 새롭게 개발된 검사형 몇 개가 동시에 실시된다. 검사동등화를 위한 통계방법으로 큐빅 스플라인을 이용한 동백분위 동등화 방법(equipercntile equating with cubic spline post-smoothing method)을 사용한다. ACT 동등화 설계는 무선집단 동등화 설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수험생들에게 시험 당일 실시될 몇 가지의 동형 검사형을 번갈아가며 할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검사형을 치르는 집단 간의 능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spiral process)을 적용하고 있다. 새롭게 제작된 검사형은 동일한 검사일에 실시되었지만 이미 과거에 동등화된 검사형으로 연계하고, 이 검사를 매개로 1부터 36점까지의 척도 점수로 변환함으로써 새 검사형에 대한 점수가 기준 년도의 척도 점수로 변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ACT가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연계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 표에 제시된 가상의 연계 계획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시행 시점 1에서는 최초의 검사형 A를 척도 점수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되며, 이것이 추후 개발되는 모든 다른 검사들의 기준이 되는 척도로 사용된다. 시행 시점 2부터는 새롭게 개발된 몇 개의 검사형을 과거에 개발된 검사형의 척도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표 II-4-5> 무선집단 동등화 설계를 이용한 동등화 연계 계획의 예

과 정	시행 시점	검사형		
점수 척도 구성	1	A		
무선집단동등화	2	A	B	C
무선집단동등화	3	C	D	E
무선집단동등화	4	E	F	G
무선집단동등화	5	G	H	I
무선집단동등화	6	I	J	K

앞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새로운 검사형을 기준 척도로 연결시키는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검사형을 나타낸다. 예컨대 시행 시점 4에서는 E·F·G 세 개의 검사형이 동시에 무선 할당 방식으로 시행되며, F와 G형에서 얻은 피험자 점수 분포를 E형의 피험자 점수 분포로 조정하고, E형의 피험자 분포를 C형으로, C형을 A형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준 척도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서 매개가 되는 검사형을 A형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연계 경로를 줄여 동등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같은 검사형이 너무 여러 번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연계 경로를 줄이면서 동시에 노출 빈도도 줄일 수 있도록 절충하는 연계 계획을 통해 동등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ACT의 경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매우 복잡한 형태의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다) 검사 점수 보고 및 활용

ACT 점수의 보고는 검사 실시 후 약 2주 후에 통지되게 된다. 정답에 대한 득점만으로 원점수를 구하며 이를 가공하여 1-36점 범위의 척도점수와 백분위가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ACT 검사 결과는 학생 보고서, 고등학교 보고서, 그리고 대학 보고서 형태로 각각 발행된다. 그 내용 및 활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종승, 1995).

① 학생용 보고서와 결과 활용

개별 학생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는 수험생 자신의 검사 점수,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관련된 진학 정보, 교육 및 진로 계획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 점수를 기록하는 부문에서는 영어, 수학, 독해, 과학 추론 등 하위 검사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제시하고, 전국의 대학 진학 희망자 집단에서 이 각각의 점수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백분위 점수도 함께 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백분위 점수가 어디까지나 추정치임을 감안하여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수띠(band score)로 보고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학생의 검사 결과를 수치와 함께 문장으로 개별화된 해설식 보고를 곁들인다.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란에서는 검사 등록 때 수험생이 선택한 3개 대학에 관한(추가 경비를 지불하

면 추가로 3개 대학을 더 지정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즉, 신입생 선발 정책은 어떠한가, 학생이 계획하고 있는 전공 분야를 개설하고 있는가, 1학년 집단의 고교 성적 평균치와 ACT 점수 분포 그리고 해당 수험생의 검사 점수가 신입생 집단의 성적 분포에 비추어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 대학에 입학할 경우 C학점 이상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등록금 액수 및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교육 및 진로 계획에 관한 정보란에는 직업 흥미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직업 세계도(world-of-work map)'에 수험생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표시하고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다. 그 밖에 수험생 자신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정보에 기초하여 교육 및 진로 계획에 참고 되는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검사 결과 보고는 학생으로 하여금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치로 표시된 검사 점수를 보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지방 및 전국 표준으로 제시된 검사 점수를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학생의 향후 진로 탐색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② 고등학교 보고서와 자료 활용

고등학교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는 두 가지 양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개별학생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고등학교 전체 수험생들에 관한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요약한 자료이다. 개별 학생에 관한 검사 결과 보고는 '학생용 보고'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학생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ACT 검사의 각 하위 검사별 점수와 종합점수, 그리고 이러한 점수에 해당하는 전국 및 지역 표준의 백분위 점수가 나타나 있다. 또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교과목의 최근 성적 평점, 직업흥미검사 결과, 교육 및 진로 계획에 관한 정보, 특수한 교육적 요구나 흥미분야, 진학 희망 대학에 관한 정보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해당 고등학교의 전체 수험생들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에는 각 학생의 시험점수, 직업흥미검사 결과, 기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30

명 이상의 학생이 응시한 고등학교에는 별도의 고등학교 프로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그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교육 기대 수준,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이 실려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카운슬러가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많이 활용한다. 예컨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이나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을 할 때 이상의 검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 또한 학생들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환경의 개선에 반영하기도 한다.

③ 대학교 보고서와 자료 활용

대학용 검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용이하도록 마그네틱 테이프나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전달한다. 여기에는 각 학생에 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ACT 검사의 하위 검사별 점수 및 종합점수와 이러한 점수의 전국 및 지방 규준에 비추어 본 백분위 점수가 나타나 있다. 고등학교용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학생의 직업 흥미검사 결과, 교육 및 진로 계획에 관한 정보, 특수한 교육적 요구나 흥미 분야, 고등학교에서 주요 교과목을 공부한 기간과 평균 성적, 고교 재학 시 참여한 과외 활동과 장차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과외 활동 계획에 관한 정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 독특한 점은 각 학생별로 해당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예상되는 성적 평점의 등위, 몇몇 주요 교과목에서 C학점 이상 받을 확률을 예측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모든 대학에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CT 연구소 측과 사전에 '연구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대학에 국한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ACT 점수를 신입생 전형의 주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 밖에도 이 검사 점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그들의 능력에 알맞은 과목 수준을 선택하는 일종의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이 검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나 수학 등 몇몇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수도 있다.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의 시험이 한국 대학 입학 시험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수능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서 오는 수험생의 부담이 있다. 시험 당일의 시험운과 상황에 수험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현행의 수능 시험 시행 방식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재 하루에 모든 과목을 치루는 시험 기간을 2-3일로 늘려서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수능은 5지선다형 문항인데 비해, 중국, 프랑스, 미국의 경우 필기 시험은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형 출제 방식은 사고력을 제한하고 암기 중심의 교육을 유발하므로,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 중심의 서답형 출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과목당 시험 시간을 늘리고 문항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째, 중국은 함숙 출제이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문제은행식과 출퇴근하면서 문항을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능이 자격고사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은행식 출제도 고려할 수 있으며, 시험의 횟수도 늘어나갈 수 있다.

여 백

Ⅲ. KICE 국가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²⁴⁾

1.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방안
2. 문제은행제의 의의와 도입 조건
3. 인쇄 체제 개선 방안

24) 이 부분의 개선 방안을 세 가지로 한정시켜 제시한다. 학업성취도는 국가고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한 것이고, 문제은행체제는 우리 원이 수능형으로 몇 년간 연구·개발한 결과를 정리해 보려는 목적으로 선정하였고, 인쇄는 국가고사 관리체제의 기술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여기서 내 놓은 국가고사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연구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여 백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현황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요는 <표 III 1-1>과 같다.

<표 III 1-1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요

년도	전수/ 표집	평가 주기	평가 시기	대상 학년	대상 과목	목 적
~2008	표집	1년	10월	초6, 중3, 고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육목표의 도달 파악 ·성취수준의 변화 추이 파악
2009~	전수	1년	7월	초6, 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육목표의 도달 파악 ·성취수준의 변화 추이 파악
				고2	국어, 수학, 영어	·개별 학생의 보정 교육

- 표집규모 및 평가 시기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까지 표집의 형태로 10월에 시행해오다 2009년부터 개별학생의 보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수로 전환하면서 보정 교육 기간의 확보를 위해 7월에 실시하고 있다.
- 대상 학년 및 대상 과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까지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 시행 시기를 7월로 조절하면서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가 좁은 것을 고려하여 대상 학년을 고1에서 고2로 바꾸었다. 이때 새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10학년에서 9학년으로 조정되면서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학이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고등학교 2학년의 대상 과목에서 사회, 과학이 제외되었다.

25) 이 부분은 국가고사 관리체제의 한 사례로 선정된 것으로서 공식적인 정책방안이 아니라 가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시한다.

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의 단계별 특징

<표 III 1-2>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부터 결과보고 까지 모든 시행 과정의 단계별 특징이다.

<표 III 1-2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의 단계별 특징

단계	출제 흐름	각 시행 단계의 특징
1	출제 위원 섭외	- 2010년 평가의 경우 출제 위원 1인당 6~8문항 출제하게 섭외
2	출제 위원 워크숍	- 출제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이해를 위해 1일 동안 시행
3	출제	- 재택 출제와 협의회를 병행해오다가 최근 합숙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예비검사로 문항의 완성도를 높여왔으나 2009년 전수 평가로 전환되면서 예비검사가 없어졌음.
4	시험지 인쇄	- 교육청별 인쇄방식에서 일관성 있는 평가와 전체 예산 절감, 교육청의 업무 경감을 위해 평가원에서 초,중,고 전체를 인쇄하여 제공
5	시행	- 교과부 및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평가원에서 배부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시행
6	채점	- 일부 학교를 표집하여 답안지를 평가원에서 채점하여, 서답형 채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 교육청별로 채점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평가원에서 수합
7	결과 분석	- 예년 검사 도구와 동등화 문항을 두어 2003년도를 기준으로 당해 원 점수를 척도 점수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침. - 성취수준, 성별, 지역별, 배경변인별 성취도 분석
8	성적 발표	- 당해 학생 성적과 함께 학교별, 교육청별 성취수준 비율 발표
9	결과 보고서 작성	- 발표된 당해 학생의 척도점수와 더불어 개별 문항 정보를 산출하여 문항의 특징을 분석하여 발표

1) 예비검사 시행의 유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도달 정도 파악과 학생들의 성취도 추이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항 보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학생들의 성취수준 진단과 보정 교육 방향 도출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이므로 검사도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검사를 시행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장점	단점
예비검사 시행	◦ 문항의 완성도가 높아져 신뢰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본검사를 위한 문항 정보가 예비검사 시행 학교에 노출된다.
본검사만 시행	◦ 문항 정보 노출이 없다.	◦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기 어렵다. ◦ 목표한 많은 정보를 문항이 충분히 담기 어렵다.

2) 여러 출제 방식의 특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로 시행되면서 검사가 저부담에서 고부담으로 바뀌어 문항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래서 재택 출제를 없애고 합숙 출제 방식으로 문항 출제 방식이 바뀌었지만 우수 출제자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합숙 기간은 줄이고 삽화나 최종 검토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합숙을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과정 도달도 확인을 위한 다양한 문항을 검사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장점	단점
재택 출제	◦ 학업성취도 평가는 저부담 시험으로서 2003년 시행 원년부터 재택 출제 방식을 유지해왔다. ◦ 재택 출제 방식은 현장 교사들의 수업 결손이 없어 우수 출제위원을 섭외할 수 있다.	◦ 다수의 문항 검토 과정이 없어 문항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재택 출제와 합숙 선제	◦ 충분한 시간 동안 재택 출제를 하여 문항을 완성 한 뒤 최종 검토와 문항 채택을 위한 합숙 시행함. ◦ 순수 재택 출제 방식보다 문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과학 및 사회과의 경우 삽화를 출제 위원이 모두 검토하지 못한다. ◦ 집단 검토 시간이 부족해 문항의 완성도를 충분히 높이지 못한다.
합숙 출제	문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 결손 문제가 발생하여 우수 출제위원을 다수 확보하지 못한다.

3) 시행 규모의 특징

2009년부터 개별 학생의 교육과정 도달 정도 파악과 개별 학생의 보정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전수 시행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전까지 시행하던 표집 방법과 전수 시행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질적 목적인 교육과정 도달도 확인과 개별 학생의 보정 교육 방향 도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문제은행을 통해 확보한 문항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시로 학교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점	단점
표집	◦ 2003~2008년 사이 표집 평가로 시행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도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개별 학생들의 교육과정 도달 정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전수	◦ 개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다. ◦ 시험 준비 등으로 학생들의 자연스런 상태에서의 능력 측정이 어려워진다.

4) 시행 시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질적 목적이 교육과정 도달도 확인인점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급의 2학기 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교육과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보정 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수시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연중 실시하여 학교별로 보정 교육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학년 마지막 겨울 방학 동안 기초학력 미도달자의 보정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는 방안, 다음 학교급의 연초에 보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점	단점
1학기초	◦ 개인 진단 정보를 1학기 중에 제공하여 보정교육 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출제를 겨울방학 중에 운영하므로 출제를 위한 교사들의 수업 결손이 없다.	◦ 해당 학교급의 마지막 학년의 학습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 모든 범위를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해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문기에 정보가 부족해진다. ◦ 1학기 성적 제공을 위해 학기 중 채점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1학기말	◦ 개인 진단 정보를 2학기 초에 제공하므로 2학기를 보정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서답형 문항 채점을 여름 방학 동안 실시함으로써 채점을 위한 교사들의 수업 결손이 없다.	◦ 해당 학교급의 마지막 학년 2학기 학습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

	장점	단점
2학기말	◦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보정교육 시간을 마지막 학년 겨울 방학에 갖거나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 서답형 문항 채점을 학기 중에 실시함으로써 채점을 위한 수업 결손이 있다.

5) 성적표 표기 및 성적 일람 제공 방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교육과정 도달도 확인을 위한 준거참조평가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등수 산출을 위해 최상위 변별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들이 학생 정보를 구체적이며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장점	단점
성취수준만 제시	◦ 학교별 비교, 학교 내 학생 서열화를 막을 수 있다.	◦ 개인의 학교내 서열을 알 수 없다.
성취수준 외에 과목 내 하위 정보, 원점수 제공 제공	◦ 과목 내 하위 정보(대영역별, 중영역별, 행동영역별)를 제공하면 보정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울 수 있다.	◦ 과목 내 하위 정보 도출을 위해서는 동등화 가능한 최소 문항 수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문항 수로는 다양한 정보 도출이 어렵다.
	◦ 원점수를 제공하면 교사가 학생들의 서열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점수를 이용한 학생 서열화로는 학생의 보정 교육 방향 도출이 어렵다.
	◦ 학교별 평균 척도점수를 제공하면 전국 내 학교의 서열을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 총점만으로 학교의 우열을 판단하는 위험이 생기며, 문제 풀이 위주로 학교를 과행 운영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의 방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봄으로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과정 도달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해당 학교급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학생들의 보정 교육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학생이나 학교, 교육청의 서열 확인을 위해 정보가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가급적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대영역, 행동영역별 성취수준, 오개념 정보)
- 학교의 운영을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해 파행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 문항의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2

문제은행의 의의와 도입 조건

- 수능 출제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제기된 문제은행 운영에 관한 고찰 -

가. 문제은행의 정의

문제은행은 그 의미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김경훈 외, 2005). 즉, 문제은행은 ‘검사 문항들을 모아 놓은 것’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수의 문항들을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모아 놓은 것’(Millman & Arter, 1984; Ward & Ward, 1994), ‘검사 문항들의 집합체로서 각 문항의 내용(교과 영역, 교수 수준, 문항이 평가하는 교수 목표 등)과 측정학적 특성(난이도, 신뢰도, 타당도 등)을 고려하여 색인화하고 조직화하여 놓은 것’(Choppin, 1981; Gronlund, 1998),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능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검사 문항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춘 양질의 문항을 제작, 정리, 보관하여 놓고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절차나 체제’(Wood, 197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문항을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문항의 특성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 활용하는 통합된 전산 체제를 가리킨다(백순근, 1997).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달한 요즘의 문제은행은 문항 정보에 대한 전산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제자가 필요한 문항을 선

택·편집하여 인쇄하고, 검사를 실시한 뒤에는 채점과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비롯하여 성적 통지까지 가능하도록 검사 문항을 분류, 저장,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중앙교육평가원, 1986; Lippey, 1974).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문제은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제은행은 내용과 특성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는 문항들의 조직체(교육평가연구회, 1995)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공통으로 포함된다(김경훈 외, 2005). 첫째로 상당히 많은 수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당히 많다’는 것은 검사의 실시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문항 수보다 몇 배 이상 더 많은 문항(Millman & Arter, 1984)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문항이 효율적으로 검색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항들이 찾아보기가 만들어져 체계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문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항의 특성들(난이도, 변별도, 핵심어, 내용 영역별 분류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로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은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고 적절하지 않게 된 문항은 수정되거나 제거된다. 따라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문항을 검토하여 갱신하거나 폐기하는 일련의 작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문제은행은 사용될 목적과 상황,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많은 내용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을 넓힘으로써 문항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화시킬 수 있어 양질의 문항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문항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문항 개발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도 있다(백순근, 1997; 김경훈 외 2005). 그러나 개발 초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되고 일정 규모의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난 뒤에도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고 적절하지 않게 된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문항의 노출이나 유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양질의 문항을 개발하여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출하

여 검사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항 풀(pool)의 척도화와 검사 동등화 등이 요구되므로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이론 연구와 더불어 각 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김경훈 외, 2006). 특히 수능처럼 검사 문항을 공개하고 한 번 출제된 문항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이상에서 논의된 것 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더욱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나.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과정 개관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항수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제 체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합리적으로 구안하여야 한다. 또한 구안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선결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이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2006년 연구(김경훈 외)에서는 문항 제작, 문항 검토, 문항 정보의 저장, 검사지 구성과 관련된 체제만을 완성하여 현재의 폐쇄형 출제 체제를 보완한 과도기적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방안을 구안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예비검사의 대상자 선정, 문항 노출 관련 대비책 마련, 예비검사 설계 방식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2007년도 연구(이창훈 외)에서는 폐쇄형 출제 체제 개선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예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수능형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제안하였다. 수능형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는 현재 수능 출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출제 체제와 달리 폐쇄된 장소가 아닌 곳(집)에서 미리 문항을 개발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문항을 추출하여 선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검사지를 구성하는 과정은 기존의 수능 출제 방식과 동일하게 폐쇄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계획함으로써 기존의 출제 체제에 변화를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의 개발 방식을 다원화하고 고부담 시험인 수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집단 토론으로 진행되는 합숙식 제작회의를 운영하고 검토 과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문제은행 문항 저장 시스템에 따라 문항을 상세 분류하여 저장하

고, 선형계획법으로 문항 풀에서 문항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항을 이용하여 검사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수능형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는 수능이 복수로 시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검사 때문에 문항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동등화 방식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동등화 설계와 통계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공통문항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통 문항을 사용하여 검사 사이에 난이도를 조정하는 전통적인 동등화 결과와 비교할 때 얼마나 정확성이 확보되는지, 별도의 오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2008년 연구(이창훈 외)에서는 검사 동등화 설계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설계안과 통계 기법마다 앞서 기술한 기초하는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동등화 방안을 선부르게 수능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사실 기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어떠한 동등화 설계나 통계 기법을 사용하든지 점수를 추정하는 데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두 가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두 검사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복수시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검사 동등화를 하더라도 두 검사의 난이도가 벌어질수록 오차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동등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난이도의 유지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2009년 연구(조윤동 외)에서는 수리와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면서 두 영역에서 개발하는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개별 문항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문제지 전체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각 검사의 출제 과정에서 난이도를 점검하면서 문항을 개발, 수정해 가면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난이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항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형으로 예측한 난이도가 실제 난이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는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연구(조윤동 외)에서는 지금까지 문항을 개발한 모든 영역/과목에서 문제은행 문항을 적용하였다. 문제지를 구성할 때 출제 문항의 일부를 문제은행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에서 추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진행되었다.

이로부터 문항을 추출하고 검사지를 구성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출과 문항 사용 과정, 추출된 문항을 분석하여 문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문제은행을 운영하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려고 하였는지,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나서 종합하려고 한다.

다. 문제은행을 운영하려는 목적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로 치르는 검사는 예비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의 검사 결과를 동등화하여 보정한 다음 수험생의 점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언제 검사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그 검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 복수 시행

두 번 이상 검사를 치를 수 있게 하여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력이 최대한 발휘하였을 때의 성적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살리려면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사이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여 검사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검사 동등화인데, 수능과 같은 고부담 검사를 동등화하기 위해서는 검사 동등화를 하고 있는 다른 검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에 맞는 동등화 설계와 통계 기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동등화 설계와 통계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예비검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사 동등화에 필요한 문항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검사를 동등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비검사를 실시하

려면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복수시행, 검사 동등화, 예비검사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2) 합숙식 출제체제의 문제 극복

먼저 오랫동안 진행되는 합숙 때문에 강의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줄 것이라 본다. 문제은행 체제에서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세 차례의 짧은 기간(1-3일)을 적절한 시기에 집중 운영하면서 문항을 개발한다거나, 전적으로 채택 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문항 개발위원들이 합숙 출제만큼 숙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문항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나 수업이 중단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합숙식 출제체제에서 출제기간이 짧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어 출제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본다.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출제 기간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 현행 출제 방식에 비하여 장점이 있다. 즉, 다양하고 참신한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문항 개발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항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토자에 교수도 포함할 수 있어 문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시험 사이에 문항들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것은 아마 미국의 SAT나 ACT 같은 검사를 보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내용/행동 영역의 개수보다 매우 적은 수의 문항이 출제되는 수능에서 그 과목이 다루는 개념의 일부를 다룰 수밖에 없고 해마다 다른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수능의 특성 때문에 시험 때마다 다른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지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은행이 커다란 역할을 하기 어렵다.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검사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한다면 과목 전체를 수업하지 않게 되어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 예비검사의 결과가 없는 문제은행에서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3) 출제의 수월함

검사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문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출제 방향에 맞게 추출하여 사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문항을 제작하면서 출제하는 현행 합숙식 출제보다는 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 문제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

어떤 검사를 문제은행을 이용하여 치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그 검사는 어떤 목적을 띠고 있으며 성격은 어떠한지, 그 검사가 치러지는 사회의 특성은 어떠한지와 같은 사회 배경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항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 검사지가 어떠한 문항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는지와 같은 문항 출제와 검사지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야 한다. 셋째로 치러진 검사의 채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같은 점수 체제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넷째로 행정적인 측면으로 원서 접수부터 답안지 채점까지의 여러 절차도 조사해야 한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은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험 체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의 목적과 성격을 포함하여 시험 과목의 이원목적분류표와 문항 유형 등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항을 개발하고 저장하기부터 시험지를 구성하기, 검사를 시행하기, 검사 결과(점수)를 처리하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방식이 큰 폭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검사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능 출제 체제가 개편되면 그 동안에 구축해 왔던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가 대부분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수능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 목적에 따라 시험의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원목적분류표의 내용 영역뿐만이 아니라 행동 영역이 바뀌면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달라진다. 또한

과목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문항의 유형도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개발하여 저장해 두었던 문항들을 새로운 틀에 맞춰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문항을 개발하는 방식이나 저장하고 추출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점수 체제까지 출제와 검사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이 조정되고 바뀌어야 한다. 수능의 목적이나 성격이 바뀌지 않고 이원분류표만 바뀌더라도 이전에 개발되었던 문항들의 폐기나 수정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따라서 시험 체제의 안정은 문제은행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조건이다.

(2) 교육과정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과/과목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는 과목의 통폐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출제 대상 과목의 검사 문항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몇 가지의 내용이 빠지면 그 내용을 다루던 문항을 수정해야 하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문항을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의 문항에서 새로운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교과 내용의 침식 정도가 아닌 대폭 수정이나 과목의 통폐합은 이전에 만든 문항을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은행을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육과정이 일정 범위 안에서 안정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일어날 수도 있다. 교과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변화의 폭이 커서는 안 된다. 교과 내용도 대대적인 개편이 아니라 침식과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수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은행을 안정되게 운영하는 필요 요소이다.

아니면 문제은행에서는 교육과정이 안정된 교과/과목만 시험 대상으로 하든지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항상성이 유지되는 내용만 다루는 것도 생각해볼만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만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피험자의 조건이 언제나 같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문제은행을 운영하는 목적의 하나는 복수로 검사를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복수로 검사를 치를 때에는 시험 사이의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시험이 동형검사라 하더라도 그 시험을 치르는 집단의 성격이 다르다면 검사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동등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크다면 오차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검사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대상자인 피험자 집단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검사 동등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급으로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험자 집단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많은 학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검사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2등급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2차 시험에서는 1등급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심지어 2차 시험의 평균이 내려가면서 표준점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1차 시험의 1등급 구분점수보다 2차 시험의 1등급 구분점수가 더 높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험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은 복수시행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을 떠나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예비검사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행을 운영하는 목적은 검사 동등화가 보장된 복수시행이고 검사 동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검사가 필수이다. 예비검사를 실시하여야 심리측정학적 문항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검사 동등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동등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검사에 공통으로 쓰이는 문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항들은 같아야 한다. 이러한 데에 쓰이는 것이 예비검사로부터 심리측정학적 문항 정보를 얻은 문항이다.

이러한 예비검사를 치를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번 출제되었던 문항을 다시 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비검사 문항은 전체 수험생에게 풀게 하기 전에 일부 수험생에게 풀게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표집 검사 결과를 이후에 치르는 본 검사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검사에 쓰인 문항과 그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문항이나 검사에 관련된 정보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동등화 설계와 기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복수시행에서 수험생 집단의 불변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검사의 동형성을 전제로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러진 검사들을 동등화하였을 때 오차를 얼마나 최소로 할 수 있는가하는 점일 것이다. 이는 수험생이 어느 시험을 치르든지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 동등화 설계나 점수를 처리하는 통계 기법은 매우 중요하다.

검사 동등화 설계 방안으로는 일반적 동등화 설계안으로서 단일집단 동등화 설계, 무선집단 동등화 설계(미국의 ACT), 공통 문항 비동등집단 동등화 설계(미국의 SAT)가 있는데 수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상한 동등화 설계안으로는 공통 수험생 집단 설계, 검사 외적 정보를 이용한 동등화 설계, 비공통 가교 검사를 이용한 동등화 설계, 비공통 가교문항 복합설계가 있다(2007, 이창훈 외).

대부분의 동등화 연구가 공통 가교문항을 포함한 검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안정된 검사 동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출제되었던 문항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문항을 다시 사용하는 것과 예비검사를 거치는 문항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고 수험생들의 능력이 검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이 동등화 설계의 기본 가정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동등화를 할 때 오차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서 볼 때 수능의 복수시행과 검사 동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시행한 측정연구뿐 아니라 수능의 성격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부담 시험인 수능에서 과연 검사 동등화 체제의 적용이 옳은 것인지, 수능 시험의 성격을 적성 검사의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수능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 동등화 도입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 동등화를 위한 척도화 통계 기법으로는 고전검사이론에 근거한 고전적 방법으로서 평균 점수 동등화, 선형 동등화, 동백분위 동등화가 있고 문항반응이

론을 이용한 척도화 기법으로서 IRT 척도 변환 기법으로는 평균/평균 방법, 평균/표준편차 방법, Haebara 방법, Stocking-Lord 기법과 IRT 진점수 동등화(True score IRT equating), IRT 관찰점수 동등화(Observed score IRT equating) 기법 등이 있다(2008, 이창훈 외).

IRT 동등화는 기본적으로 모형을 통해 난이도, 변별도, 피험자의 능력점수를 계산하게 된다. 바꾸어 기술하면 IRT 동등화 점수의 경우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여 원점수에 통계적 조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환에 따른 동등화 오차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점수 차이에 극도로 민감한 수능에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예측 점수 체계가 관찰점수(원점수)와 같이 제공된다면 학생, 학부모 등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능에서 검사 동등화는 측정학적 오류를 줄이는 연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공통 가교문항을 사용한 검사 동등화 설계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공통 가교문항의 사용 여부, 문항 수, 관측자 수, 기타 통계적 조건들이 다를 경우 동등화 점수 오차에 대한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이 다를 경우 오차에 대한 결과가 동등화 기법마다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각 동등화 설계안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해당 설계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특히, 수능은 문항들이 선다형을 포함한 혼합형 검사이고 다차원성을 측정하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검사이므로 나중에 수능 검사와 형식이 비슷한 검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위에 제시된 여러 설계 절차와 통계 기법을 적용해 가며 분석하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6) 모든 시험은 모든 수험생이 학습한 내용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수험생에게 최소한의 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재수생과 재학생 사이에서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최소한의 조건이란 시험 범위에 포함된 내용을 모든 수험생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을

학습했는지의 여부가 수험생 개인의 책임에 물을 수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수능을 치르는 시기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 고등학교 3년 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생이 적어도 이수한 뒤에 수능이 치러져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3학년 2학기 끝 무렵에 수능을 치러야 한다. 이는 복수 시행의 횟수가 매우 제한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횟수를 늘리려면 시험 범위를 줄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운영은 파행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험이 일관되고 동질성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여러 번의 시험 성적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제출하도록 할 경우, 어떤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두 시험의 내용 및 형식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두 시험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출제 위원들의 판단에 의존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방법은 시험 간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을 지금까지의 수능이나 모의평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수능을 성공적으로 복수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검사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나 심리측정학적 정보가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시험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출제 범위를 같게 하는 것이다. 두 시험이 다루는 시험 범위가 같지 않다면 내용 특성이 전혀 다른 문항이 검사에 포함되어 두 시험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항 특성의 불변성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시험이라도 교육과정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게 된다면, 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집단의 특성도 달라지므로 두 시험을 동등하게 하려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피험자 능력 불변성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7) 문항수가 많아야 한다

지금처럼 각 교과/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에 건줘 문항수가 매우 적어서는 두 시험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를테면 출제 범위에 들어 있는 개념은 매우 많은데 두 검사지를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적은 개수의 문항만으로 제작한다고 해보자. 더군다나 이원분류표의 행동 영역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수능에서

출제하는 문항 수로는 학생들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여러 개의 개념을 하나의 문항에 담아 출제하고 있지만, 많은 개념을 충실히 다루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2차 시험이 1차 시험과 일관성,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2차 시험에서는 출제 내용이 상당히 한정되어, 수험생들이 집중 공략함으로써 복수시행의 기본 전제인 문항특성 불변성과 수험생(피험자) 능력 불변성이 만족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과목이 다루고 있는 개념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문항수가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 시간, 문항 유형을 비롯한 수능의 성격이나 목적과 맞물려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써 간단한 것이 아니다.

(8) 문항의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같거나 유사한 문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다. 문항을 공개하면 같은 문항을 두 번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화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다. 문항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방송(EBS)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현재의 상황을 정반대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장벽에 부딪힐 것이다.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고 그것을 국민이 받아들이더라도 시험을 치른 문항을 빼돌리려는 사람도 있다. 지난 2009년 5월 22일 미국 SAT 시험지를 돈을 받고 팔기 위해 고사장에서 빼돌렸던 사건이 있었다(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또한 2009년 1월과 2006년 12월에도 SAT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 입학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의 경우 유출의 유혹은 엄청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항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모든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하여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문항을 외워 나가는 경우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사회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복수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 절차를 없애야 한다. 문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문항을 공개하는 것과 맞물려 있지만, 문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수험생이 자기의 기억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평가원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항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평가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공식적인 답변은 문항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 문항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문항이 되어버리고 만다.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의도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공개 문항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문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평가원 내부에서 감지되면 오류심사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마. 수능이 치러지는 현실 여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검사를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로 치르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복수시행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복수시행으로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수능의 특성부터 시험을 치르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까지 두루 언급하고자 한다.

(1) 수능은 매우 민감한 고위험 시험이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현재 수능에서 수리 영역의 ‘가’형은 공통과목(수학 I, 수학 II)에서 출제되는 25개와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에서 한 과목 선택)에서 출제되는 5문항을 선택하여 모두 30문항을 풀도록 되어 있다. 이때 ‘가’형을 치른 수험생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등급을 매기기 위하여 25개의 공통

문항 점수를 기준으로 선택문항 5개의 점수를 보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때 ‘미분과 적분’을 선택한 학생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에서 각각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표준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가 다르고,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여기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때가 자주 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의 공통문항을 기준으로 점수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가 자주 있는데, 많아야 30%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는 공통 가교문항으로 동등화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많은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복수시행과 검사 동등화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첫째 양질의 문항을 대량 확보해야 하고, 둘째 예비검사를 통해 얻은 문항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셋째 공통가교문항을 이용하여 동등화 설계안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험 사이에 측정 구인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복수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집단의 심리학적(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 정의되는 검사 동등화는 특정 검사에서 사용된 점수를 보정하여 다른 검사의 점수와 서로 양립(interchangeable)하게 만드는 통계 절차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열거한 모든 전제가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성립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무시하고 선불리 동등화 설계안과 척도화 작업을 적용하였을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예비검사를 통해서 문항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기출문항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 공통가교 문항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동등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거의 없다. Saida와 Hattori(2008)는 수능과 같이 다른 문항정보를 내포할 수 있는 검사 사이의 동등화 연구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동일한 내용정보를 포함한 문항과 동일한 능력 집단을 대상으로 동등화를 실시해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현 수능체제에 적합한 동등화 절차를 구안하기란 어렵다.

기존의 심리측정 문헌에 제시된 다양한 검사 동등화 방법은 개발된 문항의 일부나 전체를 소수의 수험생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검사하여 문항 정보를 얻는 작업

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부담 시험인 수능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풍토 때문에 문항 정보를 사전에 얻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시행 연도 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음에도 검사 동등화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저부담 시험이며 사회적 과급효과가 적은 ‘한국어 능력 시험’과 같은 시험에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우선 적용하여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 까닭은 수능과 같은 고부담 시험을 대상으로 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적용한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부담 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우선 구축하여 시행해보고, 문제은행식 출제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수능 체제가 심하게 바뀐다

수능 체제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와 맞물려 바뀌기도 하지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 수능 체제 자체가 독립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입학 시험 체제 전체를 뒤바꿀 만큼 국가 단위 대입 관련 시험이 대폭 바뀌기도 한다.

첫 번째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폭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두 번째는 이번 2014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논의와 같은 경우이다.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이라는 이름 대신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이름을 사용하면서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교과에서는 두 유형의 검사(A형과 B형)를 구성하여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이나 진로에 따라 선택하여 치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B형은 현행 수능(이미 발표된 2012학년도 수능) 수준을 유지하되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는 줄이고 쉽게 출제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하였다(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 2010). 특히 영어는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현재 17개 과목에서 선택하여 치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다섯 개의 과목군으

로 묶어 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보다 더 깊은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출제하여 오던 문항과 전형 다른 성격의 문항으로 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전에 문항을 개발하여 저장해두어야 하는 문제은행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험의 목적은 변하지 않더라도 성격이 변화하게 되면 출제의 기본이 되는 이원분류표(특히, 행동 영역)와 문항의 유형, 검사 전체의 난이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검사의 이름 자체까지 바뀌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 변화의 폭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험 체제의 변화는 장기 계획과 시행이 필요한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에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이전에 개발한 문항을 폐기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항을 소폭이든 대폭이든 수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문항 보안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항을 개발하여 저장하고 추출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갱신을 비롯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절차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3) 교육과정이 자주 바뀐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수능을 비롯한 국가 단위 시험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대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지나치게 자주 대폭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변화된 사실만 교과/과목 내용에 반영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과목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과 편제, 시수 등과 같은 것들도 모두 바뀔으로써 본래 의미의 문제은행 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와 과학 교과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담기는 내용이 대폭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문제은행에서는 충분한 수의 문항을 확보하여 원활히 적용할 수 있기도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축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이전에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폐기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

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이 국가 단위 대학입학시험 출제 체제의 개편과 맞물리면 문제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판단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시험 체제가 바뀌면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시험 체제에 적합한 시험을 치르는 학년도가 되기에 앞서 새 교육과정이나 시험체제에 맞는 문항을 개발하고 저장하기 시작하여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체제의 시험을 치르는 전 학년도까지는 기존의 시험 체제나 교육과정에 따라 저장, 추출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구체제와 새로 개발하는 문항을 저장하고 추출하기 위한 체제를 별도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간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체제 구축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 것이고, 기존의 문항을 별도로 관리, 처리해야 하는 비용도 들 것이다.

(4) 시험을 치른 문항이 공개된다

문항의 공개는 복수시행의 기본 전제인 예비검사를 치르는 데 있어 아주 치명적이다. 지금도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전에 출제된 문항을 다시 출제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에도 변형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의 내용이나 유형 등은 바로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상업용 수능 참고서에 실리기 때문이다. 공개되어 있는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면 그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했던 요소들을 올바르게 측정하지 못한다. 조금 변형하는 정도로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비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두 시험의 동등화를 하는 기준이 되는 문항을 사용할 수 없다. 한 번 출제된 문항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학생의 인지적 성취 수준과 같은 동일한 구인을 연도별로 측정하면서도 시험 사이에 문항 특성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해당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수능을 두 번 치렀던 1994학년도에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였는데도 원점수(100점 만점 환산) 평균에서 언어 영역의 경우는 8.6점(1차 62.9점, 2차 54.3점), 수리 영역의 경우는 4.5점(1차 40.9점, 2차 36.4점), 외국어(영어) 영역(이하 영어 영역)의 경우는 자연계에서 4.7점(1차 49.7점, 2차 54.4점)의 차이가 있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5) 이의제기 제도가 있다

이의제기 제도는 문항을 공개하는 것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문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 출제된 문항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결국 문항이 공개되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일부러 문제가 없는 문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항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것과 별개로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면 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문항 정보를 공개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문제은행을 운영하는 데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을 처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더 들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능을 짧은 기간 사이에 복수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의제기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6) 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

현재 수능에서 치러지고 있는 시험 과목은 모두 47과목(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각 1, 사회탐구 11, 과학탐구 8, 직업탐구 17, 제2외국어/한문 8과목)이다. 실제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은 여러 과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많은 과목에서 문제은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충분한 문항 수를 짧은 기간 동안에 개발하려면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문항을 개발하여 저장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문항을 개발, 저장, 추출하는 업무를 맡는 조직을 꾸려 나가고,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어떤 나라도 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은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수능 출제체제가 바뀌더라도 34과목(국어, 수학, 영어 각 1, 사회탐구 10, 과학탐구 8, 직업탐구 5, 제2외국어/한문 8과목)이나 된다. 더군다나 직업탐구 영역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과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출제해야 하는 내용(과목)은 변화가 없다. 여러 개의 과목을 묶어서 하나의 과목군으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시험 과목 수로는 줄었으나 실제 출제 과목 수는 그대로이다. 현재와 개편 수능 체제의 시

험 과목 수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수능의 모든 교과/과목을 문제은행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여기에 현재의 수능 문항은 여러 개념을 아우르면서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항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들고 있다. 미국의 SAT나 ACT 같은 시험의 문항과 견줬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수능 문항은 어느 누구도 대량으로 개발할 수 없어, 한 사람이 한 해에 개발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된다. 모든 교과/과목에서 문항을 대량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여러 차례 치르기가 어렵다

수능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성적표 배부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린다. 원서를 접수하는 때부터 시작하여도 그러하다. 여기에 많은 국가 기관이 동원된다. 원서 접수 전국 차원의 고사장 및 시험실 배치, 시험감독관 및 복도감독관의 대규모 선정과 차출, 출제와 시험 시행까지의 보안과 안전, 정숙한 시험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기 위한 수험생의 대규모 이동과 함께 지방(특히 시험장이 없는 도서 지역)의 수험생의 경우 외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한 해에 2회 이상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출제 방식이나 점수 체제의 개선만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에 대한 개선 가능성. 수능을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이와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수능의 사회적 민감성을 매우 높일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치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복수시행 관련 논의는 미국의 SAT와 ACT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국가 단위 대학입학시험을 복수로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는 없는 것(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러시아의 예게, 중국의 전국통일고시,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영국의 GCSE와 A-레벨 등은

모두 단수시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 우리는 왜 많은 나라에서 국가 단위 대학 입학시험을 단수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인쇄 체제 개선 방안

가. 고사체계에 있어서의 인쇄

1) 단계적 의미

문제지 인쇄는 출제된 원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적의 풀이 여건을 제공하여 수험생으로 하여금 학습한 결과를 표현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양질의 원단 종지와 잉크, 숙련된 운전기사, 정확한 접지와 계수에 의한 포장요원의 합동행위로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고사체계상 특성

문제지 인쇄는 수험생에게 공개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보안유지 가능한 폐쇄된 공간에서 인쇄 전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내·외부 인위적 의사소통과 물류적 교환, 통신 등 장비에 의한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 인쇄 기계적 특성

수능 등 교육 분야의 문제지 인쇄는 신문 운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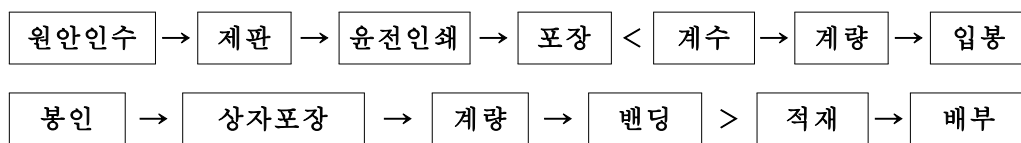
이는 평가과목이 많고, 도한 면수가 많으며, 전국 단위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문 운전기의 장점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인쇄 속도가 빨라서 시간을 단축시키며, 접지를 용이하게 하여 수험생이 문제풀이 중 문제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매엽기를 통한 인쇄는 인쇄 품질은 우수하나, 8면 이하로 인쇄되어 중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복잡해진 공정이 추가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4) 공정 과정상 특성

보안을 요하는 문제지 인쇄·포장은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폐쇄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 공정을 거쳐 완료된다



나. 현 인쇄업무 추진상의 문제

1) 대상 업체의 기업적 환경

수능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문제지 인쇄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일이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초기 비용을 투자해야하고, 현재의 인쇄단가와 운영 횟수를 감안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각종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문제지 인쇄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신문 윤전기는 다른 인쇄 대상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겸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업체 구도

최근 출판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문제지 인쇄 업종으로의 전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소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업계 상황으로 현재 3개~4개의 업체가 설립되었거나, 설립 중에 있다. 수능의 경우 업체 설립의 어려움으로 지난 17년 간 1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인쇄를

하여, 보안 및 독점에 의한 문제점을 지닌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업체 선정시 보안 문제지 인쇄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설비와 인원이 준비되어도 대량 인쇄와 포장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경험에 의한 운영기법을 축적하였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에서의 문제

높은 교육적 열의가 장점이자 단점인 우리 사회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 사소한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현실임을 감안하여 업무 수행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대학진학에 있어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는 보다 완벽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다. 인쇄업무 수행의 기본조건

- 수능 및 동 모의평가 문제지 인쇄를 중심으로 -

1) 물리적 조건

가) 기계적 조건

○ 56면 이상을 접지하여 배출할 수 있는 윤전인쇄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윤전기 고장에 대비한 여분의 윤전기를 보유하면 더욱 좋으나, 국내 업체의 여건을 감안하면 조건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을 위하여 이를 조건화할 경우 업체 선정의 불가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직탐의 경우 17개 과목을 1권으로 인쇄하면 72면이 되나, 국내업체 여건상 72면 배출을 지정할 경우 또 다른 독점적 운영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품의 사전준비, 전문기사를 대기시켜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인쇄 속도는 윤전기계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배출 가능한 시간당 면수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정 기준으로 20면~24면을 시간당 20,000부 인쇄하는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운전기를 정상 조작하기 위한 부대적 기계인 콤푸레서, 운전기에 소요되는 정류액 장치, 고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 등의 전기시설 등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대체로 업체는 부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 시 노후화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출제 원안을 인쇄원판으로 변환하는 제판실이 별도로 구비되어야 하며, 방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쇄원판을 제작하는 기기는 당해업체의 운전기와 최적의 인쇄가 되는 기기여야 한다. 따라서, 기기의 제원과 제작 단계는 업체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나) 공간적 조건

① 보안구역 내 작업 및 적재 공간

- 운전기에서 배출된 문제지를 계수·계량·1차 봉투 입봉·봉인·2차 상자 포장·밴딩·적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작업대를 설치하고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재를 후면에 보관하면서 공급해야하므로 업체별 자재 보관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업체마다 작업 유형이 다르므로 그 공간 면적은 업체별로 심사해야 한다.
- 완성된 문제지 상자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826m²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이는 상자를 교시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하여야 배부시 착오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대체로 완성된 상자가 30kg이상이 되므로 실내용(축전지 사용)지게차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적재·배부하기 위함이다.

② 숙박 및 필수 편의시설

- 보안구역 내 합숙자는 본원 관리자·업체소속의 전문기사·포장요원(일용직)으로 구분 입소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체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약 160명 내외 인원이 합숙하므로 이들의 편의성을 위한 제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수면을 위한 침실과 침대(온돌 바닥도 가능)가 구비되어야 하며, 대체로 2

교대작업으로 수면을 취하므로 합숙인원만큼의 침대는 요구되지 않는다.

- 수면실은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하며, 기기는 방재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다.
- 세면과 샤워가 필요하므로 세면장과 샤워실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하며, 세면대와 샤워기의 숫자는 많을수록 편리하다.
- 장기간의 합숙과 작업장의 잉크·먼지로 인한 작업복이 쉽게 불결해지므로 별실의 세탁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세탁기와 부수적인 탈수기가 있어야 하고 그 숫자는 많을수록 편리하다.
- 외부와 차단된 시설물로 인하여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장치(다트 또는 방재 설비된 창)를 설치해야 한다.

③ 식당

- 합숙자는 하루 3식 외 3~5회의 간식을 제공받아야 하며,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업체 여건에 따라 교대하여 식사 및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차제도 가능하다.

- 조리 장소는 보안구역 내부에 주방이 있는 것과, 외부장소에서 조리하여 반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신선한 재료 사용과 적정 온도를 지닌 음식의 제공, 배식 및 잔반검색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며, 보안구역 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내부 공간 활용에 도움은 되지만, 음식의 이동과 배식·잔반검색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④ 기타 편의 공간

- 필수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설을 갖춘 경우 합숙근무자 생활의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준비하였을 경우 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면 근무자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

- 휴식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급적 외부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며,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 근무자 휴식을 위하여 휴게실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합숙시설 전 지역에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설치하고 환기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일반적인 휴게실에 필요한 TV·VTR·영상감상기기 등이 설치되면 편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다) 보안시설

① 내부

인쇄와 합숙 공간은 내외부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며, 물자와 인원의 출입이 가능한 보안문은 1개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과 출입문, 환풍구 등은 합판 등에 의해 완전 폐쇄하는 것이 우선이며, 차선으로 봉인장치로 차단할 수 있다.

내부보안실에서 보안구역 내 모든 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하며 그 숫자는 업체마다 다르게 운영한다. 설치장소와 그 숫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외부와 연결 가능한 전화선, 인터넷선은 차단 후 차단여부를 검사하고, 내부에 발신 장치기기 불법 설치여부를 감지기기를 활용하여 검사해야 한다. 발신 장치 유무 검사 후 그 검사기록지를 보관하여 한다.

② 외부

합숙건물은 독립된 건물일 수 있고 건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보안측면에서는 독립된 건물이 가장 좋으며, 외부인의 접근을 쉽게 식별하고 제지할 수 있는 경비시설과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내부근무자의 공적 업무를 돕기 위한 외부보안석에서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며, 건물주변에 CCTV와 모니터를 설치한다.

건물 배치형태에 따라 4곳 이상의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파견된 관할경찰서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관할경찰서에 모든 건물 진입 도로를 수시 순찰하여 부당하게 접근하려는 외부인 차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국 시험장소의 접근성

문답지는 전국 시험지구로 배송되므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망 구축이 잘되어있어 보관지까지의 거리와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으므로, 업체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감안해야 한다.

2) 근무자적 조건

가)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운전기계를 조작한다.

운전기는 1개의 기기가 8면을 인쇄하는데, 기기 1개당 최소 1명의 기사를 배정하여 운전기기 작동 상태·인쇄 상태 등을 점검하며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업체마다 기기가 달라 인원을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당 1명 외 이들을 총괄 감독할 선임 기사를 두어 전반적인 인쇄과정을 지휘하도록 한다.

2교대로 작업할 경우 2배수의 운전기사가 근무하도록 하여 피로 누적에 의한 업무 소홀을 방지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자격 및 다양한 기계 경험도 중요하지만, 업체에서 보유한 기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조작하여 숙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운전기계는 대체로 일본과 독일에서 주문 생산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작회사마다 운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전산실 제판기사

인수된 출제원안을 운전기계에 장착하여 인쇄하는 과정에서, 전체 면수를 제 위치에 안착(하리꼬미)토록 한 후 필름을 알루미늄판에 인영하는 일을 한다.

현재 수능과 모의평가 원안의 경우 트레싱지에 출력된 원안을 사용하는데 제판

필름이 완성되면, 잡티·글자 깨짐 등을 자세하게 점검한 후 제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트레싱지 원안으로 제판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한 원안을 CD에 저장하여 반입하는데, 편집체계가 IBM과 MAC 두 가지 운용체제를 사용하므로 전산실에 MAC 컴퓨터와 운용가능자를 준비해야 한다.

필름 인영과 제판기기는 업체마다 사양이 서로 다르므로, 설치기기를 운용한 경험이 많을수록 오류가 적고 능률적이다.

제판단계가 다단계일 경우 단계별 기사와 보조기사를 두어야 한다.

제판실은 원안·원단 필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입을 기기 운영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 관리감독자

운전기에서 배출된 문제지를 계수하는 일부터 상자에 포장하여 적재하기까지 일련의 작업과정과 일상생활 등을 감독·조정하기 위한 감독자를 업체에서 임명토록 해야 한다.

합숙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성품이 원만하여, 포용력으로 근무자의 생활면까지 지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작업내역을 완전히 숙지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감독자의 업무영역은 작업 전 과정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배부를 위한 효율적인 적재, 식당·편의시설의 적절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배정 및 지휘이다.

라) 포장요원

업체마다 상시근무자를 포장요원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것이 업체의 현실이다.

인쇄업무가 시작되기 1주일 전까지 인원이 확보돼야 하며, 연령대는 20대~30대가 적정하다.

작업량은 대체로 많은 편이며, 먼지와 소음이 많은 근무여건으로, 합동근무를 해야 하며, 장기간 감금상태를 유지하므로, 이러한 근무여건을 사전에 고지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신원확인 및 건강상태 점검은 필수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들은 각자의 자질에 맞춰 계수, 입봉, 테이핑, 봉인, 계량, 밴딩, 적재 등의 작업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용한다.

마) 기타

필수적 요건은 아니지만 외부에 보건요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작업장의 환경과 폐쇄된 공간 근무 등으로 가벼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가 가능한 보건요원을 준비하도록 한다.

보건요원이 처리할 사안보다 중대한 질병일 경우 지정병원을 운영하여 보안을 유지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부에서 필요한 물자와 업무연락을 위하여 업체직원을 외부근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라. 2014 수능 체제개선 대응 방안

1) 체제개선안 중 인쇄관련 부분(안)

가) 15일 간격으로 연 2회 시험 실시(안)

현행 체제에서의 인쇄와 배부는 최소 17일간이 소요된다.

인쇄·포장기간 13일, 배부기간 3일, 시험당일 1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현행 체제 운영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다.

나) 대책(안)

- 인쇄본부를 2개 본부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2개 본부로의 분할 기준은 지역이다. 교시별로 인쇄를 달리 할 경우 배부장소를 두 곳으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보안유지에 더 많은 인력과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 분할하여 인쇄할 경우 1곳은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 문제지를 인쇄하고, 다른 한 곳은 나머지 시도교육청 문제지를 인쇄한다.

2지역의 문제지 인쇄량은 약 55%:45%가 되어 인쇄기간을 적절하게 맞출 수가 있다.

두 곳의 인쇄본부는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인쇄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2개 본부의 장소적 인접은 필요치 않으며 시험지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본부 체제 운영시 제공되는 문제지의 제반사항은 동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과 인력이 증원되어야 하는 문제를 시행 1년 전에 해결해야 한다.
- 이 체제를 운영할 경우 시행 2년 전(2011년도)부터, 모의평가 문제지 인쇄 시 4회 정도의 시범적용을 한 후 문제점을 추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본수능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현행 운영체제와 체제개선 후 행정조직 고찰

가) 현행 행정조직

- 행정조직은 인쇄 업무가 인쇄계획과 발주내역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인쇄물량 변동 등 외부여건에 의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원 직원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체제이다.
- 행정요원은 관리대표와 행정요원 및 보조요원, 감독요원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다.
- 관리대표는 전반적인 인쇄업무 진행을 감독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과정을 숙지한 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일 분야별 팀장을 집합시켜 회의를 주재하고 계획된 작업량 확인, 근무중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요원은 인쇄량 관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수시로 문제지의 인쇄상태, 계수된 문제지 수량, 적재 상태 등을 표본 추출하여 점검하는 일을 한다. 인쇄업무 기획자가 준비하고 입소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2명 내외의 정규직원을 임명하고 5~6명의 보조요원을 입소시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 감독요원은 포장단계에서 실수 가능성이 있고 계수 계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에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의 감시 역할을 담당한다.

그 위치는 계량기 앞과 문제지 적재장소 등이며, 2배수를 임명하여 교대근무를 하도록 한다. 계수·적재 감시는 단순 업무로 장시간 근무할 경우 권태로 인한 감독 소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과거 교과부 산하기관의 공무원을 위촉하였으나, 업무 성격이 단순하여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인원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임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 외부지원요원은 보안구역 밖에서 내·외부 연락업무, 주변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자와 정규요원, 보조요원 각 1명씩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향후 조직 운영 방안

- 인채 업무 관리에 있어 행정조직상 인원이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필요 이상의 인원이 근무할 경우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책임과 역할이 분명한 인원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문서와 연수에 의한 관리기법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화할 수 없는 관리대상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신입 직원을 추가로 근무시킬 필요가 있다.

- 관리대표

인채 업무를 두루 경험하여 계획 수립 과정과 업무 추진 단계를 잘 알고 있으며 합숙장소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직위와 연륜을 감안하여, 원내 3급 이상의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다.

인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장이 가장 이상적이며 다른 업무로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부서의 관련자를 위촉해야 한다.

- 관리부대표

행정실의 실질적 운영 책임자로 인채 업무를 계획한 직원이 입소하여 인채 업무계획에 의한 정확한 수행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계

획 수립한 자와 업무수행 감독자가 다를 경우 오류 발생을 늦게 파악하거나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행정요원

행정요원은 3명 이내의 인원이 적당하며, 1명의 정규직원과 2명의 위촉직원
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건상 타당하다.

이들은 행정부대표를 도와 물품관리, 단순 일정관리, 서류정리, 보안요원 감독,
연락업무 등을 관장하게 한다.

○ 행정보조요원

행정실 관리와 합숙구역 내 연락업무, 청소,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요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행정실의 야간 근무를 판단하여 6명 이내의 인원이 적합하다.

○ 감독요원

인쇄된 문제지의 포장과 적재 작업의 중요한 지점에서 포장요원의 업무
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업체별, 교대 근무 형태별로 인원은 달
라질 수 있다.

감독할 지점은 계량 지점과 문제지 상자 적재장소 약 4지점이며, 보편적으로
2교대를 운영하므로 8명 내외가 적합하다.

행정부대표와 행정요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외부지원

보안구역 밖에서 보안구역 내부와 본원과의 연락업무, 외부보안요원 감독,
물품 구입 반입, 업체와의 연락업무, 파견된 다른 공공기관과의 업무조정
등을 수행한다.

대표자는 부대표급 지위가 적합하며, 원내 4급 이상의 정규직원 또는 교과
부 산하기관의 공무원을 지원받는 것이 좋다.

지원요원은 3명 이내로 하여 외부지원 행정실을 22:00까지 교대근무 하도록 하고
외부에서의 물품구매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여 백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이 연구는 국가고사의 ‘기본 시스템, 운영 체제, 진행 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KICE가 수행하는 국가고사의 특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외국의 대학입학시험 체제 중 참조할 요소는 무엇인가?

국가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의 사례로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은행, 인쇄 체제**를 들어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를 문제로 설정하였다.

제 1장에서는 먼저 KICE가 시행하는 국가고사의 특성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KICE가 연구에 기반한 국가고사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국가고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가고사는 수험생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초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국가고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하여 지켜야 될 중요 가치가 여러 가지 있다. 국가고사를 시행관리하는 조직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 될 때 성공적인 해결을 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곧 핵심적인 가치체계로서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의의를 검증하고,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는 그 가치를 합법성, 공정성, 효율성의 세 가지로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는 합법성이다.

공공의 성격을 띤 국가고사이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과 결과처리는 법에 따라야 한다.

둘째 가치는 공정성이다.

KICE의 모든 국가고사는 성적에 따른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공정성이다.

셋째 가치는 효율성이다.

사업을 수행할 때는 먼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데, 이는 비용효과와 일의 체계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제2장에서는 외국의 평가 사례를 조사하였다. 일본과 중국 및 프랑스·미국의 출제 체제를 조사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험시행일자에 대한 시사점이다.

우리의 수능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서 오는 수험생의 부담이 있다. 시험 당일의 시험운과 상황에 수험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현행의 수능 시험 시행 방식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재 하루에 모든 과목을 치루는 시험 기간을 2-3일로 늘려서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출제문항의 구성체제에 대한 시사점이다.

우리의 수능은 5지선다형 문항인데 비해, 중국, 프랑스, 미국의 경우 필기 시험은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형 출제 방식은 사고력을 제한하고 암기 중심의 교육을 유발하므로,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 중심의 서답형 출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과목당 시험 시간을 늘리고 문항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제방식에 대한 시사점이다.

중국은 합숙 출제이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문제은행식과 출퇴근하면서 문항을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능이 자격고사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은행식 출제도 고려할 수 있으며, 시험의 횟수도 늘려나갈 수 있다.

제 3장에서는 국가고사 출제체제 개선 방안의 사례로 학업성취도, 문제은행, 인쇄 방법을 들었다.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 도달도 확인, 학생들의 보정 교육, 서열 화 방지, 다양한 정보 도출, 시험 문제 풀이식 학습 방지, 문항의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은행체제는 시험의 복수 운영과 장기합숙 출제 체제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유용한 출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항 보안과 동등화 등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 첨예한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은행 체제를 도입할 때 배경요인과 현실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미리 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쇄체제는 단기간에 정확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개선의 초점이 있다. 그런데 인쇄는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기와 인쇄과정 및 보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내어야 한다. 현재 KICE가 하는 여러 가지 국가고사의 인쇄를 안전하게 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은 복수 인쇄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인쇄업체를 최소한 세 곳 이상 육성하여 보안하에 복수로 운영하면 현재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갖춘 인쇄업체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성을 장기 정책 지원도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다.

2

제언

국가고사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고, 향후 연구와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KICE가 시행관리하는 국가고사는 장기간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는 매년 계속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국가고사의 기본 시스템은 반복 실행을 통해 검증된 것이지만, 교육환경과 정책방향이 변하게 되면 그에 맞도록 계속 진화되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고사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연합하여 원 차원의 과제를 성안하기를 제안한다. 이 과제를 통해 ‘기본 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운영과정의 효율성 점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성 여부 등’을 학제적 방법으로 확인토록 한다.

둘째,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할 때는 관련 조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교육 자체가 국가별로 가치 함축성과 문화 기반성을 내포한 것인데, 국가고사는 시행기반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의 좋은 사례는 도입하여 우리 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만 성공하기 쉽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도 도입해 보아야 될 수능시험 복수 시행과 문제은행 출제 방식 및 서술형 문항 출제 등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분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외국에서 성공하게 된 요인과 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보아야 된다. 국가고사 관리체제의 제도 변경만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여도 사전 모의 실행을 해 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셋째, KICE는 미션에 있는대로 국가고사를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 연구 과정과 운영 체제를 융합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다음 번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검정을 하면 그 심의 내용이 수능시험에도 참조되도록 내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육과정 연구개발 → 교과서 연구 검정 → 교수학습 연구개발 → 교육평가연구 시행 → 수능연구시행’이 정합성을 이루어 국가고사의 합목적성을 높여

줄 것이다.

그러나 분리된 조직과 연구팀이 각각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계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유관 과제간의 정기적인 공식적 공동협의회와 연구팀원의 내적 교류 및 연구계획서와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검토를 상호 분담형식으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 백

참 고 문 헌

- 교육평가연구회(1995). 교육 측정·평가·연구·통계 용어사전.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경훈, 김영춘, 김진구, 박영석, 박진동, 서유경, 손민정, 신항수, 심재호, 양길석, 이명애, 이용백, 이창훈, 장의선, 조운동, 조지민, 진재관, 함승연(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대수능 CAT 2005-9.
- 김경훈, 김영춘, 김진구, 박영석, 박진동, 서유경, 손민정, 신항수, 심재후, 양길석, 이명애, 이용백, 이창훈, 장의선, 조운동, 조지민, 진재관, 함승연(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대수능 CAT 2005-9.
- 김경훈, 고호경, 김동영, 김완수, 김진구, 김진석, 김화경, 동효관, 박영수, 변희현, 박진용, 상경아, 서유경, 손민정, 손홍찬, 신일용, 신항수, 조용기, 조운동, 이문복, 이명애, 이상하, 이영주, 이용백, 이현숙, 이혜원, 장의선, 장호성, 최혁준, 함승연, 황인표(2006).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연구보고 RRE 2006-8
- 김정호, 이창훈, 조운동, 고호경, 이광상, 김부미, 남진영, 이혜원, 전유아, 황인표, 이명준, 신항수, 박진동, 권영락, 장의선, 이정우, 은지용, 이재봉, 최혁준, 김현경, 신일용, 동효관, 구자옥, 김동영, 이양락, 박영수, 김진구, 함승연, 박종훈, 양정실, 손민정, 장호선, 이상하, 신태수, 김완수(2009).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Ⅳ)**.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대수능 CAT 2009-1-1.
- 남명호, 김경훈, 양길석, 손원숙, 지은림, 백순근, 이규민(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식 출제·관리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연구보고 ORM 2005-42.
- 백순근(1997). 교수-학습 활동을 돕기 위한 문제은행의 구축 및 운영방안-‘초중고교 문제은행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0(1), 105-127.
- 신일용, 박기범, 박종훈, 남진영, 전영주, 김용명, 고현숙,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이

- 정우, 신항수, 강대현, 최혁준, 동효관, 구자옥, 김현경, 김진구, 김경훈, 함승연, 박영수, 김영춘, 이용백, 장호성(201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대수능 CAT 2010-22-1.
- 이명준, 김경훈, 고호경, 김동영, 김영춘, 김진구, 김진석, 김화경, 동효관, 민경석, 박영수, 박진용, 서유경, 손민정, 손홍찬, 시기자, 신항수, 양길석, 이명애, 이상하, 이양락, 이영주, 이용백, 이현숙, 이혜원, 장의선, 장호성, 조운동, 최혁준(2006).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연구보고 CAT 2006-17.
- 이명준, 이창훈, 이양락, 노은희, 신일용, 신명선, 김동영, 배수찬, 동효관, 양정실, 최혁준, 고호경, 이재봉, 김화경, 구자옥, 변희현, 박영수, 조운동, 김영춘, 이영주, 손민정, 이혜원, 이용백, 전유아, 장호성, 신항수, 양길석, 오정준, 이상하, 황인표, 이현숙, 이정우, 김완수, 권영락, 공용식(2008).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Ⅲ)**.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대수능 CAT 2008-1-1.
-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조운동, 남진영, 김진석, 이문복, 김용명, 은지용,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신일용, 최혁준, 심재호, 김동영, 김진구, 함승연,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2009). 미국 SAT와 ACT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7.
-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남진영, 서보억, 김용명, 박태준,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이정우, 신항수, 강대현, 신일용, 최혁준, 김동영, 동효관, 구자옥, 김현경, 김진구, 함승연, 박영수,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 손민정, 장호성, 윤영순, 김새환(2009). 일본 대학입시센터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46.
- 이창훈, 고호경, 구자옥, 권영락, 김완수, 동효관, 박영수, 배수찬, 변희현, 손민정, 신명선, 신항수, 양정실, 이상하, 이영주, 이재봉, 이정우, 이현숙, 이혜원, 장호성, 전유아, 조운동(2007).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Ⅲ)**.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연구보고 RRE 2007-7.
- 이창훈, 박종훈, 양정실, 고호경, 이광상, 김부미, 이혜원, 전유아, 신항수, 권영락, 이

- 정우, 동효관, 이재봉, 구자옥, 김현경, 박영수, 손민정, 장호성, 이상하, 신택수
(2008).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IV)**. RRE 2008-12.
- 장호성(2010). 韓國과 中國의 大學入試 漢文 試驗 比較 考察. **漢文教育研究**, 第35號.
- 전효선, 오상철, 박진용, 정미경, 권순달(2007).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근, 임찬빈, 손민정, 이용백, 장호성(2009). **2009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 - 대만·싱가포르·일본·중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연구보고 RRO 2009-9-1.
- 조운동, 고현숙, 김부미, 김완수, 김용명, 남진영, 박유정, 박태준, 서보익, 신택수, 이광상, 이동주, 전유아, 조성민(2010). **2009년도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지원 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연구보고 대수능 CAT 2010-1-1.
- 조운동, 고현숙, 김부미, 박유정, 신택수, 이광상, 이동주, 전유아, 조성민(2009).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을 위한 난이도 예측 방안 연구-수리와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대수능 2009-18.
- 조운동, 김부미, 박유정, 박재은, 이광상, 이동주, 조성민(2009). **2010년도 문제은행식 출제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간행중)
- 중앙교육평가원(1986). **문제은행 설치 운영에 관한 기초연구**. 중앙교육평가원.
-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2010). 연구 발표 세미나 자료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대학수학능력시험10년사 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Bulletin Officiel de l'Education Nationale(B.O), Paris, 2007-2010.

Choppin, B. (1979). *Testing the Question-The Rasch model and item banking*. In M. J. Raggett & C. P. Raggett(Eds.), *Assessment and Testing of Reading*. London: Ward Lock Educational.

Gronlund, N. E. (1998). *Assessment of student achievement*(6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Choppin, B. (1979). *Testing the Question-The Rasch model and item banking*. In M. J.

- Raggett & C. P. Raggett(Eds.), *Assessment and Testing of Reading*. London: Ward Lock Educational.
- Kobrin, J. L., Camara, W. J., & Milewski, G. B. (2002). The utility of the SAT I and SAT II for admissions decisions in California and the Nation (RR No. 2002-6). The College Board.
- Lawrence, I. M., Rigol, G. W., van Essen, T., & Jackson, C. A. (2003). A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content of the SAT (RR No. 2003-3). The College Board.
- Les notices d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Le Système Educatif en France*, Paris, 2003.
- Lipsey, G. (1974). Overview. In G. Lipsey(Ed.), *Computer-Assisted Test Construction*.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Millman, J. & Arter, J. A. (1984). Issues in item banking.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1(4), 315-330.
- P. Désalmand & P. Tort, 김화영 편역, 『Du plan a la dissertation - la dissertation française aux Baccalauréats et aux concours administratif』, Paris, Hatier, <논술의 일곱가지 열쇠>, 도서출판 창, 1994.
- The College Board.(2004). *SAT program handbook: 2004-2005*. NJ: Author.
- Ward, A. W. & Murray-Ward, M. (1994).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item banks.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3(1), 34-39.
- Wood, R. (1974). Question Banking. In H. G. Macintosh. *Techniques and Problems of Assessment*, pp.208-220. London: Edward Arnold.
-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
-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coulisses.htm
-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default.htm
- 大學入試センター. 2006年~2009年センター試験 試験問題評価委員会報告書
- 大學入試センター(2009). 独立行政法人 大学入試センター要覧.

東京大学(2008). 平成21年度 東京大学入学者募集要項.
柳井晴夫, 前川眞一(1999). 大学入試データの解析. 現代数学社.
文部科学省(2008).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2009.9.20).
村上隆(1999). 大学入試センター試験の得点調整 - 基本的な考え方と方法 -. 大学入試
フォーラム, 21.
日本 대학입시센터. <http://www.dnc.ac.jp/>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9), 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考務工作規定.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9), 2009年普通高等學校招生工作規定.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http://www.moe.gov.cn/>

여 백

ABSTRACT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ing system for national-level test

Jeong-ho Kim, Ilyong Shin, Jimin Cho, Yun Dong Jo, Yongbaek Lee,
Hyo-sun Chun, Ho-sung Chang, Chanhoo Park, Wonho Choi, Kunpill Youn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questions such a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national-level tests implemented by KICE?', 'What are the implications from the college entrance exams in other countries?', and 'What kinds of improvement for printing system specially based on the cases for NAEA(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tem bank can be made?'. There are three of main properties for managing the national-level tests in KICE. First, KICE does manage the national-level test by applying the feedback from the results of various research related to test. Second, KICE does thoroughly follow the regulations prepared and updated regularly. Third, KICE does try to do the best for providing the perfect service system for test takers. In addition, KICE has emphasized the three of valuable condition such as legality, fairness, and efficiency.

In Chapter II, we study the foreign cases such as Japan, China, France and the USA. Based on the factors reviewed in foreign cases, we suggest the implications as the followings. First, test period and time should be reconsidered in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as college entrance exam has extremely high stakes in our country. Since all the examinees are burdened with taking the all subjects studied in one day a year, test time and period should be revised to release the burden of the test in various ways. Second, CSAT consists of only the multiple choice items. The types of item such as constructive

response items need to be added in CSAT in near future for better assessment. Third, the item developing procedures need to be modified by combining the system of item bank, etc for multiple implementation of CSAT in a year.

In Chapter III, the issues for NAEA, item bank and the printing system are studied. In NAEA, there are lots of issues to be consistently researched in depth such as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items, deriving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identifying the right level of each student's achievement in the national curriculum instead of comparing individual students' achievement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or failing.

The most important issue related to CSAT in item bank is that instead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item bank in our country right away, the prelimin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item bank should be reviewed thoroughly whether each of them can be fitted in our social and educational circumstances.

In the issue of the printing system, the focus is to improve the procedures and method of the printing in a short period. For example, instead of printing in one fixed place for the security, we do need multiple printing service at the same time for each of high stake exams to reduce the time period for the printing.

Based on the reviewing in this study, we provide three of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plan and practice. First, the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managing system for national-level tests has to be continued annually. Secondly, we suggest that in-depth reviewing the all the related issues should be done in preference to benchmarking the foreign cases. Thirdly as shown in KICE mission, we suggest the system to combine the internal research process and operating system for linking the national-level test and the national curriculum.

[부 록] 외국의 고사 출제 체제 상세 자료



여 백

[부록 1] 일본 수험생의 주의 사항

1. 시험 실시와 일시 등
2. 수험교과·과목
3. 시험 전날까지의 주의 사항
4. 시험 당일의 주의 사항
5. 시험 시간 중의 주의 사항
 - (1) 수험표 등 소지품
 - (2) 해답용지의 기입
 - (3) 수험번호·과목 등의 마크
 - (4) 시험 시간 중의 퇴실
 - (5) 시험 시간 중의 감독관의 지시
 - (6)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다. 부정행위로 된 경우는 그 이후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응시한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모든 교과·과목의 성정도 무효가 된다.

- ① 컨닝(컨닝페이퍼·참고서·다른 수험생의 답안 등을 보는 행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는 행위)
 - ② 사용을 금한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푸는 행위
 - ③ 시험을 시작하라는 지시 전에 문제 책자를 열거나 문제를 푸는 행위
 - ④ 수험표·사진표에 본인 이외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
 - ⑤ 시험 시간 중에 답을 가르쳐 주는 등, 다른 수험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
 - ⑥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
 - ⑦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와 시계 등의 소리(착신·알람·진동음 등)을 장시간 울리는 등, 시험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
 - ⑧ 시험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IC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 ⑨ IC기기의 고장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 ⑩ IC기기 또는 음성 메모리를 시험실에서 가지고 나가는 행위
 - ⑪ ‘연필을 책상 위에 놓고 문제 책자를 덮어 주세요’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를 계속 푸는 행위
 - ⑫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 ⑬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에게 폐가 되는 행위
 - ⑭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자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 ⑮ 그 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6. 신체장애자 등의 시험 특별 조치의 통지 등
 7. 추가시험 실시
 - (1) 실시 : 보통 센터시험 실시 1주일 후
 - (2) 시험장소 : 2곳

(3) 추가시험 신청 : 신청할 경우는 먼저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 대학’에 전화로 연락한다.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이유에서 본시험의 본시험 2일간 응시하지 못하거나 2일 중 1일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 대학’에서 신청 접수 시간 내에만 추가시험 신청을 할 수 가 있다. 신청접수시간경과 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 도 추가시험 접수를 할 수 없다.

또한 추가시험 허가 단위는 2일분의 교과·과목 또는 1일분의 교과·과목이다. 제1일째 또는 제2일째에서 1개 교과·과목이라도 응시한 자는 당해시험일은 추가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제2일째에 제1일째의 추가시험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질병(인플루엔자감기 등을 포함)·부상의 경우

신청 접수 시간	· 본시험 전날 9:00~17:00 · 제1일째 7:30~17:35 · 제2일째 7:30~17:00
신청 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 대학’에 전화 연락한 후에 신청 접수 시간 내에 ‘수험표’와 ‘진단서(치료기간이 명기된 것)’을 ‘문의 대학’에 지참하여 신청한다. 허가된 경우는 추가시험허가서를 교부받는다. 나. 신청 접수 시간 내에 ‘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경우는 질병·부상의 상황 등을 신청 접수 시간 내에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 대학’에 전화 연락해서 지시를 받는다.

② 시험장에 가는 도중에 사고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 대학’에 전화 연락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교통 기관의 지연·뜻밖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그 날의 시험 종류시각까지
신청 접수 시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유의 예 ⇨ ·부모 또는 친척의 위급한 경우, 사망 ·자택의 화재	· 본시험 전날 9:00~17:00 · 제1일째 7:30~16:35 · 제2일째 7:30~18:00
신청 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 대학’에 전화 연락한 후에 신청 접수 시간 내에 ‘수험표’와 ‘사고 또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문의 대학’에 지참하여 신청한다. 허가된 경우는 추가시험허가서를 교부받는다. 나. 신청 접수 시간 내에 ‘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경우는 사고 등의 상황을 신청 접수 시간 내에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 대학’에 전화 연락해서 지시를 받는다.	

- ③ 접수시 별책자 과목의 배부를 희망하는 자는 추가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는 추가시험을 시청할 때에 과목의 책자만을 배부한다. 또한 대리인가 추가시험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원자 본인에게 추가시험 별책자 시험과목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 (4) 추가시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2일분 또는 1일분의 교과과목에 대해서는 본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응시해도 무효가 된다.

8. 듣기 시험

- (1) IC 기기의 조작 준비
- (2) IC 기기 조작 상의 주의 사항
- (3) 해답할 때의 주의 사항
- (4) 시험 시간 중의 주의 사항
- (5) 해답 시간 중의 사고 등과 재시험
- (6) 시험 종료 후의 IC 기기 등의 취급

9. 수험표 보관

[부록 2] 중국의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관련 자료

1. 교육부의 2009년 일반대학교 신입생 모집 통지 [09.3.3]

- 教學[2009]2號

각성, 자치구, 직할시 대학교 신입생 모집 위원회, 교육청(교위), 신장생산건설병단교육국, 유관부문(단위)교육사(국), 부속 각 대학교 :

2009년 전국 일반대학교(이하 대학교라 약칭) 신입생 모집 업무는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대학교 신입생 모집 “양광공정”을 심화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되게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2009년 일반대학교 신입생 모집 규정>을 엄격하게 추진하고(첨부물 참조), 대학교 신입생 모집의 공평, 공정,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전 사회가 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2009년 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한다 :

1) 전면적으로 양쪽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되게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험 개혁을 추진한다.

교육계통이 평행지원(平行志願)²⁶⁾합격 모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실습실천과학발전관을 심화있게 추진하고, 공평,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학생 지원자의 학교선택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지원 만족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호남, 강소, 절강, 상해, 안휘, 요녕 등 6개 성(省)과 시에서 평행지원 합격 모형을 실시하는 기초위에서 2009년 하북, 길림, 강서, 복건, 해남, 광서, 운남, 귀주, 사천, 영하등 10개 성(省)과 지역에서 개혁 시험을 실시한다. 각 유관 성급 교육행정부문, 성급 대학교 신입생 모집 위원회 사무실(이하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이라 명함)은 연구를 강화하고, 평행지원 합격 모형 시험 제정을 진지하게 실시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학생 모집 지원(징집 지원 포함)방식, 시간, 방법 및 합격과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안배한다. 정책홍보와 학생의 합리적인 지원서 작성을 유도한다. 합격시간은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대학교에 상세한 학생 지원 분포 상황을 제공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학생 문서 비율과 신입생 모집 계획이 대학교에 유리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각종 특수 유형 신입생 모집의 문서 합격 업무를 주의 깊게 추진한다.

관련되는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 성급 신입생 사무실은 <교육부의 성별 심화 보통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험 개혁의 지도 의견>(교학 [2008] 4호) 요구에 근거하여, 소질교육의 발전방향을 견지하고 당해지역의 실제와 결합하여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개혁과 발전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대학입시의 종합개혁질서를 점진적으로 안정하게 실현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교의 신입

26) 예를 들어 이전에는 A등급에 속하는 대학에 입학할 하지 못할 경우 차등급인 B학교에 응시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A등급에 속하는 1,2,3학교에 응시 할 수 있어 학교와 수험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생 자주선발을 개혁하고 학교의 설립취지와 특성에 맞고 종합소질이 높고 창조능력과 잠재력을 구비한 인재를 선발한다. 이러한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명도를 증가하고 자율의식과 규범화 관리를 증가한다. 또한 고등직업학교의 단독적인 신입생 모집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방법, 시험내용, 선발 기준 등을 널리 홍보하여 고등직업교육연수규율과 특징에 부합하는 인재 평가 선발 모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2) 기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시험환경을 끊임없이 정화한다.

시험안전은 대학교 신입생 모집의 제일 중요한 임무이다.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시종일관 이를 중시하고, 지속적으로 국가교육시험합동회의제도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기제, 시험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각 부문 담당 업무의 구체적인 실현, 시험 장소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평온하면서 순리적으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험과 관련되는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시험장소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합법적인 행위(부정행위, 대리시험, 무선통신 이용 등)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한다.

3) 정보공개 정도를 크게 강화하고 대학교 신입생모집 “양광공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 및 대학교는 “양광공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한층 더 심화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제도화, 계통화 건설을 추진한다. 신입생 모집 정보관리와 서비스 체계를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교 신입생 모집에 필요한 단계별 수험생 숙지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4) 위조품 매매 행위를 타도하고 혼란한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중점으로 양호한 신입생 모집 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 및 대학교는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에 근거하여 주도면밀하게 순서에 따라 각 유형의 신입생 모집 안전에 도사리고 있는 폐단을 조사하고, 여러 종류의 돌발사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대학교 신입생 모집의 공정, 안전과 질서를 확보한다.

5) 수험생과 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입시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 및 대학교는 수험생 위주로 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를 시작하고 종결한다. 대학교 신입생 모집 정책 학습연구 및 수험생의 정책 해석업무를 강화한다. 신입생 모집 방식과 시험규정, 모집조건, 학교상황, 합격원칙, 장학금 획득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

6) 감독을 강화하고 기율을 엄격히 관리하여 각종 유형의 위배규정에 대하여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한다.

<국가교육시험위배처리방법>(교육부령 제18호)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통일시험 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배 행위규정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수험생의 각종 위배 규정 사실은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수험생 전자 기록부(파일)>에 기입하여 수험생의 시험에 대한 성실과 믿음의 중요 내용으로 삼는다. 교육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이 규정을 위배한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단위 혹은 상급 주관부문에서는 시험 담당업무의 자격을 취소하고 그 직무를 해임한다. 또한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당정처분을 기록하고 공직을 박탈한다. 특히 엄중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처벌 받도록 한다. 또한 교육계통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단위)과 대학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엄중하게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거나 여론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부록: 2009년 일반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9년 3월 3일

부록: 2009년 일반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에 관한 규정

2009년 일반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대학교육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한 선발을 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덕·지·체·미의 전면적인 심사, 종합평가, 우수한 인재선발 단계를 철저하게 이행한다.

1. 신청과 지원서 작성

1)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신청 할 수 있다.

-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률 준수
- (2) 고급중등교육학교 졸업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3) 건강한 신체

2) 아래 인원 지원 불가

- (1) 고등학력을 구비한 대학교 재학생
- (2) 고급중등교육학교에서 금년도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 (3) 작년도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할 때 통신공구를 이용하거나 대리 입시 시험 등 부정 행위를 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은 수험생
- (4)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유관부문에서 강제조치를 받았거나 징역을 살고 있는 자

3) 지원방법

모든 수험생이 지원 할 때 반드시 수험생의 호적이 소재한 성(지역, 시)학교 신입생 모집

위원회(이하는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이라 약칭)에서 규정하는 시간과 지정장소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수험생은 성실과 믿음으로 시험에 임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수험생 호적을 위주로 본 지역에 소재한 고급중등교육학교의 학습연한 원칙, 본 지역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조건, 시간과 관련되는 요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보충한다.

본국 거주 외국인과 해외동포(교민)는 소재하고 있는 성(지역, 시)의 공안기구에서 발행하는<외국인 영구 거류증> 혹은 <외국 거류민 거류증>을 가지고 유관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 사무실(교육시험원, 시험국, 시험관리중심 이하 모두를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이라 명함)은 본성(지역, 시)의 각급 신입생 모집 시험기구에서 수험생 지원자격과 지원조건에 근거하여 수험생 지원자격 심사를 엄격하고 진지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4) 수험생 지원서 작성

수험생 지원표의 설치와 작성 방법은 수험생 지원자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유리하고 또한 대학교 합격 신입생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험생 지원 작성 방식, 시간과 방법은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가 당해 지역 신입생 모집 업무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든다.

수험생은 유관 대학교 신입생 모집 규정을 진지하게 읽어보고, 소재한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가 공포한 신입생 모집 규정을 본 후, 대학교가 공포한 신입생 모집 계획을 참고하고, 유관 규정과 요구에 근거하여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서를 제출한다. 또한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진다.

수험생 본인이 지원서에서 지우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험생 본인이 책임진다.

2. 학생 전자 기록부(파일)

5) 학생 전자 기록부(파일)는 대학교에 합격한 신입생 인적사항의 주요 근거가 된다.

학생 전자 기록부(파일)내용은 주로 수험생 지원 정보(신분증, 사상정치품덕 고찰 검정 혹은 평어, 고등학교 재학 시 학생의 종합소질평가 정보 등이 포함), 신체검사 정보, 지원정보, 성적 정보, 수험생의 입시 참가의 성실과 믿음에 대한 기록(주로 규정 위배 및 신입생 모집 환경 위배의 간단한 사실과 처리 결과)등 내용을 포함한다. 학생 전자 기록부(파일)는 반드시 수험생 지원등기표, 신체검사표, 지원한 학교(전공)지원표(카드) 및 수험생 각과 시험 성적 등이 원래 수험생이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6)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교육부가 발표한 신입생 모집 정보 표준과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여 제정한 본 지역 수험생 정보 채집 방법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수험생 정보채집의 내용은 대학교 합격 시 수험생의 종합평가에 대한요구이다.

7)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반드시 완전한 정보를 확인하는 관리 공정과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채집을 담당하는 단위(부문)는 채집한 수험생의 유관정보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수험생의 유관정보를 완전하게 정비한 후 규정에 의하여 본성(지역, 시)의 학생 전자 기록부(파일) 창고에 보관하며 어떠한 사람이라도 멋대로 수정할 수 없다.

3. 사상정치품덕 고찰

8) 사상정치품덕은 주로 수험생 본인의 현실표현을 고찰한다.

수험생이 소재한 학교 혹은 단위 [실업자 수험생은 향과 진(규모가 작은 지방도시), 가도(街道)사무실(도시의 지역 아래의 작은 행정단위)] 는 수험생의 정치태도, 사상품덕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검증한 내용은 완전하게 정리하고, 수험생 지원 등기표 혹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별도로 설치한 전문 부록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형사처벌, 치안관리행정처벌 혹은 기율을 위배한 수험생이 잘못을 인정한 현실 표현 등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실성 여부에 책임을 진다.

9) 사상정치품덕 고찰에 불합격한 자는 아래 열거한 상황중의 사람이다.

- (1) 헌법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위배한 자 혹은 사악한 종교 조직에 참가한 자
- (2)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배하고 치안행정처벌등을 받은 자

4. 신체건강 상황 검사

10) 대학교에 입시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신체건강 상황 검사(이하는 신체검사로 약칭)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인의 이전 병력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당해 지역 위생행정부문이 제정한 신체검사 업무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신입생 모집 시험기구와 위생부분이 함께 실시한다. 수험생의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한 2급 갑 이상 병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의료 단위이어야 하며 신체검사 담당 의사는 부주임 이상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체검사병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의료 단위는 반드시 교육부, 위생부, 중국 신체장애인연합회가 발행한 <보통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신체검사 업무 지도 의견>에 근거하여 수험생 신체검사에 대하여 진찰하고, 그 진찰 결과에 대한 사실성 여부에 책임을 진다. 또한 비지정한 의료 기구에서 신체검사를 한 것에 대하여는 무효처리한다.

11) 대학교는 <보통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신체검사 업무 지도 의견>에서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학교의 설립조건과 전공 연수요구에 의하여 수험생 신체 건강상황에 대한 보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보충 요구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상세한 설명과 해석을 필요로 하며 신입생 모집 규정은 사회에 공포한다.

5. 시험

12) 교육부는 교육부 고시중심,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 혹은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험에 권한을 부여하여 유관업무를 진행시킨다.

13) 전국통일시험(일부 성에서 출제) 문제의 출제와 답안 및 평가 자료의 제정은 교육부 고시중심, 유관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가 책임진다. 교육부가 권한을 부여한 유관 대학교는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고 교육부 유관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4) 전국 통일시험문제(부제 포함)는 개봉과 사용전후 국가기밀급 사항으로 관리하고 답안 및 평가 참조는 시험결과 전에 국가기밀급 사항으로 관리한다.

각 성(지역, 시)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고등직업단위에서는 단독으로 신입생 모집과 시험을 출제하고, 예술류 전공 시험은 성급에서 통일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개봉과 사용전후 국가기밀급 사항으로 관리하고 답안 및 평가 참조는 시험결과 전에 국가기밀급 사항으로 관리한다.

15) 각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와 유관 대학교 모두는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안전보안 설비(치)를 강화하여야 하며, 안전보장 규제 제도와 시험관리 규정 제도를 완전하게 하고, 현대화기술수단을 사용하여 관리를 진행하고 감독과 감사를 강화하며 또한 응급반응기제와 당번제 및 보고제도를 수립한다. 기밀이 유출되는 단위에서는 제일 먼저 본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후 즉시 본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와 교육부에 보고한다. 또한 즉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기밀 유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16) 전국 통일시험 과목 중 외국어는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6종류이며, 수험생이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언어 시험에 참가한다.

외국어 전공시험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통일적으로 주체하는 외국어 구술시험에 참가하여야 한다.

17) 전국 통일시험은 6월 7일에 시작하며 시험시간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다.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교육부의 유관 요구에 근거하여 본성(지역, 시)의 고등직업학교가 단독으로 신입생 모집 시험을 출제하고 예술류 전공은 성급에서 통일적으로 구체적인 시험 시간을 확정하여 공포한다.

18) 시험장 설치 장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소재한 지역에 설치하고, 유관 시험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험장소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9) 민족자치지역은 본 지역에서 민족어문의 강의를 받는 대학교 혹은 전공에 대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가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고 조직적으로 시험을 치른다. 본 민족어문으로 수업을 받은 고급중등교육 졸업생은 중국 어문으로 수업을 받은 대학교에 지원하며, 전국 통일 시험에 참가할 때 중국 어문은 교육부가 별도로 출제하고, 소수문자로 번역하지 않으며, 중국 어문으로 답안을 작성한다. 기타 각과(외국어 문제지의 중국어 부분 포함)는 본 민족 문자로 번역하여, 본 민족 문자로 답안을 작성한다. 유관 성(지역)이 중국 어문으로 시험을 치르는 동시에 또한 소수 민족어문으로 시험을 치를 수도 있으며, 이때 유관 성(지역)이 출제(문제지, 답안 및 평가 자료를 교육부 문건에 보고)를 책임진다. 중국어문과 소수민족어문의 성적 비율은 각각 50%를 계상하여 전체 점수에 합산하여야 하지만 중국어문 성적이 반드시 합격수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합격 될 수 있다.

20) 전국통일시험 답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주관한다. 유관 성(지역, 시)은 출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답안 및 평점을 참고하고, 본성(지역, 시)의 수험생 출제상황과 결합하여 평점 세칙을 제정한다.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성실한 조치를 취하고 시험 답안의 채점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 답안 채점 관리 과정의 안전을 책임진다.

각 성(지역, 시)은 시험 답안 채점 기지건설을 강화하여 대학교가 책임지고 시험답안 채점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험 답안을 채점하는 성(지역, 시)은 컴퓨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요구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중심의 시험 출제를 사용하는 유관 성(지역, 시)은 반드시 교육부 고시중심의 유관 요구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21) 공적인 일로 호적지가 아닌 성(지역, 시)에서 장시간 일하는 사람 혹은 그 자녀가 두 지역에서 모두 시험 답안 채점 방법이 상통하다는 전제조건에서 수험생이 일하고 있는 단위 혹은 학습 단위 지역 및 호적이 소재한 지역의 성급 신입생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수험생의 현재 일하는 단위 혹은 학습하는 장소의 소재지 성(지역, 시)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시험에 참가 할 수 있다. 학생 답안의 검토와 평가 및 합격 시기는 그 호적이 소재한 지역의 성급 신입생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6. 신입생 모집 규정

22) 대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대학교육법>과 교육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교 신입생 모집 규정을 제정한다.

23) 대학교 신입생 모집 규정은 유관 신입생 모집 정보의 주요 형식을 사회에 공포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사실이고 정확해야 하며 규범에 맞아야 한다. 또한 대학교의 주관부문이 국가유관법률과 신입생 모집 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 결정하고 등록한다. 대학교 신입생 모집 규정은 심의 결정 등록을 거친 후 사회에 공포를 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와 고등직업기술학교는 신입생 모집 선전(광고)에서 애매모호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 법정 대표는 학교 신입생 모집 규정 및 유관

홍보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규정에 근거하여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대학교는 반드시 4월 1일 전에 본교 신입생 모집 규정을 “양광대학입시”에 발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 유관부문(단위)교육사(국)는 반드시 4월 15일전에 그 소속 대학교 신입생 모집 규정의 심사 결정과 등록 업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24) 신입생 모집 규정 주요 내용은 대학교 전 명칭, 학교 지역(분교 등 필수사항 명기), 순서(본과, 고등직업학교 혹은 전문분야), 설립유형(보통 혹은 성인고등학교, 공립 혹은 사립학교 혹은 단독학원 등), 유관 성(지역, 시)별 신입생 전공 모집 인원수, 전공에 대한 외국어의 요구, 신입생 모집의 남녀 학생 비율, 신체건강 상황 요구, 합격 규칙, 학비 기준, 학력증서를 발표한 학교명칭 및 증서 종류, 연락방법, 이메일 주소, 기타 필수 사항 등을 포함한다.

25)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사회 및 수험생에게 유관 대학교 신입생 모집 규정의 주요 내용 혹은 대학교에서 공포한 신입생 모집 규정의 인터넷 주소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7. 성별(지역, 시) 전공별 신입생 모집 계획

26) 교육부의 비준(등록)을 거친 보통 대학교 신입생 모집 자격을 구비한 대학교는 국가의 심사기준에 정하는 연도별 신입생 규모 내에서 본교의 성별(지역, 시) 전공별 신입생 모집 계획을 요구 할 수 있다.

27) 대학교는 국가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인재 수요 분석, 예측, 본교의 설립 조건, 졸업생 취업상황과 각 성(지역, 시)의 학생 공급 원천 상황을 결합하여 신입생 전공 구조와 단계별 구조, 지역구조의 상황을 잘 조정하여 자주적이고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신입생 모집 계획을 안배한다.

28) 일부 대학교는 그 주관부문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의 심사기준을 거친 후 등록한다. 또한 허위 혹은 방향을 정한 취업 신입생 모집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비용을 거두는 것을 금지한다. 방향을 정한 취업 신입생 모집 계획은 전 성(지역, 시)에 신입생 모집 상황을 알려야 한다.

29) 성(지역, 시)을 넘어서 신입생 모집하는 본과 대학교는 국가의 심사기준에 정하는 연도별 신입생 모집 규모 내에서 소량 준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소량 준비 계획은 본교 본과 신입생 모집계획 총수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계획은 주관부문의 심사결정을 얻은 후 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0) 교육부는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의 총괄 보고, 유관부문(단위) 교육사(국) 및 교육부 직속의 각 대학교에서 보고 송달한 신입생 모집 공급 원천 계획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유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로 보낸다.

31)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교육부에서 송달한 신입생 공급 원천 계획에 근거하여 각 유관 대학교가 전공별 계획 및 그 설명을 대조 확인하여, 즉시 통일적으로 신입생 모집 계획 정보를 사회에 공표한다.

8. 합격

32) 전국 보통 대학교 신입생 모집 합격 업무는 교육부의 통일된 지도아래에서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 조직에서 실시한다.

33) 대학교 신입생 모집은 인터넷상으로 합격 여부를 알리고,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원거리 합격 관리 모형을 실행하고, 각 대학교는 교내에서 원거리 합격 방식을 전개한다. 대학교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서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34)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당해 지역 신입생 모집 업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대학교의 합격상황을 안배한다. 동일 대학교의 동일 학력단계의 신입생 모집 계획원칙은 동일하게 합격 시킨다. 예를 들어, 대학교와 유관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서로 협력하여 의견 일치를 본 후 동일 대학교의 서로 다른 전공을 동일학력에서 서로 다른 무리로 합격하도록 안배한다. 단 동일학교에서 동일 전공, 동일 학력 층의 모든 신입생 모집 계획은 동일 성(지역, 시)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합격 시킨다. 또한 유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 학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35)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대학교의 본성(지역, 시)이 안배한 신입생 모집 계획수와 수험생의 시험성적에 근거하여 점수 커트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확정한다.

36)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와 대학교는 본성(지역, 시)과 본교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합격 방법을 제정하고, 수험생 성적과 지원의 관계를 잘 처리한다. 점수가 최종 가드라인에 있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본교 신입생 모집 계획수의 120% 이내에서 보관 서류 열람한 후 수험생의 비율을 확정하고,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상 기록 서류를 가져오게 하여 상황을 재점검하고 수험생 전자 기록부(파일)에 보관한다.

평행지원을 실시하는 성(지역, 시)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그 원칙을 사회에 공표하고, 대학교가 공표한 신입생 모집 계획수와 보관 서류를 가져오게 하여 열람한 후 수험생의 기록부(파일) 비율에 근거하여 유관 대학교에 학생 공급 분포 통계를 제공한다. 대학교는 학생 공급 분포상황에 근거하여 신입생 모집 계획 방안과 신상 기록 서류의 비율을 보고 확정한다. 평행지원을 하는 모든 대학교는 학생 공급 원천이 소재한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계획수 조정과 신상기록 서류의 요구를 확정된 후,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평행지원을 실시하고 대학교는 실제 신입생 모집 계획수와 합격 점수 커트라인을 사회에 공표한다.

37) 대학교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학교 책임, 신입생 모집 사무실 감독”의 원칙에 근거하여 신입생 합격업무를 실시한다. 대학교는 사회에 공표한 신입생 모집 규정중의 합격원칙에 근거하여 합격 업무를 진행한다. 사상정치품덕, 신체상황에 부합하는 전공 요구를 고려하고,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의 성적이 합격 커트라인에 도달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는 신상 기록서류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험생이 합격된 것인지에 대하여 대학교가 스스로 확인한다. 대학교는 수험생이 이미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합격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하여 설명할 책임이 있다.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감독을 책임지고 대학교는 국가 신입생 모집 정책과 신입생 모집 계획 상황을 집행하고, 국가 신입생 정책과 규정을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바로잡는다.

38) 대학교 합격 신입생 요구는 학생 공급 원천이 소재한 성(지역, 시)이 규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신상 기록 서류, 파일 열람, 심사 결정, 예비기록 등 각종 연결 고리 업무를 제때에 완성하고, 수험생 전자 기록부(파일)의 정상적인 유통과 합격업무가 순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9) 교육부의 비준을 얻지 못한 대학교는 멋대로 남녀 수험생의 합격 비율을 규정하지 못하며, 응시원서를 낸 비 외국어 언문학류를 전공한 수험생에 대하여 통일적인 외국어 종류의 한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

40) 아래 열거한 상황에 속한 금년도 고급중등교육학교 졸업생의 수험생은 성급 신입생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험생 통일시험 성적의 총득점 기준은 학교에서 심사 결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 <중공중앙사무실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고 학생의 덕육업무에 관한 의견>에서 성급 우수학생의 명칭을 획득한 자
- (2)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사상정치품덕 방면에서 특출한 발자취를 남긴 자
- (3)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전국 중·고생의 학과 올림피아 경쟁시험에서 일등을 하거나 전국 결승에서 1,2,3등을 얻은 자
- (4)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전국청소년과학기술 창조 시험에서 대상을 얻은 자 등
- (5)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국제과학과 공정에서 대상을 획득하거나 국제환경과학연구 항목인 올림피아 시험 중에서 수상한 자
- (6) 고급중등교육단계에서 중요한 국제체육시험에서 혹은 전국성 체육시험에서 6등 이내 들어간 자 등

41) 아래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인 수험생은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학교에서 신상 서류를 가져와서 점수를 확인 후 커트라인 아래에 있는 수험생은 학교가 심사 결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 변방지역, 산간지역, 목축지역, 소수민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 수험생
- (2) 귀국 교포, 화교자녀, 귀국 교포와 대만성 호적을 가진 수험생
- (3) 열사자녀

42) 대학교 및 그 주관부문은 조정 계획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대학교는 집단적으로 연구하여 결정하고 본교가 조정계획의 사용을 결정하고, 조정계획은 학생 공급 인원이 많고 질량이 좋은 성(지역, 시)에서 사용한다.

43) 대학교는 반드시 합격 수험생의 명단을 확인한 후 학생 공급 원천이 소재한 성급 신입생 사무실의 심사 기준을 보고하고, “전국 일반 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생 공급원천 계획을 인터넷에서 관리하는 계통”과 연계하여 계획을 조정한다.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의 심사비준후 수험생 합격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고, 이에 근거하여 합격 수험생의 명부가 인쇄된다. 사립대학교에 이미 합격한 수험생의 명부도 인쇄가 필요하며, 성급 신입생 사무실에서 합격 전용 인장을 찍는다. 또한 대학교는 합격이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합격수험생의 명부와 사립대학교의<합격 수험생 정보 확인표>를 유관 대학교에 송부한다. 송부받은 학교에서는 합격통지서에 본교 학교의 도장을 찍은 후 합격한 수험생에게 보낸다.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과 대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합격 정보 공개, 자문 및 제소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유관 합격 결과를 사회에 공시한다. 수험생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과 대학교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조회하고 본인의 합격 결과를 확인한다.

44) 각 성(지역, 시)합격 업무는 7월 상순에 시작하며, 그 중 본과 첫 번째 합격 업무는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시작하여 20일전에 완성한다. 모든 합격 업무는 8월 20일 전에 종료 된다.

45) 수험생 개인정보 및 유관 합격과정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 어떤 단위와 개인도 몇대로 공개를 하지 못한다.

46) 수험생은 합격통지서에 근거하여 호적이동 수속을 밟고, 대학교가 규정하는 시간 및 유관 요구에 의하여 도착 수속을 밟는다. 제때에 도착하지 못한 합격 수험생은 대학교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도착 보고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대학교는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의 심사비준에 근거하여 합격 수험생의 명부와 합격통지서를 유관 규정 및 요구에 의하여 신입생 입학 업무를 처리한다.

대학교에 도착 연기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스스로 입학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교는 스스로 포기한 입학자격이 있는 수험생 명단을 학생 공급 원천 소재 성(지역, 시)에 각각 총괄 보고하고, 본교 규정이 정한 정상적인 도착 신고 날짜 기간 후 20일 이내 유관 학생 공급 원천 소재 성급 신입생 사무실에 통지한다.

47) 추천제(保送)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교는 반드시 4월 15일전에 본교가 이미 테스트한 합격 추천 데이터를 상부에 보고하고 교육부 “양광대학입시”(http://gaokao.chsi.cn)란에 탑재한다. 유관 학생 공급 원천이 소재한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는 4월 25일전에 “양광대학입시”란에 심사 결정한 것을 확인한 후 자료를 다운받아 합격 심사 수속을 밟는다. 또한 4월 30일전에 추천 학생의 합격 명부를 유관 대학교에 보낸다.

단독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교는 반드시 유관 요구에 의하여 6월 30일전에 학생 공급 원천이 소재한 성급 신입생 사무실에 합격시킨 데이트와 자료를 가지고 서면보고 한다.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은 반드시 9월 1일 이전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 보고하고 각 대학교가 소재한 본성(지역, 시)에 합격한 모든 수험생의 유관 신입생 모집 합격 데이트 베이스와 합격데이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낸다.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서 보고한 데이터가 신입생 학적 전자 등록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48) 인터넷 전송 등 기타 원인으로 신입생 모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과 대학교에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9. 신입생 모집 관리 직책(직무)

49) 교육부가 각 유형의 대학교 신입생 모집 및 전국 통일시험업무를 책임지며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전국 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 지도
- (2) 유관 신입생 모집 업무의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 (3)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험 종류를 확정하고 각 성(지역, 시)의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험 과목설치 방안 및 유관 신입생 모집 개혁방안을 심사하여 허가한다.
- (4) 교육부 고시중심, 유관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와 대학교가 조직하여 시험 출제 업무를 대행한다.
- (5) 유관부문(단위), 성급교육행정부문과 대학교가 편제한 신입생 모집 공급 원천 계획을 지도하고, 등록한 신입생 모집 공급 원천 계획을 통일적으로 각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에 발송한다.
- (6) 각 성(지역, 시) 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를 지도하고 조사한다.
- (7) 신입생 모집 업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유관 인원을 연수시키고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8) 수험생과 신입생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정당 권익을 보호한다.
- (9) 유관부분에서 신입생 모집 업무를 처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감독하고 독촉한다.

50) 성(지역, 시), 시(지역, 맹, 주), 현(시, 지역, 기) 인민정부가 대학교 신입생 모집 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각 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와 상위 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혹은 교육부)의 이중 지도아래 본지역의 신입생 모집 업무를 책임진다.

신입생 모집 위원회 주임 위원은 동급 인민정부가 겸임하고 책임지며, 부주임 위원과 위원은 교육행정부문 및 기타 유관부문, 대학교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시(지역, 맹, 주), 현(시, 지역, 기)의 신입생 모집 위원회의 직책은 각 성급 신입생 사무실 위원회가 상응하는 규정을 만든다.

51)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의 직책(직무)

- (1) 교육부의 유관 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의 규정을 집행하고 본 지역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필요한 보충 규정 혹은 세칙 실시 규정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표한다
- (2) 교육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직적으로 시험문제의 명제 업무를 담당한다
- (3) 대학교가 소재한 본성(지역, 시)의 전공별 신입생 모집 계획과 유관 신입생 모집 규정 중의 주요 내용 및 대학교에서 공표한 신입생 모집 규정의 홈페이지를 총괄하고 공표한다
- (4) 대학교에서 국가 신입생 모집 정책 및 본교 신입생 모집 규정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 (5) 수험생의 지원, 사상정치품질고찰, 신체검사, 시험, 시험답안채점, 수험생 정보 채집 및 전자기록부(파일)제작, 합격 및 기타 유관업무를 책임진다.
- (6) 신입생 모집, 시험의 과학적인 연구, 선전활동 및 연수 업무를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 (7) 수험생과 신입생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정당권익을 보호한다.
- (8) 행정부문에서 위탁받아 처리조사 혹은 유관부문에 협조 조사하는 본 지역 신입생 모집 업무 중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
- (9) 교육행정부문에서 위탁하는 업무 중 규정을 위배한 수험생에 대하여 처리를 진행한다.

52) 신입생 모집 업무를 지도하는 대학교 기구는 학교장과 학교 내 기율감찰 등 유관부문의 책임자로 구성되며, 본교 신입생 모집 업무를 책임지고, 신입생 모집 사무실 설치와 전문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무실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부 유관 신입생 모집 업무의 규정 및 주관부문과 유관 성급 신입생 모집 위원회의 보충 규정 혹은 세칙 실시를 집행하여야 한다.
- (2) 국가가 매년 심사 비준한 신입생 모집 규모 및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교 성별 전공별 신입생 모집 계획을 편제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인원을 선발하여 보낸다.
- (3) 본교 신입생 모집 규정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 (4) 신입생 모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5) 본교 합격 업무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본교 합격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유관 문제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여 처리한다.
- (6) 합격한 신입생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 (7) 교육행정부문의 위탁을 받아 본교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시험 업무 중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한다.
- (8) 유관 신입생 모집 관리부문은 신입생 모집 방면의 기타 업무를 지지한다.

10. 신입생 모집 경비

53) 각 성(지역, 시) 신입생 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 사업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대학교 신입생 모집 경비는 본교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54)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비용 기준은 각 성(지역, 시) 유관부문이 본 지역 실제상황 및 수험생 정보 채집 업무의 상황 등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11. 규정 위반 행위 처리

55) 수험생의 응시원서 허위 작성, 위조, 통신기구 이용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대리시험 및 기타 속임수 수단 이용, 신입생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 혹은 기타인원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위배규정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성급 교육행정부문 혹은 성급 교육행정부문의 권한 부임을 받은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 혹은 교육행정부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에서 그 해년의 시험자격 혹은 합격 자격을 취소한다. 이미 합격이 된 자 혹은 학적을 취득한자는 대학교에서 그 입학자격 혹은 학적을 취소하고 호적이 소재한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동시에 그 호적이 소재한 지역의 성급 신입생 모집 사무실에 통지한다.

수험생이 전국 통일시험 중에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교육시험 위배규정처리 방법>(교육부령 제18호)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56)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시험과정 중 각종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교육시험위배규정처리 방법>(교육부령 제18호)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57) 엄중하게 규정을 어기고 신입생 모집을 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 혹은 교육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성급 교육행정부문이 <교육행정처벌감행실시방법>, <보통대학교설치조례> 및 <교육부의 대학교 신입생 모집 업무 실시에 관한 책임제 및 책임추구 감행 방법>등에 근거하여 신입생 모집 제한, 신입생 모집의 일시적인 중지, 설립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는 등의 처리를 한다. 규정을 엄중하게 어기고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 학교 책임자에 대하여 그 지도책임을 추궁한다. 규정을 엄중하게 어기는 사건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부기관에 통보하고 여론을 통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12. 부칙

58) 일부 대학교가 단독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자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군사학교, 공안학교, 예술유형의 전공, 체육유형의 전공, 소수민족 예과반, 민족반, 소년반 신입생 모집 및 대학교 신입생 화교 모집, 홍콩과 마카오 지역 및 대만성에 있는 학생, 추천학생, 수준 높은 운동선수, 예술특기생은 교육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59) 현역군인으로 대학교에 지원 한 수험생은 해방군총정치부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2. 대학교 신입생 모집 전국통일시험 업무 규정(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考務工作規定)에 관한 교육부 고시 [09.3.8]

- 敎考試[2009]2號

제1장 총칙

제1조

대학교 신입생 모집 전국통일시험(일반, 성인 대학교(본과와 전문대학교) 신입생 전국 통일시험, 이하 ‘전국통일시험’이라 명함)은 국가교육시험이다. 전국통일시험 업무 제도 정비와 전국통일시험의 정상적인 실시를 위하여 <교육법>, 유관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대학교(본과와 전문대학교) 신입생 모집은 교육부 비준 이외에 전국통일시험(성마다 출제하는 시험 포함)을 실행한다.

제3조

전국통일시험의 주요 목적은 대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 성적 제공과 동시에 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질교육과 공민문화소질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

제4조

전국 통일시험의 기본원칙은 과학적이고 공평하고 안전하면서 규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5조

전국통일시험 문제(副題 포함)는 봉인을 개봉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국가기밀급 사항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답안 및 점수를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국가 기밀급 사항으로 관리한다.

제6조

전국통일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부 지도자이며, 교육부 산하에 시험시 안전사고의 갑작스러운 발생에 응급 처치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하여 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교육부 고시중심(考試中心)이 관리를 책임지고 지방 각급 시험 기관이 이를 실시한다.

제7조

각급 시험 기관은 현대적인 기술과 수단을 사용하여 전국 통일시험을 관리한다.

제2장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제8조

각급 시험 기관은 전국통일시험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험 업무 종사 인원을 배치한다.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받는다.

제9조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기본 조건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한다. 사상과 인품

양호, 행위 정당, 기율과 법 준수, 비밀 규정을 준수하고 시험 업무에 익숙하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지하고 책임감 있으며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제10조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지위 혹은 전공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고, 연수를 통하여 합격한 사람만이 일을 하도록 한다.

제11조

시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의 직계 친족이 당해 년도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한다면 시험문제, 답안 및 점수 평가 참고자료와 답지(문항 카드 포함, 이하 동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겸직 인원의 직계 친족이 당해 년도의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한다면 당해 년도의 시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제3장 시험지의 인쇄 제작, 운송과 보관

제12조

전국통일시험의 시험지, 답안 및 점수 평가 자료를 교육부 고시중심 혹은 관련된 성(省) 단위 시험 기관에 교정쇄를 제공하고 성 단위 시험 기관이 인쇄 제작을 책임진다.

제13조

교육부 고시중심이 제공하는 시험지, 답안지 및 평가 참가 교정쇄는 기밀 조직을 통하여 각 성 단위 시험 기관 목적지까지 발송한다. 각 성 단위 시험 기관은 책임질 사람 한 명이 직접 와서 수령하고 서명하며 그 지역이 시험지, 답안 및 평가 자료의 비밀을 지키는 일을 담당한다. 시험지 인쇄 제작, 운송 및 보관 과정 중 모든 관련된 비밀사항은 반드시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 연락한다.

제14조

시험지, 답안 및 평가 자료의 교정쇄는 반드시 성 단위 보안 구역 혹은 성 단위 시험 기관의 보관실에 비밀리에 보관한다.

제15조

교육부 고시중심이 제공하는 시험지, 답안 및 평가 자료는 인쇄 제작 과정 중 어떤 사람이라도 멋대로 바꾸지 못한다. 만약 갱신이 필요하다면 교육부 고시중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시험지의 인쇄 제작, 운송 및 보관은 관련된 문건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집행한다.

제4장 시험 실시

제17조

전국통일시험의 과목과 시간은 교육부가 공표한다. 각 성(지역, 시) 시험 과목 명칭은 전국통일시험 과목 명칭과 상통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국통일시험 시간의 안배와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된 과목 시험 안배는 교육부에 등록을 마친 후 다시 지역에 고시한다.

제18조

교육부의 부서에 근거하여 각 성 단위 시험 기관은 당해 지역 정부와 신입생 모집 위원회의 지도아래 그 지역의 시험을 관리하고 실시한다.

제19조

시험기간 각 성 단위 시험 기관은 시험감독원 혹은 순시원을 파견하여 시험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감찰하여 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0조

전국통일시험은 지역(시) 혹은 현(지역) 중심으로 시험 실시 지역을 정하고, 시험실시 지역은 시험실시 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당해 지역 정부가 시험실시 지역 주임을 임명하고, 교육행정부문 및 시험기관이 부주임을 임명한다. 또한 경찰, 보안, 감독 등의 부문에 책임자가 참여한다. 시험 실시 지역위원회가 그 지역의 시험 실시 및 시험 기간 중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 문제에 대하여 처리한다.

제21조

시험 실시 지역에 몇 개의 시험장 설치 장소를 둔다. 시험장 설치 장소는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시험장 설치 장소를 증가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성 단위 신입생 모집위원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시험장 설치 장소에 주임 시험감독관은 1명, 부주임 시험감독관은 2명이며, 시험 실시 지역의 책임자가 임명한다. 주임 시험감독관과 부주임 시험감독관은 <주임 시험감독관과 부주임 시험감독관의 직책>(부록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험장 설치 장소는 시험 관련 사무, 보호, 의료, 복리후생업무 등 소규모 팀을 조직하여 시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시험장 설치 장소에 몇 개의 시험장을 설치한다. 시험장은 안전하고 조용하며, 환기와 채광 조건이 좋고,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실내는 필요한 물품과 문건 이외에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물품과 필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시험장마다 수험생은 25명 혹은 30명으로 한다. 수험생 좌석은 반드시 1인 1책상으로 정렬하고 간격은 80cm 이상으로 한다.

시험장마다 2명 혹은 3명의 시험 감독원을 배치하고, 시험장 이외에는 약간의 유동 시험 감독원을 배치한다. 시험 감독원은 시험장 설치 장소의 주임 시험감독원이 임명한다. 시험 감독원은 반드시 <시험 감독원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부록2). 일반 시험의 시험감독원은 고등학교 3학년 과목을 맡은 교사나 3학년 담임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 성인 시험의 시험 감독원은 보습학원, 과외학원에서 수업이나 강의를 담당하는 교사 혹은 담임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

성 단위 시험 기관은 통일적으로 협력 시험 감독원을 파견할 권한이 있다.

제23조

성 단위 시험 기관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수험생이 성실히 시험에 임한다는 전자 문서와 <수험생이 성실히 시험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책>을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제정한다.

제24조

시험 기관은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수험생에 대하여 <수험표>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수험표>는 보존 근거에 의하여 반 년 동안 보존한다.

제25조

성 단위 시험 기관은 현(縣)과 科类(계열) 중심 단위로 무작위 배열 수험표 번호를 만든다. 수험생 번호의 배열은 교육부 유관 문건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26조

각급 시험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시험실시 순서>(부록3)에 근거하여 시험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예비용 시험지의 관리를 강화하여, 유관 절차에 따라 예비용 시험지를 사용한다.

제27조

수험생은 <수험표>와 성급 시험기구 규정의 기타 증명 서류를 가지고 시험 장소로 가며, 수험생은 <수험생 주의사항(준칙)>(부록4)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28조

중국어로 수업 받고 학습한 수험생은 전국통일시험(외국어 과목 제외)에 참가하며, 필기 시험은 일률적으로 중국어로 답안을 작성한다. 자신들의 민족어로 수업을 받은 고급 중등교육 졸업생은 중국어로 수업하는 대학교에 지원하여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할 때에는 중국어로 된 부분은 교육부가 별도로 출제하고, 소수민족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으며, 중국어로 답안을 작성한다. 기타 각과(외국어 문제지의 중국어 부분 포함)는 해당 민족어로 번역하며, 해당 민족어로 답안을 작성한다. 관련된 성(지역)은 중국어로 시험을 치르는 동시에 또한 소수민족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이때 유관 성(지역)이 출제(문제지, 답안 및 평가 자료를 교육부에 보고하여 문건으로 남김)를 책임진다.

제29조

성을 벗어나서 시험에 참가한 수험생의 답안지는 단독으로 제본하고 밀폐하며, 시험 장소를 빌린 성 단위 시험 기관이 시험 종료 후 즉시 보안조직을 통하여 수험생 호적이 소재하는 성 단위 시험 기관에 우송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시험 기관은 전담자(2명 이상)를 지정하여 시험 장소를 빌려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답안지 수발과 보관을 책임진다.

제30조

수험생 답안지를 통일적으로 평가하고 열람하기 전 어떤 단위 혹은 개인도 봉인한 것을 뜯어 볼 수 없다.

제31조

시험 기간에 각급 시험 기구는 주야로 당직하여야 하며, 당직 전화번호는 시험 치기 전에 상하급 시험 조직 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우연히 비밀이 새어나가거나 비밀을 누설할 때, 혹은 부정행위 등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는 즉시 성 단위 시험 기관 및 교육부 고시중심에 보고하고 교육부 시험 안전 사고발생부에 알려 응급 처리하도록 한다.

제32조

시험 종료 후 성 단위 시험 기관은 즉시 시험 상황을 서면으로 교육부 고시중심에 간단하게 보고한다.

제33조 副題(별도 시험지)의 사용

(1)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 및 기타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성(시, 지역) 혹은 현에서 시험을 제 때 시행하지 못할 경우, 성 단위 시험 기관은 교육부 시험 안전 관련 돌발 사건 응급처리조에 제 때 보고하여 교육부의 비준을 거친 후 부제(별도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시험지, 수험생 답안지의 분실, 유실 혹은 기타 원인으로 시험문제 유출, 비밀 누설 및 시험 답안 훼손이 된 경우, 성 단위 시험 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이에 대한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육부 시험 안전 관련 돌발 사건 응급처리조와 성(區, 市) 보안국에 즉시 보고한다. 비밀 누설, 유출, 훼손범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시험을 즉각 중지시키며, 시험을 치른 후 교육부가 확정된 범위 내에서 이번 시험이 무효임을 선포한다.

(3) 부제(별도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 관리, 시험 답안을 채점하는 등의 모든 일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시험시간은 교육부가 정하고, 교육부 고시중심 혹은 유관 성 단위 시험 기관이 부제(별도 시험지) 제공 및 이에 상응하는 답안 및 점수를 참고하여 책임지고 일을 추진한다.

제34조

시험답안 인쇄 실수 혹은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전국통일시험 시험 시간을 지연할 때는 반드시 시험지역 주임이 즉시 성 단위 시험 기구에 보고하여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되, 연장하는 시험 시간은 일반적으로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시험 답안 채점과 점수 보고

제35조

성급 시험기구가 본 행정구역의 시험 답안 채점 일을 조직하고 품질 관리에 총책임을 진다.

제36조

수험생 답안 보존 기간은 시험성적 공고 후 반년이다. 시험성적은 수험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누구에게도 몇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37조

답안의 운송과 보관은 유관 문건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집행한다.

제38조

답안을 책임지고 있는 고등학교는 답안을 관리하는 장소를 설치한다. 각 답안 관리 지점은 답안을 관리하는 소모임을 구성하고, 팀장은 학교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성급 시험기구가 참여한다.

각 학과가 학과 답안 소모임을 설치하고 팀장은 본 학과가 책임지고 <학과 답안 소모임 팀장 책임>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부록 5). 학과 답안 소모임은 답안 평가 종료 후 학과 답안 업무와 시험문제를 보고 작성하고, 성급 시험 기구를 통하여 교육부 고시중심에 보고 한다.

제39조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은 시험답안 소모임에서 임용한다.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은 대학교 교

사를 위주로 중·고등학교 교사 혹은 연구 인원이 참가한다. 작문 등 비 선택 시험 답안 채점인원은 수준 높은 교사가 담당한다.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은 반드시 <시험 답안 채점 인원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부록 6).

제40조

시험 답안 채점 업무는 <시험 답안 채점 업무의 요구>(부록7)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1조

시험 답안 채점 중 발견되는 이상한 상황에 대하여 성급 시험 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교육부 고시중심에 보고한다.

제42조

교육부 고시중심은 각 지역의 시험 답안 채점 상황을 책임지고 감독 감찰한다.

제43조

시험 답안 채점 후 시험 성적은 본인에게 통지되고, 성 단위 시험 기구는 구체적인 성적 통지 방법과 답안처리 방법을 강구한다.

제6장 시험정보 관리

제44조

시험 기구는 다방면에서 시험정보를 관리하고 통신망을 설치하는 등의 설치 설비기준 등을 건립하고, 일정 수준이 있는 기술 인원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시험정보 관리를 과학화, 규범화, 현대화를 실현한다.

제45조

시험 정보는 수험생 상황, 시험지역, 시험 장소 설치 현황, 시험상황, 시험성적 등을 포함한다. 각 급 시험 기구는 시험 업무 필요에 의하여 통일된 규범 시험정보 항목과 코드(부호)를 즉시 공지한다.

제46조

하급 시험 기구는 상급 시험 기구에 유관된 시험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한다. 시험 종료 후 각 성급 시험 기구는 시험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즉시 성(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규율 어김, 부정행위 등) 정보에 대하여 교육부 고시중심에 보고 한다.

제47조

각 급 시험 기구는 시험정보의 채집과 처리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 절차와 엄숙한 일의 기율 및 시험정보 관리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정한다.

제48조

시험정보가 공포되기 전 국가 기밀급에 준하여 관리한다. 각 급 시험 기구는 이에 상응하는 비밀 조치를 취하고, 시험정보의 안전에 유의한다.

제49조

시험정보는 교육부 혹은 성급 시험기구가 사회에 공포하고, 어떤 단위 혹은 개인도 멋대로 사회에 시험 정보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7장 부칙

제50조

전국통일시험을 관장하는 업무는 각급 학교가 책임진다. 이와 유관된 학교는 출제, 시험, 시험 답안 채점 등의 업무를 위하여 조건과 지원을 제공한다.

제51조

각 성급 시험 기구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세칙 업무를 실시하고, 교육부에 문건을 만들어 두고 보고한다.

- 부록 1. 주임 시험관, 부주임 시험관 직책
2. 시험 감독원 직책
 3. 시험 실시 순서(절차)
 4. 수험생 숙지(준칙) 사항
 5. 학과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 팀장 직책
 6. 시험 답안 채점 인원 수칙
 7. 시험 답안 채점 업무의 요구

부록 1: 주임 시험관, 부주임 시험관 직책

- 1) 주임 시험관은 시험지역 위원회의 지도아래 본 시험지역의 전면적인 일을 책임지고, 본 시험지역의 시험을 주관하고, 부주임 시험관은 주임 시험관의 일을 도와준다.
- 2) 시험 감독원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임용하고 연수를 책임진다.
- 3) 시험장소 및 시험지역을 책임지고 시험에 필요한 모든 일을 사전에 준비한다.
- 4) 본 시험 장소는 시험 답안 채점을 관리하는 일을 책임진다.
만약 시험 답안지이 온전하지 않고 필적이 모호한 것 등의 시험 답안은 개봉하여 시험지역의 주임 혹은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주임 시험관과 부주임 시험관 2인이 서명 후 책임지고 처리한다.
- 5) 시험 전후 우발적인 사건에 대하여 본 시험지역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 6) 본 시험지역의 시험 답안 회수와 운송의 일을 책임진다.
- 7) 본 시험지역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진다.
- 8) 본 시험지역의 시험 상황을 보고하는 일을 책임진다.
시험 종료 후 시험 지역 위원회는 이 지역 시험 상황을 보고한다.

부록 2: 시험 감독원 직책

- 1) 시험지역의 주임 시험관의 지도아래, 시험장소의 시험을 주관하고, 시험장소의 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시험실시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 질 수 있도록 한다.
- 2) 수험생에 대하여 시험 규율 교육을 실시하고, <수험생 숙지 사항>을 읽어주고,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 3) 수험생의 <수험표>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수험생의 성명 기록, 수험표 등을 대조하여 잘못된 것은 발견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 4) <국가교육시험위배규정처리방법>에 근거하여 수험생의 답안 작성, 부정행위 등을 감독 한다.
- 5) 시험 중 이상한 상황을 발견할 때 즉시 주임 시험관에 보고한다.
- 6) 본 시험 장소에 수험생과 주임 시험관, 부주임 시험관, 감독원, 순시원 이외 어떤 사람도 시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다.
- 7) 감독원은 기율을 준수하고, 자리이탈, 담배피우기, 신문 읽기, 잡담 등을 일절 금하고, 멋대로 시험시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하지 못하게 한다.
- 8) 시험기간에 핸드폰, 호출기 등 통신 기구를 가지고 시험 고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지, 초고지를 들고 시험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 9) 시험 전후 시험장소를 정리 정돈한다.

부록 3: 시험 실시 순서(절차)

- 1) 매 교과목 시험 시작 25분전 (첫 번째 과목 시험 시작 35분전)에 감독원 갑, 을이 시험지, 답안카드, 초고지 등을 같이 수령하여, 시험 답안지 봉투가 손상을 입은 지 여부 검사, 시험 답안지 상에 표기된 과목이 본 시험 장소의 시험과목과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 후 시험 고사장에 들어간다.
- 2) 시험 시작 20분전(첫 번째 과목 시험 시작 30분전)에 감독원은 수험생이 질서 있게 시험 고사장에 들어가도록 하고, <수험표> 및 성급 시험기구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입증 서류를 대조하여 수험생이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한다. 첫 번째 과목 시험 시작 20분전에 감독원은 수험생에게 <수험생 숙지 사항>과 시험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읽어준다.
- 3) 시험 시작 15분전 감독원은 답안카드와 초고지(연습지)를 배부하고 수험생이 답안카드에 성명과 수험표 번호 및 과목을 기입하도록 한다.
- 4) 시험 시작 10분전 감독원은 수험생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지 답안 봉투를 개봉하고 본 시험장소의 시험과목 혹은 시험지 답안 수량, 중복인쇄, 파지 등의 상황을 진지하게 대조하고 즉시 주임시험관에 보고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시험이 치러 질수 있도록 한다.
- 5) 시험 시작 5분전에 시험 답안지를 배부한다.
- 6) 시험 답안지 배부 완료 후 감독원은 수험생이 시험 문제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시험 문제지에 수험생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 7) 시험 시작 신호가 울린 후 감독원은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 8) 시험 시작 후 감독원 갑은 앞 단상에서 감독하고, 감독원 을은 <수험표>를 가지고 수험생의 성명, 수험번호, 좌석번호가 정확하게 명기되었는지 여부를 재차 점검하고, 수험생 본인과 <수험표>에 붙어 있는 사진 및 성급 시험 기구에서 규정하는 기타 서류를 대조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다.

- 9) 시험 시작 15분이 경과된 후 지각한 수험생은 시험 고사장에 들어오지 못한다. 감독원은 참석하지 못한 수험생의 시험 문제지와 시험 답안카드상에 “결석” 혹은 “공백” 도장을 찍고 결석 수험생 성명과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감독원이 칠판에 명기한다.
- 10) 수험생이 시험지와 답안카드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떠나는 시간은 매 과목 시험 종료 30분전 보다 일찍 나갈 수 없다.
- 11) 감독원은 시험문제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 답안 인쇄문자가 불분명하다고 손을 들어 묻는 수험생에 대하여 수험생이 보는 앞에서 답을 해 주고, 시험 문제지를 교체해 줄 경우 수험생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사실을 공포한다.
- 12) 감독원은 수험생이 규정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수험생이 시험 규율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수험생이 규율을 어기는 상황과 시험 상황에 대하여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 13) 시험과목 종료 15분전에 감독원은 수험생 모두에게 남은 시험 시간을 알려준다.
- 14) 시험과목 종료를 알리는 신호를 들은 후 감독원은 수험생이 답안 작성하는 것을 즉시 중단 시킨다.
감독원은 학생이 명기한 수험번호 여부를 대조하고, 시험 답안 항목을 정확히 명기하였는지, 좌석번호(결석 학생 포함)가 적은 숫자부터 큰 숫자(적은 번호 위, 큰 번호 아래)로 정리 정돈하고 시험 답안카드, 시험지 및 초고지(연습지)를 모두 회수한 후 수험생을 모두 질서 있게 나가도록 한다.
- 15) 감독원은 수험생 답안카드와 시험 문제지를 잘 정리한 후 주임 시험관의 검사 후 봉투를 밀봉한다.
- 16) 매 시험과목 종료 후 감독원은 시험장소를 정리 정돈한다.
- 17) 외국어 과목 듣기 시험 부문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일반 대학교 신입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 영어, 일어, 러시아 듣기 시험 유관 시험 요구>의 통지》(教考试厅〔2008〕3号)에 근거하여 시험을 치른다.

부록 4: 수험생 숙지(준칙) 사항

- 1) 수험생은 반드시 감독원 등 시험관련 인원에 복종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독원 등의 업무 집행을 방해해서도 아니 되며, 시험장소 질서 또한 어지럽혀서도 아니 된다.
- 2) 수험생은 <수험표>와 성급 시험기구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서류를 가지고,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된다.
- 3) 수험생이 2B연필, 남색(흑색)의 필적을 남기는 펜, 볼펜, 직선자, 컴퍼스, 삼각자, 지우개 이외(기타 과목에서 특수하게 규정하는 것 이외)는 어떠한 물품도 수험 장소에 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 된다.
각종 통신기구(핸드폰, 호출기 및 기타 무선 수신기 등 설비), 전자 저장기록물 설치 및 글자를 고쳐 쓰고 수정할 수 있는 액체물 등은 수험 장소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
- 4) 수험생이 시험 장소에 들어간 후 좌석 번호, <수험표>등 서류를 책상 앞에 놓고 검사한다. 수험생이 답안카드와 시험지를 받은 후 지정된 위치와 규정된 시간 내에 정

확하게 성명, 수험번호, 좌석번호 등을 명기한다. 또한 오자, 탈자, 불명확한 답안 등은 무효 처리되므로 신중히 기입한다.

- 5) 시험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들은 후 시험 답안을 작성한다.
- 6) 15분 늦게 시험 장소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수험생이 시험지와 답안카드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떠나는 시간은 매 과목 시험 종료 30분전 보다 일찍 나갈 수 없으며, 시험지 등을 제출후 다시 시험 장소로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장소 부근에 있어서도 아니 된다.
- 7) 시험지와 문제지 혹은 답안카드는 규정한 곳에 놓는다. 규정된 이외의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카드상에 어떠한 필적도 남겨서는 아니 된다. 답안카드 작성 중에는 동일 유형과 동일 색깔의 펜을 사용해야 한다.
- 8) 시험장소 내에는 정숙하고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며, 이야기를 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불필요한 동작도 해서는 아니 되며, 답안 혹은 시험지를 교환해서도 아니 되며, 시험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 카드 혹은 초고지를 들고 나와서도 아니 된다.
- 9) 시험 종료 신호가 들린 후 즉시 펜을 놓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고사장을 나가야한다.
- 10) 만약 시험장소의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시험 관련인원의 관리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발견 될 때 <국가교육시험위배처리방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그 사실을 수험생 성실 시험 전자 문건에 기록한다.

부록 5: 학과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 팀장 직책

- 1)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 지도아래 본 학과의 시험 답안 채점의 조직을 구성하여, 시험 답안 채점업무를 규정된 시간 내에 완성한다.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고, 비밀을 유지하고, 유관된 시험 답안 채점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 2) 시험 답안 채점 전에 시험 평가위원을 조직한다. 시험 평가위원과 학습, 답안 및 점수를 고찰하는 기초위에서 평가 세칙을 제정한다.
- 3) 평가 위원을 연수시키고 매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능숙하게 답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세칙에 참여하도록 한다.
- 4) 답안 및 평가 고찰, 평가세칙 상황을 엄격히 집행하여 교정하는 과정 중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5) 본 학과 시험 답안 채점의 질량을 책임지고, 답안 및 점수고찰, 점수 세칙 과정 중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여 결론을 짓는다.
- 6) 시험 답안 채점 완료후 본 학과 시험답안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험 문제지, 시험 답안 채점에 대한 정성분석을 보고 한다. 또한 시험 문제지, 답안 및 점수 고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유관 시험 기구에 보고한다.

부록 6: 시험 답안 채점 인원 수칙

- 1) 규율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고, 시험 답안 채점에 대한 유관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 2) 점수 기준을 엄격하게 파악하고, 편파와 편애 및 잘못된 평가 등을 방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완성토록 한다.

- 3) 규정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답안 채점을 하고 <시험 답안 채점 업무 증서>에 근거하여 시험 답안 채점 장소를 출입한다.
- 4) 시험 답안지, 시험 답안 채점 등의 문건과 자료를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험 답안 채점상황에 대하여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에 손님을 맞거나,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 개인이 멋대로 답안 보관 장소 및 점수나 성적을 기입하는 장소로 들어가서도 아니 된다. 또한 수험생 점수를 알아보아서도 아니 된다. 핸드폰, 호출기 등 통신 기구를 가지고 시험 답안 채점 장소로 들어가서도 아니 된다.
- 5) 시험 답안 채점을 일률적으로 홍색 필적의 서명 펜 혹은 볼펜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펜을 가지고 시험 답안 채점 장소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 점수를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하고, 만약 갱신을 할 경우 반드시 팀장과 점검인원이 함께 서명 혹은 도장을 찍는다.
- 6) 답안 책을 멋대로 개봉해서도 아니 되며, 밀봉한 수험생 성명, 수험번호 등 내용물에 대하여 억지로 비틀어 열어 보아서도 아니 되며, 수험생 답안 및 성적을 지워셔도 아니 된다.
- 7) 답안과 각종 자료를 보호해야 하며, 답안을 훼손해서도 아니 된다
- 8) 시험 답안 채점 장소의 안전과 정숙을 보장해야 한다.

부록 7: 시험 답안 채점 업무의 요구

- 1) 선택문제 시험 답안 채점 시 주의 사항
 - ① 선택문제는 시험 답안 채점 기구를 사용한다.
 - ② 기구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 ③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을 연수시키고 컴퓨터, 광전기 읽기 등 설비기구를 조작하도록 한다.
 - ④ 시험 답안 채점 소프트웨어를 편제한다. 시험 답안 채점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정식으로 시험 답안 채점을 하는 과정 중 누구라도 멋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한다.
 - ⑤ 표준답안 입력 컴퓨터는 반드시 2명 이상 전문인원이 책임지고 잘못되게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표준답안이 컴퓨터에 저장할 때 반드시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촘촘하게 하고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놓는다.
 - ⑥ 시험 답안 채점 업무 절차와 일의 규율을 엄격하게 제정한다.
 -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의 업무는 홍색 필적 서명 펜 혹은 볼펜을 사용하여 일을 하고, 기타 펜, 지우개, CD 등을 들고 시험 답안 채점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시험 답안 채점은 전문 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하고 전문인이 보관한다.
 - 누구라도 답안카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답안카드에 대하여 기술처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 책임제를 건립한다. 각 소모임은 일에 대한 기록을 담당하고, 소모임간에 엄격한 인수

인계 절차를 이행하고, 전담자가 데이터 문건의 관리를 책임진다. 누구라도 몇대로 수정하거나 데이터 문건의 복사를 할 수 없다. 기술성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때 표에 기입하고, 수정 전후의 숫자를 명기하고, 기구 시험 답안 채점 조직 책임자 2인 이상이 동시에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 ⑦ 시험 답안 채점 과정 중 전임기술인원이 컴퓨터, 광전 읽기 기구 등 기술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 ⑧ 시험 답안 채점 과정 중 예비로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하고, 컴퓨터 저장설비 사용의 관리를 강화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범)에 대비하여야 한다.
- ⑨ 기구 시험 답안 채점의 질량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⑩ 선택문제 시험 답안 채점 완료 후 수험생 성적은 저장되고, 예비판(备份盘)을 제작하고 데이터에 보관한다.

2) 비 선택문제 시험 답안 채점 주의 사항

- ① 비 선택문제는 작문, 컴퓨터문제, 증명문제와 논술문제 등을 포함하고 인공시험 답안 채점을 사용한다.
- ② 시험 답안 채점 인원은 시험 답안 채점 과정 중 규정하는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점수는 정확하게 기재한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점수를 기록한다.
- ④ 점수 계산 시 매 문제와 작은 제목중 소수점 이후의 점수는 사사오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 과목 누계 점수 시 사사오입으로 처리한다.
- ⑤ 작문은 2인이 나누어 읽어서 평가하고, 2인이 제출한 점수는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에서 설정한 점수 오차 범위에서 2인이 준 점수의 평균점을 가지고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에서 토론을 거치어 확정한다. 기타 제목은 1인이 한 문제를 단독으로 읽어 보고 결정한다. 난제는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에서 토론하여 해결한다.
- ⑥ 각 학과는 매일의 채 검량이 당일 시험 답안 채점수의 20%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만약원래 시험 답안 채점 교사와 의견이 다를 경우 학과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 팀장이 결정한다.
- ⑦ 누계점수 점검 인원은 각 문제에 대하여 점수, 전 시험지 점수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 ⑧ 점수 수정은 시험 답안 채점에서 지정하는 전담인이 책임진다. 수정후 시험 답안 채점의점수를 대조한 후 도장을 찍는다.
- ⑨ 시험 답안 채점 인원, 점검 인원, 누계 점수 점검인원 및 점수 수정인원 모두는 서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
- ⑩ 의문이 발견되는 시험지(비슷한 답안지, 필적 전후 불일치 등)에 대하여 우선 점수를 보는 동시에 <답안 이상 상황 등기표>에 명기하고, 시험 답안 채점 소모임에서 결정하고, 성급 시험 기구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한다.

[부록 3] 대만

1. 대만의 학과능력시험 관련 자료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 2011학년도 학과능력시험 요강 (財團法人大學入學考試中心九十九學年度指定科目考試簡章)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 2011학년도 학과능력시험 요강

- 【개별 우편 원서 접수 2010년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
 【개별 인터넷 원서 접수 2010년 11월 1일 ~ 11월 22일까지】
 【단체 원서 접수 2010년 11월 1일 ~ 11월 22일까지】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 발행 2011학년도 학과능력시험 주요 일정

항목	일시(요일)
개별 「우편」 원서 접수	2010.11.01(월) ~ 2010.11.15(월)
개별 「인터넷」 원서 접수	2010.11.01(월) ~ 2010.11.22(월)
단체 원서 접수	
원서 접수 자료 확인	2010.12.10(금) ~ 2010.12.15(수)
수험표 발송	2010.12.28(화)
시험장 배치 공고	2011.01.14(금)
시험	2011.01.27(목) ~ 2011.01.28(금)
국어, 수학, 사회 객관식(단답형) 문항 답안 공고	2011.01.28(금)
영어, 자연 객관식 문항 답안 공고	2011.01.29(토)
성적표 발송 및 관련 통계 자료 공고	2011.02.21(월)
성적 재검 신청	2011.02.24(목) ~ 2011.03.01(화)

【기타 시험 및 신입생 모집 관련 정보】

- 2011학년도 지정과목시험은 2011년 3월 중순 요강을 발매할 예정이며, 4월부터 원서 접수 수속을 한다.
- 2011학년도 대학 실기 시험의 요강 발매와 원서 접수 및 시험 등의 사항은 대학실기시험 위원회연합회(국립대만사범대학) 웹사이트<http://www.cape.edu.tw>를 조회하길 바란다.
- 2011학년도 대학 선발 입학 신입생모집의 요강 발매 및 원서 접수 등의 사항은 대학 선발입학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caac.ccu.edu.tw>를 조회하길 바란다. 대학 시험 입학 배치 신입생모집의 요강 발표 및 원서 접수 등 사항은 대학시험입학배치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uac.edu.tw>를 조회하길 바란다.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	
주 소 :	10673 대북시 주산로 237호
사 서 함 :	10099 대북우체국 71-64호 사서함
전 화 :	대표전화 (02)2366-1416 음성안내 (02)2364-3677
웹사이트 :	http://www.ceec.edu.tw

2011학년도 학과능력시험 요강

목 차

1. 응시자격
2. 시험 과목, 시험 범위 및 문제 유형
3. 시험 일자 및 시간
4. 원서접수
5. 시험지구
6. 수험표 발송, 사용 및 재발행
7. 답안 작성 주의 사항
8. 시험 문항 및 객관식(단답형) 문항 답안 공고
9. 성적 계산 및 통지
10. 시험 성적 및 자료의 사용
11. 성적 재검
12. 시험장 규칙 및 위반 행위 처리 방법
13.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14. 돌발 상해 질병 수험생 응시 서비스
15. 성적 증명서 신청
16. 이의신청 처리

부록 1. 수험생 출신학교 코드표

부록 2. 학과능력시험 소개

부록 3. 학과능력시험 관련 정보

2011학년도 학과능력시험 요강

1. 응시자격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졸업생 혹은 동등한 학력 소지자.

(교육부에서 공포한 「대학시험응시동등학력인정표준」에 근거하여 교육부 주관 법규 조
회시스템의 법규 체계/고등교육 조항 아래에서 조회하길 바란다. 웹사이트 <http://edu.law.moe.gov.tw>)

2. 시험 과목, 시험 범위 및 문제 유형

1) 시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을 포함한 다섯 개 과목

2) 시험 범위:

시험과목	시험범위
국어	고1 국어, 고2 국어
영어	고1 영어, 고2 영어
수학	고1 수학, 고2 수학
사회	고1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 고2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
자연	고1 기초물리, 기초화학, 기초생물, 기초지구과학 고2 물리, 화학, 생물, 지구와 환경

※ 사회 과목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 세과목의 시험 문항의 비중은 같다.

자연 과목의 시험 문항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분은 고1 필수교육과정을 주요 범
위로 하며, 매 문항 모두 점수를 계산한다. 제2부분은 고2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전부
점수 계산에 포함하지만, 수험생이 일정 수량의 문항을 맞추기만 하면 제2부분은 만점으로
계산한다.

3) 문제 유형

국어, 영어 두 과목은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을 모두 포함하며, 수학은 객관식 및 컴퓨터
에서 읽을 수 있는 단답형 문항을 포함한다. 사회와 자연 두 과목은 모두 객관식 문항이다.

3. 시험 일자 및 시간

1) 시험 일자 : 2011년 1월 27일 ~ 1월 28일

2) 시험 시간은 국어가 120분이며,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분이다. 수험생은 아래 규정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1) 매 교시 시험 시작 5분 전 예비령이 울리며, 종이 울리면 즉시 입실한다. 입실 후
에 시험 시작 본령이 울리기 전, 시험지를 펼치거나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 (2) 시험 시작 20분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입실 후에는 질병이나 특수한 경
우로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시작 후 60분 내에는 시험장에
서 퇴실할 수 없다.
- (3) 시험 시작 본령이 울리면, 즉시 답안 작성을 시작한다. 시험이 끝난 후 종료령이 울
리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추어야 한다.
- (4)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일시	2011년 1월 27일(목요일)		2011년 1월 28일(금요일)	
오전	09:20 - 11:20	국어	09:20 - 11:20	영어
오후	13:00 - 14:40	수학	13:00 - 14:40	자연
	15:20 - 17:00	사회		

- 3) 태풍, 지진, 홍수 등 심각한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혹은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전 과목 혹은 일부 과목 시험을 위 시기에 진행할 수 없을 때는, 대학입학고시 중심(이하 약칭 ‘본 고시중심’)과 교육부,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협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긴급 조치 혹은 대체 시험일시를 발표한다. 수험생은 이를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원서접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현재 재학 학교에서 일괄 단체 접수를 해야 한다. 기타 응시 자격을 갖춘 수험생은 정부 인가 대학입시학원에 위탁하여 단체 접수를 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개별 접수도 가능하다. 규정된 기한 내에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접수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즉 원서 접수 수속을 마치지 않은 자는 신청 기한을 넘겨 추가 원서접수나 접수비 납부를 일체 받지 않으므로,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1) 원서 접수 방법 및 일시

(1) 학교 및 입시학원 단체 접수

2010년 11월 1일~11월 22일 오후 5시까지, 단체 접수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원서 접수 관련 파일을, 본 고시중심(센터) 웹사이트 <http://www.ceec.edu.tw>로 원서 접수 자료를 전송하고, 기한 내에 접수비를 납부한다.

(2) 개별 인터넷 접수

2010년 11월 1일~11월 22일 오후 5시까지, 디지털 사진 파일을 준비하여 본 고시중심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지시에 따라 원서 접수 자료를 등록한다. (2010학년도에 본 고시중심에 시험 접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해당 사진이 2009년 8월 이후 촬영한 경우 면제) 또한 「개별 인터넷 원서 접수비 납부증」을 인쇄하여 기한 내에 접수비를 납부한다.

(3) 개별 우편 접수

「개별 우편 원서 접수비 납부증」 및 전용 봉투(요강과 함께 발매)를 기입하고 접수비를 기간 내 납부한 후, 2010년 11월 1일~11월 15일까지(우편소인기준) 등기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 10099 대북우체국 71-64호 사서함 대학입학고시중심. 등기우편 영수증은 잘 보관하여 등기 조회 시 근거로 한다.

2) 원서 접수비 및 접수비 납부 기간

(1) 단체 접수자는 1인당 950원(NT\$), 개별 접수자는 1인당 1,000원(NT\$)이다. 단 저소득 가구 수험생은 전부 면제하여, 원서 접수시 납부할 필요 없다.

(2) 저소득 가구 수험생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저소득 가구 수험생」은 각 직할시, 대만성 각 현시, 복건성 금문현, 연강현 등 각 지방 정부 혹은 권한을 위임 받은 향, 진, 시, 구의 행정사무소에서 발급한 저

소득 가구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가리킨다.

- 나) 저소득 가구 증명서는 수험생 성명, 신분증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증명서에 수험생 성명, 신분증 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등의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빈 증명이나 중저소득 가구 증명은 모두 저소득 가구 증명서 아니며, 접수비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저소득 가구 수험생 증명서는 학교 단체 접수자의 경우 각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보관하며, 학교는 단체 접수용 프로그램의 「저소득가구 수험생 대장」을 인쇄하여 본 고시중심으로 발송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입시학원 단체 접수자는 학원에서 증명서 사본과 「저소득가구 수험생 기재 대장」을 함께 본 고시중심으로 발송하여 심사를 받는다. 개별 인터넷 혹은 우편 접수자는 수험생이 직접 증명서 사본을 본 고시중심으로 보내 심사를 받는다. 원서 접수 기한 내에 저소득가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접수비 우대를 받을 수 없으며, 사후에 추가 서류를 받지 않는다.
- 라) 심사를 거쳐 저소득 가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험생은 본 고시중심이 정한 기한 내에 접수비를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자격이 취소된다.

(3) 접수비 납부 기간

- 가) 개별 우편 접수자 : 2010년 11월 1일~11월 15일까지
- 나) 단체 접수 및 개별 인터넷 접수자 : 2010년 11월 1일~11월 22일까지
- 다) 은행 창구 납부자 혹은 계좌이체 송금자는 납부 마감일 오후 3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하며, 자동입출금기(ATM) 혹은 인터넷 ATM 이체 납부는 밤12시까지 가능하다.

3) 원서 접수 조회 및 확인

(1) 원서 접수 기간 내 처리 상황 조회

- 가) 단체 접수 기관의 파일 전송이 완료된 후, 수험생은 본 고시중심 웹사이트 <http://www.ceec.edu.tw> 혹은 전화 음성 안내 02-23643677을 통해 원서 접수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나) 개별 인터넷 접수 수험생은 등록을 마친 후, 인터넷 혹은 전화 음성 안내를 통해 원서 접수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다) 개별 우편 접수 수험생은 우편물 수신 상황에 따라 인터넷 혹은 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원서 접수 마감 후 자료 확인

규정 기한 내 원서 접수 수속을 마친 모든 수험생은 단체 접수 또는 개별 우편/인터넷 접수에 관계없이 2010년 12월 10일~12월 15일 오후 5시까지 전화 음성 안내 혹은 인터넷을 통해 원서 접수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원서접수 자료 원본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본 고시중심에 수정 보장을 요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4) 원서 접수 구비 서류

(1) 수험생 및 단체 접수 기관은 반드시 원서 접수 방식에 따라 각 각 적합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학교 단체 접수

수험생이 학교에 제출할 서류	학교에서 전송할 서류
① 디지털 사진 파일 혹은 2인치 사진1장 (관련한 세부 규정은 본절(3)에 있음) ② 수험생 서류 확인표 ③ 원서 접수비 혹은 저소득 가구 증명서 사본	① 응시원서 서류 파일 ② 수험생 사진 파일

나) 입시학원 단체 접수

수험생이 학원에 제출할 서류	학원에서 전송할 서류
① 디지털 사진 파일 혹은 2인치 사진1장 (관련한 세부 규정은 본절(3)에 있음) ② 수험생 서류 확인표 ③ 학원 수험생 원서 접수비 납부증 혹은 저소득 가구 증명서 사본	① 응시원서 서류 파일 ② 수험생 사진 파일

다) 개별 인터넷 접수

① 디지털 사진 파일 (관련한 세부 규정은 본절(3)에 있음) ② 원서접수비(납부 후 영수증 자체 보관) 혹은 저소득 가구 증명서 사본 ③ 신분증 앞면 사본(주)
--

(주)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대상자는(본 고시중심에서 2009~2010년 사이 원서 접수를 한 적이 있는 자 면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분증 사본을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또한 결봉투에 「인터넷 원서 접수 수험생 서류」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기간 내에 미제출 자는 원서 접수 자료 미비로 처리한다.

라) 개별 우편 접수

① 디지털 사진 파일 혹은 2인치 사진 1장 (관련한 세부 규정은 본절(3)에 있음) ② 개별 우편 원서 접수비 납부증 (은행 수납인이 찍혀있거나 혹은 납부 영수증 혹은 ATM 거래명세표) ③ 저소득 가구 수험생은 저소득 가구 증명서 사본 추가 제출

(2) 단체 원서 접수 수험생은 원서 접수 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적인 분실이나 지연으로 인해 추가 접수 또는 관련 수속을 요구할 수 없다. 「수험생 서류 확인표」의 개인 원서 접수 서류를 수험생이 반드시 직접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 이후 원서 접수 기관에 서류 분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험지구 등 원서 접수 서류 수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단체 접수 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3) 사진 또는 디지털 사진 파일

가) 수험생의 사진 혹은 디지털 사진 파일은 반드시 아래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 ① 2010년 8월 이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얼굴의 머리부터 턱까지 높이는 반드시 2.5cm~3cm 사이여야 한다.
- ③ 모자를 벗어야 하며, 얼굴은 뚜렷하고(눈썹을 가릴 수 없음) 정면의 상반신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④ 흑백 또는 칼라 모두 무방하나, 뒷 배경은 반드시 흰색 혹은 옅은 색이어야 한다.
- ⑤ 짙은 색 렌즈의 안경을 쓸 수 없다.
- ⑥ 합성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 행정부에서 공고한 「2005년 국민신분증 전면 갱신 발행 사진 규격」(웹사이트 <http://www.ris.gov.tw> 참조)에 부합하는 사진 혹은 디지털 사진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2인치 사진은 반드시 광택지에 인쇄된 것이어야 하며, 뒷면에 반드시 이름 및 신분증 번호를 써야 한다.

다) 디지털 사진 파일은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① 파일은 회색조 흑백 사진파일 또는 고화질 칼라 사진파일이어야 한다.
- ② 파일은 넓이*높이가 450*600 픽셀이상이어야 하고, 스캐너로 스캔할 때 해상도가 300 dpi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최고 해상도는 500 dpi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 ③ 개별 원서 접수 수험생의 사진 파일 이름은 신분증 번호로 하며, JPG 형식으로 저장한다.

라) 2010학년도에 본 고시중심에 원서 접수를 한 적이 있고 해당 사진이 2009년 8월 이후 촬영한 것일 경우 단체 접수, 개별 우편, 인터넷 접수에 관계없이 사진 혹은 사진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13.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대상인 수험생은 시험시간 연장, 특수 답안 작성 방식 등 응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신청표」를 제출해야 한다. (재학중 학습 기록표 및 진단서 첨부) 「13.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수험생은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신청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질병 혹은 특수한 사유로 인해 시험장의 협조나 배치가 필요한 자는 원서 접수 파일 혹은 접수증의 비고란에 해당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다. 예를 들면, 청각 장애 보청기 착용, 하지 장애 휠체어 착석, 행동 불편으로 인한 지팡이 사용, 정서 장애로 1인 혹은 소수 시험장 사용, 당뇨병으로 인한 설탕물 휴대 등이다.

5) 접수비 납부 수속

(1) 접수비 납부 방법

가) 학교 단체 접수

학교에서 각 학생들의 접수비를 걷은 후, 단체 접수용 프로그램에서 「학교 단체 원서 접수비 납부증」을 인쇄하여 수납하며, 영수증은 학교에서 보관한다.

나) 입시학원 단체 접수

수험생은 먼저 입시학원의 단체 접수용 프로그램에서 「입시학원 수험생 원서 접수비 납부증」을 인쇄하여 수납하며, 영수증은 확인 대조 후 학원에서 보관한다.

다) 개별 인터넷 접수

수험생은 먼저 인터넷에서 접수 서류를 등록한 후,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개별 인터넷 원서 접수비 납부증」을 인쇄하여 수납하고, 영수증은 수험생 본인이 확인하고 보관한다.

라) 개별 우편 접수

수험생은 「개별 우편 원서 접수비 납부증」(요강에 동봉 됨)을 작성하여 수납한 후, 수납 영수증을 원서 접수 서류와 함께 본 고시중심으로 우편 발송한다.

(2) 접수비 계좌번호 설정 방식

접수비 계좌번호는 총 14자리이고, 앞 3자리는 모두 「922」, 4번째 자리 이후 숫자 설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 인터넷 접수 시스템에서 인쇄하거나 단체 접수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원서 접수비 납부증은 「접수비 계좌번호」가 이미 시스템에서 설정이 되어있다.)

가) 학교 단체 원서 접수비 납부

① 기관 코드 첫 자리가 영문이 아닌 것은 설정 방식이

92200000000 + 「기관 코드」이며 예1과 같다.

② 기관 코드 첫 자리가 영문인 것은 설정 방식이

92200100000 + 「기관 코드」이며, 첫 자리는 「영문 첫 자리 변환 코드 대조표」를 기준으로 변환하며, 예2와 같다.

범례	기관	기관 코드	접수비 계좌번호
예1	국립사대부중	100	92200000000100
예2	사립부흥상공야간부	B20	92200100000220

* 영문 첫 자리 변환 코드 대조표

A 01	B 02	C 03	D 04	E 05	F 06	G 07	H 08	I 0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나) 수험생 개별 원서 접수비 납부

① 신분증이 있는 수험생 개별 원서 접수비 납부는 설정방식이 922 + 「신분증번호」이며, 영문 첫 자리는 「영문 첫 자리 변환 코드 대조표」를 따라 변환하며, 예 3과 같다.

범례	수험생	신분증 번호	접수비 계좌번호
예3	수험생 갑	A123789456	92201123789456

② 신분증이 없는 외국 국적 수험생 개별 원서 접수비 납부는 설정방식이 922 + 「9...」 + 「거류증 번호」이다.

A. 거류증 번호는 모두 10자리인데, 앞 두 자리 영문 자모는 「9」로 대체하고, 거류증 번호 앞에 「9」를 추가해 14자리로 맞추며, 예4와 같다.

B. 거류증이 없는 여권사용자는 여권번호에 있는 영문자모를 직접 「9」로 대체하고, 14자리가 안될 때는 여권번호 앞에 「9」를 써서 맞추며, 예5, 예6과 같다.

범례	수험생	신분증 번호	접수비 계좌번호
예4	수험생 을	HD123789456	92299912345678
예5	수험생 병	765AC4321	92299765994321
예6	수험생 정	123456789	92299123456789

(3) 원서 접수비 납부 주의사항

가) 자동입출금기(ATM) 또는 인터넷ATM을 이용한 이체 납부자(수수료 자비)

- ① 먼저 화남은행 코드 [008]을 입력한 뒤, 다시 「접수비 납부 계좌번호」 및 접수비 금액을 기입하고, 마지막으로 거래명세표의 「계좌번호」와 「납부 금액」을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하고 송금한다
- ② 개별 우편 원서 접수 수험생은 ATM 거래명세표와 원서를 함께 본 고시중심으로 우편 발송하며, 또한 사본은 본인이 보관한다.

나) 화남은행 창구 납부자

학교 단체 원서 접수비 납부증 혹은 입시학원 수험생 원서 접수비 납부증 또는 개별 우편(인터넷) 원서 접수비 납부증을 가지고 화남은행 각 지점에서 납부한다.

다) 타행 송금자(수수료 자비)

- ① 각 지점 우체국 혹은 기타 금융기관에서 타행 송금으로 처리할 경우 「타행송금증」을 작성한다.
A. 수취인 계좌번호 : 「접수비 납부 계좌번호」 설정방식에 따라 기입한다.
B. 예금주 :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기금회
C. 수취 은행 : 화남은행 공관분점
- ② 비고란에 수험생 신분증 번호 및 자택전화와 이동전화 번호를 기입한다.
- ③ 개별 우편 접수 수험생은 송금 영수증 원본을 원서와 함께 본 고시중심으로 보내고, 사본은 본인이 보관한다.

라) 수표 사용 납부자 : 화남은행 각 지점 또는 수표발행은행에서 납부

- ① 화남은행 각 지점 납부자
A. 예금주 : 「화남은행 공관 지점 【원서 접수비 납부 계좌】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기금회」
B. 「이서 및 양도 금지」라는 문구를 기입한다.
- ② 수표발행은행 납부자
A. 예금주 : 「화남은행 공관 지점 【원서 접수비 납부 계좌】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기금회」
B. 선을 그어 취소하고, 「이서 및 양도 금지」라는 문구를 기입한다.

6) 원서 접수비 환불

원서 접수 마감일 후, 아래 규정에 부합하는 자는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이밖에 납부된 접수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1) 대상

- A. 접수비를 과납한 자
- B. 접수비를 납부했으나, 원서 접수를 안 하거나 혹은 마감 기한을 넘긴 자

C. 접수비를 납부했으나, 원서 접수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수속을 못한 자

D. 접수비를 납부했으나, 원서 접수 서류 미비로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자

(2) 시간 및 수속

가) 위 A, B항목 환불 대상자는 반드시 2010년 12월 15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원서 접수비 납부 영수증 및 환불신청서(본 고시중심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 성명, 신분증 번호, 환불 사유, 연락처, 주소를 기입해야 함)를 준비하여, 본 고시중심으로 팩스 02-23661365로 송부하여 환불을 신청한다.

나) 위 C, D항목 환불자는 본 고시중심에서 환불 수속을 처리한다.

(3) 환불 금액

A항목 환불자는 과납된 금액을 환불한다. B, C, D항목 환불자는 수속비 200원(NT\$)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7) 원서 접수 주의사항

(1) 자질 우수로 수업 연한 축소 학생 및 비학교형 실험교육 학생은, 예를 들어 고3까지 전 과목 월반 검정 통과 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본 학년도 검정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대학 입학 등록 시에 시험 응시 자격에 부합한 정식 학력증명 문서를 제출한 후, 시험 응시를 허가한다.

(2) 수험생 원서 접수 서류 및 성적은 본 고시중심의 시험 및 관련 연구에 사용하며, 또한 수험생 개인, 위탁 원서 단체 접수 기관,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연합회, 수험생 원서접수와 모집 기관에 제공하는 것 외에, 기타 사항은 「개인자료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본 요강의 각 항목을 자세히 읽어야 하며, 정확히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규정에 맞춰 정확히 대조한다. 원서 접수 마감일 후, 시험 지구 등 주요자료는 수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개별 인터넷 원서 접수 수험생은 입력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서 접수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정확히 등록한다. 개별 우편 원서 접수 수험생은 「작성 주의사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글자를 잘못 인식하여 오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흘려쓰지 않고 정자로 바르게 쓴다.

(5) 입시학원에 위탁하여 단체 접수한 수험생은 입시학원 단체 접수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입시학원 수험생 원서 접수비 납부증」을 가지고 접수비를 직접 납부한 뒤, 영수증은 꼭 자체 보관한다. 특히 입시학원이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한다.

(6) 현재 재학 학교 혹은 입시학원 위탁 단체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은 본 고시중심에서 성적 자료를 각 원서 접수 단체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7) 원서 접수에 제출하는 서류가 불분명해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원서 접수를 거절한다. 원서 접수 자료를 위조, 변조, 차용한 자는, 원서 접수 취소와 시험 응시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성적 사용 기관에 통지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는다.

(8) 수험생이 전염성 결핵, 홍역, 독일 홍역, 백일해, 유행성 뇌수막염, 수두 등에 걸렸

을 경우, 수험생 또는 단체 원서 접수 기관은 즉시 본 고시중심에 통지해야 한다. 전화 02-23661416(내선 608)이며, 사전에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전염병 유행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공포할 경우 수험생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시험 지구

1) 시험 지구는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에 직접 선택하여 기입하고, 본 고시중심에서 다시 통일적으로 시험장과 좌석을 배치할 하며, 시험 지구 설치는 아래와 같다.

코드	지구	코드	지구	코드	지구
210	대북지구	320	중력지구	470	창화지구
250	판교지구	340	신죽지구	471	원림지구
251	신장지구	370	묘를지구	510	운림지구
260	삼중노주지구	410	대중지구	540	가의지구
261	중화영화지구	430	청수사녹지구	610	대남지구
300	기룡지구	431	풍원담자지구	640	신영지구
310	도원지구	440	남투지구	710	고옹지구

코드	지구
770	병동지구
810	의관지구
840	화련지구
870	대동지구
910	팽호지구
920	금문지구
930	마조지구

2) 시험장 배치 및 구체적 장소는 2011년 1월 14일에 공포하며, 본 고시중심 웹사이트 <http://www.ceec.edu.tw>에 등재한다. 또한 인터넷 및 전화 음성 안내 02-23643677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험장 개방 시간은 2011년 1월 26일 오후 2시~4시까지이다.

6. 수험표 발송, 사용 및 재발행

1) 수험표는 2010년 12월 28일 발송한다. 단체 접수자는 원서 접수 기관에서 받아 수험생에게 전달한다. 개별 접수자는 수험생에게 바로 발송한다.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고시중심에서 수험생에게 수험표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통지하고 수험생은 지정 장소에서 직접 수령한다. 만약 수험생이 12월 31일까지 수험표나 별도 수령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단체 접수자는 접수 기관에 문의하고, 개별 접수자는 전화 음성 안내 02-23643677에서 조회한다.

2) 수험표를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수험표 상의 이름, 신분증번호, 성별, 시험지구 및 사진 등 5개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원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자는 2011년 1월 6일 전에 해당 수험표를 등기우편으로 본 고시중심에 보내 재발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험표가 시험 전에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시험 당일에 수험생 신분증(또는 거류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중 택1)과 2인치 증명사진 한 장을 가지고, 시험지구

행정사무실에 가서 재발행을 신청한다. 신청 시 수험생 신분증과 사진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발행을 할 수 없다.

4) 수험표에는 수험생 개인 자료 및 시험장소 외에, 기타 문자, 숫자 혹은 부호 등을 일체 적을 수 없다.

5) 시험 시에, 수험표를 소지해야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며, 시험이 끝난 후 수험표는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잘 보관해야 한다.

7. 답안 작성 주의 사항

1) 시험 전, 본 요강 「12. 시험장 규칙 및 위반 시 처리 방법」을 숙독한다.

2) 시험 시 필기도구, 지우개, 도형 도구(예: 컴퍼스, 자, 삼각자, 각도기 등) 시험에 필요한 도구 외에 기타 물품은 시험장 앞뒤의 임시 보관 구역에 두어야 하며, 서랍, 책상이나 의자 아래, 좌석 옆에 두거나 혹은 몸에 휴대할 수 없다.

3) 객관식 문항과 단답형 문항은 모두 답안카드에 작성하며, 서술형 문항의 답은 답안지에 작성한다.

4) 답을 작성하기 전, 시험 문항지와 답안지, 답안카드의 설명과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1) 문제지 및 답안지, 답안카드의 과목이 정확한지, 내용은 완전한지 확인한다.

(2) 답안지, 답안카드의 수험번호와 수험표, 좌석표 상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답안지의 작성면과 바코드가 손상이 없는지, 답안카드의 손상 혹은 찢어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5) 답안카드 마킹 주의 사항

(1) 반드시 검은색 2B 부드러운 심 연필을 사용해야 한다.

(2) 마킹은 「굵고」, 「진하고」, 「뚜렷하게」 해야 하며, 칸을 가득 채워야 하며, 전체를 채우지 않거나(예: 반만 채우기, 점 찍기, 선 긋기 등) 비규정 표기(예: 동그라미, 체크, 칸 밖 칠하기, 지운 흔적, 너무 흐린 표기 등)를 할 수 없다.

답안 작성 사례	정확	오류
		오류

(3) 수정 시, 수정액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우개를 사용하여 잘못 표기한 칸을 깨끗하게 지운다. 지울 때는 카드 훼손 방지를 위해 지우개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엄금한다.

(4) 지우개 가루가 묻지 않도록 답안 카드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며, 수험번호나 바코드를 훼손하거나 덧칠해서는 안 되고, 임의로 파거나 메워 훼손해서는 안 되며, 네모 칸 외에 어떠한 곳에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답안카드 가장자리의 검은 테두리 및 검은 점을 임의로 훼손할 수 없으며, 카드를 접어서는 안 된다.

6) 답안지 작성 주의사항

(1) 검은색 펜(심이 약 0.5mm~0.7mm의 비교적 굵은 펜 권장 사용)을 사용하여 작성

해야 하며, 연필을 사용할 수 없다. 글씨는 뚜렷하고 크기가 알맞게 작성해야 하며, 뚜렷하게 쓰지 않아 스캔한 답안지를 채점자가 읽을 수 없을 경우 그 결과는 수험생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수정할 때는 수정액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2) 각 과목 답안지는 1인당 한 장이며,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시험지의 빈 여백에 답안 초안을 작성할 수는 있다.

(3) 답안 작성 구역 내에 답을 작성해야 하며, 문항 번호를 반드시 써야 한다.

(4) 답안지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수험번호 및 바코드를 훼손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 또한 수험생의 성명, 수험번호 또는 답안과 무관한 어떠한 문자나 부호를 쓸 수 없다.

8. 시험 문항 및 객관식(단답형) 문항 답안 공고

1) 각 과목의 시험지는 해당 과목 시험이 끝난 후 본 고시중심의 웹 사이트 <http://www.ceec.edu.tw>에 공개한다.

2) 각 과목의 객관식(단답형) 문항의 답안은 각 과목의 시험이 끝난 후 다음날 오후 5시에 본 고시중심의 웹 사이트에 공개한다.

3) 공개된 시험 문항 또는 답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11년 2월 1일 전에, 본 고시중심의 웹사이트에서 「시험 문항 또는 답안 이의신청표」를 다운 받아, 기입한 후 팩스 02-23661365로 송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본 고시중심에 송부한다. (우편 소인 기준이며, 마감일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본 고시중심은 2월 15일에 시험 문항과 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 공고한다.

9. 성적 계산 및 통지

1) 성적 계산

(1) 원점수

가) 원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점 및 점수 계산 방식은 각 과목 시험지의 규정에 준한다.

나) 객관식 문항은 답이 1개인 유형과 답이 1개 이상인 유형 두 종류로 나뉜다.

① 답이 1개인 문항 : 각 문항에 n 개 선택지가 있고, 그 중 1개만 정확한 답이다. 정답자는 해당 문항의 점수가 주어지고, 미 작성, 오 작성 또는 1개 이상의 답을 작성한 경우 0점으로 계산한다.

② 답이 1개 이상인 문항 : 각 문항에 n 개 선택지가 있고, 그 중 적어도 1개 이상이 답이다. 각 문항의 선택지는 독립적으로 판정하며, 모든 선택지의 답을 맞힌 경우 해당 문제의 점수를 받는다. k 개 선택지를 틀린 경우 $(n-2k)/n$ 의 점수를 받는다. 모든 선택지를 미 작성하거나, $n/2$ 개 이상의 선택지 답을 틀린 경우 0점으로 계산한다.

예) 어떤 답이 1개 이상인 문항이 배점이 2점이고, A, B, C, D, E 5개의 선택지가 있으며, 정확한 답이 A, C, D인데, 갑, 을, 병, 정, 무의 5명의 학생이 답안을 각각 「A, C, D」, 「A, B, C, D」, 「C, D, E」, 「A」, 「미작성」이라고 작성했을 때, 각 학생의 득점 상황은 아래와 같다.

수험생	작성 답안	각 선택지 정오표	점수계산 방식	득점
		A B C D E		
갑	A, C, D	○○○○○	2	2
을	A, B, C, D	○×○○○	$[(5-2*1)/5]*2$	6/5
병	C, D, E	×○○○×	$[(5-2*2)/5]*2$	2/5
정	A	○×××○	0	0
무	미작성	- - - - -	0	0

다) 수학 과목의 컴퓨터로 채점 가능한 단답형 문항은 매 문항마다 n개의 빈칸이 있고, 반드시 답이 전부 맞아야 득점할 수 있으며, 답이 틀린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답안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예) 만약 어떤 문항의 답안 격식이 $\frac{2021}{5}$ 인데, 답안이 $\frac{-7}{50}$ 일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답안 카드에 20번째 열의 $\boxed{\quad}$ 과 21번째 열의 $\boxed{\quad}$ 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 그림 생략

(2) 각 과목의 성적 표시 및 등급제 사용

가) 급간

각 과목 수험생 중 원점수 득점 상위 1% 학생(소수는 무조건 올려 정수만 취함)의 원점수 평균을 계산하고, 다시 15로 나누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취하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것이 각 과목의 급간이 된다.(이하 L로 표시함)

예) 어떤 과목에 응시한 학생이 99,982명이면, 이 과목의 상위 1% 학생이 상위 1,000명이 되고($99982 * 1\% = 999.82$, 소수는 무조건 올려 정수만 취함),

$$\text{때문에 급간(L)은 } L = \frac{(N1+N2+N3+\dots+N1000)/1000}{15}$$

(소수 둘째 자리까지 취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N1은 각 과목의 최고 득점 수험생의 원점수이며, N2는 각 과목의 두 번째 고득점 수험생의 원점수이다. 이에 따라, N1000은 1000등 학생의 원점수이다.

나) 등급

원점수 0점은 0등급이 되고, 최고 15등급까지 있으며 결시는 0등급이다. 각 등급 점수와 원점수 X, 급간(L)의 대조표는 아래와 같다.

등급	원점수 범위	등급	원점수 범위	등급	원점수 범위
15	$14L < X \leq \text{만점}$	10	$9L < X \leq 10L$	5	$4L < X \leq 5L$
14	$13L < X \leq 14L$	9	$8L < X \leq 9L$	4	$3L < X \leq 4L$
13	$12L < X \leq 13L$	8	$7L < X \leq 8L$	3	$2L < X \leq 3L$
12	$11L < X \leq 12L$	7	$6L < X \leq 7L$	2	$L < X \leq 2L$
11	$10L < X \leq 11L$	6	$5L < X \leq 6L$	1	$0 < X \leq L$

2) 성적 통지

(1)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2011년 2월 21일까지 발송하며, 동시에 인터넷과 전화 음성 안내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험생 성적표는 개별 접수자는 수험생 주소로 발송되며, 단체 접수자는 접수 기관에게 보내어 수험생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각 단체 접수 기관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수험생의 성적자료 파일을 발송한다. 만약 수험생이 2월 24일까지 성적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단체 접수자는 단체 접수 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개별 접수자는 전화 음성 안내 02-23643677로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 서비스는 3월 1일까지이다.

(2) 각 과목의 등급과 총 등급의 인원수 백분율 누적표와 각 과목과 총 등급 점수의 「최상위 표준」, 「상위 표준」, 「평균 표준」, 「하위 표준」, 「최하위 표준」은 2월 21일에 발표한다.

다섯 개 항목 표준 계산은 결시생(총 등급 계산은 다섯 과목 모두 결시한 학생을 포함하지 않음)의 성적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최상위 표준: 성적이 88%인 응시생 등급

상위 표준: 성적이 75%인 응시생 등급

평균 표준: 성적이 50%인 응시생 등급

하위 표준: 성적이 25%인 응시생 등급

최하위 표준: 성적이 12%인 응시생 등급

예) 어떤 과목에 응시한 학생이 99,982명이면, 다섯 항목 표준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 표준: 성적을 낮은 데서 높은 순으로 배열하여, 87,985등($99982 * 88\% = 87984.16$, 소수는 무조건 올려 정수만 취함)인 응시생 성적을 취한다.

상위 표준: 성적을 낮은 데서 높은 순으로 배열하여, 74,987등($99982 * 75\% = 74986.5$, 소수는 무조건 올려 정수만 취함)인 응시생 성적을 취한다.

평균 표준: 성적을 낮은 데서 높은 순으로 배열하여, 49,991등($99982 * 50\% = 49991$)인 응시생 성적을 취한다.

하위 표준: 성적을 낮은 데서 높은 순으로 배열하여, 24,996등($99982 * 25\% = 24995.5$, 소수는 무조건 올려 정수만 취함)인 응시생 성적을 취한다.

최하위 표준: 성적을 낮은 데서 높은 순으로 배열하여, 11,998등($99982 * 12\% = 11997.84$, 소수는 무조건 올려 정수만 취함)인 응시생 성적을 취한다.

(3) 수험생 성적표는 단지 수험생 개인의 성적을 통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수험생이 각 대학 신입생 모집 혹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본 요강의 「15. 성적 증명서 신청」의 규정에 따라 성적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10. 시험 성적 및 자료의 사용

1) 본 고시중심은 시험에 참가한 수험생에게 단지 시험 성적만 제공할 뿐이다. 시험 전 과정 중 사용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수험생이 작성한 시험지, 답안지, 답안카드 포함)는 본 고시중심 소유로 귀속된다.

2) 수험생의 성적 및 자료는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개인, 원서접수를 위탁 처리한 단체

접수 기관 및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연합회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본 요강 「15. 성적 증명서 신청」의 규정에 따라 수험생 원서를 접수 처리한 신입생모집기관에서도 성적 증명서 신청을 접수하며, 무기명 방식 및 수험생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교육 연구 및 통계 분석에 사용한다.

3) 각 대학 신입생 모집의 원서 접수 자격 및 본 시험 성적의 사용 방식은 모두 각 신입생 모집 요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험생이 본 시험에 접수하기 전 반드시 신입생 모집 요강의 규정을 상세히 읽고, 접수를 해야 하며, 부득이 대학 원서접수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험 원서 접수비 환불을 요구한다.

11. 성적 재검

1) 신청 방법 및 시간

수험생 성적 재검은 인터넷 신청에 한하며, 기타 방식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2011년 2월 24일 오전 9시부터 3월 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수험생 성적표 상의 「수험생 시험 성적 재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본 고시중심 웹사이트의 재검신청 페이지에서 재검 관련 자료를 등록 신청한다.

2) 수수료 : 매 과목 50원(NT\$)

3) 납부 방식

(1) 먼저 온라인으로 재검 신청 관련 자료를 등록한 후, 시스템에서 「성적 재검 인터넷 신청표」를 출력하여 화남은행 창구에서 수수료를 수납하거나, 기타 금융 기관에서 타행 입금을 하거나, 자동입출금기(ATM) 또는 인터넷 ATM을 사용하여 납부한다.

(2) 「납부 계좌번호」는 개별 수험생 원서 접수 시의 접수비 납부 설정 방식과 같아(본 요강 5페이지 상세 참조), 등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은 수험생이 보관한다.

4) 납부 기간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이다. 은행 창구 납부 혹은 타행 이체 송금하는 자는 3월 1일 오후 3시30분 마감이며, 자동입출금기(ATM)이나 인터넷ATM 이체 납부는 밤 12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간 내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은 자는 신청 수속이 되지 않으며, 기간이 지난 후 추가 납부를 받지 않는다.

5) 처리 방법

(1) 재검 항목은 수험생이 신청한 부분에 한하며, 미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할 수 없다. 서술형 문항을 재검할 때는 누락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답안지를 다시 읽지 않는다.

(2) 재검 신청은 답안지, 답안카드의 현장 조사나 복사를 요구할 수 없다.

(3) 재검 작업은 본 고시중심 고시위원회(교육행정주관기관,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연합회, 고등학교교장 및 전문가 학자 등 각 계 대표로 구성) 및 검토 그룹이 감독 관리한다.

(4) 성적 재검 결과는 오류 없음, 답안 변동 혹은 성적 증감 등이다. 본 고시중심은 답안 변동 혹은 성적 증감자에 대해서 해당 학생의 성적표를 재발행하는 것 외에, 변동 상황을 성적 사용 기관에 통지한다.

(5) 재검 결과 통지서는 3월 4일에 발송하며, 인터넷과 전화 음성 안내도 동시에 제공한다.

6) 주의사항

(1) 재검을 신청한 과목과 문항 번호는 일단 등록하고 확인 완료 후에는 다시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전에 시스템의 작업 주의사항을 상세히 읽고, 신청과목과 문항 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자세히 대조한 후 확인을 완료한다.

(2) 신청 수속을 마친 자는 신청 마감일 후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3) 기한 내에 신청 수속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처리하지 않는다.

12. 시험장 규칙 및 위반 행위 처리 방법

제1조 시험장 질서 및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시험장 규칙 및 위반 행위 처리 방법」(이하 약칭 본 처리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험생 규칙 위반 사건 및 기타 시험장 관련 중대한 사항은 본 고시중심 고시위원회에 알려 심의한다.

감독요원, 관리요원은 각 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시험장 질서 교란 등 시험 공정성 방해 행위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각종 휴대 불가 물품을 조사해야 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 사항

제3조 아래 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 ①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시키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응시한 자
- ② 다른 수험생 혹은 감독요원을 협박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③ 집단 부정행위자
- ④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제4조 아래 부정행위 혹은 부정행위의 의도가 있는 수험생은 해당 과목 성적을 전부 0점 처리한다.

- ① 시험 관련 문자 혹은 부호가 있는 문건을 휴대하거나 전달한 경우
- ② 문구, 의복 혹은 신체 등에 관련 문자나 혹은 부호를 쓴 경우
- ③ 답안지를 베끼거나 전달 혹은 교환하는 경우
- ④ 소리 혹은 신호로 답안을 알린 경우
- ⑤ 답안을 엿보거나 베끼도록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 ⑥ 다른 사람의 답안을 엿보거나 다른 사람이 답안을 엿보게 한 의도가 있어 제지를 당한 후 다시 같은 행위를 범한 경우

제5조 수험생은 예비령이 울리면 즉시 입실해야 한다. 입실 후, 수험표 및 시험에 필요한 문구 외에 모든 물품은 반드시 즉시 임시 물품보관구역에 놓고, 신속하게 수험번호에 맞춰 착석한다. 감독요원의 지시에도 시험시 불필요한 용품을 내놓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수험생은 착석 후, 먼저 좌석표 및 답안지, 답안카드의 수험번호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즉시 손을 들어 감독요원에게 처리를 요청한다. 수험생은 착석 후 감독요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석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수험생은 시험 시작 본령이 울리기 전, 시험지를 열거나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2등급 감점한다. 제지 후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한다.

수험생은 시험 시작 20분이 지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다. 입실 후 시험 시작 60분 이내에는 감독요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퇴실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한다. 제지 후에도 입실 혹은 퇴실을 강행하는 자는 시험 응시 자격을 취소한다.

제6조 수험생이 입실시 휴대한(임시 물품 보관구역 포함) 손목시계 및 모든 물품은 시험 중 소리가 나거나 시험실 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허가를 거치지 않은 보청기 같은 개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서적, 종이 또는 계산 및 저장기능이 있는 물품을 서랍, 책상이나 의자 아래, 좌석 옆 또는 몸에 휴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2등급 감점한다. 앞 두 항목의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추가 감점하거나 해당 과목 성적을 0점 처리한다.

제7조 수험생은 시험 중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유 없이 시험실 질서를 어지럽게 해 다른 사람의 답안 작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처음 위반한 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점하고, 제지 후에도 다시 위반한 자는 퇴실 조치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을 0점 처리하며,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는 시험 응시 자격을 취소한다.

수험생이 질병 등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시험 중 물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시험 시작 전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요원의 협조 하에 음용하거나 복용해야 한다. 위반자는 상황에 따라 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입실 및 답안 작성 전 사항

제8조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를 휴대하고 입실해야 하며, 위반자는 감독요원의 대조와 확인을 거쳐 수험생 본인이 틀림없을 때, 먼저 응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교시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전까지 시험실에 수험표가 전달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수험표 재발행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제9조 수험생은 반드시 정해진 시험실 및 정해진 좌석에 앉아 응시해야 한다. 같은 시험실 내에 좌석을 잘못 앉은 자는 아래 방식에 따라 각 각 처리한다.

① 시험 시작 20분 이내 답안 작성 전에, 수험생 본인 혹은 다른 수험생이 발견했을 때는 정해진 자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성적을 감점하지 않는다.

② 시험 시작 20분 이후 혹은 답안 작성 후에, 수험생 본인 혹은 다른 수험생이 발견했

을 때는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③ 감독요원이 발견했을 때는, 수험생의 답안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과목의 성적을 2등급 감점하며,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더 감하거나 혹은 전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도 있다.

동일 시험지구 내에서 시험실을 잘못 입실한 경우, 시험 시작 20분 내에 발견된 자는 시험관리요원의 대동 하에 정해진 시험실로 입실하며 아래 방식에 따라 각 각 처리한다.

① 답안 작성 전 수험생 본인 혹은 다른 수험생이 발견했을 때, 해당 과목의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② 답안 작성 후 수험생 본인 혹은 다른 수험생이 발견했을 때, 해당 과목의 성적을 2등급 감점한다.

③ 감독요원이 발견했을 때는, 수험생의 답안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과목의 성적을 3등급 감하며,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더 감하거나 혹은 전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도 있다.

다른 시험지구에서 잘못 입실한 수험생 혹은 동일 지구 내에 시험실을 잘못 입실했으나 시험시작 20분 경과 후 발견된 자는 일률적으로 해당과목 성적을 전부 취소한다.

제10조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먼저 답안지, 답안카드를 확인하고 만약 누락, 훼손되었거나, 인쇄가 뚜렷하지 않거나 혹은 수험번호가 잘못 되어있는 경우 손을 들어 감독요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잘못된 답안지와 답안카드를 사용한 경우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아래 방식에 따라 각 각 처리한다.

① 시험 시작 20분 이내에 발견한 자는 정상적인 답안지와 답안카드로 교체하며, 성적을 감점하지 않는다.

② 시험 시작 20분 후에 발견한 자는 답안지와 답안카드를 교체하지 않으며 해당과목의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③ 시험 종료 후 발견한 자는 해당과목의 성적을 2등급 감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더 감하거나 혹은 전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도 있다.

답안 작성 사항

제11조 수험생은 반드시 감독요원의 지시를 따라야하며, 수험표와 원서철의 수험생 명단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매 교시 시험을 볼 때 수험생 명단에 중국어로 정자로 직접 서명을 해야 하고, 수험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통해 추가점수를 요구하거나 시험시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심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2조 수험생은 반드시 객관식 혹은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한 단답형 문항은 반드시 답안 카드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서술형 문항의 답안 작성은 답안지에 해야 한다. 위반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13조 수험생은 반드시 답안지 및 답안카드를 완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위반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각 각 처리한다.

① 답안지 또는 답안카드의 수험번호 혹은 바코드를 훼손한 자는 해당 과목의 답안지 또

는 답안 카드 전체 성적을 0점 처리한다.

② 이유 없이 답안지나 답안카드를 훼손하거나 찢는 경우 또는 답안지나 답안카드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답안과 무관한 문자나 부호를 작성한 자는 해당 과목의 답안지나 답안카드의 성적을 각 각 1등급 감점한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더 감하거나 혹은 전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도 있다.

제14조 수험생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검은색 펜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을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시험지 및 답안지의 규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위반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각 각 처리한다.

① 검은색 펜을 사용하지 않아서, 컴퓨터에서 스캔이 잘 되지 않아 채점요원이 답안지를 읽을 수 없을 경우, 그 결과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진다.

② 답안 작성 구역 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문자나 부호를 쓴 경우, 혹은 기타 답안 작성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과목 답안지의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③ 글자 지운 흔적이 남았거나 시험문제 번호 등을 적지 않아서, 채점요원이 답안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점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15조 수험생이 답안카드 뒷면의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검은색 2B 부드러운 심 연필을 사용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지 않아서, 카드리더기가 답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진다.

답안카드는 수정액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해당 과목 답안카드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제16조 수험생은 시험지의 착오, 누락, 훼손 혹은 인쇄가 뚜렷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즉시 손을 들어 감독요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단, 문항의 뜻 해석을 요구할 수 없다. 답안지나 답안카드 혹은 문구류가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는 손을 들어 감독요원에게 알린 후 줍는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수험생은 답안지, 답안카드, 시험지 이외의 장소에 답안을 베껴 쓸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만약 해당 과목 시험 종료 전 베낀 답안을 가지고 퇴실했을 경우 해당과목 성적 전부를 0점 처리한다.

제18조 수험생이 감독요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좌석을 이탈했을 경우, 다시 답안을 수정 작성할 수 없다. 위반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더 감하거나 혹은 전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도 있다.

수험생이 병 또는 다른 상황(용변 등)으로 잠시 이석할 때는 반드시 감독요원의 동의하에 감독요원을 대동하고 이동해야 한다. 위반자는 앞 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험생 치료나 처리 이후에 시험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시험에 볼 수 있으나, 시험시간 연장이나 재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수험생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반드시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추고,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고, 감독요원의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위반자는 아래 방식에 따라 각 각 처리한다.

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② 제지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한 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2등급 감점한다.

- ③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자는 더 감점하거나 해당 과목 성적 전부를 0점 처리한다.

퇴실 사항

- 제20조** 시험 시작 후 60분 이내에, 질병 혹은 특수한 사유로 감독요원의 동의를 거쳐 퇴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관리요원이 지정한 적당한 장소에서 시험 시작 후 60분까지 있을 수 있다. 위반자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며, 제지 후에도 강제로 퇴실하는 자는 시험 응시 자격을 취소한다.
- 제21조** 수험생은 퇴실 시에 반드시 답안지, 답안카드 및 시험지를 감독요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1등급 감점한다. 답안지, 답안카드 혹은 시험지를 가지고 퇴실한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전부 0점 처리한다.
- 제22조** 시험 시작 60분 경과 후,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퇴실하는 수험생은 시험실 부근에 머무르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답안을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지 후에도 다시 해당 행위를 할 때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전부 0점 처리한다.

기타 사항

- 제23조** 수험생의 답안지, 답안카드가 만약 시험실 내 혹은 시험 종료 후 분실되었다면, 수험생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거부할 경우 해당과목 답안지, 답안카드의 성적을 각 각 0점 처리한다.
- 제24조** 본 방법에서 나열한 규정 위반 수험생의 성적 감점 규정은 해당과목의 답안지, 답안카드의 성적을 각 각 0점 한도까지 감점한다.
- 제25조** 수험생 귀책 사유가 아니거나 기타 특수 원인으로 발생한 규정 위반 사안은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처리한다.
- 제26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관련 학교 혹은 단체에 규정에 따라 통보하여 처벌하고, 본 고시중심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법에 따라 고발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3.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1) 서비스 대상

- (1) 심신 장애 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
- (2) 각 급 주관 기관의 특수교육학생 인증 및 입학 보조회 인증을 받은 심신장애학생
- (3) 기타 중대한 병으로 응시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자

2) 서비스 항목

서비스 대상에 부합하는 수험생은 필요한 것을 보고, 아래 서비스 항목 중 1개 혹은 여러 개 항목을 신청한다.

- (1) 시험실에 우선 입실한다.

- (2) 시험 시간 연장, 단 각 과목 최대 20분 연장에 한한다.
- (3) A3 확대 시험지 혹은 점자 시험지 사용한다.(혹은 맹인용 전자 시험지 혹은 음성 안내 시험지)
- (4) 객관식(단답형) 문항은 A4로 확대한 답안카드 대용 용지 혹은 빈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한 후, 시험지구의 시험관리요원이 대신 베껴 기록하거나, 점자 기계, (맹인용)컴퓨터 등 특수방식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 (5) 서술형(단답형) 문항은 점자 기계, (맹인용)컴퓨터 등 특수방식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 (6) 돋보기, 확대기, 입체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독해 혹은 답안 작성을 보조하게 한다.
- (7) 낮은 층을 배정하고, 인원수가 비교적 적은 시험장 혹은 응시에 편한 좌석을 배정한다.
- (8) 보청기 등 개인의료기기를 사용한다.
- (9) 기타 장애 혹은 질병으로 인한 특수한 요구 혹은 필요에 협조한다.

3) 중서 받기와 신청

수험생 신청 서비스 항목에서 시험시간 연장, 확대 혹은 점자 등 특수 시험지 사용, 변경 답안지 또는 답안카드를 사용한 답안 작성과 관련된 서비스 신청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 시에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신청표」(학교 학습기록표 및 진단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의 근거로 삼는다. 신청 항목이 시험시간, 시험지 또는 답안지, 답안카드와 무관한 자는 원서 파일 혹은 원서의 비고란에 필요한 협조 또는 배정사항을 기재하며, 신청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신청표」는 요강 발매일부터 원서 마감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수험생 혹은 대리인이 아래 방식에 따라 수령하여 처리한다.

- (1) 이메일 수령 : 아래 자료를 enable@ceec.edu.tw로 전송한다.
 - ① 수험생 성명, 신분증 번호, 장애 종류 혹은 병세, 연락인 및 전화번호.
 - ② 심신장애수첩 혹은 관련 증명서 파일. 본 고시중심에서 2010학년도 각 항목 시험 신청을 했던 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2) 현장 수령 : 심신장애수첩 혹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본 고시중심으로 와서 수령한다.
- (3) 우편 수령 : 정해진 시간 내 등기 우편으로 「10099 대북우체국 71-64 사서함」으로 발송하여 수령한다. 우편물 안에 다음 서류를 동봉한다.
 - ① 심신장애수첩 혹은 관련 증명서 사본.
 - ② A4 규격의 회신용 봉투 1장(등기우편용 우표를 붙여, 수신인 성명, 연락전화, 주소를 기입하고, 편지봉투에 「심신장애수험생응시서비스 신청표 수령」이라는 문구를 붙인다.)

신청서의 진단서는 수험생이 빈 양식을 가지고 위생청이 인증한 의학 중심 혹은 지역병원 또는 지구 학교병원에 가서, 심신장애등급별 관련 의료과에서 응시에 영향을 주는 각 항목 읽기, 쓰기 및 이동 등 능력을 검사한다. 예를 들면, 시력장애 수험생은 안과에서 「시각 기능」을 검사하고, 지체 장애 수험생은 재활과, 신경과에서 「손 기능」, 「쓰기표현」 등 지체 능력을 검사하고, 학습장애, 정신 장애, 자폐증 등의 수험생은 (청소년아동)정신과, 심리

과에서 「정신기능」을 검사한다. 검사 사항에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먼저 본 고시중심 제 2처에 자문을 구한다. 전화 02-23661416 내선 609,605번이다.

시각과 지체 장애 이외의 수험생이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외에 심리평형검사보고 등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서류를 보충한다. 학습 장애 수험생이 만약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먼저 「개별화교육계획」 혹은 관련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심사

(1) 이전 항목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수험생 신청 서비스 항목은 본 고시중심에서 요청한 심신 장애 관련 영역의 전문가, 학자와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그룹에서 각 수험생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제출 서류를 가지고 전체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각 각 판정한다.

(3) 시험지 제공 방식 및 원칙

- ① 각 수험생의 시험지는 1인당 1종류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상황으로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는 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매 시험 과목마다 한 종류(시험의 내용 및 점수계산 방식 동일)로 제한한다.
- ② 영어 과목의 점자 시험지는 1급 점자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맹인용 전자 시험지 및 음성 안내 시험지는 중도 이상의 시각 장애, 학습장애 등 명확하게 독해력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답안 작성 방식 및 원칙

- ① 수험생은 심사로 결정된 답안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은 답안 작성이나 시험지 위에 쓰거나, 선택한 답안은 점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 ②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의 내용은 반드시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여야 하며 시험 중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거나 중역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의 결과는 반드시 뚜렷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만약 채점요원이 답안지를 읽을 수 없다면, 그 결과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5) 심사결과 통지서는 2010년 12월 28일 수험표와 함께 발송한다. 단체 접수자는 원서접수 기관에서 받아 수험생에게 전달하며, 개별 접수자는 수험생에게 직접 발송한다.

5) 기타 주의사항

(1) 중도 시력 장애, 뇌성마비 등 필기구, 점자기 외에 보조 도구나 특수한 보조 서비스가 필요하여 일반 시험지구에서 응시할 수 없는 중도 장애 수험생은, 아래 시험지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심신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같이 임의로 한 곳의 시험지구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본 요강 7p에 상세 설명 참조)

코드번호	시험지구	코드번호	시험지구
210	대북지구	710	고흥지구
410	대중지구	840	화련지구

(2) 시험지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시험지구에서 현재 보유한 자원 및 일반적인 사무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수험생이 만약 필기구 외 답안 작성 기구(예, 점자기, 맹인용 컴

퓨터, 입체계산기 등), 보조도구(예, 확대기, 돋보기 등) 및 의료기자재(예, 보청기 등) 등을 사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시험관리요원의 검사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3) 수험생이 점자 시험지, 맹인용 전자 시험지 또는 음성 안내 시험지로 응시할 때, 만약 원본 시험지의 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문제가 길거나 혹은 발음을 묻는 문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수 시험지를 제작하지 못하여 답을 작성할 수 없을 때, 수험생 성적은 답을 작성한 실제 문제를 근거로 비율에 따라 원점수로 환원한 후 다시 계산한다.

14. 돌발 상해 질병 수험생 응시 서비스

시험 전 갑작스럽게 발병한 수험생 혹은 본 요강 「13. 심신 장애 수험생 응시 서비스」 신청에 따라 응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심신장애 수험생에 대한 응시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식은 아래와 같다.

- 1) 일률적으로 시험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2) 수험생 신청 시 관련 의료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3) 수험생은 필요에 따라, 아래 열거한 응시 서비스 항목 중, 1개 혹은 여러 종류를 신청한다.
 - (1) 시험실에 우선 입실한다.
 - (2) 계단 오르내리는 등 행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동일 시험지구 내의 낮은 층 시험실을 배정하거나 인원수가 비교적 적은 시험실을 배정한다.
 - (4) 특수 제작한 책상, 의자 혹은 수험생이 응시하기에 편리한 기타 보조 도구를 제공한다.
 - (5) 객관식(단답형) 문항은 A4로 확대한 답안카드 대용 용지에 답안을 작성한 후, 시험지구의 시험관리요원이 대신 베껴 기록한다.
 - (6) A3 확대 시험지를 제공한다.
 - (7) 감독요원이 시험지를 넘기는데 협조하거나 기타 시험의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신청 시간 및 처리 기관
 - (1) 3번째 항목의 서비스 신청자는 2011년 1월 24일 이전 본 고시중심의 제2처에 신청해야 하며, 전화 02-23661416 내선 609, 605 이다. 1월 25일 이후에는 소속 시험지구에서 접수 처리한다.
 - (2) 특수하고 중대한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3번째 항목 이외의 서비스 신청자는 2011년 1월 24일 이전 의학 중심 혹은 지역 병원 또는 지구 학교 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본 고시중심 제 2처에 신청해야 한다. 시험 관리요원이 지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한 후 관련 서비스를 한다.

15. 성적 증명서 신청

본 시험 성적 증명서의 정확성 및 수험생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 시험 성적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규정에 따라 성적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1) 성적 증명서는 본 시험 성적을 사용하는 국내 각 대학의 신입생모집기관 및 수험생 본인의 신청에 한한다.

(1) 수험생 본인 신청

필요에 따라 증문판 혹은 영문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건당 100원(NT\$)이며, 우편 혹은 현장 신청에 한한다.

가) 우편 신청자

- ① 「학과능력시험성적증명서 신청표」(본 고시중심 웹사이트 <http://www.ceec.edu.tw> 에서 다운)를 작성한다.
- ② 수험표(혹은 신분증)의 앞면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 ③ 수수료의 우편계좌이체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다. 이체 계좌 예금주 : 「대학교시중심시험전용」, 계좌번호 : 1822347-8, 계좌이체표 통신란에 「학과능력시험성적 증명서 신청」이라는 문구를 표기한다.
- ④ 등기 우편은 본 고시중심(10099 대북우체국 71-64호 사서함)으로 송부하고, 편지 봉투에 「학과능력시험성적 증명서 신청」이라는 문구를 표기한다.
- ⑤ 본 고시중심에서 우편물 수취 후 3일(업무일) 내에 등기 우편으로 수험생에게 발송한다.

나) 현장 신청자

- ① 신청일시는 2011년 2월 22일 ~ 3월 31일까지이다
- ② 수험생 본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을 지참하고 본 고시중심에 와서 현장에서 신청한다. 신청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분 ~ 오후 5:00까지(국정 공휴일 제외)이다.
- ③ 수험생 수험표(혹은 신분증) 앞면 사본 및 「학과능력시험성적증명서 신청표」를 제출한다.
- ④ 확인 후 현장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2) 대학신입생모집 기관 신청

가) 본 학년도 시험 성적에 한한다. 이전 학년도 시험 성적을 사용할 경우, 수험생에게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신청할 때는 먼저 우편으로 신입생모집기관에서 사용할 「학과능력시험성적증명서 신청표」를 보내고, 「수험생명단 파일」을 이메일 s_cer@ceec.edu.tw로 전송한다.

다) 앞 항목의 신청표 및 명단 파일 양식은 본 고시중심의 웹사이트 <http://www.ceec.edu.tw>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라) 본 고시중심은 우편물 수신후 3일(업무일) 내에 회신한다.

2) 본 시험 성적의 보존기한은 5년이다. 기한 초과 신청자는 접수하지 않는다.

3) 본 시험 성적을 사용하는 국내 각 대학 입학 모집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해당 대학이 본 고시중심에 당해 학년의 개인 성적 및 자료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수험생 및 본 고시중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수험생의 성적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없다. 본 고시중심에서 직접 전송하지 않은 성적 자료 혹은 사용 기관에서 직접 개봉을 거치지 않은 성적 증명서에 대해 본 고시중심에서는 어떠한 감사의 책임도지지 않는다.

16. 이의신청 처리

1) 수험생은 시험관련 업무가 자신의 권익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본 고시중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본 고시중심 홈페이지의 <다운로드전용구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내용에는 이의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상세한 이의신청 사유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객관식(단답형)문항 답안에 대한 이의 및 성적 재검 등 본 요강에 분명히 정한 사항은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의 신청서는 반드시 사안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본 고시중심(10099 대북우체국 71-64호 사서함)에 송달해야 하고, 편지봉투에 「이의신청서」라고 쓴다. 기한을 넘기면 접수하지 않는다.

3) 본 고시중심에서 신청서 수취 후 10일 내에 서면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 고시중심 고시위원회의 토론을 거친다.

부록 1. 수험생 출신학교 코드표

(생략)

부록 2. 학과능력시험 소개

본 자료는 수험생의 「학과능력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황은 본 요강 본문 및 시험지에서 열거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학과능력시험(약칭 「학시」)은 수험생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학과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초보적으로 선별하는 기준이다. 1994년 개설한 이래, 본 시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다원화된 입학 방안의 실행에 따라 조정을 거쳐 왔고, 2006년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임시 시행 강령」(2004년 8월 31일 공포, 2005년 1월 20일 수정 공포 : 약칭 「95교육과정강령」)의 정식 실시에 따라 학과능력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등 다섯 개 과목을 시험내용으로 하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학과능력시험은 수험생이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과 지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대학 다원 입학 방안으로 보자면, 학과능력시험은 주로 「선발입학제」의 근거가 되어, 대학 학과의 성격, 필요에 따라 먼저 하나의 학과능력시험 성적 기준(컷라인)을 정하고, 이 기준에 도달한 일정 배수 이내의 수험생만이 해당 대학 지정과목선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수한 학생만 선택하여 합격시킨다.

각 대학 및 학과, 고등학교 교사, 수험생 등이 95교육과정강령의 조정과 특색에 맞는 학과능력시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각 과목별 학과 능력시험의 시험목표, 시험시간,

시험범위, 문제유형 및 「하나의 강령에 다양한 교과서」의 출제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시험목표

학과능력시험의 시험 목표는 아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수험생이 고등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과 지능을 구비하였는지 평가한다.
- 2) 수험생이 대학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기본 지능을 구비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3) 지식에 통달하여 생활과 결합하거나 다른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4) 이해와 응용능력을 중시한다.

2. 시험시간

국어 과목은 시험시간이 120분이며,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실제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과목과 시험범위

현행 학과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와 자연으로 다섯 개 과목이다. 그 중 사회 과목의 내용은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를 포함하며, 자연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지구학과 환경 등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회와 자연은 다른 학과목의 설계를 결합한 것으로, 이러한 과목들의 내용에 대해 수험생의 종합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과능력시험은 원칙상 95교육과정강령을 근거로 하며, 각 시험과목의 범위는 고1, 고2의 필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2009년부터 학과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의 시험범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학과능력시험 각 시험과목의 시험범위

시험과목	시험범위
국어	고1 국어, 고2 국어
영어	고1 영어, 고2 영어
수학	고1 수학, 고2 수학
사회	고1 역사/지리/공민과 사회 고2 역사/지리/공민과 사회
자연*	고1 기초물리/기초화학/기초생물/기초지구과학 고2 물리/화학/생물/지구와 환경

* 자연의 시험과목 시험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4. 문제유형」 설명 참조)

4. 문제유형

학과능력시험은 컴퓨터 채점이 가능한 문제 유형 위주이다. 예를 들면, 객관식(답이 1개인 유형, 답이 1개 이상인 유형), 단답형이 있다. 국어와 영어 두 과목은 사람이 채점하는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어의 서술형 문항은 「어문 표현능력 측정」 유형을 채택하여, 주로 학생들의 문자 종합자료의 응용, 문장 고쳐 쓰기, 도표 정보의 판독 등 표현 능력을 테스트 한다.

영어의 서술형 문항은 문장 배열, 중국어로 번역, 영작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각 시험과목 문항의 답이 틀렸을 경우 모두 감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점수 계산 방식은 시험지에 서술된 설명을 참조한다. 사회 과목의 역사, 지리, 공민과 사회 세 과목의 시험 문항 비중은 비슷하다. 자연 과목 시험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져 있는데, 제1부분은 고1 필수 교육과정 위주의 범위이며 모든 문제의 배점이 같다. 제2부분은 고2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전부 점수 계산에 포함하지만 수험생이 일정 수 이상 문항을 맞추면, 제2부분을 만점으로 처리한다. 각 시험과목의 시험지 구성과 문제유형 배치는 2008년 9월에 공포한 견본 시험지를 참조한다.

(<http://www.ceec.edu.tw/AbilityExam/AbilityExaminfo.htm>)

학과능력시험의 각 시험과목 성적 계산은 등급제를 사용하며, 최고 등급은 15등급이다. 국어, 영어는 전체 성적 외에 서술형문항의 점수를 단독으로 산출한다. 등급의 계산방식은 요강의 설명을 참조한다.

5. 「하나의 강령에 다양한 교과서」의 출제방식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의 개방으로 각 과목에 여러 종류 교과서가 출판되었으며, 즉 「하나의 강령에 다양한 교과서」 방식이다. 「하나의 강령에 다양한 교과서」의 상황 아래, 각 시험과목의 문항 출제는 교육과정 강령에서 열거하는 주요 개념을 원칙으로 하며, 각 시험과목의 시험 목표에 근거하여 시험 문항을 설계한다.

학교 수업에 부합하기 위해, 문항 출제 설계 시 각 시험 문항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수험생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수험생이 해당 과목의 기본적인 지능과 능력을 구비해야만 제공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용어나 사용된 부호가 달라 발생 하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시험 문항에 사용된 자료가 만약 통용되지 않는 고유명사일 경우 시험지에 적당한 설명이나 주석을 붙인다.

부록 3. 학과능력시험 관련 정보

본 부록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제공한다.

1. 성적을 사용한 주요 신입생 모집 방식

학과능력시험은 주로 대학 다원 입학 신방안의 선발 입학(학교추천, 개인 신청), 시험 입학 배치 및 대학 번성 계획, 과학기술대학 주간 4년제 입학 신청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 수많은 기타 다른 입학 방식에 학과능력시험이 사용되니, 모든 수험생은 본 고시중심의 웹사이트, 인재 선발 전자 신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2. 수험생에 대한 건의사항

학과능력시험은 주로 고등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지능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심오한 학과 지식을 묻지 않는다. 때문에 수험생은 평상시 시험범위 내의 교육과정 강령에 열거된 기본 개념에 유의하고, 각 시험과목의 시험 목표를 이해하며, 또한 학과능력시험 각 과목의 문제유형을 참고하여 학과능력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한다.

이밖에 한 교육과정에 다양한 교과서라는 학습 환경에 직면하여, 수험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항 출제의 근거는 교육과정 표준에 있고, 교육과정표준은 유일하게 한 종류이므로, 각 출판사에서 출판된 각기 다른 모든 교과서는 교육과정표준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수험생이 어느 한 종류의 교과서만 충분히 읽는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각각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용어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시험지에 적당한 설명과 주석을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학과능력시험은 단지 대학 학과의 학생 선발의 기준(커트라인)이지,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수험생은 편안한 마음으로 학과능력시험에 대비하는 것 외에, 각 신입생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진학하려는 학과의 기타 다른 요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3. 참고자료

번호	항목	설명
1	2010학년도 학과능력시험 각 과목 시험지	본 고시중심 웹사이트【시험/학과능력시험】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2	《학과능력시험 알기 9》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각 시험과목 설명)	http://www.ceec.edu.tw/AbilityExam/AbilityExamPaper.htm
3	대학입학교시중심 출판물	본 고시중심 웹사이트【하소출판물】에서 열람 http://www.ceec.edu.tw/book/stable.htm
4	인재 선발 전자신문	매월 15일 발행, 내용은 주로 시험, 출제이념, 시험문항분석 등 관련 정보이며, 열람,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ceec.edu.tw 홈페이지 연결

4. 시험 및 신입생모집기관 정보 지침

기관	전화	웹사이트
대학입학교시중심	(02)2366-1416 (02)2364-3677 (자동음성안내 팩스)	http://www.ceec.edu.tw
대학 다원 입학 진학망		http://nsdua.moe.edu.tw
대학 신입생모집위원회 연합회 (초련회)	(02)3366-5246(전화) (02)3366-5247(팩스)	http://www.jbcrc.edu.tw
대학 선발 입학위원회~ 국립중정대학【2011학년도대학 선발 입학 번성 추천 및 대학 선 발 입학 개인 신청 신입생모집 요강 편찬】	(05)272-1799(전화) (05)272-3771(팩스)	http://www.caac.ccu.edu.tw

기관	전화	웹 사이트
대학 시험 입학 배치위원회~ 국립성공대학 【2011학년도 대학 시험 입학 배치 신입생모집 요강 편찬】	(06)236-2755(전화) (06)236-9689(팩스)	http://www.uac.edu.tw
2011학년도 대학 실기시험 위원회 연합회~국립대만사범대학 【2011학년도 대학 실기(음악, 미 술, 체육) 요강 편찬】	(02)7734-1091(전화) (02)2392-2598(팩스)	http://www.cape.edu.tw
기술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책 추 진 총회	(02)2777-3827	http://www.techadmi.edu.tw
기술전문대학 입학 시험 중심	(05)537-9000 내선 158~159	http://www.tcte.edu.tw
기술전문대학 신입생모집 위원회 연합회 【2011학년도 과기 전문대주간부 4년제 신청 입학 연합신입생모집 요강 편찬】	(02)2772-5172(전화) (02)2773-8881(팩스)	http://caac.jctv.ntut.edu.tw
국군 인재 모집 중심	0800-000-050	http://rdrc/mnd.gov.tw
중앙 경찰 대학	(03)3282321 내선 4135~6	http://www.cpu.edu.tw
언어 훈련 시험 중심 (전국민 영어 검정)	(02)2362-6385 (02)3365-1500	http://www.lttc.ntu.edu.tw

2011학년도 학과능력시험 요강 발매 방법

1. 생산비 : 권당 40원(NT\$)
2. 요강 발매 시기 : 2010년 10월 1일 ~ 11월 22일까지
3. 구매 방법
 - 1) 단체 구매 : 단체 원서 접수자는 일괄적으로 단체 접수 기관에서 구매한다.
 - 2) 개별 구매 : 개별 원서 접수자는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우편 구매할 수 있다.
 - (1) 현장 구매
 각 지구별 대행 판매 지점 일람표
(생략)
 - (2) 우편 구매
 권당 70원(수수료 및 회신용 우편비용 포함, 등기우편 요청시는 20원 추가)
 우체국에서 계좌 이체
 예금주 : 대고중심시험담당자
 계좌번호 : 18223478

계좌이체 명세서의 통신란에 요강 구매 수량, 수신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재단법인 대학입학교시중심
주소 : 10673 대북시 주산로 237호
사서함 : 10099 대북우체국 71-64호 사서함
전화 : 대표전화 (02)2236-1416
음성안내 (02)2364-3677
홈페이지 : <http://www.ceec.edu.tw>

2. 대만의 선택과목시험 관련 자료: 대만 대학입학교시중심

재단법인 대학입학시험센터 2010학년도 선택과목시험요람 (財團法人大學入學考試中心100學年度學科能力測驗簡章)

재단법인대학입학시험센터
2010학년도 선택과목시험요람

[개별우편응시신청 2010년 4월 12일 ~ 4월 30일]
[개별인터넷응시신청 2010년 4월 12일 ~ 5월 12일]
[단체응시신청 2010년 4월 12일 ~ 5월 12일]

재단법인대학입학시험센터 편집·인쇄

2010학년도 선택과목 주요일정

항 목	기간(요일)
개별 「우편」 응시신청	2010.04.12(월)~2010.04.30(금)
개별 「인터넷」 응시신청	2010.04.12(월)~2010.05.12(수)
단체응시신청	
응시신청자료 확인	2010.05.19(수)~2010.05.21(금)
수험표 발송	2010.06.03(목)
시험장 공고	2010.06.17(목)
시험	2010.07.01(목)~2010.07.03(토)
물리, 화학, 생물 객관식 문항 답안 공고	2010.07.02(금)
수학(을), 국어, 영어, 수학(갑) 객관(단답)식 문항 답안 공고	2010.07.03(토)
역사, 지리, 시만과 사회 객관식 문항 답안 공고	2010.07.04(일)
성적표 발송 및 관련통계자료 공고	2010.07.19(월)
성적 재검 신청	2010.07.22(목)~2010.07.26(월)

【신입생모집관련정보】

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배치 신입생 모집 요람의 판매 및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대학시험입학배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ac.edu.tw> 혹은 전보 06-2362755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대학입학시험센터
주소: 10673 대북시 주산로 237호 사서함: 10099 대북우정 71-64호 전화: 대표 (02)2236-1416 음성안내 (02)2364-3677 홈페이지: http://www.ceec.edu.tw

2010학년도 선택과목 시험 요람

1. 시험응시신청자격
2. 시험과목, 시험범위, 문제유형
3. 시험기간 및 시간
4. 응시신청
5. 고사장
6. 수험표 발송, 사용 및 추가발송
7. 답안작성시 주의사항
8. 시험문항 및 객관(단답)식 문항 답안 공개
9. 성적 처리 및 통지
10. 시험성적 및 자료 사용
11. 성적 재검
12. 시험장 규정 및 규정 위반시 처리 방법
13.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관련 서비스
14. 돌발상해 수험생 시험응시 관련 서비스
15. 성적증명서신청
16. 이의 처리

부록 1. 수험생 졸업(재학) 학교 코드표

부록 2. 선택과목 시험 소개

부록 3. 선택과목 시험관련 정보

2010학년도 선택과목 시험 요람

1. **시험응시 자격:**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졸업생, 동급학력 소유자
(교육부 「대학시험 응시 동등학력 인정 기준」 참조.
<http://law.moj.gov.tw/fl1.asp>)

2. 시험과목, 시험범위, 문제유형

가. 시험과목: 국어, 영어, 수학(갑), 수학(을), 역사, 지리, 시민과 사회, 물리, 화학, 생물 등 10개 과목으로 수험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과목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단 실기과목을 신청한 응시자는 2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선택해야 함.

나. 시험범위

시험과목	시험범위
국어	고1필수과목국어, 고2필수과목국어, 고3필수과목국어
영어	고1필수과목영어, 고2필수과목영어, 고3필수과목영어
수학(갑)	고1필수과목수학, 고2필수과목수학, 고3선택과목수학(Ⅰ), 고3선택과목수학(Ⅱ)
수학(을)	고1필수과목수학, 고2필수과목수학, 고3선택과목수학(Ⅰ)
역사	고1필수과목역사, 고2필수과목역사, 고3선택과목역사
지리	고1필수과목지리, 고2필수과목지리, 고3선택과목지리
시민과 사회	고1필수과목시민과 사회, 고2필수과목시민과 사회, 고3선택과목시민과 사회
물리	고1기초물리, 고2필수과목물리, 고3선택과목물리
화학	고1기초화학, 고2필수과목화학, 고3선택과목화학
생물	고1기초생물, 고2필수과목생물, 고3선택과목생물

다. 문제유형: 객관식으로 구성된 시민과 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객관식과 비객관식 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학 갑과 수학 을은 선택단답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 그 내용과 점수계산방식은 본 요람의 성적계산 영역의 상관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3. 시험기간 및 시간

가. 시험기간: 2010년 7월 1일 ~ 7월 3일

나. 시험시간: 각 과목 시험시간은 모두 80분. 수험생은 아래 규정에 따라 시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1) 각 과목 시험 시작 10분 전 예비령이 울리고 수험생은 시험시작령이 울리기 전까지 입실 불가.
- 2) 시험시작령이 울리면 수험생들은 입실해서 답안 작성 시작. 시험종료령이 울리면 답안 작성 중지.
- 3) 시험시작 20분 후 수험생 입실 불가.
- 4) 입실 후 감독관 동의하에 병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퇴실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험시작 60분 내에 시험장을 떠날 수 없음.

p.2

5) 일정표

시간/과목/기간		7월1일(목)	7월2일(금)	7월3일(토)
오전	8:40~10:00	물리	수학(을)	역사
	10:50~12:10	화학	국어	지리
오후	2:00~3:20	생물	영어	시민과 사회
	4:10~5:30	--	수학(갑)	--

다.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 전염병유행, 기타 중대 사고 등으로 인해 전과목 혹은 일부과목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입학시험센터와 교육부,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 등 상관계간들의 협의 하에 관련규정에 의거해 긴급대책, 혹은 별도의 시험시간을 마련하도록 함. 수험생은 이에 협조에 해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응시신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통해 단체로 일괄 신청하도록 함. 기타 동급학력 소유자는 정부가 인가한 대학진학반을 통해 단체 신청하거나 인터넷 혹은 우편으로 개별 신청 할 수 있음. 응시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응시신청 기한이 지난 이후 응시신청이나 수수료 납부가 불가하며, 또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응시신청 방법 및 기간

1) 학교 및 대학진학반 단체 신청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 오후 5시 까지. 단체응시신청용 프로그램 속의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본 센터 홈페이지 <http://www.ceec.edu.tw> 에 작성한 서류를 업로드. 수수료는 기한내에 납부 바람.

2) 개별 인터넷 신청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 오후 5시 까지. 사진파일을 구비해 본 센터 홈페이지 속의 지시에 따라 응시신청자료를 업로드하기 바람(2009학년도 혹은 2010학년도 임일고시에 응시한 수험생 중 당시 제출사진이 2008년 8월 이후 촬영한 것일 경우 사진 필요없음). 홈페이지에서 「개별인터넷응시신청수수료표」 인쇄해 기한내에 납부 바람.

3) 개별 우편 신청

2010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우편날인 근거) 「개별우편응시신청수수료표」 및 전용봉투(요람과 함께 판매)를 작성해 기한내에 납부하기 바람.

등기우편영수증은 수취 검색의 근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잘 보관하기 바람.

등기우편 주소 : 10099 대북우정 71-64 호 사서함 대학입학시험센터

나. 응시수수료 및 납부기간

1) 응시수수료는 「기본작업비」, 「선택과목시험비」를 포함하며, 기본작업비의 경우 단체응시신청자는 1인 150원, 개별응시신청자는 1인 200원. 선택과목시험비는 한 과목당

150원. 단 저소득층 자녀는 응시수수료 면제.

예) 5개과목 선택시 응시수수료

단체응시신청자: 150원(기본작업비) + 150원(선택과목시험비)×5(과목) = 900원

개별응시신청자: 200원(기본작업비) + 150원(선택과목시험비)×5(과목) = 950원

p.3

2) 저소득층 자녀 관련규정

- ① 「저소득층 자녀」는 대만성 각 현시, 대북시, 고웅시, 복건성 금문현, 복건성 연강현 등 각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현, 진, 시, 구 사무소가 발급하는 저소득층 증명서류를 구비한 자를 말함.
- ② 저소득층 증명서류는 수험생 성명, 신분증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증명서류에 수험생 성명, 신분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호적명부, 호적등본 등의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③ 학교단체응시신청자 중 저소득층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학교의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보관하고 단체응시신청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한 「저소득층수험생대장」을 본 센터로 발송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진학반단체응시신청자의 경우 진학반에서 증명자료사본과 「저소득층수험생대장」을 본 센터로 발송해 심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개별인터넷응시신청자, 우편응시신청자의 경우 수험생이 직접 증명자료사본을 본 센터로 발송해 심의,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저소득층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혜택이 취소되며, 기한 이후 증명자료 접수받지 않음.
- ④ 저소득층 자녀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수험생은 본 센터가 규정한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시신청자격을 취소함.

3) 납부기간

- ① 개별우편응시신청: 2010년 4월12일~4월 30일.
- ② 단체응시신청 및 개별인터넷응시신청: 2010년 4월 12일~5월12일.
- ③ ATM기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 마감일 오후 3시 30분까지 납부하기 바람. ATM기 혹은 인터넷 ATM으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 24시까지만 가능.

다. 응시신청검색 및 확인

1) 신청처리상황 조회

- ① 단체응시신청단위가 서류 전송을 완료한 후 수험생은 전화안내(02-23643677)로 신청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마감일 이후 인터넷, 전화안내로도 조회 가능.
- ② 개별인터넷응시신청 수험생은 서류 등록 후 인터넷이나 전화안내로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 ③ 개별우편응시신청 수험생은 수신 처리 상황에 따라 인터넷 및 전화안내로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2) 응시신청자료 확인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한 수험생은 신청방식에 관계없이 2010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및 전화안내로 신청자료 완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신청자료 원본과 비교해 차이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본 센터로 발송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함. 기한 엄수.

라. 응시신청자료 내역

1) 수험생 및 단체응시신청단위는 신청방식에 의거해 이하 자료를 구비해야 함.

① 학교단체응시신청

수험생이 학교에 제출해야할 자료	학교가 제출해야할 자료
(1) 사진파일 혹은 2인치 증명사진 (2) 수험생자료확인표 (3) 응시수수료 혹은 저소득층 증명자료 사본	(1) 응시신청자료철 (2) 수험생사진철

p.4

② 진학반단체응시신청

수험생이 진학반에 제출해야할 자료	진학반 제출해야할 자료
(1) 사진파일 혹은 2인치 증명사진 (2) 수험생자료확인표 (3) 응시수수료 혹은 저소득층 증명자료 사본	(1) 응시신청자료철 (2) 수험생사진철

③ 개별인터넷응시신청

(1) 사진파일 (2) 응시수수료(납부 후 영수증은 자동으로 보관됨) 혹은 저소득층 증명자료 사본 (3) 신분증 정면 사본
--

※ 신분증 정면 사본을 제출해야하는 수험생(2008~2010학년도 본 센터의 임일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은 사진 필요없음)은 신청기한 내에 등기로 본 센터로 발송해야 함. 봉투 뒷면에 「인터넷응시신청수험생자료」라는 문구를 적도록 함.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료 미비로 처리함.

④ 개별우편응시신청

(1) 사진파일 혹은 2인치 증명사진 (2) 개별우편응시신청수수료납부표(이용은행직인표, 수수료영수증, ATM명세표중 택1) (3) 저소득층 수험생은 저소득층 증명자료 사본 첨부
--

2) 단체응시신청 수험생은 신청단위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개인의 부주의를 근거로 추가 신청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요구할 수 없음. 의 개인응시 신청자료는 수험생은 「수험생자료 확인표」와 개인응시신청자료를 대조하면서 직접 오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신청단위의 부주의를 근거로 시험과목, 시험지역 등 신청자료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또한 단체신청단위 변경도 불가.

3) 증명사진, 사진파일

① 수험생의 증명사진, 사진파일은 아래 규격을 따라야 함.

- (1) 2009년 8월 이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2) 머리에서 아래턱까지의 길이는 2.5~3cm.
- (3) 탈모한 상태로 얼굴이 명확하게 나와야 함.(눈썹 가릴 수 없음) 정면 반신 사진
- (4) 흑백, 칼라 모두 가능하며 뒷 배경은 흰색 혹은 옅은 색이어야 함.
- (5) 짙은 색 안경을 써선 안 됨.
- (6) 합성사진 불가

※ 내정부가 공고한 「2005년국민신분증사진규격」(<http://www.ris.gow.tw>

참조)에 부합하는 사진은 사용 가능.

② 2인치 사진은 유광종이를 사용해야 하며, 뒷면에 성명, 신분증번호를 적도록 함.

③ 사진파일 주의사항

- (1) 파일은 흑백 혹은 칼라 모두 가능
- (2) 파일 화소는 450×600 pixels 이상. 스캔은 300dpi~500dpi 이상.
- (3) 개별응시신청수험생의 사진파일명은 신분증번호로 하고, 파일형식은 JPG.

④ 본 센터의 2009학년도 혹은 2010학년도 입일고시에 응시한 수험생 중 당시 제출 사진이 2008년 8월 이후 촬영한 것일 경우 신청방식에 관계없이 증명사진 혹은 사진파일 제출 필요 없음. 만약 단체응시신청단위에 추가 수험생이 생길 경우 해당 수험생의 사진을 제출하면 됨.

p.5

4) 「13.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조항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시험시간 연장, 특수답안작성방식 등을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신청표」를 신청, 작성해 첨부하도록 함.(재학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13.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험생은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신청표」를 신청할 필요 없음. 병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험장의 협조가 필요한 수험생은 신청서류나 신청표의 비고란에 해당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함.

예) 청력장애로 보청기 착용, 하지장애로 휠체어 사용, 행동불편으로 지팡이 사용, 정서장애로 1인 혹은 소수 시험장 필요, 당뇨병으로 설탕물 및 펌프 휴대 등.

마. 응시수수료 납부 절차

1) 납부 방법

- ① 학교단체응시신청: 학교가 각 학생의 수수료를 취합한 다음, 단체응시신청용 프로그램에서 인쇄된 「학교단체응시신청수수료납부표」를 작성해 수수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수수료 영수증은 학교가 보관.
- ② 진학반단체응시신청: 수험생은 단체응시신청용 프로그램에서 인쇄된 「진학반수험생 응시신청수수료납부표」를 작성해 수수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수수료 영수증은

진학반이 확인 후 보관.

- ③ 개별인터넷응시신청: 수험생은 인터넷 상에서 신청자료를 등록한 후 신청시스템에서 인쇄된 「개별인터넷응시신청수수료납부표」를 작성해 수수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수수료 영수증은 수험생이 확인 후 보관.
- ④ 개별우편응시신청: 수험생은 「개별우편응시신청수수료납부표」(요람과 함께 판매)를 작성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표와 신청관련자료를 본 센터에 발송 함.

2) 납부계좌 설정 방법

납부계좌는 모두 14자리로, 앞 3자리는 모두 「922」, 4번째 이하 숫자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음.(개별인터넷응시신청시스템, 단체응시신청용프로그램 등에서 인쇄된 응시수수료 납부표의 「납부계좌」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 됨)

① 학교단체수수료납부

- (1) 단위코드 앞부분이 알파벳이 아닌 단위의 설정방법: 92200000000+ 「단위코드」. 예1

- (2) 단위코드 앞부분이 알파벳인 단위의 설정방법: 9220010000+ 「단위코드」. 예2

예	단위	단위코드	납부계좌
예1	국립사범대부속고등학교	100	92200000000100
예2	사립부흥상업야간부	B20	92200100000220

※ 영문앞코드전환대조표

A 01	B 02	C 03	D 04	E 05	F 06	G 07	H 08	I 0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p.6

② 수험생 개별 납부

- (1) 신분증을 이용한 수험생 개별 납부 설정방법은 922+ 「신분증번호」, 영문앞부분은 「영문앞코드전환대조표」에 따라 변경. 예3

예	수험생	신분증번호	납부계좌
예3	수험생 갑	A1213789456	92201123789456

- (2) 거류증을 이용한 외국 국적 수험생 개별 납부 설정방법은 922+ 「9...」+ 「거류증번호」

- A. 숫자로만 구성된 거류증번호를 가진 자는 그 번호 14자리 미만일 때 거류증번호 앞부분에 9를 추가해 14자리로 맞춤. 예4
- B. 알파벳이 포함된 거류증 번호의 경우 알파벳을 모두 「9」로 바꿈. 만약 14자리 미만일 경우 거류증번호 앞부분에 9를 추가해 14자리로 맞춤. 예5, 6

예	수험생	거류증번호	납부계좌
예4	수험생 을	123456789	92299123456789
예5	수험생 병	EB654321	92299999654321
예6	수험생 정	65AC4321	92299965994321

3) 납부 주의사항

① ATM기, 인터넷 ATM을 사용할 경우

- (1) 먼저 화남은행 코드 **【008】**를 입력한 후, 「납부계좌」, 납부금액을 입력함. 마지막에 명세표상의 「납부계좌」 및 「납부금액」을 꼭 확인하도록 함.
- (2) 개별우편응시신청 수험생은 ATM 거래명세표를 신청표와 함께 본 센터로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 함.

② 화남은행에서 납부를 할 경우

수험생이 선택한 응시신청방식에 따라 해당 납부표(학교단체응시신청납부표, 진학반수험생응시신청납부표, 개별우편(인터넷)응시신청납부표)를 가지고 화남은행 각 지점에서 납부하도록 함.

③ 다른 은행을 이용해 납부할 경우(수수료 자비 부담)

- (1) 각지 우체국이나 기타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기타은행 계좌이체표」를 작성하도록 함.
 - A. 수취인 계좌: 「납부계좌」 설정방법에 따라 작성
 - B. 수취인명: 재단법인대학입학시험센터기금회
 - C. 수취담당은행: 화남은행공관지점
- (2) 비고란에 수험생의 신분증번호, 자택전화, 핸드폰번호 기입.
- (3) 개별우편응시신청 수험생은 계좌이체 명세표 원본을 신청표와 함께 본 센터로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 함.
- ④ 수표로 납부할 경우: 화남은행 각 지점 혹은 수표발행은행에서 납부
 - (1) 화남은행 각 지점 이용 시
 - A. 수취계좌명: 「한준입화남은행공관지점 **【납부계좌】** 재단법인대학입학시험센터기금회」
 - B. 「수표 이서 및 양도 금지」 기입하도록 함.

p. 7

(2) 수표발행은행 이용 시

- A. 수취계좌명: 「한회입화남은행공관지점 **【납부계좌】** 재단법인대학입학시험센터기금회」
- B. 회선수표를 취소하고 「수표 이서 및 양도 금지」 기입하도록 함.

바.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기한이 지난 후 아래 환불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환불 불가.

1) 대상

- A. 초과금액 납부자(중복 신청자는 포함하지 않음)
- B. 응시료를 납부했으나 신청하지 않거나 마감 후 신청한 자

C. 응시료를 납부했으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

D. 응시료를 납부했으나 신청자료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신청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시간 및 절차

① A 혹 B 조항에 해당하는 환불대상자는 반드시 2010년 5월 21일 오후 5시 전까지 납부영수증 사본, 환불신청표(본 센터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신청인 성명, 신분증번호, 환불사유, 연락전화, 우편주소 등 기입)를 작성해 본 센터 팩스 02-23661356으로 환불신청 바람.

② C 혹 D 조항에 해당하는 환불대상자는 본 센터가 직접 환불 업무 처리.

3) 환불금액

초과금액 혹은 선택과목시험료(각 과목 150원)만 환불 가능. 기본작업비(단체신청 150원, 개별신청 200원)은 환불 제외.

4) 환불신청을 완료한 자는 5월 25일 이후 전화안내 02-23643677 혹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상황 조회 가능.

사. 응시신청주의사항

1) 수험생 신청자료 및 성적은 본센터 시험 및 시험관련 연구에만 사용 되며, 수험생개인, 신청 위탁 기관인 단체신청단위,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 이미 수험생 신청 처리를 완료한 신입생모집단위에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 「컴퓨터처리개인자료보존법」에 의거해 처리함.

2) 수험생은 응시신청시 본 요람의 각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신청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신청기간이 끝난 후 시험장, 시험과목 등 주요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중복 신청한 수험생의 경우 응시료 초과분은 환불되지 않으며, 2010년 5월 21일까지 본 센터와 연락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센터가 임의로 선택.

4) 개별인터넷응시신청수험생은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시스템 지시에 따라 자료를 등록해야 함. 개별우편응시신청수험생은 「작성주의사항」에 따라 신청표를 작성해야하며, 불분명한 필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5) 진학반에 단체응시신청을 위탁한 수험생은 단체응시신청용 프로그램에서 인쇄된 「진학반수험생응시신청납부표」를 가지고 직접 응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함. 위탁한 진학반이 정부가 인가한 곳인지 꼭 확인바람.

6) 재학학교나 진학반에 단체응시신청을 위탁한 수험생은 성적자료를 학교나 위탁진학반으로 발송하는 데 동의해야 함.

7) 응시신청자료가 불분명해 판별할 수 가 없을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만약 신청자료를 위조, 변조, 차용, 도용할 경우 신청 및 시험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성적사용단위에게 통보하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

p. 8

8) 수험생이 전염성결핵(양성단계인 자), 홍역, 독일홍역, 백일해, 유행성뇌척수막염, 수

두 등의 병이 있을 경우 수험생 혹은 단체응시신청단위는 본 센터 전화 02-23661416-608로 연락해 사전에 시험응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후 전염병 유형으로 다른 규정을 공고할 시 수험생은 이에 협조해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시험지구

가. 시험지구는 수험생이 응시신청시 선택하고, 다시 본 센터가 수험생의 선택과목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험장 및 좌석을 배치함. 시험지구는 아래와 같음.

시험지구 코드표 생략

나. 시험장배치표, 상세주소, 시험장개방시간은 2010년 6월 17일 본 센터 홈페이지 <http://www.ceec.edu.tw> 를 통해 공고하며, 인터넷 및 전화안내 02-23643677 조회 서비스 제공.

6. 수험표 발송, 사용, 재발급

가. 수험표는 2010년 6월 3일 발송 예정. 단체응시신청자의 수험표는 응시신청단위가 취합해서 수험생에게 다시 발송. 개별응시신청자에게는 직접 발송.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본 센터의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직접 지정장소로 가서 수험표 수령. 만약 2010년 6월 8일 까지 수험표나 수령통지를 받지 못한 수험생은, 단체응시신청자는 위탁응시신청단위에게 문의하고, 개별응시신청자의 경우 전화안내 02-23643677에서 조회 바람.

나. 수험표를 수령한 후 수험표상의 성명, 신분증번호, 성별, 시험지구, 선택과목, 사진 등 6개 항목에서 한 항목이라도 원본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2010년 6월 10일 전까지 폐기할 수험표를 등기로 본 센터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함. 이후 다시 제작된 수험표 발송.

다. 수험표가 시험전 손상되거나 유실될 경우,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생신분증(혹은 거류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건강보험카드 중 택1) 및 2인치 사진 한 장을 지참해 시험지구 관리소에 재발급 신청해야 함. 재발급 신청시 수험생의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재발급 불가.

라. 수험표에는 수험생개인정보 및 시험지구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문자, 숫자, 부호 등을 절대 기입하지 않아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시험관련규정 위반.

마. 시험시 수험표 확인 후 입장 가능. 시험이 끝난 후 수험표는 재발급 불가하며 수험생 본인이 보관.

7. 답안작성주의사항

가. 시험 전 본 요람 「시험장 규정 및 규정 위반시 처리 방법」을 정독하도록 함.

나. 필기도구, 지우개, 도형도구(컴퍼스, 자, 삼각자, 각도기 등) 등 시험에 필요한 도구를 제외한 다른 소지품은 시험장 임시물품보관소에 보관해 두고, 서랍이나 책상의자 밑, 좌석 옆에 두거나 혹은 휴대해서는 안 됨. 그렇지 않을 경우 시험장관련규정 위반.

다. 객관식, 선택단답형 문항의 답안은 답안카드에 작성. 비객관식 답안은 답안지에 작성.

p.9

라. 답안작성 전 문항 및 답안지, 답안카드 상의 설명 혹은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함.

- 1) 시험지, 답안지, 답안카드의 과목이 정확한가. 내용에 빠진 부분이 없는가.
- 2) 답안지, 답안카드 상의 수험표번호가 수험표 및 좌석표상의 번호와 일치하는가.
- 3) 답안지의 답안작성면, 바코드, 답안카드에 손상이 없는가.

마. 답안카드 작성시 주의사항

- 1) 마킹은 반드시 흑색 2B 연필을 사용하도록 함.
- 2) 마킹은 반드시 「굵게」, 「질게」, 「명확하게」 해야하며, 네모칸을 확실히 채우도록 한다. 불완전(반만 마킹, 점찍기, 선긋기) 하거나 규정에서 벗어난(원그리기, 체크하기, 네모칸 벗어나기, 옅은 마킹, 불분명한 수정) 마킹 불허.

답안카드 그림 생략

3) 수정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하며, 반드시 지우개를 사용해 깨끗하게 수정 후 다시 마킹하도록 함. 지우개에 침을 발라 답안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함.

4) 답안카드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지우개 조각 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 수험표번호 및 바코드를 훼손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되며, 임의로 손상된 부분을 메우거나 네모칸 이외의 부분에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됨.

5) 답안카드 테두리 상의 검은색 무늬와 흑색점은 절대 임의로 증감시켜서는 안 되며, 또한 답안카드를 접어서는 안 됨.

바. 답안지작성 주의사항

1) 답안작성시 반드시 흑색 볼펜(비교적 굵은 0.5mm~0.7mm 볼펜심 사용 권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연필을 사용해서는 안 됨. 글자는 스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확하고 적당한 크기로 필기하도록 함. 평가위원이 식별할 수 없는 답안은 수험생이 전적으로 책임 짐. 수정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2) 각 과목 답안지는 1인당 1장으로 추가지급되지 않음. 시험지 여백은 수험생 필기 가능.

3) 답안작성영역에서만 답안작성이 가능하며 문항번호를 명기해야한다.

4) 답안카드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수험표번호 및 바코드를 훼손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성명, 수험표번호, 답안과 무관한 글이나 부호를 표기해서는 안 됨.

8. 시험문항, 객관(단답)식 문항 공개

가. 각 과목 시험문항은 시험이 종료된 후 본 센터 홈페이지(<http://www.ceec.edu.tw>)에서 공개

나. 각 과목 객관(단답)식 문항의 답안은 각 과목의 종료 다음 날 오후 5시 본 홈페이지에 공개.

시험과목	공개일자
물리, 화학, 생물	7월 2일
수학(을), 국어, 영어, 수학(갑)	7월 3일
역사, 지리, 시민과 사회	7월 4일

p. 10

다. 공개한 시험문항 혹은 답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2010년 7월 6일 전까지 본 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한 「시험문항, 답안에 대한 이의제기표」를 작성해 팩스 02-23661365 및 등기우편으로 본 센터로 발송하기 바람(우편날인근거, 기한 후 접수받지 않음) 본 센터는 7월 15일 홈페이지에 시험문항, 답안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공고.

9. 성적계산 및 통지

가. 성적계산

1) 각 과목의 성적은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하고,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점은 모든 과목이 100점. 점수계산은 각 과목 시험문항의 규정에 따른다.

2) 객관식문항은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정답이 하나 이상인 객관식으로 나뉜다. 오답일 경우 감점 처리하며, 최하점을 0점으로 한다. 시험문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문항은 그 규정을 따르며, 일반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문항 속의 n 개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당한 답안 하나 존재. 정답을 맞춘 자는 해당 문항의 배점을 획득하고, 오답 혹은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1/(n-1)$ 의 점수를 감한다. 선택지의 범위를 벗어나 마킹하는 경우(문항에 A, B, C, D 4개의 선택지만 있지만 답안카드에 E를 마킹)도 같은 방식으로 감점 처리.

예) 모 문항의 배점이 2점, 4개의 선택지가, 정답은 C, 갑을병정 4AD의 수험생의 답안은 각각 「C」, 「C,D」, 「A」, 미작성. 각 수험생의 득점은 아래와 같다.

수험생	답안	점수계산방식	득점
갑	C	2	2
을	C, D	$-(2 \times 1/3)$	$-2/3$
병	A	$-(2 \times 1/3)$	$-2/3$
정	미작성	0	0

② 답이 2개 이상인 객관식

문항 속의 n 개 선택지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는 문항. 각 선택지마다 배점이 있으며, 정답인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1/n$ 의 득점을 함. 오답을 고를 경우, 선택지의 범위를 벗어나 마킹하는 경우 모두 $1/n$ 의 감점.

예) 모 문항의 배점은 2점, 5개의 선택지 A B C D E, 정답은 A C D, 수험생 갑을병정무의 답안은 각각 「A,C,D」, 「A,B,D,E」, 「A」, 「B」, 「미작성」. 각 수험생의 득점은 아래와 같다.

수험생	답안	각선택지답안	점수계산방식	득점
		A B C D E		
갑	A, C, D	○○○○○	$(5-0) \times 2/5$	2
을	A, B, D, E	○××○×	$(2-3) \times 2/5$	-2/5
병	A	○○××○	$(3-2) \times 2/5$	-2/5
정	B	××××○	$(1-4) \times 2/5$	-6/5
무	미작성	-----	0	0

p. 11

3) 컴퓨터 채점이 가능한 수학(갑) 과 수학(을)의 선택단답형 답안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에는 n개의 답안네모칸이 있으며, 모두 정답이어야 득점할 수 있고, 오답일 경우 감점처리하지 않음.

예) 모 문항의 답안형식이 (20)(21)/50, 정답이 -7/50 이면 수험생은 반드시 답안 카드의 20번째 열 - □, 21번째 열 7 □ 에 각각 정답을 마킹해야 함.

답안카드 그림 생략

나. 성적통지

1) 수험생 성적표는 2010년 7월 19일까지 발송 됨. 단체, 개인응시신청 수험생 모두 수험생 개인이 작성한 주소로 발송. 또한 단체응시신청단위에게는 e-mail로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발송. 인터넷 및 전화안내 조회 제공. 만약 수험생이 7월 22일까지 성적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 7월 26일까지 전화안내(02-23643677)로 조회할 것.

2) 각 과목의 백분율 누계표 및 각 과목의 「정표」, 「전표」, 「균표」, 「후표」, 「저표」 5개 등급기준은 7월 19일 공고. 5개 등급의 계산은 소수점은 계산하지 않고 정수로 표시. 결석수험생의 성적은 계산에 넣지 않음.

정표: 과목 성적이 88%에 해당, 정수까지만 계산(소수점 점수는 계산 안 함)

전표: 과목 성적이 75%에 해당, 정수까지만 계산(소수점 점수는 계산 안 함)

균표: 과목 성적이 50%에 해당, 정수까지만 계산(소수점 점수는 계산 안 함)

후표: 과목 성적이 25%에 해당, 정수까지만 계산(소수점 점수는 계산 안 함)

저표: 과목 성적이 12%에 해당, 정수까지만 계산(소수점 점수는 계산 안 함)

예) 모 과목의 시험을 치룬 수험생 99,982명이면 5개 등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표: 성적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배열하고, 87,985 제(99,982×88%=87,984.16, 소수점은 무조건 정수로 올림)수험생의 성적(소수점은 버리고 정수까지만 계산)을 기준으로 한다.

전표: 성적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배열하고, 74,987제 (99,982×75%=74,985.6, 소수점은 무조건 정수로 올림)수험생의 성적(소수점은 버리고 정수까지만 계산)을 기준으로 한다.

균표: 성적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배열하고, 49,991점($99,982 \times 50\% = 49,991$, 소수점은 무조건 정수로 올림)수험생의 성적(소수점은 버리고 정수까지만 계산)을 기준으로 한다.

후표: 성적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배열하고, 24,996점($99,982 \times 25\% = 24,995.5$, 소수점은 무조건 정수로 올림)수험생의 성적(소수점은 버리고 정수까지만 계산)을 기준으로 한다.

저표: 성적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배열하고, 11,998점($99,982 \times 12\% = 11,997.84$, 소수점은 무조건 정수로 올림)수험생의 성적(소수점은 버리고 정수까지만 계산)을 기준으로 한다.

3) 수험생 성적표는 수험생 개인에게 성적 통지용으로만 사용되며, 수험생이 대학신입생모집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할 경우 본 요람 「15. 성적증명서신청」 규정에 의거 성적증명서를 신청함.

p. 12

10. 시험성적 및 자료 사용

가. 수험생에게는 본 센터에서 통계된 성적표만 제공된다. 시험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산된 자료(수험생의 시험지, 답안카드, 답안지 포함)는 모두 본 센터 소유.

나. 수험생의 성적 및 자료는 시험이 종료된 후 수험생 및 수험생이 위탁한 단체응시신청단위,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 본 요람 「15. 성적증명서신청」 규정에 의거 이미 수험생 신청을 처리한 신입생모집 단위에게도 성적증명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익명방식 및 수험생 신분을 밝히지 않는 원칙하에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

다. 각 대학신입생모집 신청자격 및 본 시험 성적을 사용하는 방법은 각 단위의 신입생모집요람의 규정에 따른다. 수험생이 시험을 신청하기 전에 각 단위 신입생모집요강의 규정을 필독하고, 신청 후 대학신청자격 미달 시 신청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음.

11. 성적제검

가. 신청방법 및 시간

수험생의 성적제검 신청은 인터넷에만 가능. 2010년 7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26일 오후 5시까지 성적표 상의 「수험생성적제검신청비밀번호」를 이용해 본 센터 홈페이지 성적제검신청 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를 등록함.

나. 비용: 각 과목 50원.

다. 납부방식

1) 먼저 인터넷에 성적제검신청 관련자료를 등록한 후, 「성적제검인터넷신청표」를 출력해 화남은행에서 수수료 납부. 혹은 기타 다른 은행이나 ATM기, 인터넷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

2) 「납부계좌」는 개별수험생 신청 시 납부설정방식과 동일(본 요람 5, 6페이지 참조), 등록시스템이 자동 생성. 납부 후 영수증은 수험생이 보관.

라. 납부기간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은행에서 납부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 2010년 7월 26일 오후 3시 30분까지. ATM이나 인터넷 ATM을 이용할 경우 계좌이체 시간은 24시까지 가능. 기한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수속 미비로 간주하며, 기한을 넘어서는 수수료 접수받지 않음.

마. 처리방법

1) 재검항목은 수험생이 신청한 부분만 해당. 신청하지 않은 항목은 재검하지 않음. 비 객관식답안을 재검할 때 빠뜨려 읽은 부분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답안지를 다시 열람하지 않음.

2) 재검신청 시 답안지, 답안카드의 조회나 복사를 요구할 수 없음.

3) 재검작업은 본 센터 시험위원회(교육행정주관기관,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연합회, 고등학교 교장 및 전문가 등 각계 대표자 모임으로 구성) 및 재검위원회 감독하에 실시함.

4) 성적재검결과는 오류없음, 답안변동, 성적증감의 내용을 포함. 본센터는 답안변동 후 성적증감자에 대해 해당 수험생의 성적표 재발급 및 변동사항을 성적사용단위에게 통보.

5) 성적재검결과서는 7월 30일 발송 및 인터넷 조회, 전화안내서비스 제공.

p. 13

바. 주의사항

1) 재검신청과목 및 문항번호는 등록 및 확인 후 다시 변경할 수 없음. 등록전에 시스템의 작업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재검과목과 문항번호에 오류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함.

2) 신청수속을 마친 자는 기한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신청을 취소할 수 없음.

3) 기한 내에 신청수속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처리 대상 제외.

12. 시험장 규칙 및 위반행위 처리방법

제1조 시험장의 질서 및 공정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 규칙 및 위반행위 처리방법」(이하 처리방법) 제정

제2조 수험생의 위반행위 및 기타 시험장과 관련된 중대사항에 대해 본 센터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 감독관, 시험관리위원은 본 처리방법의 규정들을 집행을 위해 시험장 질서 교란, 공정한 시험 방해 행위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각종 휴대불가 물품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 수험생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함.

일반사항

제3조 수험생 중 이하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자격 취소.

1. 대리시험, 신분증 등을 위조해 시험 응시.
2. 다른 수험생 후 감독관들이 부정행위를 돕도록 강요.
3. 집단부정행위
4. 전자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제4조 수험생 중 이하 부정행위 혹은 부정행위시도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전 점수 감점처리.

1. 문구, 옷, 몸 등에 시험과 관련된 문자 혹은 부호 기록.
2. 답안 베끼기, 전달, 교환
3. 읽거나 암호로 다른 사람에게 답안 알려주는 행위
4.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베끼도록 하는 행위

제5조 수험생이 시험장(임시물품보관소 포함)에 휴대하고 오는 시계 및 모든 물품은 소리가 나거나 시험장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이 있어서는 안 됨. 검사를 받지 않는 개인 의료기(보청기..)등은 사용 불가. 위반 시 그 과목 성적 중 2점 감점.

휴대폰 등 통신기기, 서적, 종이, 계산 및 저장 기능이 있는 물품을 서랍, 책상의자 밑, 좌석 옆, 몸 등에 두었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 중 5점 감점.
앞 두항의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그 과목성적 추가 감점.

제6조 수험생은 시험 시 음식섭취, 흡연, 껌씹기 행위 금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시험장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답안작성에 영향을 줘서 안 됨. 초범자는 그 과목의 성적 중 2점 감점. 경고 후 다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강제 퇴실 및 그 과목 성적 모두 감점.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시험자격 취소.

수험생이 병이나 특수한 이유로 인해 시험 중 물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시험 전에 증명자료를 제출해 동의를 구해야 함. 감독관의 협조 아래 물이나 약 복용. 위반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앞항에 의거 처리.

p. 14

시험장 입장 및 답안작성 주의사항

제7조 수험생은 시험 시작 20분 후 입실할 수 없음. 위반자는 해당 과목 0점 처리.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입장하는 자는 시험자격 취소.

제8조 수험생은 수험표를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해야하며, 위반시 감독관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일단 시험에 응하도록 조치. 시험종료령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 성적 중 2점 감점.

제9조 수험생은 배정된 시험장 및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해야하며, 앉기 전 좌석 표지상의 수험표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함. 만약 오류가 있을 경우 손을 들어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함. 같은 시험장에서 좌석을 잘못 앉은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처리.

1. 시험 시작 20분 내 및 답안작성 전 수험생 본인 혹은 기타 수험생이 발견해 배정된 좌석으로 돌아가 답안을 작성한 경우 감점처리 하지 않음.
2. 시험 시작 20분 후 혹은 답안작성 후 수험생 본인 혹은 기타 수험생이 발견했을 경우 해당과목 성적 중 2점 감점.

3. 감독관에 의해 발견됐을 경우 답안작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과목 성적 중 5점 감점. 또한 위반상황이 심각할 경우 추가 감점 혹은 해당 과목 성적 모두 감점 처리.

동일 시험지구에서 시험장을 잘못찾아간 사실을 시험시작 20분전에 알게 된 수험생은 시험관리위원과 함께 배정된 시험으로 와 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방법에 따라 처리.

1. 답안작성 전 수험생 본인 혹은 기타 수험생이 발견했을 경우, 해당 과목 성적 중 2점 감점.
2. 답안작성 후 수험생 본인 혹은 기타 수험생이 발견했을 경우, 해당 과목 성적 중 5점 감점.
3. 감독관에 의해 발견됐을 경우 답안작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과목 성적 중 10점 감점. 또한 위반상이 심각할 경우 추가 감점 혹은 해당 과목 성적 모두 감점 처리.

다른 시험지구에 입실한 수험생 혹은 동일 시험지구에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사실을 시험시작 20분 후 발견한 수험생은 모두 해당 과목 성적 모두 감점 처리.

제10조 수험생은 답안작성 전 반드시 답안지, 답안카드, 수험표번호 오류 등을 확인하고, 만약 오류, 빠진 부분, 훼손, 인쇄불분명 등의 상황이 있다면 손을 들어 감독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잘못된 답안지, 답안카드를 사용한 경우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며, 아래 방법에 따라 처리.

1. 시험 시작 20분 전 발견한 자는 새답안지, 답안카드로 바꿔 사용. 감점처리 하지 않음.
2. 시험 시작 20분 후 발견한 자는 답안지, 답안카드를 바꾸지 않음. 해당 과목 성적 중 2점 감점.
3. 시험 종료 후 발견한 자는 해당 과목 성적 중 5점 감점하고 위반상황이 심각할 시 추가 감점 및 해당 과목 성적 모두 감점 처리.

답안작성 주의사항

제11조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험표 및 수험생 명단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생 명단에 중국어 해서체로 서명을 해야 함. 수험생은 이에 대해 거절을 해선 안되며, 이로 인해 추가 점수나 시험시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에 근거에 처벌 심의 제기.

제12조 수험생은 답안카드에 객관식 혹은 컴퓨터 채점이 가능한 선택단답형 문항에 답안을 작성해야하며, 비객관식문항은 답안지에 답을 작성 함. 위반자에게는 점수 부여하지 않음.

p. 15

제13조 수험생은 답안지 및 답안카드를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

1. 답안지, 답안카드 상의 수험표 번호 혹은 바코드를 수정한 자는 해당과목의 답안지,

답안카드 상의 점수를 모두 감점.

2. 답안지, 답안카드를 훼손, 자신의 신분 표기, 답안과 무관한 부호를 기재한 자는 답안지, 답안카드 상의 점수 중 2점 감점. 또한 위반상황이 심각할 시 추가 감점 혹은 해당과목 성적 모두를 감점 처리.

제14조 답안지에 답안작성시 반드시 흑색볼펜을 사용해야하며, 연필을 사용해선 안 됨. 또한 시험문항 내용 및 답안지 상의 규정에 따라 답안 작성하고, 위반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

1. 흑색볼펜 미사용으로 스캔 결과에 영향을 주어 평가위원들이 답안을 판별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이 진다.
2. 답안작성영역을 벗어난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문자부호를 기록한 자, 혹은 기타 답안작성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과목 답안지 상의 성적 중 2점을 감점.
3. 글자가 불명확하거나 문항번호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평가위원들이 판별할 수 없을 시 해당 부분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제15조 답안카드 뒷면의 마킹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흑색 2B 연필을 사용으로 인해 답안을 리더기가 판별할 수 없을 시 그 책임은 수험생이 진다.

제16조 수험생이 시험지 상의 오류, 누락, 훼손, 인쇄불명을 발견했을 시 반드시 손을 들어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함. 단 문항에 대한 해설을 요구할 수 없음. 답안카드, 답안지, 문구류가 땅에 떨어졌을 경우 반드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알린 다음 줍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처벌심의 제기.

제17조 수험생은 답안지, 답안카드, 시험지 이외의 장소에 답안을 기록할 수 없으며, 위반시 해당과목 성적 5점 감점. 만약 매 과목 시험종료 전 기록한 답안을 휴대하고 퇴실할 경우 해당 과목 성적 모두를 감점.

제18조 감독관의 허가 없이 좌석을 벗어날 경우 다시 답안을 수정할 수 없음. 위반시 해당과목 성적 5점 감점. 또한 위반상황이 심각할 경우 추가 감점하거나 해당 과목 성적 모두를 감점.

수험생이 병이나 기타 상황(화장실..)으로 인해 잠시 좌석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동의를 얻고 함께 이동해야 함. 위반 시 앞 조항을 근거로 처리. 치료나 처리 이후에 시험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시험을 칠 수 있음. 단 시험시간 연장이나 재시험 요구할 수 없음.

제19조 수험생은 시험종료령이 끝나기 전까지 답안작성을 마무리해야 함. 위반 시 아래 방법으로 처리.

1. 계속 답안작성 시 해당과목 성적 2점 감점.
2. 제지 이후에도 계속 답안작성 시 해당과목 성적 5점 감점.
3. 위반상황이 심각한 경우 추가 감점하거나 해당과목 성적 모두를 감점.

퇴실주의사항

제20조 수험생은 입실 이후 시험시작 후 60분 이내에 퇴실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0점으로 처리.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퇴실하는 자는 시험자격 취소. 수험생이 시험시작 후 60분 이내에 병이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감독관의 동의하에 퇴실할 경우 시험관리위원이 정한 장소에 시험시간 시작 60분까지 머무름. 위반자는 앞조항을 근거로 처리.

p. 16

제21조 수험생은 퇴실 전 답안지, 답안카드, 시험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위반 시 해당과목 성적 5점 감점. 답안지, 답안카드, 시험지를 휴대하고 퇴실 할 경우 해당과목 성적 모두를 감점.

제22조 수험생은 시험시작 60분 후부터 시험종료령 울림 사이에 퇴실을 했을 경우 시험장 근처에서 머물거나 고성으로 떠들기, 답안을 큰소리로 읽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제지 이후 다시 위반할 경우 해당과목 성적 모두를 감점.

기타사항

제23조 수험생의 답안지, 답안카드가 시험장 내 혹은 시험종료 후 유실될 경우,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치름. 재시험을 거부할 경우 해당과목 답안지, 답안카드를 모두 0점 처리.

제24조 규정위반으로 인한 감점 대상자의 성적 규정은 최대감점을 해당과목, 답안지, 답안카드 상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것.

제25조 수험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은 위방상황을 근거로 적당하게 처리.

제26조 본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중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위반사항을 상관학교 혹은 기관에 통지해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만약 이로 인해 본 센터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본 센터는 법에 의거 고소를 할 것이며, 배상책임을 물을 것임.

13.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

- 1) 신체정신장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보장 수험생
- 2) 신체정신장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상지(上肢)심각장애 수험생
- 3) 기타 심각한 기능성 장애로 인해 읽기,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수험생

※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험생 중 청각, 하지, 정서 등의 장애, 파킨슨병, 정신착란, 심장병,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시험장의 협조, 배려가 필요한 자는 신청서류나 신청서 비고란에 기재하기 바라며,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신청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 만약 보청기와 같은 개인의료기를 사용할 경우 시험시작 전에 사용 허가를 받고 시험관리위원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함.

나.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신청표」(재학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는 요람 판매일부터 신청 마감일 1주일 전까지 수험생 혹은 대리인이 이하 방법으로 수령하도록 함.

- 1) 현장수령: 신체정신장애증명서 혹은 관련증명서를 가지고 본 센터에서 수령.
- 2) 우편수령: 아래 서류를 「10099 대북우정 71-64 사서함」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
 - ① 신체정신장애증명서 혹은 관련증명서 사본
 - ② A4 규격의 회신 봉투 1장(반드시 등기우편 우표를 붙이고 수신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하고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신청표」라는 문구를 적을 것)
- 3) 전자우편수령: 아래 자료를 enable@ceec.edu.tw로 보낼 것.
 - ① 수험생 성명, 신분증번호, 보장종류 혹은 질병상태, 연락처 및 연락전화
 - ② 신체정신장애증명서 혹은 관련증명서 파일. 본 센터의 2009, 2010학년도 각종 시험에 신청을 한 적이 있는 수험생은 파일발송 필요 없음.

다. 신체정신장애수험생은 본 요람의 「4. 응시신청」규정에 따라 각종 서류 및 수수료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신청표」(재학증명서 및 진단서)를 첨부해 심의의 근거로 남겨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수험생은 시험응시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음. 앞에서 설명한 진단서는 위생부가 인가한 의학센터, 지구병원, 지구교학병원, 각 신체정신장애와 관련된 의료과 등에서 신청하고, 시험응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읽기, 쓰기, 이동 등의 능력을 검사해야 함.

예) 시각장애수험생은 안과에서 「시각능력」검사, 사지장애수험생은 재활과, 신경과에서 「손 사용능력」, 「필기표현」등 지체능력 검사. 학습장애, 정신장애, 자폐증 등의 수험생은 (청소년아동)정신과, 심리과에서 「정신능력」검사. 검사항목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경우 본 센터 제2처에 문의. 전화는 02-23661416 내선 609, 605.

p. 17

시각 및 지체장애 이외의 질병을 가진 수험생은 앞에서 예를 든 진단서 외에 심리상태관찰보고서 등 관련증명서 보충자료로 첨부할 수 있음. 만약 학습장애수험생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개별화교육계획」 혹은 관련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진단서」를 2010학년도 학과능력시험 시 제출해 「연구성장애 혹은 6개월내 완치 불가」심사를 받은 수험생은 진단서 제출 할 필요 없음. 「재학증명서」를 2010학년도 학과능력시험에 제출한 자는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라. 신체정신장애수험생은 필요에 따라 아래 시험응시 서비스 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

- 1) 5분 일찍 입실해 시험 준비
- 2) 시험시간 연장. 단 최장시간은 50분.
- 3) A3 확대 시험지 혹은 점자시험지(혹 맹인용 전자시험지, 낭독시험지) 제공.
- 4) 객관(단답)식의 경우 A4로 확대된 답안카드나 백지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후 시험장 시험관리위원이 대필하거나 점자기(혹 맹인용컴퓨터)로 답안작성.
- 5) 읽기 혹은 답안작성 기록에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

6) 기타 기능성장장애에 필요한 서비스.

마. 시험응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체 시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 또한 본 센터는 신체정신장애관련 전문가, 학자, 의료위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의.

바. 심각시각장애, 뇌성마비 등 반드시 필기도구, 점자기 이외의 보조도구를 사용해야하거나 특수한 보조사항으로 인해 일반 시험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아래 시험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에 응시한다. 기타 신체정신장애수험생은 일반수험생과 같이 임의로 시험지구를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본 요람 8페이지 참조)

코드	시험지구	코드	시험지구
210	대북지구	710	고흥지구
410	대중지구	840	화련지구

사. 시험문항 제공방식 및 원칙

1) 각 수험생의 시험문항은 1인 1종 원칙.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심의를 거친 수험생은 제한을 받지 않음. 단 매 과목 1종으로 제한.(시험문제 및 계산방식 동일)

2) 영어과목 점자문항은 1급점자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함.

3) 맹인용 점자문항 및 낭독문항은 심각시각장애, 학습장애 등 확실한 읽기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에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시험응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험장 현장에 있는 자원 및 일반적인 사무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수험생이 만약 필기도구 이외의 답안작성도구(점자기, 맹인용컴퓨터, 입체계산기 등), 보조도구(확시기, 확대경 등) 및 의료기 등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하며, 반드시 시험관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사용하도록 함.

자. 수험생이 점자시험문항, 맹인용전자문항 혹은 낭독문항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할 시, 문제의 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문제가 너무 길고, 혹은 발음을 묻는 등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수험생의 성적은 답안작성이 가능한 실제점수를 근거로 비율에 따라 원래 점수로 환원한 후 다시 계산함.

p. 18

14. 돌발상해 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

시험 전 돌발상해를 입은 수험생 혹은 본 요람 「13. 신체정신장애수험생 시험응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신체정신장애수험생의 시험응시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시험시간연장 불가.

나. 신청 시 관련진단서 반드시 첨부.

다. 수험생인 필요에 따라 아래 응시 서비스 중 하나 혹은 두 개이상의 항목 신청

1) 5분 일찍 입실해 시험 준비.

- 2) 계단 이동 보조 서비스.
- 3) 같은 시험지구내 저층 시험장 혹은 소수응시 시험장 배정.
- 4) 특수제작 책상의자 혹은 시험응시에 편리한 기타 보조도구.
- 5) 감독관의 시험지 넘기기 보조 혹은 기타 시험공정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유사 서비스.
- 6) 객관(단답)식 문항의 경우 A4로 확대된 답안카드를 사용해 답안작성 후 시험관리위원이 대필.
- 7) A3 확대시험지 제공.

라. 신청기간 및 접수부서

1) 세 번째 조항을 신청할 수험생은 2010년 6월 28일 이전에 본 센터 제2처(02-23661416 내선 609,605)으로 신청. 2010년 6월 29일 이후에는 소속시험지구에서 접수받음.

2) 특수한 중대돌발상해로 세 번째 조항 이외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험생은 반드시 2010년 6월 28일 이전에 의학센터 혹은 지역병원, 지구교학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본 센터 제2처로 신청하기 바람. 시험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처리여부 결정.

15. 성적증명서신청

본 시험성적증명의 정확성 및 수험생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시험성적을 사용하는 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를 신청해야 함.

가. 성적증명서 신청은 본 시험성적을 사용하는 국내 각 대학신입생모집단위 및 수험생 본인에 한함.

1) 수험생 본인 신청

필요에 따라 중문판 혹은 영문판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 장 당 100원. 우편 혹은 현장 신청에 한함.

① 우편신청

- (1) 「선택과목시험 성적증명서 신청표」(본 센터 홈페이지 <http://www.ceec.edu.tw>에서 다운 가능) 작성
- (2) 수험표(혹은 신분증) 정면 사본
- (3) 수수료의 우편계좌이체 영수증 원본 첨부. 이체계좌: 「대학시험센터전용계좌」
계좌번호: 1822347-8. 계좌이체표통신란에 「선택과목시험성적증명서신청」
명기할 것.
- (4) 등기우편은 본 센터(10099 대북우정 71-64 사서함)으로 발송하고, 봉투 위에
「선택과목시험성적증명서신청」 명기할 것.
- (5) 우편신청 수취 후 3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수험생에게 발송.

② 현장신청

- (1) 신청일은 2010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 (2) 수험생 본인의 신분증(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

을 지참하고 본 센터에 와서 신청. 신청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국정휴일 제외)

(3) 수험표(혹은 신분증) 정면 사본 및 「선택과목 시험성적증명서 신청표」 지참.

(4) 현장에서 바로 발급.

p. 19

2) 대학신입생모집단위 신청

① 본 학년도 시험성적에 한함. 본 학년도 이외의 시험성적이 필요할 경우 대학단위에서 직접 수험생에게 연락해 앞 조항 규정에 근거해 처리하기 바람.

② 신청시 먼저 신입생모집단위가 사용할 「선택과목 시험성적증명서 신청표」를 첨부해 편지형태로 발송하고, 「수험생전자명단」을 e-mail s_cer@ceec.edu.tw로 보내주기 바람.

③ 앞 항의 신청표 및 전자서류양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 <http://www.ceec.edu.tw>에서 다운 가능.

④ 본 센터는 우편 수취 3일 이내에 자료 회신.

나. 본 시험의 성적보존기간은 5년.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접수받지 않음.

다. 수험생 중 본 시험 성적을 사용하는 국내 대학에 지원하는 자는 해당 대학이 본 센터에 당해연도의 개인성적 및 자료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수험생 및 본 센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험생의 성적 혹은 자료를 기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본 센터가 직접 전송한 성적자료가 아니거나 사용단위의 직접적인 개봉을 거치지 않은 성적증명서에 대해 본 센터는 검사의 책임이 없음.

16. 이의 처리

가. 시험관련업무가 개인의 권인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서면으로 본 센터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이의서(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내용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상세한 이의제기 이유가 포함되어야 함. 객관(단답)식 답안에 의문점이 있거나 성적재검 등 요람에서 명시한 사항과 관련된 경우는 상관규정에 의거해 처리.

나. 이의서는 사건이 발생한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본 센터(1009 대북우정 71-64 사서함)으로 발송하고 봉투 위에 「이의서」으로 명기해야 함. 기한을 넘길 경우 접수받지 않음.

다. 이의서 수취 10일 이내에 서면답변 발신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본 센터 시험위원회 회의 토론을 거쳐야 함.

p. 20~22 대학코드표 생략

부록 2. 선택과목 시험 소개

본자료 취지는 수험생이 「선택과목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으며, 시험관련규정은 요람본문 및 시험지에서 열거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전언

대학의 다원화된 신입학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입학시험센터는 「선택과목시험」을 연구개발해, 시험은 수험생이 대학학과가 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택과목시험이 2002년 제정된 이후, 시험과목은 각각 국어, 영어, 수학(갑), 수학(을),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 9개 과목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2006년 정식으로 실시된 「보통고등학교과정임시요강」(2004년 8월 31일 공포, 2005년 1월 20일 수정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갑), 수학(을), 역사, 지리, 시민과 사회, 물리, 화학, 생물 등 10개 과목으로 1개 과목을 추가하였다. 각 대학학과는 필요에 따라 상술한 과목 중 필요한 과목들을 지정해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다. 수험생은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지원대학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바로 「학과지정, 학생선택」이라는 쌍방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각 대학 및 학과, 고등학교 교사, 수험생 등의 선택과목특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을 각 선택과목의 시험목표, 시험시간, 시험범위, 문제유형, 「일망다본(一網多本)」의 출제방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시험목표

선택과목시험은 대학의 인재 선발을 위해 설계되었고, 그 목표는 수험생이 구비해야 할 학과지식, 자료에 대한 읽기 및 판단능력, 추리분석능력, 표현능력, 학과지식의 응용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 가. 수험생의 중요학과지식에 대한 이해 측정
- 나. 수험생의 자료읽기, 자료판단, 추리, 분석능력 측정
- 다. 수험생의 표현능력 측정
- 라. 수험생의 학과지식 응용능력 측정

2. 시험시간

각 선택과목의 시험시간은 모두 80분이며, 훗날 실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범위

선택과목의 출제원칙은 2006년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며, 각 과목의 시험범위는 필수 및 선택과목의 교육과정으로 한다. 2009년부터 적용된 각 과목 시험범위는 표1과 같다.(각 과목 시험 세부 내용은 본 센터 홈페이지

<http://www.ceec.edu.tw/AppointExam/AppointExamInfo.htm> 참조)

표 1. 선택과목시험범위

시험과목	시험범위
국어	고1필수과목국어, 고2필수과목국어, 고3필수과목국어
영어	고1필수과목영어, 고2필수과목영어, 고3필수과목영어
수학(갑)	고1필수과목수학, 고2필수과목수학, 고3선택과목수학(Ⅰ), 고3선택과목수학(Ⅱ)
수학(을)	고1필수과목수학, 고2필수과목수학, 고3선택과목수학(Ⅰ)
역사	고1필수과목역사, 고2필수과목역사, 고3선택과목역사
지리	고1필수과목지리, 고2필수과목지리, 고3선택과목지리
시민과 사회	고1필수과목시민과 사회, 고2필수과목시민과 사회, 고3선택과목시민과 사회
물리	고1기초물리, 고2필수과목물리, 고3선택과목물리
화학	고1기초화학, 고2필수과목화학, 고3선택과목화학
생물	고1기초생물, 고2필수과목생물, 고3선택과목생물

4. 유형

선택과목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음. 객관식(답이 하나인 객관식, 답이 2개 이상인 객관식), 선택단답형, 비객관식 등이 있고, 각 유형의 비율은 각 과목의 필요에 따라 달라짐. 유형은 자료성, 정합성, 채선론, 계산, 도형그리기 등 각기 다른 답안작성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각 과목 시험유형 예 참조) 각 과목의 시험지 구성 및 유형배치는 2008년 9월에 공포한 참고시험지를 참조.

(인터넷: <http://www.ceec.edu.tw/AppointExam/AppointExamInfo.htm>)

5. 「일망다본(一網多本)」출제방식

고등학교 교재의 제작 개방으로 각 과목마다 여러 종의 교과서가 출판되었으며, 이를 「일망다본(一網多本)」이라 한다. 「일망다본(一網多本)」의 상황 속에서 각 과목의 출제는 교육과정요강에서 예로 든 주요개념을 근거로 하며, 각 과목의 시험목표에 의거해 문항을 제작한다.

학교의 교학에 호응하기 위해 문항제작 시 각 문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수험생들이 답안작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험생은 해당 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구비해야 제공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어휘사용과 부호차이로 인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항에서 사용된 자료 중 통용되는 고유명사가 아닐 경우 적당한 설명 혹은 주석을 달도록 한다.

부록 3. 선택과목 시험관련 정보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상관규정은 각 신입생모집기관의 요람을 근거로 함.

1. 성적사용기관 주요신입생모집 일정

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배치 신입생모집(주요일정은 아래 표 참조)학과는 3~6개 선

택과목시험(실기시험 포함)성적을 반영해야한다. 대학 중 학사연수반의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에도 선택과목 중 하나 이상의 성적을 반영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신입생모집관련요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 것.

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배치 신입생모집 일정

항목	기간
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배치 신입생모집 요람 판매	2009.11.13~2010.07.28
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등록 배치 상관자료 판매(학과코드, 등록비납부증, 통행번호, 주요공고 포함)	단체구입 2010.05.11~06.11 개별구입 2010.05.14~07.20 현장구매 2010.05.14~07.27
자격(특수생 자격 포함)심사자료 등록	2010.05.03~05.28
자격심사결과 공포	2010.06.11
자격심사결과 재심사	2010.06.11~06.18
신입생 모집인원(回流 인원수 포함)공포 선택과목시험 종합성적 인원수 누계표 공포	2010.07.19
등록비 납부	2010.07.19~07.27
인터넷등록배치 지원	2010.07.24~07.28
합격통지	2010.08.06
배치결과 재검 신청	2010.08.06~08.12

(자료출처: 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배치 신입생 모집 요람)

2. 참고자료

번호	항목	설명
1	2009학년도 선택과목시험 각 과목 시험문항	본 센터 홈페이지의 【시험/선택과목시험】 http://ceec.edu.tw/AppointExam/AppointExamPaper.htm 열람, 다운 가능
2	선택과목시험 알아보기3(각 과목 설명)	
3	대학시험센터 출판물	본 센터 홈페이지의 【하소출판물】 http://ceec.edu.tw/book/stable.htm 열람
4	인재선발 전자신문	매월 15일 발행, 주요내용은 시험, 출제이념, 시험문항 분석등 상관정보. 열람, 조회, 다운 서비스 제공. http://www.ceec.edu.tw 에서 연결 가능.

3. 시험 및 신입생모집 기관 관련 정보 안내

기관	전화	인터넷 주소
대학입학시험센터	(02)2366-1416 (02)2364-3677(자동음성팩스)	http://www.ceec.edu.tw
대학다원입학성학망		http://nsdua.moe.edu.tw
대학신입생모집위원회연합회(초연회)	(02)3366-5246(전화) (02)3366-5247(팩스)	http://www.jbcrc.edu.tw
대학선발입학위원회~국립중정대학 【2010학년도대학선발입학신입생모집요람 편집】	(05)272-1799(전화) (05)272-3771(팩스)	http://www.caac.ccu.edu.tw
대학시험입학배치위원회~국립성공대학 【2010학년도대학시험입학배치신입생모집요람 편집】	(06)236-2755(전화) (06)236-9689(팩스)	http://www.uac.edu.tw
대학실기시험위원회연합회~국립대만사범대학(2010학년도)	(02)7734-1188 (02)7734-1187 (02)2363-5695(팩스)	http://www.cape.edu.tw
기전교원초생측진총회	(02)2777-3827	http://www.techadmi.edu.tw
기전교원입학시험센터	(05)537-9000 내선 158,159	http://www.tcte.edu.tw
국국인재모집센터	0800-000-050	http://210.69.230.66/rdr/index_ch.htm
만집재대학		http://major.ceec.edu.tw/search

4. 선택과목시험의 선택 및 준비

2010학년도 시험으로 신입생모집 및 배치를 실시하는 대학학과는 모두 1601개(출처: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배치 신입생모집 요람).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수험생은 신입생요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 및 학과가 요구하는 선택과목을 알아봐야한다. 또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능력을 고려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대학시험 입학배치 신입생모집 대학 중에서 어떤 학과는 국어, 수학(갑), 수학(을), 역사, 지리, 시민과 사회 5개 과목을 반영한다. 어떤 학과는 국어, 수학(갑), 화학, 물리, 생물 5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수험생이 위의 학과에 지원하려면 2010학년도 선택과목시험 신청시 상관과목을 신청해야하며, 만약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치지 않았을 경우 위 학과에 배치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이 많을수록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합격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수험생은 성적이 좋은 과목을 근거로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다. 또한 「일망다번」 출제에 대해 수험생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택과목의 출제근거는 정부에서 공포한 교육과정내용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기본내용은 동일하다.

수험생이 어떤 교재라도 열심히 정독을 한다면 충분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설령 각 교재마다 사용된 어휘나 부호가 다르더라도 시험지에는 주석 혹은 설명을 달아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2010학년도 선택과목시험요강 판매방법

1. 원가: 40원(권)
2. 요강 판매기간: 2010.03.12~05.12
3. 구매방법
 - 가. 단체구매: 단체신청자는 단체신청접수처에서 일괄 구매
 - 나. 개별구매: 개별신청자는 현장구매 혹은 우편으로 구매
 - 1) 현장구매:

각 지역 대리판매점 일람표 생략

- 2) 우편구매:
 - 우체국을 통해 계좌이체. 권 당 70원(계좌이체수수료 및 회송우편요금 포함. 등기우편을 원할 경우 20원 추가 부담)
 - 계좌명: 대교중심측험전호
 - 계좌번호: 18223478
 - 계좌이체명세서에 요강 구매 수량, 수신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대학입학시험센터
주소: 10673 대북시 주산로 237호
사서함: 10099 대북우정 71-64호
전화: 대표 (02)2236-1416
음성안내 (02)2364-3677
홈페이지: <http://www.ceec.edu.tw>

[부록 4]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관련 자료: 프랑스 교육부 관보(BO)

1. 2010년 실업계 바칼로레아 구두시험 요강(Épreuve orale de contrôle - session 2010) (10.5.6)

프랑스 교육부는 5월 5일자 시행령을 통하여 실업계 바칼로레아 구두 시험 요강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두 시험 평가 내용

실업계 바칼로레아 구두시험은 2010년 2월 18일자 시행령에 의거하며 총 두 문제가 제시되며 각 문항에는 15분이 주어진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준비시간이 각각 15분씩 주어진다. 실업계 구두시험 문항을 위한 전국 문제은행은 현재 없다. 따라서 시험 담당자가 문항들을 작성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제비뽑기로 할당받아서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은 시험장에 책이나 공책을 지참할 수 없다.

(1) 시험의 첫 단계

두 문제 중 한 문제는 시험규정의 E1 시험 항목에 명시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제는 수험자가 제비뽑기로 선택한 문제가 주어진다. 시험관은 수학교사와 물리교사 또는 관련 전공 교과교사가 된다. 이러한 두 카테고리의 시험관 선정은 관련 실업계 바칼로레아 전공교과에 따라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E1 시험은 건축교사를 시험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 모든 시험관은 평가준거표를 따라서 평가한다.

(2) 시험의 둘째 단계

두 번째 질문은 시험규정의 E5 시험 항목에 명시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시험은 국어교사 및 역사지리 교사가 평가를 담당한다. 수험자는 제비뽑기로 국어, 역사 또는 지리 중 한 문제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이때 시험관은 세 교과와 주제가 균등한 수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역사와 지리 간 균형이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과목별 구두시험

(1) 국어시험

시험은 수험자로 하여금 문학 작품 전문을 읽고 소개하거나 고3학년에서 학습한 여러 작품들의 추출글들을 읽고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정규 고3년 과정을 밟지 않고 직업경력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흥미롭게 느끼는 문학이나 영화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다. 시험지문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한 작품이나 추출글 모음을 자세히 소개한 후에 (제목, 저자, 출판된 시대, 작품의 목적) 가장 흥미로웠다고 생각되는 점을 설명하고 가장 주요한 구절들을 소개하시오.

일차적으로 수험자는 혼자서 발표한다. 이차적으로 시험관이 수험생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거나 아니면 고3년에서 학습한 모든 작품들에 대한 고찰로 확대할 수 있다.

(2) 역사지리 시험

이 시험의 문제는 고3년 역사 또는 지리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립된다. 시험문제는 교육과정 주제 안에서 시험관이 제시하는 한 자료 (짧은 글, 이미지, 그래픽, 주제별 지도 등)에 대한 단순한 코멘트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교육과정 주제 중의 하나에 대하여 광범위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 수험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시험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시험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의 다른 주제로 질문을 확장할 수 있다. 시험관은 평가준거표를 참조한다.

다. 채점

평가는 20점 만점으로서 각 문항은 10점이다. 평가자가 두 문항의 점수를 수험자의 이름 옆에 기입을 하고 학구가 지정한 교사 센터에 전달하면 센터에서 합산하여 20점 만점의 최종 점수를 내서 Delibnet이란 시스템에 입력시킨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러한 새로운 시험 및 채점 방식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 홍보 방식은 공사립 학교 공문,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한 홍보, 장학관 세미나 등을 통해서 한다. 물론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수험자들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것이다.

[참고] 수행평가 말하기 평가표 1 (5월 6일자 18호 교육부 공문)

실업계 바칼로레아 학생전공: 평가영역: E1 시험규정에 따른 지식 및 능력 평가 시간: 15분	아카데미: 교사센터: 교사세션 교사 일자:				
수험자 이름:	수험자 번호:				
시험교과: (수학, 물리, 생물 등 관련 전공교과)					
평가준거	매우부족	부족	양호	매우양호	점수
제시된 문제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 자료와 관련한 목표 파악하기 - 지문 및 설명 이해하기 - 알맞은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활용하기 - 상황과 문제 파악하기					/3
문제해결과정을 수립하기 - 해결방법 선택 이유를 설명하기 -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기 - 해결방안의 엄정성과 일관성					/3
결과 평가하기 - 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목표 대비 제안된 해결책의 적정성 평가 - 과정에서 만난 문제점의 처리 - 제안사항의 수립					/2
효율적으로 발표하기 - 입말표현에서의 구체성, 명료성, 체계성 - 논지 제시 및 대답의 적정성 - 알맞은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활용하기 - 상황 및 문제 파악하기					/2
합계 10점 만점	/10				

시험관의 서술평가:	시험관 성명 및 사인
------------	-------------

수행평가 말하기 평가표 2 (5월 6일자 18호 교육부 공문)

실업계 바칼로레아 학생전공: 평가영역: E5 시험규정에 따른 지식 및 능력 평가 시간: 15분	아카데미: 교사센터: 교사세션 교사 일자:
수험자 이름:	수험자 번호:
시험교과: 국어	
평가준거	매우부족 부족 양호 매우양호 점수
발표에서의 정확성과 조직력	
타인 경청 및 대화 참여 능력	
구두표현 수정 능력	
합계 10점 만점	/10
또는 역사 또는 지리	
(역사 또는 지리) 교과의 최소 기본 연대 및 개념 습득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발표하는 능력	
합계 10점 만점	/10
시험관의 서술평가:	시험관 성명 및 사인

2. 2010-2011 학년도 일반 교육과정 및 2011년도 바칼로레아 대비용 고3년 미술 교육과정(Programmes limitatifs des enseignements artistiques en classe terminale pour l'année scolaire 2010-2011 et pour la session 2011 du baccalauréat(10.3.4)

프랑스 교육부는 고3년 어문계 전공 선택 및 기타 전 계열 자유선택 교과인 2010-2011년도 미술 교육과정을 다음과 최근 발표하였다. 이러한 고3년 교육과정은 바로 2011년도 미술과 바칼로레아 문항 출제와 직결된다.

가. 어문계열 전공 미술교육과정

• 문화학습

“작품과 신체” 라는 고3년 미술 교육과정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차원의 접근학습을 하되, 세 학습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초상화 활동과 고정 영상 및 유동 영상 창작 활동 영역: 196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물 초상사진, 영속성과 변화

교육과정은 이러한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사진술의 발달과 함께 인물 사진이 인물 초상화를 대체하였다. 하지만 인물 사진은 초기에 인물 초상화의 기법과 포즈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점진적으로 고유의 특성과 장르를 발전시켰다. 그 개척자 중의 한 사람으로 Nadar가 있다. 이후 사진작가들은 새로운 사진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얼굴을 표현하는 영역의 지평선을 확대하였다. 또한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의 확산으로 사진 이미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물 초상화의 전통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기술에 따른 인물사진과 전통적 인물화간의 관계 구도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진작가들이 자문하고 있는 시대적 질문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질문에 대응하여 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물 초상을 대변하는 주요한 작가 및 그들의 작품을 연구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시대적 관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이 나열하는 주요 사진작가들을 다음과 같다: Urs Lüthi, Michel Journiac, William Wegman, Arnulf Rainer, Christian Boltanski, Helmut Newton, Joel Peter Witkin, Thomas Ruff, Cindy Sherman, Richard Avedon, Bettina Rheims, Robert Mapplethorpe, Pierre et Gilles, Nan Goldin

② 건축 및 풍경화 영역

- 20세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정원 예술

③ 3차원 작품 창작 영역

- 20세기 후반 건축술에서의 공간과 동선과 소리

상기 두 영역의 학습에 대해서는 프랑스 교육과정은 “20세기 초부터 조형술 (la sculpture)은 유형의 재질과 무형의 재질 사이를 오가며 창작의 한계선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환경 및 설치 행위, 자연의 고려, 동선 도입과 음향 활용 등이 시도되면서 조형술 장르의 정의가 더욱 난해해졌다.” 라는 설명을 하고 이러한 시대적 발전에 맞추어서 학생들은 주요작품 학습을 통하여 공간과 동작 및 음향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는 한편, 주어진 특정시대에서 그러한 작품들이 인간의 신체를 표현하는 기법과 그것이 독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현상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 영상 시청각 학습

- 러시아 문화유산 영상작품

1929년 Tziga Vertov의 실험 영화 « 카메라 촬영하는 남자: L'homme à la caméra » (75분), « 영화적 눈 cinéoeil » 기법의 첫 실험 작품.

- 현대 아프리카 영화

1984년 말리 출신 Souleymane Cissé 작품 « 빛: Yeelen » (1시간 45분)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

- 미국 서스펜스 걸작품

1959, USA. Alfred Hitchcock 작품 « North by northwest », Bernard Herrmann 음악.

• 예술사

- 20세기 작품과 문화적 대 사건: 뽕뽕두 센터 건립과 그 활동

뽕뽕두 센터 건립의 의의를 70년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단일 예술영역을 초월하는 이 대규모의 종합적인 현대 문화센터의 특성을 이해한다. 특히 일반대중을 위하여 조형미술, 연극, 서적, 입말 활동, 음악, 영상 등의 문화 예술을 총집결한다는 점에서 뽕뽕두 센터의 건립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이 센터의 건립은 70년대 당시 파리 시민들을 찬반 양 진영으로 대립시켰다. 센터는 현재 현대 예술품의 총집결지가 되어서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고3학생들은 이 현대 예술의 본산지인 뽕뽕두 센터의 예술적, 역사적, 사회학적, 정치적 측면을 학습하는 한편 이 센터의 국내적,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학습한다.

- 한 시대의 한 예술가 연구: 작곡가 John Cage (1912-1992).

존 케이지는 20세기 후반을 장식한 주요 음악가로서 초기에는 그의 작품이 도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점점 생활과 예술이 결합하게 되면서 현대생활 철학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음악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독창적인 음악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이차대전 후의 표현양식들인 « happening » 과 « performance » 또는 멀티미디어 설치 행위 등을 정착시킨 예술인으로도 평가된다. Merce Cunningham 이나 Robert Rauschenberg 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창조활동은 시각적 시와 조형예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나. 어문계열 전공 선택

• 음악

교육과정의 “음악문화상식”부분은 4대 주제로 구성되는데 각 주제학습은 음악 감상과 배경학습으로 이루어진다. 배경학습은 역사 및 지리 관련 다양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작품을 학습한다.

- 목소리, 글, 음악 :

- . Franz Schubert, « Winterreise » (« Le Voyage d'hiver »), D 911, extraits
- . « Gute Nacht » (« Bonne nuit »)
- . « Der Lindenbaum » (« Le tilleul »)
- . « Auf dem Flusse » (« Sur le fleuve »)
- . « Die Post » (« La poste »)
- . « Der Wegweiser » (« Le poteau indicateur »)
- . « Der Leiermann » (« Le joueur de vielle »)

N.B. 각 사이클은 총 24개 lieder 를 포함한다. 바카로레아 시험에서는 위의 하나 또는 여러 lieder 에서 뽑은 추출곡 관련 질문이 수험자에게 제시된다. 한편 각 사이클에서 작곡가의 창작과정과 작품의 전체적 미학 등의 일반지식도 필수적으로 학습한다.

- 음성의 조절: Edgard Varèse, « 사막 Déserts ».
- 대중음악과 고급음악: Aaron Copland, « Appalachian Spring ».
- 음악과 시대: Henry Purcell, « Music for the Funeral of Queen Mary »

• 연극

- 극 속의 연극: Pierre Corneille, « 코믹한 환상 L'Illusion comique ».
- Eschyle, « Agamemnon », éd. Pierre Judet de la Combe, trad. Ariane Mnouchkine, Paris, Théâtre du soleil, 1990-1992.
- Valère Novarina, « 알려지지 않은 행위 L'Acte inconnu » et « 그 말 앞에서 Devant

다. 전 계열 공통 자유선택

• 미술

- 스테인드글라스 예술

Saint-Étienne de Bourges 대성당의 18세기 스테인드글라스 예술작품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주제 및 기법 학습

- 공간 설치 및 장면 연출

Pierrick Sorin의 낭뜨시, 예술가들의 프로젝트

작가의 2000년도 작품인 26분짜리 비디오 학습, 작가가 다큐멘터리성 비디오는 예술적 관점에서 낭뜨시의 공공장소를 리모델링하는 가상의 신도시 재건축 프로젝트로서 작가 스스로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예술가들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예술가가 상상하는 도시 재건축 양상을 소개한다. 이 다큐멘터리 학습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공장소 창설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데 있다.

- 삼차원 작품과 공공장소

Giuseppe Penone 작품 « 알파벳 모음자 나무 : L'Arbre des voyelles », Pascale Cribier 협력, 파리 뿔리리 공원

2000년도 프랑스 문화부가 주문 제작한 청동으로 만든 30미터의 뿌리 뽑힌 나무 형상의 조각품으로서 작품의 이름은 유명한 천재시인 랭보의 시에서 딴 것이다. 과거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와 그 과거가 계절의 변화리듬에 맞추어 느리게 생성시키는 현재가 바로 “다섯 생체”, 즉 “다섯자 모음 A-E-I-O-U ”라는 상징적 작품이다.

• 예술사

- 예술의 국제화에서 예술의 세계화로

1세기 반부터 예술 활동과 예술적 사고의 유통과 만남이 국제화되었다. 이러한 국제화 현상은 오늘날 “예술의 세계화”속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제 국제적 예술 창작의 역학관계가 새로이 그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경제적, 문화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20세기 후반기의 예술적 표현을 대표하는 주요작품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음악

- Aaron Copland, « Fanfare for the common Man »
- Johann Sebastian Bach, « Mass in B minor », BWV 232, extraits
- . Symbolum Nicenum :
 - « Credo in unum Deum »,
 - « Patrem omnipotentem »,
 - « Et incarnatus est »,
 - « Crucifixus »,
 - « Et resurrexit »

바칼로레아 시험에서는 상기 5대 작품 중 한 곡의 비교 감상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상기 작품의 전체를 다 알아서 추출곡을 작품 전체에서 이해하면서 추출곡의 특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Marc-André Dalbavie, « Color ».

3. 2012년 적용 실업계 바칼로레아 외국어 지식 및 능력 평가 방안

가. 제1, 제2 외국어(LV 1 et LV2)의 비중 배점 (Coefficients)

- 제1외국어(LV1)
 - 생산학 (secteur de la production) 전공: 비중 2
 - 서비스학 (secteur des services): 비중 2, 단, 전공 « 요식업 Restauration »은 비중 3
- 제2외국어(LV2)
 - 서비스학 (secteur des services) 전공: 비중 2.

나. 제1, 제2 외국어(LV 1 et LV2)의 수행평가

(1) 수행평가의 일반 조직 및 규정

수행평가는 다음과 같은 유일한 평가방식을 따른다.

- 평가 능력: 길게 말할 수 있는 구두 표현능력, 구두 상호 반응능력, 쓰기 표현능력
- 외국어 능력 유럽공통지표 (CECRL) 중 기대 능력: 제1외국어는 B1+, 제2외국어는 B1
- 시험시간: 별도의 준비시간 없이 총 15분. 1부 및 2부 각각 최대 5분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 3부는 최대 5분으로 10점 만점으로 채점

이 수행평가는 실업계 바깥로레아 교육과정 중 6학기 째에 실시한다. 고사 일정은 학교장 또는 직업훈련원 경우는 직업양성소에서 관련교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관련교사는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험번호 리스트를 제안할 수 있다. 고사 일정이 수립되면 학교장과 직업양성소장은 각 수험생에게 고사 소환장을 발부한다.

평가는 관련 외국어 교사들이 담당한다. 평가교사 선정은 교사가 실제로 담당하는 학년수준과는 무관하며 다만 당해 연도에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없도록 조직해야 한다. 평가는 총 3부로 구성되며 평가시간은 각각 최대 5분씩이다. 이 수행평가에는 사전 준비시간이 없다. 그 상세 평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수행평가의 내용 구성

가) 1부 평가

1부는 수험생이 길게 연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구두 표현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수행평가는 수험생이 시험관에게 제출한 이 주제 목록과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험생은 자신이 학급에서 학습한 주제 3가지를 선정하여 학습 자료와 함께 시험관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학생이 수립한 자료는 담당교과 교사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 되어야 한다.

- 실업계 박 준비 학습과정 중 수험자가 수립한 학습계획이나 달성 한 것
- 학습 외국어 관련 수험자의 직업적 또는 개인적 경험
- 수험자가 학습하는 외국어가 상용되는 나라와 대륙의 일상 생활문화나 현대문화 또는 사적문화. 특정 작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문학, 회화, 음악, 건축, 영화 등), 산업디자인 작품이나 생산품 및 음식문화, 공예품 등을 소개할 수도 있으며, 특정 문화 행사 (예술, 스포츠, 정치, 역사 등)를 관련 외국어로 소개할 수 있다.

시험관은 목록 중에서 한 주제를 선택하여 수험자에게 소개할 것을 요청한다. 수험자는 최대 5분간 외국어로 그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도 수험자를 중단시켜서는 안되며 수험자가 끝까지 원하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나) 2부 평가

2부는 수험자가 외국어로 상호 반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부에서 수험자의 발표가 끝나면 시험관은 발표주제에 대해 수험자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시간은 최대 5분이며 시험관은 수험자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장질문을 하거나 보충설명이나 예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한다. 이 면담 동안에 수험자는 자신의 말하기 자세 및 순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3부 평가

3부는 수험자의 외국어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읽기

자료는 수험자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15줄 이하의 짧은 글을 토대로 한다. 이때 한 줄이라고 하면 띄어쓰기 공간을 포함하여 약 70자를 포함하는 길이를 말한다. 이때 도입 가능한 텍스트의 종류는 광고, 신문 기사나 문학 추출글, 전문직 서간, 일반안내문, 사용설명서 등이 될 수 있다. 텍스트의 장르는 정보글, 묘사글, 독백글 또는 논술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용으로 제작된 인위적 텍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상용되는 현실적 텍스트이어야 한다. 텍스트의 난이도는 외국어 능력 유럽공통지표 (CECRL) 중 수험자에게 해당하는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텍스트에는 그림이나 사진, 삽화, 만화 등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전문 영역 관련 글인 경우에는 전공영역을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 읽기 동안에 수험자는 어떠한 필기도 할 수 없다. 수험자가 텍스트를 읽고 난 후에 바로 시험관은 국어로 수험자의 읽기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을 시작한다. 질문의 순서는 일반적인 문제에서 특정한 내용의 질문 순서로 진행한다. 질문 수는 최소 4개 이상 최대 6개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관은 필요한 경우 수험자에게 텍스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리 내어 읽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관은 각 수험자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시험 대상 외국어의 성격에 따라 (즉 제1외국어인지 제2외국어인지) 그에 맞는 평가준거표를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이 평가준거표는 교육부의 복무명령서 (note de service)를 통해 공고된다. 수행평가가 끝나면 시험관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점수 및 서술평가 초안을 제안한다. 이 초안은 수험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다. 시험관은 1부에서 3부까지의 모든 시험자료 및 텍스트를 수거해야 한다. 실업계 바깥로레아 증서에 명시되는 외국어 성적은 이 수행평가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을 기록한다.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점수는 시험관장이 최종 확정한다.

다. 제1, 제2 외국어(LV 1 et LV2)의 지정 평가

이 지정 평가는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이나 일반 응시자용 외국어 구두평가로서 일반 시험처럼 일정을 정하여 일회 평가하는 시험이다.

(1) 지정평가의 일반 조직 및 규정

- 평가 능력: 길게 말할 수 있는 구두 표현능력, 구두 상호 반응능력, 쓰기 표현능력
- 외국어 능력 유럽공통지표 (CECRL) 중 기대능력: 제1외국어는 B1+, 제2외국어는 B1
- 수험시간: 총 시험시간 15분, 단 1부 시험에서는 준비시간 5분 추가해줌, 1부 및 2부 각각 최대 시험시간 5분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 3부는 최대 5분으로 10점 만점으로 채점

이 특정시험은 교육감이 조직하며 한 교사장에서 이루어진다. 수험생에게는 교사 소환장을 보낸다. 이 교사의 목표는 수험생의 외국어 구두 의사표현 능력과 상호반응 능력 및 읽기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3부로 구성되며 각각 최대 5분간 실행된다. 단 1부 시험에서만 준비시간 5분이 별도로 주어진다.

(2) 지정 평가의 내용 구성

가) 1부 평가

1부 시험은 수험자가 학습하지 않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텍스트는 광고이미지, 유머 데생, 사진, 미술작품 사진, 인용, 속담, 간단한 해학, 사회의 최근현황 관련 질문이나 사회현상 (수험자의 입장표명이 가능한 주제), 슬로건, 신문기사 제목 등이 될 수 있다. 수험생은 준비시간 5분 동안에 텍스트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수험자는 자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외국어로 5분 동안 구두로 발표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끝까지 원하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수험자가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도 수험자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 텍스트 도입 목적은 형식적인 코멘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험자의 자유투표 구두표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 2부 평가

2부는 수험자가 외국어로 상호 반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부에서 수험자의 발표를 토대로 시험관은 발표주제에 대해 수험자와 최대 5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질문은 수험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보다 확장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면담 동안에 수험자는 자신의 말하기 자세 및 순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3부 평가

3부는 수험자의 외국어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구두평가 자체는 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국어로 이루어진다. 읽기자료는 수험자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15줄 이하의 짧은 글을 토대로 한다. 한 줄이라고 하면 띄어쓰기 공간을 포함하여 약 70자를 포함하는 길이를 말한다. 도입 가능한 텍스트의 종류는 광고, 신문 기사나 문학 추출글, 전문직 서간, 일반안내문, 사용설명서 등이 될 수 있다. 텍스트의 장르는 정보글, 묘사글, 독백글, 대화글 또는 논술글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교육용으로 제작된 인위적 텍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상용되는 현실적 텍스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난이도는 외국어 능력 유럽공통지표 (CECRL) 중 수험자에게 해당하는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텍스트에는 그림이나 사진, 삽화, 만화 등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전문 영역 관련 글인 경우에는 전문영역을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 읽기 동안에 수험자는 어떠한 필기도 할 수 없다. 수험자가 텍스트를 읽고 난 후에 바로 시험관은 국어로 수험자의 읽기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을 시작하는데 질문의 순서는 학생의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문제에서 특정한 내용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질문 수는 최소 4개 이상 최대 6개 이하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관은 수험자에게 텍스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리 내어 읽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관은 각 수험자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시험 대상 외국어의 성격에 따라 (즉 제1외국어인지 제2외국어인지) 그에 맞는 평가준거표를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이 평가준거표는 교육부의 복무명령서 (note de service)를 통해 공고된다.

수행평가가 끝나면 시험관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점수 및 서술평가 초안을 제안한다. 이 초안은 수험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1부에서 3부까지의 모든 시험자료 및 텍스트를 전면 수거해야 한다. 수험자가 준비시간에 기록한 모든 자료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실업계 바칼로레아 증서에 명시되는 외국어 성적은 이 수행평가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을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점수는 시험관장이 최종 확정한다.

4. 실업계 바칼로레아 외국어 선택 시험 [preuve facultative de langue vivante] (10.5.27)

현행 프랑스 교육법에 의하면 실업계 바칼로레아의 선택 외국어는 다음과 같이 11개 지역어를 포함하여 총 46개어에 달한다.

독어, 암하리어, 영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캄보디아어, 베베르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덴마크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현대 그리스어, 현대 히브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라오스어, 말가시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시아어, 스웨덴어, 체코어, 터키어, 베트남어, 바스크어, 브르통어, 까팔랑어, 코르시카어, 크레올어, 갈로어, 옥시땅어, 타히티어, 알자스 지역어, 모젤란 지역어, 멜라네지아어, 프랑스 수화이다.

하지만 실제 시험은 해당외국어 관련 자격을 갖춘 시험관이 있는 아카데미만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을 통해 못을 박아 두었다. 그리고 수험자는 필수 외국어로 보는 외국어를 선택 외국어로 다시 볼 수 없다. 선택 외국어 및 불어 수화 시험의 정의는 시행령 부록1과 2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선택 외국어 관련 규정은 2011년 6월 시험부터 적용되고, 수화관련 규정은 올 2010년부터 먼저 적용된다.

가. 선택 외국어 시험

(1) 조직

이것은 구두시험으로서 총 15분간 실시되며 1부 시험에는 준비시간 5분이 별도로 주어진다. 1부와 2부의 시험 시간은 각각 5분으로서 총 20점 만점이다. 3부 역시 5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 10점 만점으로 계산된다.

외국어 능력 유럽공통지표 (CECRL) 중 기대능력은 B1+ 수준이다.

이 특정시험은 교육감이 조직하며 한 교사장에서 이루어진다. 수험생에게는 시험 소환장을 보낸다. 이 시험의 목표는 수험생의 외국어 구두 의사표현 능력과 상호반응 능력 및 읽기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3부로 구성되며 각각 최대 5분간 실행된다. 단 1부 시험에서만 준비시간 5분이 별도로 주어진다.

(2) 평가

가) 1부 평가

1부 시험은 수험자가 지속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시험관은 수험자가 배우지 않은 내용의 글을 제시한다. 텍스트는 광고이미지, 유머 데생, 사진,

미술작품 사진, 인용, 속담, 간단한 해학, 수험자의 입장표명이 가능한 사회의 최근현황이나 사회현상 관련 질문, 슬로건, 신문기사 제목 등이 될 수 있다. 수험생은 준비시간 5분 동안에 텍스트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수험자는 자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외국어로 5분 동안 구두로 발표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끝까지 원하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수험자가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도 수험자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텍스트 도입 목적은 형식적인 코멘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험자의 자유스런 구두표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 2부 평가

2부는 수험자가 외국어로 상호 반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부에서 수험자의 발표를 토대로 시험관은 발표주제에 대해 수험자와 최대 5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질문은 수험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보다 확장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면담 동안에 수험자는 자신의 말하기 자세 및 순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3부 평가

3부는 수험자의 외국어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구두평가 자체는 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국어로 이루어진다. 읽기자료는 수험자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15줄 이하의 짧은 글을 토대로 한다. 한 줄이라고 하면 띄어쓰기 공간을 포함하여 약 70자를 포함하는 길이를 말한다. 도입 가능한 텍스트의 종류는 광고, 신문 기사나 문학 추출글, 전문직 서간, 일반안내문, 사용설명서 등이 될 수 있다. 텍스트의 장르는 정보글, 묘사글, 독백글, 대화글 또는 논술글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교육용으로 제작된 인위적 텍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상용되는 현실적 텍스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난이도는 외국어 능력 유럽공통지표 (CECRL) 중 수험자에게 해당하는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텍스트에는 그림이나 사진, 삽화, 만화 등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전문 영역 관련 글인 경우에는 전공영역을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 읽기 동안에 수험자는 어떠한 필기도 할 수 없다. 수험자가 텍스트를 읽고 난 후에 바로 시험관은 국어로 수험자의 읽기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을 시작하는데 질문의 순서는 학생의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문제에서 특정한 내용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질문 수는 최소 4개 이상 최대 6개 이하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관은 수험자에게 텍스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리 내어 읽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관은 각 수험자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시험 대상 외국어의 성격에 따라 (즉 제1외국어인지 제2외국어인지) 그에 맞는 평가준거표를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이 평가준거표는 교육부의 복무명령서 (note de service)를 통해 공고된다. 수행평가가 끝나면 시험관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점수 및 서술평가 초안을 제안한다. 이 초안은 수험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다. 시험관은 수험자가 1부에서 3부까지의 모든 시험자료 및 텍스트를 전면 수거해야 한다. 수험자가 준비시간에 기록한 모든 자료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실업계 바칼로레아 증서에 명시되는 선택 외국어 성적은 이 수행평가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

한 평균점을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점수는 시험관장이 최종 확정한다.

나. 불어 수화 시험

(1) 조직

이것은 구두시험으로서 총 20분간 실시되며 준비시간 30분이 선행된다. 시험은 시험관이 갖고 온 자료에 의거하며 시험기간 동안 시험관과 수험자는 불어수화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별도로 주어진다. 1부와 2부의 시험 시간은 각각 5분으로서 총 20점 만점이다. 3부 역시 5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 10점 만점으로 계산된다.

외국어 능력 유럽공동지표 (CECRL) 중 기대능력은 B1+ 수준이다.

이 특정시험은 교육감이 조직하며 한 시험장에서 이루어진다. 수험생에게는 시험 소환장을 보낸다. 이 시험의 목표는 수험생의 외국어 구두 의사표현 능력과 상호반응 능력 및 읽기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3부로 구성되며 각각 최대 5분간 실행된다. 단 1부 시험에서만 준비시간 5분이 별도로 주어진다.

(2) 평가

30분간의 준비시간을 위하여 시험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텍스트를 제시한다.

- 현대 그림 자료
- 최대 총 2000자의 현대 불어 텍스트

시험 당일 시험관은 각 수험자에게 각각 다른 상기 두 종류의 텍스트를 제안해야 한다. 그러면 수험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하여 30분간 준비를 한다. 준비시간이 끝나면 수험자는 자신이 선택한 자료를 시험관의 중간 개입을 받지 않고 끝까지 소개한다. 이때의 소개는 형식적인 코멘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수험자의 발표 후에 시험관은 수험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시작한다. 가령 시험관은 수험자에게 한 관점을 분석해보라고 하거나 한 아이디어를 전개해보라고 요구한다.

(3) 평가지표

수험자는 상당한 어휘를 가지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할 것을 기대 받는다. 표현은 서술을 하거나 관점을 표명하거나 또는 논술 전개 등이 될 수 있다. 수험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자료소개 (시험기간: 5분, 10점 만점으로 채점)

- 주어진 자료를 소개할 수 있다.
(자료의 내용을 서술하기, 상황 또는 주어진 주제를 설명하기, 필요한 경우 개인적 견해 주기)
-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런 속도와 수준으로 분명하게 수화할 수 있다.

나) 질의응답 (시험기간: 25분, 10점 만점으로 채점)

주변 환경이나 사회현안 관련 질문 영역에서 상용하는 수화를 이해한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질문하기 등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응하여 반응하고 적절한 리듬으로 자신의 의사를 수화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관점을 표명하거나 논술 또는 반대 관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시험관이나 수험자는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5. 실업계 바깥로레아 외국어 필수 및 선택 시험 평가 방법 [Modalités d'évaluation des langues vivantes (épreuves obligatoires et épreuve facultative)] (10.5.27)

2010년 4월 8일자 시행령으로 외국어 필수 시험 평가요강이 발표되었다. 2012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한 동일일자 시행령을 통해 외국어 선택 시험 평가요강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1년부터 적용된다. [Annexe 1]은 제1외국어용 시험 평가요강으로서 수험생의 학교 재학 유무, 그리고 시험의 성격이 수행평가든 특정평가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Annexe 2]는 제2외국어용으로서 역시 [Annexe 1]과 같은 조건이다. [Annexe 3]은 자유선택 외국어 평가준거표로서 모든 외국어에 적용가능하다.

[Annexe 1]

제1외국어 말하기 수행평가 준거표

구두 평가 및 채점표	
수행평가 (재학생 및 준재학생 용) 지정평가 (비재학생용) 실업계박 - 제1외국어	
시험일자: 외국어: 수험자명: 출신학교명:	아카데미: 도시명 :
아래 4 난에 수험자의 능력수준을 명기하고 0점 (답을 안 썼거나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에서 6점 또는 8점 또는 10점까지 부여된 점수를 고려하여 수험자의 점수를 부여하시오.	

A. 연결해서 말하기	B. 대화참여하기	C. 언어적 재치 및 정확성	D. 쓰기자료의 이해도
수준 1 스테레오 타입의 짧은 표현을 한다. 말 중간에 끊김이 많고 실수도 많다.	수준 1 간단한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다. 하지만 반복과 달리표현하기가 대부분이다.	수준 1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	수준 1 단어 및 문장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
수준 2 선택한 주제나 자료를 가지고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수준 2 간단한 방식으로 대답하고 반응한다.	수준 2 제한적 어휘를 사용하고 실수도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표현을 한다.	수준 2 주요정보를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수준 3 선택한 주제나 자료를 가지고 문화나 직업 세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표현을 한다.	수준 3 대화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설명하거나 말을 고쳐서 표현할 줄 안다.	수준 3 문법 및 발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수준 3 주요요소 및 각 정보간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수준4 뉘앙스가 있고 정보가 뒷받침된 표현을 한다. 옳은 관점을 표현한다.	수준4 생동감 있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논술과 설득을 할 수 있다.	수준4 분명한 발음과 자연스런 억양으로 정확하게 유창한 언어를 구사한다.	수준4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다.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합		계	
점수 A () 점 / 6 연결해서 말하기	점수 B () 점 / 6 대화참여하기	점수 C () 점 / 8 언어적 재치 및 정확성	점수 D () 점 / 10 쓰기자료의 이해도
평가 : 학생점수/ 총점 (A+B+C+D) = ... / 30 점 만점 최종 점수 : ... / 20점 만점			

[Annexe 2]

제2외국어 말하기 수행평가 준거표

구두 평가 및 채점표	
수행평가 (재학생 및 준재학생 용) 지정평가 (비재학생용) 실업계박 - 제2외국어	
시험일자: 외국어: 수험자명: 출신학교명:	아카데미: 도시명 :
아래 4 난에 수험자의 능력수준을 명기하고 0점 (답을 안 썼거나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에서 6점 또는 8점 또는 10점까지 부여된 점수를 고려하여 수험자의 점수를 부여하시오.	

A. 연결해서 말하기	B. 대화참여하기	C. 언어적 재치 및 정확성	D. 쓰기자료의 이해도
수준 1 스테레오 타입의 짧은 표현을 한다. 말 중간에 끊김이 많고 실수도 많다.	수준 1 간단한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다. 하지만 반복과 달리표현하기가 대부분이다.	수준 1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	수준 1 단어 및 문장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
수준 2 선택한 주제나 자료를 가지고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수준 2 간단한 방식으로 대답하고 반응한다.	수준 2 제한적 어휘를 사용하고 실수도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표현을 한다.	수준 2 주요정보를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수준 3 선택한 주제나 자료를 가지고 문화나 직업 세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표현을 한다.	수준 3 대화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설명하거나 말을 고쳐서 표현할 줄 안다.	수준 3 문법 및 발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	수준 3 자료의 주요 의미 요소를 파악한다.
수준4 뉘앙스가 있고 정보가 뒷받침된 표현을 한다. 옳은 관점을 표현한다.	수준4 생동감 있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수준4 분명한 발음과 자연스런 억양으로 정확하게 유창한 언어를 구사한다.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수준4 정보의 몇몇 상세한 내용을 이해한다.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합 계			
점수 A () 점 / 6	점수 B () 점 / 6	점수 C () 점 / 8	점수 D () 점 / 10
연결해서 말하기	대화참여하기	언어적 재치 및 정확성	쓰기자료의 이해도
평가 : 학생점수/ 총점 (A+B+C+D) = ... / 30 점 만점			
최종 점수 : ... / 20점 만점			

[Annexe 3]

자유선택 말하기 수행평가 준거표

구두 평가 및 채점표	
실업계박 - 자유선택 외국어 말하기 시험	
시험일자:	아카데미:
외국어:	
수험자명:	
출신학교명:	도시명 :
아래 4 난에 수험자의 능력수준을 명기하고 0점 (답을 안 썼거나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에서 6점 또는 8점 또는 10점까지 부여된 점수를 고려하여 수험자의 점수를 부여하시오.	

A. 연결해서 말하기		B. 대화참여하기		C. 언어적 재치 및 정확성		D. 쓰기자료의 이해도	
수준 1		수준 1		수준 1		수준 1	
스테레오 타입의 짧은 표현을 한다. 말 중간에 끊김이 많고 실수도 많다.	1	간단한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다. 하지만 반복과 달리표현하기가 대부분이다.	1/2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	1/2	단어 및 문장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	1/2
수준 2		수준 2		수준 2		수준 2	
선택한 주제나 자료를 가지고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2/3	간단한 방식으로 대답하고 반응한다.	3	제한적 어휘를 사용하고 실수도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표현을 한다.	3/4	주요정보를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3/4
수준 3		수준 3		수준 3		수준 3	
선택한 주제나 자료를 가지고 문화나 직업 세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표현을 한다.	4/5	대화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설명하거나 말을 고쳐서 표현할 줄 안다.	4	문법 및 발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	5/6	자료의 주요 의미 요소를 파악한다.	5/6 / 7
수준4		수준4		수준4		수준4	
뉘앙스가 있고 정보가 뒷받침된 표현을 한다. 옳은 관점을 표현한다.	6	생동감 있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5/6	분명한 발음과 자연스런 억양으로 정확하게 유창한 언어를 구사한다.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7/8	정보의 몇몇 상세한 내용을 이해한다.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8 / 9 / 10
합		계					
점수 A () 점 / 6	/6	점수 B () 점 / 6	/6	점수 C () 점 / 8	/8	점수 D () 점 /10	/10
연결해서 말하기		대화참여하기		언어적 재치 및 정확성		쓰기자료의 이해도	
평가 : 학생점수/ 총점 (A+B+C+D) = ... /30 점 만점							
최종 점수 : ... /20점 만점							